ISSN 2734-1275

제2권 제1호
Vol. 2, No.1, Dec 2021

장애의 재해석연구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의 오른쪽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 혹은 스마트폰 어플(보이스아이)을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ISSN 2734-1275

제2권 제1호
Vol. 2, No.1, Dec 2021

장애의 재해석연구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한국장애인재단

KOR VOICEYE
voiceye.com

목 차

• **관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연구**
: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현나·문보은·이동렬 1

•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김선호·최유화 39

•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무환경**
: 경영학적 조직이론 분석과 질적 방법론 차원에서의 면담을 중심으로
남태광·이선호·이수철·정예은 61

•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장애관과 오감교육의 필요성**
: 영화 〈천국의 속삭임〉 중심으로
문초비 99

• **일과 여가를 바탕으로 살펴본 발달장애인의 삶**
: 그들을 가두는 투명상자의 본질
성소현·김가람 133

•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역대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과 차기 후보 공약 제언**
: 18, 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자료집을 중심으로
신우철·김은총·이종승 181

•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연구**
: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신준용·최재원 215

•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방안**
양수연·김정은·장도희·민재명 257

•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주는 주변환경의 변화**
오상택 295

•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동향 분석**
: 2011년~2021년 논문을 중심으로
윤혜정·황예림·윤수빈 327

• **고대 로마의 장애인 검토**
이진실 355

• **SNS 이모티콘 시장의 동등한 소비자로서 시각장애인**
: 사운드콘과 대체텍스트를 중심으로
임현우·강은교·김도현·유우연 383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뷰티종사자의 인식도조사**
최혜진·차혜옥·이두호 423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실태**
한규비 451

• **대안적 특수교육실천을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MATP)을 중심으로
황상현·정정환·배건환 491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1 - 37

관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연구
: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현나*·문보은·이동렬*****

본 연구는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변수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된 총 4개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관광만족은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만족의 3가지 차원으로, 장애수용은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으로 구성된 2가지 차원으로 분류했으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각각 단일차원으로 구성했다. 연구 분석을 위해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 불성실 설문을 제외한 225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은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만족은 장애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 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과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넷째 선천적 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호텔경영학과 석사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간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장애수용은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기여와 향후 무장애 관광 시장의 발전 방향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1. 연구문제

OECD 고소득회원국, IMF 선진 경제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내 선진국 승격 등 한국은 다양한 선진국 기준에 부합해오며 그 면모를 지켜오고 있다.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자국 내 해결되어야 할 과제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 '장애인 인권'은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해 한국의 다양한 인권문제가 명시되었으며, 특히 정신과 지적 장애인의 차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법 개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의 과반수가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54.0%)', '인권차별 정도가 심각하다(69.1%)'고 답했으며, 침해/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에서 장애인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의 장애 출현율은 5.39%로 OECD 국가 평균 장애 출현율인 15.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영국의 장애 출현율 21.1%, 미국 19.3%, 스웨덴 16.1% 등 선진국과도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김성희 외, 2018; 조윤화 외, 2020). 이는 국가마다 장애를 규정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적 장애'의 인정 유무이다. '사회적 장애'란 올바른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를 일컫는 용어로 실업, 노령, 심신장애 등 후천적 사고요인 혹은 빈곤, 차별,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이철수, 2009).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장애로써 인정하며 장애인들의 겪는 '불평등과 차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의 장애인 유형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2.3만 명으로, 2017년 대비 약 4.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법정 장애인만을 포함한 것으로, 사회적 장애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비중은 10%에 이를 것이다. 또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89% 차지하며, 특히 중·고령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현 사회에서 장애인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오승연 외, 2018)으로 예측된다.

2.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및 산업발달에 따라 각종 사고/재해, 질병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천적 장애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박준모 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출현율은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으며,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오승연 외, 2018)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장애의 유형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의 종류와 정의 역시 주로 '의학적 판정' 기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홍선기, 2021).

그러나 장애는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제약'이라는 시각에서 인식해, 이를 극복하는 데 국가적 개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의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석원, 정희정, 2008). 또한 장애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측 가능한 장애 역시 이에 포함된다(정정희, 2021). 즉 장애는 단순히 외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후천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내적(심리상태 : 우울증, 조울증 등) 요인과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관광 상품의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로서 관광활동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이봉구, 2013). 장애인에게 있어 관광, 즉 여행의 가치는 단순한 여가활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다운 삶, 인권 신장의 상징이자 비장애인과 기회의 평등성을 공유하는 것이다(맹성준, 김은경, 2018). 더불어 관광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성과 생활욕구(전영록·, 박상훈, 2009), 사회적 재활 치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만규 외, 2016)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교해 장애인의 인정 범위가 엄격한 편이며, 장애는 '소수의 사람'만이 갖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층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은 이들을 관광 활동의 주요 고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관광 시설과 복지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범위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인 관광'에 있어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질병, 사건/사고, 사회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가, 관광 등 문화 활동의 향유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신체적 불편함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역시 관광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를 통해 장애를 재해석하고 이를 새로이 고찰할 필요성

VOICEYE voiceye.com

이 제기되는 바이다.

장애인과 관련한 연구는 의학, 교육학, 심리학 등 특정 분야에서 벗어나 관광학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김기완, 김남조, 2020)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장애인 관광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의 관광행동(관광제약, 관광활동, 관광동기, 관광만족, 관광태도 등) 연구(전영록, 2012; 서헌, 2018; 김기완, 김남조, 2020), 관광시설/환경(접근성, 편의시설 등)에 관한 연구(이봉구, 2008; 임지은, 이형룡, 2014)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미영, 양성수, 2020).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는 장애인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이를 고찰하고 있으며, '관광의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 이뤄진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이경찬, 김남조, 2016).

또한, 후천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삶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선천적 장애인보다 상대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 측면에서도 이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며(박영아, 김태준, 2010; 신은희, 오우미겐타로우, 2012; 김혜미, 2016; 맹성준, 김은경, 2018), 이들 간의 집단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연구 목적

기존 선행연구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개념과 정의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관한 연구로써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를 구분해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간의 연구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찰함으로써 이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유형을 크게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천적 장애인은 '출생과 동시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라 정의 내렸다. 다음으로 후천적 장애인은 '출생 이후 후천적인 환경,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 요소의 장애를 갖게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비장애인 또한 훗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후천적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의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관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변수의 정의를 개념화한다. 둘째 실증분석 과정을 거쳐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각각 변수에 있어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간의 집단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기여와 향후 무장애 관광 시장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관광만족

현대사회에서의 관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여가활동(Hobson & Dietrich, 1994; 지명원, 조태영, 2012)이자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경찬, 김남조, 2016) 중 하나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기계발, 자아실현, 건강 유지(증진) 등에 효과적으로 기여되며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et al., 2015; 박슬기, 조인환, 2017).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 사회 적응 능력 등을 향상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이명철, 2012; 고미영, 양성수, 2020). 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통한 만족, 즉 관광만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선행연구에서는 관광만족이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써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명철과 강인호(2012)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과 삶의 질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규명했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은 삶의 질 유형(자아존중감, 자아성취감,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리상(2020)은 장애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여행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각각의 변수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는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과 여행 만족도 향상이 요구될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박상훈(2010)은 지체장애인의 관광만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자기실현성과 심리적 안정성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광만족과 자발성과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사회성의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규명했으며, 이들을 위한 복지관광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초연구를 제공했다.

VOICEYE
voiceye.com

2. 장애수용

장애수용(Acceptance of disability)은 '상실에 대한 수용'이라고도 하며, 장애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상실감이 본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Marinelli & Dell Orto, 1984; 정승원, 2012)를 일컫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장애 극복이나 자기정체성과의 통합'으로 주로 설명되며(Livneh, 2001;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의 적응/순응/수용 정도 등 '자신의 장애를 가치 저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승원, 2012). 또한 장애수용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예측하는 변수(조금분, 2018)로, 심리 사회적 적응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Albrecht & Devlieger, 1999; 박자경, 김종진 2009; 박자경, 엄명용, 2009; 정승원, 2012; 고관우, 황경수, 2014)임을 확인했다.

이무숙과 정대영(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식과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즉 긍정적인 장애인식은 장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자경과 김종진(2009)은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신체적(신체상태), 심리적(장애수용), 사회적(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사회경제적 요인(사회경제적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변수 요인 중 '장애수용'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 장애수용, 사회참여 중에서 장애수용이 주관적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곧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장애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일수록 이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며 이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만, 후천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오다 갑작스럽게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적응적 어려움을 겪는다(양혜린 외, 2017). Alfano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장애발생시기가 이를수록 장애수용 및 적응이 용이하다는 결과를 밝혔는데, 이는 곧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려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곧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간의 장애수용은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해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의 장애수용 차이 유무를 검증하고 각 변수 간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수용/거부하는 주관적인 평가이자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판단)'로 정의되고 있다(Rosenberg, 1979; 정승원, 2014). 이는 크게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류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 스스로의 능력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잘 수용해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낀다(이상훈, 최성준, 2018). 때문에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성취감을 높게 지각하며 잠재적 지도력과 사회적 기술, 실용적 지식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윤성욱, 권연숙, 2015).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의존, 실패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우울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Reasoner & Dusa, 1991; Shahar & Davidson, 2003).

한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 결과를 설명하고 예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재적 변인이자(Plummer, 2001) 인간의 행동, 적응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선행변수 또는 결과변수로써 활용되고 있다(장덕희, 임승희, 2021). 오윤진과 이순민(2017)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적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긍정적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장애수용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에 따라 긍정적 장애수용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결과변수로, 생활만족에서는 선행변수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윤춘모와 박재학(2020)은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우울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우울이 사회적지지-삶의 만족을 매개할 때 자아존중감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노인이 지각하는 우울은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완충작용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장애인 삶의 만족에 기여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결과로써 제시했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본인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만족의 수준(백림정, 한진수, 2017),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신승배, 2017)이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Diener, 1984)'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녕감(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만족, 행복감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개념화되고(전명숙, 2018) 있으나 삶의 질은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보

VOICEYE voiceye.com

다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형수, 김용섭, 2011; 김성원, 2015).

삶과 관련한 모든 요인에 의해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상이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객관적인 조건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주관적/정서적 견해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Diener, 1984; Diener, E & Diener, M, 1995; 김정운, 이장주, 2005; 박자경, 김종진, 2009; 신승배, 2017).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들이 지각하는 삶의 주관적/인지적 평가가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달엽, 2014). 더불어 장애인 역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사회적 참여, 여가·문화생활의 향유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각한 긍정적 정서, 만족의 정도는 곧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장애인의 주체적 활동은 곧 개인의 삶의 질과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박자경, 김종진, 2009; 신승배, 2017)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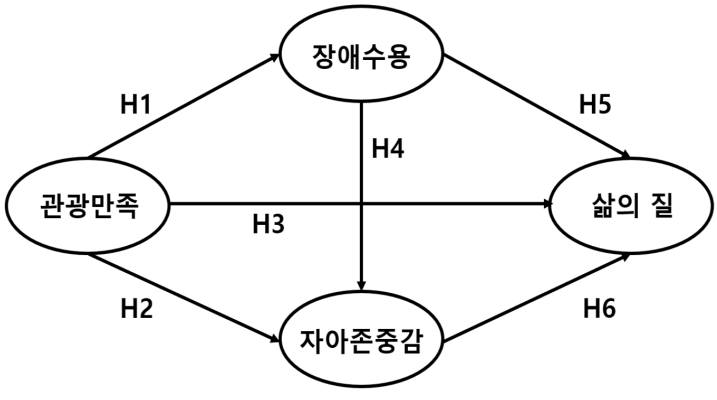
배만규와 박상훈(2008)은 청각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이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관광활동 만족은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각각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삶의 질(자아존중, 자아성취, 대인관계)은 행위의도(활동추천)와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관광활동의 만족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사하였다.

신승배(2017)는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삶의 영역별 만족도(5점 만점)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3.89점)가 가장 높았으며, 친구 관계(3.65점) > 거주지(3.59점) > 하는 일(3.41점) > 건강(3.09점) > 여가활동(3.08점) > 수입(2.86점)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삶의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도-삶의 질 간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한 결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으며, 수입 > 가족 > 거주지 > 건강 > 친구관계 > 여가활동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요인의 충족보다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일을 통한 성취감이 삶의 질에 더 높은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연구는 각 삶의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도-장애인의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명철과 강인호(2012)는 장애인의 관광만족이 삶의 질(자아존중감, 자아성취감, 대인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리상(2020)의 연구에서는 여행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배만규와 박상훈(2008)의 연구 또한 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이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만족은 개인의 내면(심리적 상태)과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즉 장애수용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1, 2, 3을 설정하였다.

H1: 장애인의 관광만족은 장애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장애인의 관광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장애인의 관광만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이무숙과 정대영(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식-장애수용, 장애수용-삶의 질 간의 관계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윤진과 이순민(2017)은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장애수용-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생활만족 간의 관계는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 4, 5, 6을 설정하였다.

H4: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인 또한 관광의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광만족을 다루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의 집단 차이를 밝혀내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는 이들 간의 차이 유무를 검증하고자 한다. Alfano et al.(1993)는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장애수용 및 적응의 영향 관계를 파악했는데, 장애발생시기가 이를수록 장애수용과 적응이 용이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본래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일수록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곧 개인이 지각하는 내면적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에 가치를 판단하는 자아존중감,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평가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 변수에 대해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7을 설정하였다.

H7: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대해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된 총 4개의 변수를 각각 측정하고자 했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만족은 '관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오는 만족의 정도(크기)'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상훈(2010), 배만규와 박상훈(2008), 이명철(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항목의 문항을 수정·보완했으며, 총 12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둘째 장애수용은 '장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로 정의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수용 지표'를 활용했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

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정의했다. 지명원과 조태영(2012)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이하: RSES)를 바탕으로 여가/관광 분야에 맞게 수정·보완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관광만족-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자 해당 연구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로 정의했으며, 배만규와 박상훈(2008), 이명철(2012), 백림정과 한진수(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4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주요 변수를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표본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SNS) 공유 설문을 통하여 표본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2021년 09월 09일~10월 17일까지(39일간) 진행되었다. 분석 도구는 WIN SPSS 25.0 버전을 활용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요인분석 진행 후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해 이를 검증했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검증을 진행해 연구 가설 채택 유무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으로 활용한 유효 표본 수는 225개이며, 표본의 관광이용행태 및 장애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관광이용행태의 경우 연평균관광횟수 '2회~4회(122명, 54.2%)', 평균관광기간 '1박~2박(113명, 50.2%)', 관광 목적으로 '즐거움·흥미·재미(95명, 42.2%)'를 추구하는 비중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 유형은 사회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192명, 85.3%)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했다. 장애 정도와 장애판정 시기는 각각 '장애 없음(115명, 51.1%)', '해당 사항 없음(117명, 52.0%)'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유효 표본에서 절반 정도만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관광이용행태 및 장애특성

구분		n(%)	구분		n(%)
연평균 관광 횟수	0회~1회	47(20.9)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14.7)
	2회~4회	122(54.2)		후천적 장애인	192(85.3)
	5회~9회	36(16.0)	장애 정도	중증	72(32.0)
	10회 이상	20(8.9)		경증	31(13.8)
평균 관광 기간	당일치기	78(34.7)	장애 판정 시기	장애등급 미판정	7(3.1)
	1박~2박	113(50.2)		장애 없음	115(51.1)
	3박~4박	28(12.4)		장애 발생 직후	25(11.1)
	5박 이상	6(2.7)		장애 발생 후 5년 이내	31(13.8)
관광 유형	레저 및 체험 관광	33(14.7)		장애 발생 후 10년 이내	13(5.8)
	유흥 및 쇼핑 관광	18(8.0)		장애 발생 후 15년 이내	12(5.3)
	휴양 및 경관 관광	155(68.9)		장애 발생 후 20년 이내	10(4.4)
	교육 및 역사 관광	13(5.8)		장애 발생 후 21년 이후	17(7.6)
	이벤트 관광	6(2.7)		해당 사항 없음	117(52.0)
관광 목적	경험 위주	26(11.6)			
	삶의 일탈 및 자아성찰	69(30.7)			
	친목 위주	26(11.6)			
	교육 문화 위주	9(4.0)			
	즐거움, 흥미, 재미 추구	95(42.2)			

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관광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로 산출했다. 타당도 분석은 요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를 회전시키는 베리멕스(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했으며,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 전

체표본적합도(이하: Kaiser-Meyer-Olkin,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확인했다. 관광만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항목 중 요인 적재량이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했으며, 총 8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77.52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855, 각각 차원의 신뢰도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844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859.070 (df=28, p=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관광만족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2〉 관광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정서적 만족	관광(여행)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865	3.027	37.834	.890
	나는 관광(여행)활동을 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꼈다.	.856			
	관광(여행)활동은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해준다.	.815			
	관광(여행)활동은 나에게 가치있는 경험이다.	.803			
심리적 만족	관광(여행)활동은 내 자신을 알게 해준다.	.863	1.647	20.594	.708
	관광(여행)활동을 통한 경험은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한다.	.745			
신체적 만족	관광(여행)활동은 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904	1.527	19.093	.673
	관광(여행)활동은 나의 건강을 지켜준다.	.681			
총분산 설명력: 77.520, KMO = .844,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859.070, df = 28 (p 〈 .000)					

2) 장애수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장애수용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항목 중 요인 적재량이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했으며, 총 7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산 설명력은 67.50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618, 각각 차원의 신뢰도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824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562.849 (df=21, p=0.000)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장애수용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VOICEYE
voiceye.com

〈표 3〉 장애수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장애 극복 의지	나는 나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산다.(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나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살 것이다.)	.811	3.097	44.244	.853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내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낼 것이다.)	.800			
	나는 장애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771			
	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763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760			
장애 인식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내가 장애를 가진다면 장애는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872	1.629	23.265	.639
	나는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내가 장애를 가진다면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할 것이다.)	.802			
총분산 설명력: 67.509, KMO = .824,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562.849, df = 21 (p 〈 .000)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항목은 요인 적재량 0.4 이상으로 확인돼 총 4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산 설명력은 68.543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847로 확인돼 모든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797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387.681 (df=6, p=0.000)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자아존중감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자아 존중감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888	2.742	68.543	.84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59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27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728			
총분산 설명력: 68.543, KMO = .797,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387.681, df = 6 (p 〈 .000)					

4)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삶의 질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항목은 요인 적재량 0.4 이상으로 확인돼 총 4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산 설명력은 63.184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803으로 확인돼 모든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785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279.339 (df=6, p=0.000)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삶의 질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5〉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삶의 질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837	2.527	63.184	.80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03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0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735			
총분산 설명력: 63.184, KMO = .785,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279.339, df = 6 (p 〈 .000)					

VOICEYE
voiceye.com

3. 가설검증

1)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간의 영향 관계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우선 관광만족과 장애극복의지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회귀식의 F값은 7.502, 수정된 R^2은 0.080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만이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광만족과 장애인식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회귀식의 F값은 239.574, 수정된 R^2은 0.762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이 장애수용(장애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관광만족과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721	.375		4.593	.000			
정서적 만족	.097	.093	.077	1.043	.298	.747	1.339	부분 채택
심리적 만족	.063	.090	.057	.699	.485	.617	1.622	
신체적 만족	.239	.084	.225	2.855	.005*	.662	1.510	
종속변수: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R^2 = .092, Ad. R^2 = .080, F = 7.502(df = 3, *p = 0.000)								

*p 〈 0.05 **p 〈 0.001

〈표 7〉 관광만족과 장애수용(장애인식)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516	.152		3.406	.001			
정서적 만족	.217	.038	.217	5.756	.000**	.747	1.339	부분 채택
심리적 만족	.051	.036	.059	1.417	.158	.617	1.622	
신체적 만족	.613	.034	.725	18.097	.000**	.662	1.510	
종속변수: 장애수용(장애인식), R^2 = .765, Ad. R^2 = .762, F = 239.574(df = 3, *p = 0.000)								

*p 〈 0.05 **p 〈 0.001

2) 관광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관광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식의 F값은 17.445, 수정된 R^2은 0.180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관광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523	.317		4.806	.000			부분 채택
정서적 만족	.236	.079	.209	2.991	.003*	.747	1.339	
심리적 만족	.228	.076	.232	3.010	.003*	.617	1.622	
신체적 만족	.088	.071	.092	1.239	.217	.662	1.510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R^2 = .191, Ad. R^2 = .180, F = 17.445(df = 3, *p = 0.000)								

*p 〈 0.05 **p 〈 0.001

3) 관광만족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관광만족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식의 F값은 8.525, 수정된 R^2은 0.092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만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관광만족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2.082	.324		6.434	.000			부분 채택
정서적 만족	.215	.081	.197	2.675	.008*	.747	1.339	
심리적 만족	.090	.077	.094	1.164	.246	.617	1.622	
신체적 만족	.096	.072	.104	1.326	.186	.662	1.510	
종속변수: 삶의 질, R^2 = .104, Ad. R^2 = .092, F = 8.525(df = 3, *p = 0.000)								

*p 〈 0.05 **p 〈 0.001

VOICEYE
KOR
voiceye.com

4)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식의 F값은 50.113, 수정된 R^2은 0.305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508	.260		5.809	.000			
장애극복의지	.408	.053	.455	7.711	.000**	.891	1.122	채택
장애인식	.232	.067	.206	3.484	.001*	.891	1.122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R^2 = .311, Ad. R^2 = .305, F = 50.113(df = 2, *p = 0.000)								

*p 〈 0.05 **p 〈 0.001

5) 장애수용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장애수용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귀식의 F값은 40.720, 수정된 R^2은 0.262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장애수용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815	.259		6.997	.000			
장애극복의지	.393	.053	.453	7.443	.000**	.891	1.122	채택
장애인식	.157	.066	.144	2.362	.019*	.891	1.122	
종속변수: 삶의 질, R^2 = .268, Ad. R^2 = .262, F = 40.720(df = 2, *p = 0.000)								

*p 〈 0.05 **p 〈 0.001

6)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회귀식의 F값은 309.180, 수정된 R^2은 0.579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943	.160		5.907	.000			채택
자아존중감	.739	.042	.762	17.584	.000**	1.000	1.000	
종속변수: 삶의 질, R^2 = .581, Ad. R^2 = .579, F = 309.180(df = 1, *p = 0.000)								

*p 〈 0.05 **p 〈 0.001

7) 장애 유형 간의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차이 분석

추가로 본 연구는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진행했다. 각각의 분석 결과는 〈표 13〉, 〈표 14〉, 〈표 15〉, 〈표 16〉과 같다. 우선 관광만족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관광만족 요인 중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t=2.250, p=0.025)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으로 선천적 장애인의 평균값(M=3.879)이 후천적 장애인(M=3.52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수용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수용 요인 모두 선천적 장애인의 평균값(M1=3.533, M2=4.090)이 후천적 장애인(M1=3.179, M2=3.789)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장애극복의지 t=2.139, p=0.034/장애인식 t=2.297, p=0.023)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수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각 모두 후천적 장애인의 평균(M1=3.725, M2=3.699)이 선천적 장애인(M1=3.643, M2=3.6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VOICEYE
voiceye.com

〈표 13〉 장애 유형에 따른 관광만족 차이 분석

구 분		관광만족 점수(정서적 만족)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4.219	.6868	-.444	.658	부분 채택
	후천적 장애인	192	4.278	.7083			
구 분		관광만족 점수(심리적 만족)			t-value	p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909	.8427	.719	.473	
	후천적 장애인	192	3.799	.8026			
구 분		관광만족 점수(신체적 만족)			t-value	p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879	.6735	2.250	.025*	
	후천적 장애인	192	3.529	.8488			

*p 〈 0.05 **p 〈 0.001

〈표 14〉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수용 차이 분석

구 분		장애극복의지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533	.8210	2.139	.034*	채택
	후천적 장애인	192	3.179	.8880			
구 분		장애인식			t-value	p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4.090	.5923	2.297	.023*	
	후천적 장애인	192	3.789	.7134			

*p 〈 0.05 **p 〈 0.001

〈표 15〉 장애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구 분		자아존중감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643	.8432	-.517	.608	기각
	후천적 장애인	192	3.725	.7862			

*p 〈 0.05 **p 〈 0.001

〈표 16〉 장애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분석

구 분		삶의 질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621	.9982	-.430	.670	기각
	후천적 장애인	192	3.699	.7256			

*p 〈 0.05 **p 〈 0.00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을 통한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온라인 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문을 진행했다. 최종으로 확보된 유효 표본은 총 225개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가설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향후 관광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무장애 관광 시장 방향성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만이 장애극복의지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식의 경우 정서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을 통한 장애수용은 일련의 자아성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아성찰이란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써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즉, 일상에서 벗어난 관광 활동을 통해 내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장애 극복 의지로 이어진다.

장애극복의지는 '장애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내적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장애수용 요인 중 장애극복의지가 장애인식보다 상위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시 장애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태도의 경우 장애를 지니고 있어도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장애를 거부 또는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관광 활동을 통한 장애극복의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상실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한계를 둔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장애를 수용하는 자아성찰의 최종 단계를 위한 것이다.

자아성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얻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서적 만족'은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안정감 등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관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관광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불편함, 관광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광경험에 있어 부정적인 정서를 겪게 되면 이는 기대 이하의 만족

VOICEYE
voiceye.com

감, 즉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장애인식' 요인과는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으며, 불만족스러운 관광경험은 변수가 되어 '장애극복의지' 요인에 있어서 정서적 만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심리적 만족의 경우 관광만족-장애수용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 모두 기각되었다. 심리적 만족은 개인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아성찰'의 마지막 단계와 관련성이 있다. 즉 심리적 만족은 '장애라는 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심리적 위축을 극복한 상태'로, 장애인식과 장애극복의지의 상위 단계이다. 이에 따라 관광만족 중 심리적 만족은 장애수용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관광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부분적으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자아존중감의 경우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질은 정서적 만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활동 참여, 성취감 등과 같은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공통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장애인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본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취감의 욕구도 크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더라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관광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느낄 것이며, 이는 곧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만족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만족 중 정서적 요인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주관적 만족인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만족의 경우 삶의 질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이라는 여가활동이 자아성찰의 수단으로써 작용할 뿐,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아성찰은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변화의 의지를 갖는 것까지만 영향을 끼칠 뿐, 그 이상의 단계는 앞서 언급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달리 말해 관광을 통해 얻는 새로운 경험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기에, 삶의 질에 있어서 심리적 만족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장애인이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본인의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확장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넓은 범위의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여 심리적 만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삶의 질 간의 관계 또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 각각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다(오윤진, 이순민, 2017; 윤춘모, 박재학, 2020; 이무숙·정대영, 2020)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장애인은 장애를 통해 신체적 및 정신적 상실을 얻게 된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상실은 신체적 상실의 불편함을 넘어서 기존 삶에 대한 상실까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위축을 야기해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은 본인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즉 장애수용(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와 더불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밝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곧 장애수용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즉 장애수용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본인에 대한 믿음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식과 문제 해결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될 것이다.

넷째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다. 우선 관광만족의 경우 신체적 만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선천적 장애인 집단이 후천적 장애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보다 신체적 측면에서 관광만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달리 후천적 장애인은 과거 비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경험해 왔을 것이다. 때문에 장애 발생 이전에 경험한 관광활동이 장애 발생 이후의 관광활동보다 더 만족스러웠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 측면에서의 만족은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애수용의 경우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수용도 마찬가지로 각각 요인의 평균 비교에서 선천적 장애인 집단이 후천적 장애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는 장애발생시기가 이를수록 장애수용(적응)이 용이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후천적 장애인의 70% 이상은 장애를 수용하는 데 최소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박재현, 황경열, 2015), 이는 장애를 인정하고 등록한 후 재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장애수용 과정으로 보았을 때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VOICEYE
voiceye.com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비교적 낮고 필요 기간 또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는 '장애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은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자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이들의 장애수용(력)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는 장애인 관광제약, 관광지 시설(환경) 및 접근성, 관광정책 등 장애인을 '복지 대상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또한 관광 참여 욕구가 강한 소비자(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을 관광 주체로 바라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밖에 시대적 상황을 통해 해당 연구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복지 및 여가 활동의 개념을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더 나아가 최근 '힐링'이라는 트렌드가 더해져 건강 회복 및 정신적 치유를 위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즉, 현 시대적 특징에 맞춰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및 힐링' 관광은 본 연구에서 검증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주요 소비 타겟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이에 본 연구는 관광학 분야의 장애인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에 기여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 범주에서 사회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즉 비장애인을 장애인 범주에 모두 포함하고 이를 새로이 고찰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장애의 범위를 재해석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의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후속연구 필요성에 따라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관광은 대중화를 넘어서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복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관광 향유는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한편 후천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후천적 장애인'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장애를 인정한 OECD 장애 출현율과 비교할 시

한국에서의 장애 범주를 사회적 장애까지 확장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기업의 관광수요 주 타겟층으로 보는 일반인은 훗날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기업은 관광 타겟층의 범위를 재고찰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장애인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의제로 '무장애 관광(Barrier Free Touris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을 포함해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하기 편리하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관광(허병선, 윤지민, 2021)'을 일컫는 것으로, 세계는 장애인 관광을 복지 차원에서 더 나아가 '잠재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이미 관광시장에 있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잠재적 소비자(수요자)로 간주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하에 접근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추진했다. 그리고 이는 무장애 관광 여행사 9만 개, 관광상품 15만 개, 그리고 그를 통한 830조 유로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YTN, 2019).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2015년부터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서울시는 2017년 8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통해 5년간 152억을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밖에 '민간 건축물의 확대', 'BF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무장애 관광사업을 도입해 관광 인프라 조성에 힘을 쓰고 있으나, 현재 지역별 사업 규모의 크기 차이를 포함한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2021년 3월 기준 시도별 무장애인증시설에서 서울 809건, 경기도 1,466건, 부산 296건, 광주 175건 등으로 최하위 도시 대전과 최상위 도시 경기도와의 차이는 약 10배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자료에서는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 숙박시설 100개소 중 49%가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이 없었으며, 설치된 시설 중 40% 이상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무장애 관광 정보 수집이 다소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관광지 및 편의시설 등 무장애 관광 지도를 제공하여 관광정보 검색이 용이하지만(여행스케치, 2018; 서울연구원, 2019) 한국의 경우 지역별 관광 연계 정보 및 교통수단 정보가 부재하여 여행 정보 접근이 다소 불편하다.

이밖에 인적 자원의 측면에 바라보았을 때, 더욱 적극적인 무장애 관광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투어'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티티엘뉴스, 2021),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 여행 지원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호텔앤레스토랑, 2021).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쓰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및

VOICEYE
voiceye.com

개별 지자체 간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서울연구원, 2018).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언급한 문제점 개선은 한국 무장 관광 인프라 조성 발전에 기여히여 개인과 기업,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관광 인프라 조성은 장애인에게 '관광 소비자'로서 관광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개선된 관광 환경으로 인해 향상된 관광 만족은 이들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 측면에서 국가에서 조성한 관광 인프라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력비 등 사업 운영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약자로 수요 타켓층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고객 유치(이탈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규 고객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미래 관광산업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단순히 국민 복지를 넘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이미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장애인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 장애인을 재활 및 복지 위주의 관점이 아닌 소비 주체자로 고찰한 점에서 장애를 재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현 관광 산업이 미래 주요 소비계층을 뉴 시니어 시대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 시장 내에 장애인을 주요 소비자로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잠재 가치, 더불어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미래 관광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시사점이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유효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관광이용행태와 장애특성으로 각각 나눠 살펴보았으며, 변수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변수별로 확인했다. 그러나 단일화된 분석 기법을 적용해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는 이를 고려해 보다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나, 관광의 범위와 관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는 관광활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면서 시기적으로 느끼는 관광만족 및 심리적 요인은 다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이전/이후를 기점으로 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차후 연구가 이뤄진다면, 실무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관광 상품 개발과 향후 장애인 수요층을 고려한 관광시장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장애와 관련한 관광학 연구 발전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8. 03. 05.). “3년 뒤 저상버스 40%, ‘배리어프리’ 민간건물로 확대”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803051612001.

고관우, 황경수. (2014).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만족도가 장애수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1963-1970.

고미영, 양성수. (2020). 국내학술지 장애인 관광에 대한 연구동향 내용분석. 관광연구논총, 32(4), 83-102.

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13.).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https://www.humanrights.go.kr.

김계원, 정광조,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만성정신장애인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43-57.

김기완, 김남조. (2020).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체장애인의 관광행동 분석. 관광학연구, 44(8), 177-199.

김성원. (2015).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성희, 이동석, 오욱찬, 변경희, 정희경, 김용진, 이민경. (2018).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2.

김정운, 이장주. (2005).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1-15.

김하경. (2002). 지체부자유학생의 장애수용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0, 23-38.

김형수, 김용섭. (2011).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355-379.

김혜미. (2016). 노인주거정책에 대하여. 사회과학연구, 9, 117.

동아닷컴. (2019. 04. 05.). 마디팔리 “장애인 관광시장 20조원… 서울 잠재력 커”,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190405/94903155/1.

맹성준, 김은경. (2018). 후천적 장애인의 장애수용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중독과 복지, 2(1), 87-102.

문상정. (2016). 지체장애인에게 문화관광의 가치는 무엇인가?. 관광경영연구, 20(2), 1-29.

문용, 김기영, 윤형기. (2000).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스포츠사회화 주관자, 장애특성, 및 생활체육 참여 간의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39(1), 791-807.

문화체육관광부. (2020. 06. 30.). 2019년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https://know.tour.go.kr.

문화체육관광부. (2021. 05. 18.).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https://www.mcst.go.kr.

미디어생활. (2020. 04. 27.). "장애인들도 여행 가고 싶다",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7.

박상훈. (2010). 지체장애인의 관광만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2(5), 517-534.

박슬기, 조인환. (2017). 회복탄력성의 선행 요인으로서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6(6), 175-189.

박영아, 김태준. (2010).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7(1), 61-77.

박자경, 김종진. (2009).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분석. 재활복지, 13(1), 163-186.

박자경, 엄명용. (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장애수용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3(4), 1-23.

박재현, 황경열. (2015). 척수장애인의 심리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205-225.

박준모, 김옥규, 김상길, 최정현. (2009). 공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6), 99-106.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보건복지부. (2020. 04. 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http://www.mohw.go.kr.

배만규, 박상훈. (2008). 청각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이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3(3), 185-205.

백림정, 한진수. (2017). 힐링관광에서의 고객체험이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6(3), 1-17.

서울신문. (2018. 04. 24.). "'장애' 없는 서울 관광 떠나볼까요",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425017006&refer=#csidx4884c2ecf2db37f8454

039e16a7aad4.

서울연구원. (2018. 02. 27.). “장애인 관광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정보네트워크 구축 필요”, https://www.si.re.kr/node/58942.

서울연구원. (2019. 03. 06.). “신성장동력 ‘베리어 프리’ 관광 활성화 추진(독일 베를린市)”, https://www.si.re.kr/node/61553.

서헌. (2018). 장애인관광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30(9), 157-170.

신승배. (2017).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4), 1043-1067.

신은희, 오우미겐타로우. (2012). 선천적 시각 장애인에 있어서의 색채어휘의 특징과 관계성. 2012년도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13-14). 한국감성과학회, 서울.

아주경제. (2017. 11. 30.).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선포] 서울 구석구석, 그들의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https://www.ajunews.com/view/20171130100752067.

양혜린, 고윤정, 박연미, 이혜란. (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7(3), 89-112.

여행스케치. (2018. 04. 24.). “서울 무장애 관광, 여행 준비부터 ‘난감’…관련 정보 얻기 어려워”, http://www.ktske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

여행신문. (2021. 01. 06.). “모두에게 여행을, 무장애 관광 코디네이터 모집”,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24.

오승연, 김석영, 이선주. (201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8(8), 1-104.

오윤진, 이순민. (2017). 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간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3(3), 103-123.

윤성욱, 권연숙. (2015).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을 융합적으로 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91-98.

윤지영. (2021). 부산, 무장애(Barrier-Free) 도시로 전환 시급. BDI 정책포커스, 394, 1-12.

윤춘모, 박재학. (2020).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지지,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5(1), 35-64.

이경찬, 김남조. (2016).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관광심리 및 행동 과정에 대한 모델 비교 연구 -개인가치,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원 및 관광행동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

광학연구, 40(3), 35-53.

이달엽. (2014). 장애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패널 중심의 세 집단 비교. 장애와 고용, 24(3), 99-122.

이량석. (2019). 나 홀로 여행이 자아성찰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1(9), 235-253.

이명철. (2012). 지체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 삶의 질, 행동의도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이명철, 강인호. (2012). 지체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7(2), 369-392.

이명희, 유용권. (2010). 원예치료가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사회 심리 정서적 행동특성 및 손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3(5), 9-16.

이무숙, 정대영. (2020). 특성화고등학교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장애인권감수성 및 장애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1059-1077.

이봉구. (2008). 관광 관련 제약요인이 장애인의 관광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eligman의 무력감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2(2), 39-59.

이봉구. (2013). 장애인관광시장과 동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나라 여행업 종사원의 인식. 호텔경영학연구, 22(3), 299-316.

이상준, 안수영. (2011).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1(3), 239-266.

이상훈, 최성준. (2018). 농촌관광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가족유대감의 관계 - PLS-SEM 분석 활용 -. 관광학연구, 42(8), 11-28.

이석원, 정희정. (2008). 기능적 장애 개념과 중증 장애인 기준의 타당성.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4), 355-373.

이충훈. (2011).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충남리포트, 50, 1-14.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임지은, 이형룡. (2014). 장애인 관광객을 고려한 관광자원 물리적 환경의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38(9), 193-214.

장덕희, 임승희. (2021). 중도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

문사회 21, 12(3), 2995-3010.

전리상. (2020). 장애인의 여행실태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인문사회 21, 11(2), 773-784.

전명숙. (2018).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210-221.

전영록. (2012). 장애인의 관광활동 유형별 심리적 만족도 차이분석. 관광레저연구, 24(2), 41-60.

전영록, 박상훈. (2009). 장애인의 관광활동 유형별 자기지각 삶의 질 비교: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비교. 관광연구, 23(4), 375-396.

전용수, 김장순, 박천만. (2007). 여성장애인에 대한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7년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00-102).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서울.

정순용. (2014). 여성신체장애인의 외모관리행동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용예술경영연구, 8(3), 166-178.

정승원. (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4), 323-350.

정승원. (2014).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4(1), 167-197.

정정희. (20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법률실무연구, 9(2), 253-292.

조금분. (2018). 취업장애여성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조윤화. (2018).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6(23).

조윤화, 문혜미, 김태용. (2020). ICF 장애개념에 근거한 한국 장애출현율 산출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 MDS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7(47), 129-156.

주한미국대사관. (2021. 03. 30.).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202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s://kr.usembassy.gov.

지명원, 조태영. (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

광학연구, 36(6), 145-165.

티티엘뉴스. (2021. 09. 06.). “서울관광재단, 시각장애인 위한 경복궁 현장영상해설 투어 운영”, http://www.ttlnews.com/article/KOREA/10556.

한국관광공사. (2021. 06. 30.). 2020년 국민여행조사보고서 -통계편-.

한국소비자원. (2020).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 안전보고서, 1-35.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01. 14.).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허병선, 윤지민.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장애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 AHP 기법의 적용 -. 관광연구논총, 33(1), 43-68.

호텔앤레스토랑. (2021. 05. 04.). [Zoom In] 무장애 관광 시대, 호텔은 정말 준비 됐나 - 모두를 위한 호텔을 위해, htp://www.hotelrestaurant.co.kr/news/article.html?no=8969.

홍선기. (2021). 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유럽헌법연구, 35, 205-233.

Albrecht, G., & Devlieger, P. (1999). The Disability Paradox: High Quality of Life Against All Odds. *Social Science & Medicine, 4*8, 977-988.

Alfano, D. P., Nielsen, P. M., & Fink, M. P. (1993). Long-term psychosocial adjustment following head or spinal cord injury. *Neuropsychiatry, Neuropsychology, and Behavioral Neurology, 6*, 117-125.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Per-sonal Soc Psychol, 68*, 653-663.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Hobson, J., & Dietrich, U. (1994). Tourism Health and Quality of Life: Challenging the Responsibility of Using the Traditional Tenets of Sun, Sea, Sand, and Sex in Tourism Marketing.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3*, 21-38.

Kim, H., Wo, E., & Uysal, M. (2015). Touris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tourists. *Tourism management, 46*, 465-476.

Livneh, H. (2001). Psychosocial Adaptation to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3)*, 151-160.

Marinelli R. P., & Dell Orto, A. E. (1984).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phy

sical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Plummer, D. (2001). Helping Children to Build Self-esteem. *APhotocopiasle Boo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Reasoner, R. W., & Dusa, G. S. (1991). Building self-esteem in the secondary schools: Teacher's manual and instructional materials.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York: Basic.*

Shahar, G., & Davidson, L. (2003). Depressive symptoms erode self-esteem in severe mental illness: A three-wave, Cross-lagged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890-900.

YTN. (2019. 05. 23.). "[같이의가치] EU, 장애인 관광산업, 830조 유로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 https://www.ytn.co.kr/_ln/0106_201905231416081263.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5.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for Disabled People through Tourism Activiti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eople with congenital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acquired disabilities

Kang Hyeon Na*·Moon Bo Eun·Lee Dong R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satisfactio 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rough tourism acti vities and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For research a nalys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people with congenital and acquired disabilities w ho have experienced tourism activit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225 copies, excludin g the unfaithful respons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sults as the final valid sample.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ourism satisfaction, physic 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willingness to overcome disability and d

*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Degree
** Department of Chinese, Dankook University
***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ongguk University

isability perception, respectively, and emotion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 ct on disability perception. Second among tourism satisfaction, emotion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and psycholog ic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Third it was confirmed t hat disability accept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 e respectively, and that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Fou rth the difference between tourism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qu ality of life between congenital and acquired disabilities was compare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ical satisfaction among tourism satisfaction. Also disability acceptance was also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 s, the contribution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disabilit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barrier-free tourism market were presented as implications.

Keywords : Congenital Disabilities, Acquired Disabilities, Tourism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Quality of Life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39 - 59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김선호*·최유화**

본 연구는 00대학교 소속 교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고용인식 중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 근로환경 및 처우,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설문지법을 통해 각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이 장애인고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도로써 활용되고 있는 정도와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중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와 근로환경 및 처우,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무경험과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로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인식 요인과 관련된 제도는 운용되고 있지만 그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정도와 효과는 미비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고용인식 요인들을 제도로 활용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인식, 사업주지원제도, 근로환경,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Ⅰ. 서론

1. 연구배경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 고용 및 취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2021: 공공부문 3.4%, 민간부문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고용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에 2.62%, 2016년에 2.66%, 2017년에 2.74%, 2018년에 2.78%, 2019년에 2.92%로 매년 점차 증가하면서 법 시행 초기 1991년 장애인 고용률 0.43%에 비해 현재 5배까지 증가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장애인 고용률의 증가율만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장애인 고용환경 또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가율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률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다. 2018년과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67%, 2.79%로 의무고용률 2.9%, 3.1%에 못 미쳤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16%, 3.33%로 의무고용률 3.2%, 3.4%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용노동부, 2019). 이렇듯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로 2020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52%로 의무고용률 3.4%을 충족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그러나 공공부문이 납부한 2020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892억원이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이 8개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고용률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0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체 429개가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 1,419억 원이고, 2020년 기준으로 민간부문 사업체 중 10곳 이상이 3년 연속, 10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 명단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보다는 오히려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2018년 민간부문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 방향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0.2% 상향 조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고용률(민간부문: 2.67%, 공공부문:

VOICEYE
voiceye.com

3.16%)에 비해 2019년 고용률(2.79%, 3.33%)이 0.1-0.2%씩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무고용률에는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과 고용부담금 인상과 같은 규제 정책은 어느 정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긴 하지만, 사업체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상 장애인 고용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체 스스로 장애인 고용인식을 전환하고,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미고용기업체는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비해 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 장애인 고용 시 안전문제 발생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미고용업체의 장애인고용인식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비해 부정적이므로 장애인고용 규제 정책, 사업주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장애인고용인식과 장애인고용률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고용인식의 어떠한 요인이 각각 장애인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도 있고(이환복, 2018), 산업유형별(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등)로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하나로 장애인고용 인식요인을 연구한 것도 있다(이형렬, 2013). 장애인고용인식과 장애인고용률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고용인식이 장애인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장애인고용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인식을 단순히 정책적·제도적 접근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할 뿐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인식 중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근로환경 및 처우,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요인들이 장애인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로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도 및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의 활용도와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해서 향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모색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립대학교인 00대학교 소속 교직원 52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및 부담금 납부 사업체 상위 10개소 중 교육기관은 5개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비교적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교육분야에서의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보아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교직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와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장애인고용 인식을 조사하여 동료로서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입장에서 어떤 요인이 장애인고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교직원 52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지법을 통해 장애인고용인식요인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1차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8.0을 이용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설문 응답자 중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인사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인사담당자의 장애인 고용인식과 그에 따른 고용의사가 장애인 고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도로써 활용되고 있는 정도와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실제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2. 변수 정의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0)」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 ‘근로환경 및 처우’,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장애인고용 인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은 장애인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주, 2010). 실제로「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현재는 장애인을 미고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기업체들은 장애인고용 만족도가 5점 만점의 3.8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3.80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장애인고용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0.8%이고,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체는 99.2%였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기업체가 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체에 비해

VOICEYE voiceye.com

장애인 미고용 현황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장애인과의 근무 및 고용경험을 장애인고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장애인 고용 기업체는 89.5%이다.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이정주, 2010). 그러나 장애인 고용 기업체 중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기업체는 2.7%이고, 미사용 기업체는 97.3%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몰라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를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으로 설정하여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애인고용기업체 중 70.3%와 장애인미고용기업체 중 71.9%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 고용 또는 장애인 근무 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고용기업체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의 비율은 46.9%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2020). 이처럼 편의시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를 고찰하기 위해 근로 환경 및 처우를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후 장애인인식개선 효과 정도는 5점 만점에 '장애인 관련 법·제도 인지' 3.47점, '장애인 인식개선' 3.43점,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긍정적 인식' 3.43점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2020). 이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전반적으 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전체 기업체가 29.7%로, 10개소 중 3개소가 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에 대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장애인고용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고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인식은 5점 만점에 3.31점으로, 기업체가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2020).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이정주,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장애인 고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무경험

근무경험은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 인식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빈도분석하여 '장애인과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는 '근무경험 1'로, 장애인과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는 '근무경험 2'로 변수를 두었다.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장애인 고용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 '장애인과 근무를 해본다면 장애인 고용인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또한 근무경험이 있는 응답자(근무경험 1)와 근무경헌이 없는 응답자(근무경험 2) 중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장애인 고용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문항을 회귀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근무경험 1로는 장애인과의 근무경험과 장애인고용 인식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무경험 2로는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장애인고용 인식이 변화하는데 근무경험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에서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장애인고용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고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지원제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고용관리비용제도가 있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주지원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가 사업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중요하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요인에서는 사업주지원제도의 인지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응답한 값은 0,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값은 1로 측정하여 빈도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사업주지원제도별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가 장애인 고용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3) 근로환경 및 처우

근로환경 및 처우 요인에서는 현재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근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4)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요인에서는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여부에 따라 '없다'고 응답한 값은 0, '있다'고 응답한 값에는 1로 측정하였다. 이후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빈도 분석하여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5)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식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지를 살펴보았다.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이다'고 응답한값은 0, '긍정적이다'고 응답한 값은 1로 설정해 빈도분석하였다. 응답 문항 중 3번 '잘 모르겠다'는 제외하였다.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수록 장애인 고용인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Ⅲ. 분석결과

1. 장애인고용 인식 요인의 분석결과

장애인고용 인식요인 중 근무경험을 빈도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1.54%, 근무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는 88.46%로 나타났다.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 중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장애인고용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는 1.75점으로 근무경험이 장애인고용인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확률 0.006로 $p < 0.05$보다 낮아 매우 신뢰성있는 결과이다. 반면에 근무경험이 없는 근로자 중 '장애인과 근무를 해본다면 장애인고용인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98점으로 근무경험이 장애인고용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나타났다. 이는 유의확률 0.052로 $p < 0.05$의 오차범위 ±0.002 수준으로 상당히 유의미하다.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73.1%,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19.2%, 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 9.6%,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9.6%, 고용관리비용제도 1.9%로 나타났다. 규제제도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묶여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인지 정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그밖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지원제도의 인지 정도는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20% 이하, 나머지는 10% 이하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정도가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적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확률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모형설명력인 R^2는 0.07로 미비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환경 및 처우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현재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2.31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내 근로 시설이나 처우와 같은 근로 환경이 미흡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이 지원되면 장애인 근로자가 더 고용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65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근로환경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로환경 및 처우 인식 정도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이 지원되면 장애인 근로자가 더 고용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확률은 0.92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더 고용될 것이라고 보인 것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확인되었다.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여부를 빈도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사람은 67.3%,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32.7%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VOICEYE
voiceye.com

교육이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60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인다.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여부가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확률은 0.96으로 앞서 보통 이상(3.60)의 결과를 보인 것에 비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확인되었고, 모형설명력인 R^2은 0.00으로 설명력이 거의 없는 수치를 보인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빈도분석한 결과 '긍정적이다'는 71.2%, '부정적이다'는 1.9%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이 조직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79로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다. 다만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장애인고용이 조직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확률은 0.83으로 앞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나타난 결과값과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확인되었다. 모형설명력인 R^2은 0.00으로 설명력이 거의 없는 수치를 보인다.

〈표 1〉 장애인고용인식요인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명)	백분율(%)	표준편차	평균
근무경험	근무경험 1	6	11.54	2.04	1.75
	근무경험 2	46	88.46	0.70	3.98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38	73.1	0.45	0.73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10	19.2	0.40	0.19
	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	5	9.6	0.30	0.10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5	9.6	0.30	0.10
	고용관리비용제도	1	1.9	0.14	0.02
근로환경 및 처우 (5점 척도)		.	.	0.81	2.30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있다	35	67.3	0.47	0.67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이다	37	71.2	0.51	2.70
	부정적이다	1	1.9		

〈표 2〉 장애인고용인식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유의확률	R^2
근무경험	근무경험 1	0.37	2.36	0.01	0.14
	근무경험 2	0.27	0.59	0.05	0.07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0.18	0.20	0.31	0.07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0.20	0.25	0.61	
	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	0.06	0.09	0.24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0.10	-0.17	0.72	
	고용관리비용제도	0.05	0.18	0.65	
근로환경 및 처우 (5점 척도)		-0.02	-0.01	0.92	.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있다	0.01	0.01	0.96	0.00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이다	0.03	0.05	0.83	0.00
	부정적이다				

2.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요인의 분석결과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근무경험 38.5%, 사업주지원제도 36.5%,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59.6%,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 71.2%로 나타났다.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요인에서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54%와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11.54%)보다 아래 〈표 3〉과 같이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61.54%)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근무경험이 없는 근로자도 장애인고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10명 중 6명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요인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73.1%)를 제외한 제도의 인지 수준은 모두 20%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과 같이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업주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3.46%로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 제외한 기타 제도 인지 수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수준 자체는 미흡하나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사업주지원제도 개선의 내용에는 사업주지원제도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요인에서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67.31%이다. 그러나 〈표 3〉에서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0.38%로,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비율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70% 가까이 존재하지만,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은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고용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더 높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7.37%로 나타났다. 이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제외한 분석결과이지만, 연구 대상 52명 중 37명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표 3〉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8%이다. 이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요인의 비교분석 결과

구분	빈도	백분율(%)
근무경험	32	61.54
사업주지원제도	33	63.46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21	40.38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	15	28.85

* 중복 선택 문항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3. 심층면접의 분석결과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 52명 중 인사 직무 담당 경험이 있는 3명(이하 면담자 A, B, C)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심층면접 진행하였다. 위의 1차 조사에서 검증된 장애인고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도와 효과를 보다 심층적이게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고용 관련 요인들을 통계적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인식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의견과 고충을 직접 수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4〉 심층면접 질문 내용

변수	질문 내용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1. 현재 장애인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2.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애인과의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인식은 긍정적입니까?
사업주지원제도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면, 장애인을 더 고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 장애인 근로자 관리인이 지원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4. 시설 및 장비가 지원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5. 장애인 인턴제 같은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로환경 및 처우	1.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본 사업장 내 장애인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장애인고용인식개선 교육	1.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은 연 몇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2. 교육을 받은 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장애인 기업 이미지	1. 장애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시, 조직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한편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라는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과 관련하여 인사 채용의 책임자인 A씨(남, 50대, 경력 20년)는 장애인과 직접 근무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전후 특별한 인식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실무적인 인사 담당자 B씨(남, 30대, 경력 2년)는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요인을 보는 질문에서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장애인 채용 전에는 장애인 직무능력 및 직장 생활에 대한 걱정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근로자들이 청각 장애인과 근무한 후 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직무능력(컴퓨터 수리) 수행하고, 음성 인식 어플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결하며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은 인사 담당자 입장보다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식

VOICEYE
voiceye.com

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1차 설문 조사에서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이 장애인 고용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1.75점)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2) 사업주지원제도

A씨와 B씨 모두 장애인 고용을 한 가장 큰 원인으로 고용부담금을 들었다. 대략 연 1억원이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다. 만일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이 없었더라면 장애인 고용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 답하였다. 또한 A씨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업주지원제도가 무엇이든 이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채용 후 장애인 근로자가 적응하는 데 도와주고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원해주는 고용관리비용제도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하였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를 관리해주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인사 담당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도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B씨는 사업주지원제도 중 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근로지 특성상 출퇴근 시 언덕이나 건물 간 먼 거리로 인해 이동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원된다면 신체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장애인 인턴제의 경우, 인턴 기간이 끝난 후 근무 평가를 통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제도 이용 의사가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답하였다.

3) 근로환경 및 처우

앞서 사업주지원제도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A씨와 B씨 모두 근로지 내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에 대해서 무엇보다 학교 지리적 특성 문제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높은 언덕과 건물 간 먼 거리로 인해 출퇴근과 이동이 불편하여 신체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4)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현재 00대학교는 1년에 1회 2일 동안 장애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식으로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있다. B씨는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효과를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나도 언제든지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의 시선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라고 보았다. 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서라도 인사 담당자를 위한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특성 맞춤형 안내, 제도 변화 안내 등 장애인고용 지원 관련 제도 안내와 고용부담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사 담당자들 장애인 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장애인 고용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A씨는 장애인 고용이 인사 담당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 유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장애 유형에 대한 채용은 과거의 고용 경험이 없어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현병 유형의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조현병 장애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고 답하였다. 장애인 근로자 관리 문제나 문제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5) 장애인 기업 이미지

B씨는 '장애인 기업 이미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가 제작한 물품을 다른 기업에 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고 이득을 취하는 일부 기업의 행위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인 지원금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운영방식이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 자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높은 대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무기로 낮아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큼의 비용을 장애인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로 요구한 경험도 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의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을 하려고 해도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거부를 하는 것이다.

C씨는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사업장이라는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장애인 채용 의사를 고려해 볼 것이라 답하였다.

KCI VOICEYE voiceye.com

〈표 5〉 심층면접 내용 요약

심층면접 대상자	요인	내용
A씨 (남, 50대) (경력: 20년)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인사 담당자: 채용 전후 인식 변화 없음
		현장 근로자: 근무경험 후 인식 변화 있음
	사업주지원제도	고용부담금 효과 ○, 고용장려금 효과 X
		기타 제도 인지 X, 제도 이용 의사 X
		고용관리비용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은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도 효과에 대한 의구심
	근로환경 및 처우	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직무 마련 ○
		학교 지리적 특성상, 신체적 장애인은 출퇴근 및 이동의 불편함 (언덕, 건물 간 먼 거리)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고용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장애유형에 대한 교육 필요 ex) 조현병
B씨 (남, 30대) (경력: 2년)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현장 근로자: 근무경험 후 긍정적 인식
	사업주지원제도	고용부담금 효과 ○, 고용장려금 효과 X
		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 신체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고용 의사 ○
		장애인 인턴제: 계약직 채용은 ○, 정규직 전환 채용은 X
	근로환경 및 처우	학교 지리적 특성상, 신체적 장애인은 출퇴근 및 이동의 불편함 (언덕, 건물 간 먼 거리)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필요
		인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필요 : 사업장 특성 맞춤형 제도 안내, 장애인고용 제도 변화 안내 등
C씨 (남, 30대) (경력: 1년)	장애인 기업 이미지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및 혜택 필요

Ⅳ. 결론

1. 제언

앞서 설문지법과 심층면접법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장애인과의 근무경험, 사업주지원제도,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기업 이미지 등 각 요인이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과 관련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립 대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장애인과의 근무경험을 가진 현장 근로자들은 장애인 고용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실제로 만나보고 함께 근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근무경험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요인들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 경험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고용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무경험이 요구되지만, 더 높은 빈도의 근무경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향 요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업주지원제도는 이미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들에게 사업주지원제도의 인식 정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업주지원제도의 홍보는 물론 아래에서 언급될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과 연관지어서 제대로 된 사업주지원제도의 종류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사업장의 특성, 즉 사업장별로 다양한 근로환경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규모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장의 업종이나 직무, 근로환경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 유형을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만을 구분하여 사업주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분류·소분류 차원에서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사업주지원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교육의 일환으로

VOICEYE voiceye.com

포함하여 고용인식 개선과 더불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 유형이 있는지, 해당 장애 유형은 어떠한 업무를 부여해야 적절한지, 안전 사고나 위급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층면접 분석결과에서 언급됐듯이 인사 담당자에게 있어서는 장애 유형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장애인 고용을 망설이는 원인이 된다. 이후 장애인을 고용했더라도 장애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률 제고 측면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 사례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를 낮춰 장애인을 고용해도 여전히 생산성이 낮다거나, 있으나 마나 한 노동력이라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기존에 잔재해 있는 '장애인은 일을 시키더라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직무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 근로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는 장애인고용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홍보를 통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진다.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홍보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 여전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로 그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 직무능력과는 무관하게 그저 제도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같은 재정적 지원 혜택을 확보하고, 그러한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인식을 긍정적이게 바꾸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기대효과

첫째,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로써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선행 연구를 통해 보아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법을 통해 장애인고용인식 요인과 현장에서 이용되는 제도의 활용도를 비교 분석해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 고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 사업주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안한다.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기존의 제도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초자료로써 활용됨은 물론 앞으로의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 및 도입할 때 그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장애인고용 분위기 형성 및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기여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보다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인식을 개선시켜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VOICEYE
KOR
voiceye.com

참고문헌

강동욱, 조임영, 박봉선. (2020). 2020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167.

감정기. (2010).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가 장애인고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영국DDA의 경험과 그 시사점. 장애와 고용, 105-128.

김성태, 김형준, 김효정, 한동우. (2010). 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업체 이득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67-288.

김용탁, 심진예. (2009). 장애인 고용경험이 장애인고용인식과 채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75-198.

박현욱. (2021).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노동부.

여지영. (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트렌드 분석: 고용률 차이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73-105.

이형렬. (2013). 산업유형별 의무고용기업체의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77-103.

이환복. (2018). 장애인고용기업의 장애인고용인식이 장애인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고용만족도 매개 효과와 의무고용달성여부의 조절효과. 장애와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36.

전영환, 박혜원, 김호진. (2019). 중증장애인 취업자의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기본과제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118.

원고접수 : 2021. 11. 16.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5.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Disabled Employment Recognition Factors Affecting the Emplotyment of Persons with Disbilities

Kim Sun Ho*·Choi Yu Hwa**

This study was conducted on 52 faculty and staff at Anyang University, among the percep tions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at affec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rking exp erience with the disabled, whether they are aware of the employer support system,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education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disabled people, and imag e of companies with disabilities. factors were studied.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t o understand how much each factor in the employment perception of the disabled affects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extent to which factors af fect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being used as a system in the field and its effect 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factors of recognition of the disabled, whether the em ployer support system was recognized,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and educatio n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 were found to b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 nt of the disabled. Working experience and image of companies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did not actually affect employment of the disabled. Although the system r elated to the employment recognition factor for the disabled is in operation, the system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needs to be improved in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system is being used and the effect are insignificant. In this regard, the direction of how to utilize the employment recognitio n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s a system and how it should be imp roved to increase its effectiveness was suggested.

Keywords :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erception of employing the disabled, business owner support system, working environment, education to improve employment awareness for the disabled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61 - 98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무환경 : 경영학적 조직이론 분석과 질적 방법론 차원에서의 면담을 중심으로

남태광*·이선호·이수철***·정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휴대폰, 인터넷,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기기 사용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 비율이 55.9%로 전체 장애인의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사용 빈도 역시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경우가 90.5%에 달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스마트폰과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통신수단 그 이상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 및 발전되고 있어 그들의 생활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시도들이 돋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의 논문들에 따르면 그러한 시도들이 일부 존재하나 극히 제한적이며, 대다수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관련 연구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극미하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즉,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측에서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받는 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므로 장애인 측에서는 본질적 문제해결이 아닌 겉핥기식 문제해결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다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 및 조직 문화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성공적

* 우석대학교 한의예과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으로 프로그래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에 관하여 Ouchi's Z theory, 경쟁가치모형을 통한 분석을 진행했다. 동시에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들에 대하여 현재 개발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최적 개발환경을 분석 및 도출했다. 분석 결과 '과업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가 현 조직에서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관계지향문화'는 개발자들의 기대치보다 낮았다. 대부분의 환경에 만족하는 모습을 모였지만 일부 개발자 양성과 채용 과정에서의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주제어 :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각장애인 기업 환경, 시각장애인의 주체적 참여, 조직문화, 경쟁가치모형, Theory Z 모형

KCI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시대가 발전하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생활편의 향상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또한, 높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장애인 계층에서도 이러한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휴대폰, 인터넷,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 비율이 전체 장애인의 평균보다 높은 55.9%에 달했고, 사용 빈도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한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90.5%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시각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및 다른 스마트 기기들의 프로그램은 통신수단, 그 이상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계에도 이에 따른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령, 인공지능이 기존 IT 분야와 결합하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평소 생활편의의 질이 낮았던 장애인계에 지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생활편의를 한층 더 높이려는 시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각장애인 관련 연구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다소 존재한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 연구(배선영, 2020)를 분석해보면 장애가 있지 않은 일반인들, 즉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시각장애인을 모델로 한 연구 분야 및 방법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분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현재까지 비장애인이 주도하여 관련 방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장애를 경험해보지 않은 측에서 장애로 피해를 받는 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므로 장애인 측에서는 본질적 해결이 아닌 겉핥기식 문제해결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국내외 시각장애인 대상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로 증가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그들의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잠재력이 비장애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지만(김상준, 2009) 이를 가지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헌적인 접근성

만 높을 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하여 관련 자료들은 단일 선택형 질의 응답 조사만 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이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 주체가 되어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 해결해갈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먼저, 많은 유형으로 구별되어 있는 장애인들 중 시각장애인으로 국한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 이유에 관한 내용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 중 시각장애인에 한정한 이유는 바로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공간 판단력, 형태지각력, 운동조절능력 등에서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 하지만 학습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사무 지각력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우월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구축한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문제해결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직업적 재능과 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유형 중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의 뛰어난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능력을 통한 시각장애인 관련 문제에 있어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개발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일례로, 해외에서는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활발하게 프로그램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몇몇 시각장애인 개발자들만 이에 참여하고 있다. 가령, 해외 유명 기업인 아마존에서는 시각장애인 개발자를 고용하여 장애인들이 온라인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하도록 장려했다. 이는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그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각장애인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딩을 학습해 프로그램을 구축할 능력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시각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업무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은 업무 효율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기업체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점은 이미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소수의 시각장애인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개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기업을 형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용 게임

KOR VOICEYE voiceye.com

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 기기 및 일상생활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각장애인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지원이 극미한 수준이기에 직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해외 시각장애인 개발자들과의 능력 발현의 수준에 있어 그 차이가 극심하다. 이에 관하여 해외 사례들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기에 한국에서도 시각장애인 개발자를 양성한다면 분명 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수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효용성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례로 장애 당사자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 '종달컴'이 시각장애인들의 활용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게 입증되면서 특허로 등록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참여하여 그들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관련하여 현재 이러한 연구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가령, 미국 애플사에서는 보이스오버(Voiceover)나 시각장애인 코딩 학습을 장려하여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일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흔치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애플사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프로그램 형성 관련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시각장애인들은 이를 활용하여 그들의 편의가치를 높이는 등 시각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형성하도록 하여 장애인 측에서의 성취감과 기업 자원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탁월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겪는 근본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매우 드물고, 외적 편견으로 인해 그들을 교육하려는 노력도 부진하다. 한국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기업에서 따로 편의적 리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한정적으로 프로웨어를 통한 개발만 가능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교육은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직종을 알아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해외 기업과 한국 기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의 주변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최적 환경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고용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보려고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개발자에 대한 연구이다. 시각장애인 개발자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역량 및 특성', '시각장애인의 고용결정요인'으로 나누어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눈 이유는 우선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적 한계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실태와 고용 결정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희망하는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의는 박성빈과 안성진(20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중략)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p. 43)*

또한 박성빈과 안성진(2016)은 SW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면서 핵심적 역량을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이라고 본다. CT는 SW개발자들이 복잡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CT는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정형화',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 모델링과 같은 추상화 작업을 통한 자료 재해석', '알고리즘적 사고를 기반으로한 최적 해결책 구현'이라는 크게 세가지의 과정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 프로세스 중 '분석', '설계' 단계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중에서 '설계'를 가장 중요하게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이라는 요인을 뽑았는데, 소프트웨어 완제품의 구조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논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박성빈, 안성진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설계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 설계 단계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를 '추상화'로 보고 있다.

VOICEYE
voiceye.com

즉, 정리하자면 SW개발자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 중 하나인 비가시성적 설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팅 사고력이 컴퓨터 화면 자체에 보이는 시작적 정보 등의 요인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만 하다. 다시 말해, 시각적 정보에 직접적으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제약을 보완할 만한 보조 디바이스가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SW개발자로서 필요한 역량이 근원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CT에서의 추상화 작업이 비가시성의 특징을 갖는다하더라도 그 사고력의 발아(發芽)가 이루어지는 양성과정은 시각적인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쉬워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코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에 관한 연구가 실행되기도 했다(Lee et al., 2020).

이현주 외(2020)의 연구 내용 중 여러 지체장애 청소년 중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시각 장애 유형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코딩 로봇 알버트(albert) 기반의 언플러그드 컴퓨팅 등으로 구성된 모듈식 교재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성취도 평가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약 80%이상이 '중'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달성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이 시각 장애 청소년의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1)]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SW개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역량은 비가시성(Invisibility)적 성격을 지닌 컴퓨팅 사고력이 우선시되며, 그것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역량 함양은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지에서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시각장애인들이 SW개발자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이 개발자의 역량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SW개발자로서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 고용과 취업에 있어, 해당 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분야 근무에서의 전반적인 조직 특성과 문화, 분위기 등과 같은 요인들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제 취업시장에서 시각장애인들만이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선행연구를 통해

---

1) 하지만 위 선행 연구의 한계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SW 교육이 기초적 수준에 국한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심화 SW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전무하다.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취업 시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요인들을 짐작해보고자 한다.

우선, 전영환 외(2017)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실업률은 다른 지체장애인에 비해 더 높고 고용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직종에 관련해서는 '단순노무직'이 24.0%, '사무직'이 16.5%, '전문직'이 14.9%, '농림어업직'이 19.2%로 나타났다(전문직 비율에서 '안마 및 지압' 직종이 제외한다면 전문직 비율은 더 낮은 수치를 갖는다.). 이관석과 예기훈(2019)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어려움이 안고 간다. 그러한 어려움은 '이동성의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이 시각과 시력을 활용하는 공간적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데에 기인한다(이관석, 예기훈, 2019).

임은정 외(2013)는 시각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요인, 인적자본요인, 고용서비스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패턴 간의 상호 작용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사회·심리적인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게 될수록,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일수록 구직에 대한 동기부여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연구와 반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취업을 고용주의 태도 및 인식의 관점에서 살펴본 남정한과 강우진(2011)에 따르면, '작업기술 및 태도 요인(시각장애인의 성실성 및 책임감, 작업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적응능력)', '법 · 제도적 요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은 제도적 시스템)', '경제적 요인(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소미되는 다소의 추가비용)', '지원 및 훈련요인(재활기관의 직업재활전문가로부터 고용주가 제공받는 지원 및 서비스)'가 고용주가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남정한, 강우진, 2011).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시각장애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시각과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에는 한계를 가지며,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심리적 지지와 수급여부 등의 요인이 취업 동기와 취업률에 영향을 미쳤고, 고용주의 고용결정의 4가지 요인 또한 시각장애인의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용결정 요인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우선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한 시각장애인의 시각, 공간에 관련된 신체적 한계는 화면 리더기의 사용으로 인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SW 분야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직종이 아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나머지 고용결정요인은 전반적인 취업 시장 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SW 해당 취업 시장에도 나머지 고용결정 요인이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2. 이론적 논의

위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환경을 도출해보고, 후속연구들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최적 환경들을 이루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현직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조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영학적 조직 분석 모형들을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구는 해당 조직 분석 모형 이론들을 이론적 기반으로 두고 있다.

먼저, 경영학적 조직 분석 모형이란 경영학과 행정학 등 여러 각지 학문 분야에서 특정 조직의 구조적 혹은 문화적 특성 등을 알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분석 도구를 말한다. 조직 분석 모형은 대기업처럼 체계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그 특성을 쉽게 파악하기 힘든 조직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고안되었다. 모형의 유형은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각장애인들이 근무하는 환경, 즉 회사나 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학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조직 분석 모형들 중 세 가지를 선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은 Ouchi의 Z이론 모형, 경쟁가치모형으로 구성된다.

1) Ouchi의 Z이론 모형

Ouchi의 Theory Z모형은 1980년에 Ouchi가 국가별 경영관리방식 및 특성을 차별화시켜 나타낸 분석도구이다. Ouchi는 1973년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관리 실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사회는 일본의 경영관리방식이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문화론적 접근법에 의한 국제적 비교가 성행하였다(김두선, 이재은, 2012). 특히 그 중에서도 Ouchi의 Z이론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이재열, 박인선, 2019). Z이론은 미국의 A타입과 일본의 J타입 조직 문화를 비교하여 도식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조직 문화에 일부 일본 조직 문화를 결합시킴으로 Z타입 방식을 형성하였다. 이론의 도출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를 비교·분석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풍토 및 직장 분위기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 제도 측면을 상호비교하였다(김두선, 이재은, 2012). Z이론이 조직의 풍토 및 직장의 분위기와 같은 기업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까닭은 그러한 요인이 기업 내 제도의 시행 여부 자체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박내회, 1982).

국내에서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다. Ouchi의 Z이론이 한국 경영환경과 풍토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박내회(1982)의 연구를 시작으로, Z이론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춘우(2014)의 연구에서는 Ouchi의 Z이론을 '고용기간, 의사결정방식, 권한책

임, 평가승진방식, 통제방식, 경력설계방식, 종업원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된 7가지 기준에 따라 한국 대기업(재벌그룹)의 경영특성을 미국·일본기업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표 1〉 Z이론 모형 특성

구분	미국조직	일본조직	한국조직	Z type
목표	단기경영목표 (수익성 위주)	장기경영목표 (성장 위주)	단기목표	장기경영목표
고용	단기고용	종신고용	단기고용	장기고용
승진평가	급속한 능력평가 및 승진	매우 완만한 승진, 평가	급속한 평가	비교적 완만한 인사고과와 승진
경력계획	업무능력 전문화 및 특수성의 경력계획 제도	포괄적 업무파악 및 비전문성의 경력계획제도	비체계화	지나치게 전문화되지 않은 경력계획
통제	통제제도의 현재성	통제제도의 내재성	현재적 통제	내재적 통제
의사결정	개인의사결정	공동의사결정	개인소수 의사결정	집단합의 의사결정
책임	개인책임	집단책임	개인책임	개인책임
의식구조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소수의식	집단공동의식

1983년 박내희의 한국, 미국, 일본 Z 타입의 관리 특성을 정리한 표(이재열, 박인선, 2019)

VOICEYE
voiceye.com

〈표 2〉 Z이론 모형 특성

구분	미국기업의 조직문화	일본기업의 조직문화	Theory Z 절충적 미국식	한국 대기업의 조직문화	비고(행동가치 기저가치)
고용기간	단기고용	종신고용	장기고용	종신고용→단기 고용+중기고용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활용증대
의사결정 방식	개인적 의사결정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	오너중심의 전제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방식	황제식 경영
권한책임	개인적 책임	집단적 책임	개인적 책임	비공식적 집단(라인) 책임	위계적 서열주의
평가승진 방식	신속한 성과평가와 승진	느린 성과평가와 승진	느린 성과평가와 승진	신속한 성과평가와 승진	신상필벌
통제방식	공식적(명시적) 통제	압묵적 비공식적 통제메커니즘	함축적 비공식적 통제와 공식적 통제메커니즘	상명하복의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메커니즘	군대식 위계적 서열주의
경력설계 방식	전문화된 경력경로	비전문화된 경력경로	적절히 전문화된 경력경로	비전문화된, 전문화된 경력경로의 혼합	현장중심 경력경로(현대) 비서실중심 경력경로(삼성)
종업원에 대한 관심	종업원에 대한 세분화된 관심	종업원에 대한 포괄적 관심	종업원과 그 가정에 대한 포괄적 관심	성과업적을 낸 종업원과 그 가정에 대한 포괄절 관심	소수정예주의(삼성의 펠로우십제도)

이춘우의 Theory Z모형을 이용한 미국 및 일본,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 특성을 탐색적 비교를 통해 정리한 표 (이재열, 박인선, 2019)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개발자에 대한 고용과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회사 등을 선정해 해당 조직의 문화는 어떠한 특성이 우세한지 타 조직의 경영특성과 비교 분석할 목적으로 Ouchi의 Theory Z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 문화 분석은 이춘우(2014)의 7가지 기준과 동일한 항목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고용기간, 의사결정 방식, 권한 책임, 평가 승진 방식, 통제 방식, 경력 설계 방식, 종업원에 대한 관심'에 따른 구분 방식을 토대로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원활한 고용과 근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조직을 분석해보고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Z이론 모형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유와, 특히 이춘우(2014)의 Z이론 분석 분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Z이론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Ouchi의 Z이론은 그 자체로 인본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자원개발에 초점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김두선, 이재은, 2012). 즉 조직 환경을 분석할 때에 있어 구성원과, 그 구성원과 연결된 분위기와 환경, 문화, 풍토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몸 담고 있는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할 것인데, 분석에 필요한 모형에서 시각장애인 개발자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분석한다면 그들에게 더욱 가까운 최적화된 조직 환경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이춘우의 기준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Ouchi의 Z이론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의 목적은 경영관리방식을 문화적 접근법에 의한 비교연구에 있다. 따라서 비교연구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의 경영적 특성을 정리한 이춘우의 방식은 마찬가지로 비교연구 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이재열, 박인선, 2019). 미국기업, 일본기업, Z type 그리고 새로 추가된 국내 대기업 조직이 Ouchi의 기준 방식으로 다시 재정리된 이춘우의 분류 방식에 있어, 국내 대기업 조직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할 때에 국내 대기업과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고용과 근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 조직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면 국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개발 업계환경 내에 시각장애인 개발자에게 적합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비롯한 여러 후속 제언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경쟁가치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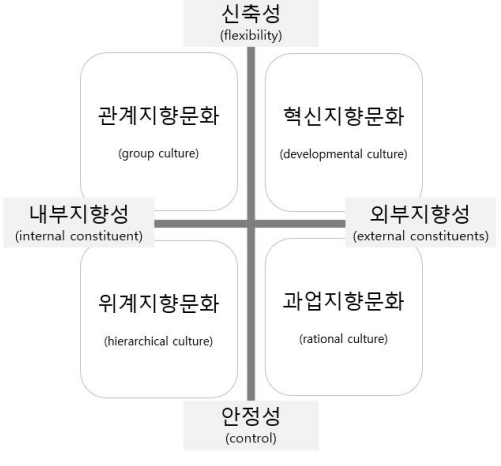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Ouchi의 Z이론은 초기 조직 문화 연구에 해당한다면, 경쟁가치모형은 그 이후의 조직 문화 연구이다. 경쟁가치모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초기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일화적 사실(anecdotal evidence)이나 사례 중심 연구(case study)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방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인 실증적으로 엄격한 측정 방식이나 개념상에서의 모호함이 조직 문화 분석 연구의 비판과 반성할 부분으로 제기되었던 측면이 있다(이동수, 2007). 따라서 경쟁가치모형은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연구 경향을 벗어나 양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조직문화와 조직 효과성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 및 해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2)]

경쟁가치모형은 '신축성과 재량', '안정성과 통제'를 각각 극단으로 두는 하나의 축과 '내부지향성과 통합' 그리고 '외부지향성과 분화'를 극단으로 설정한 또 하나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수직적 축에서 '신축성과 재량'과 같은 가치는 탈권위적인 조직 환경과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자발성과 같은 특성이 드러나고, '안정성과 통제'적 가치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안

2) Ibid., p216.

정성을 추구하는 특성이 드러난다. 하나의 축에서 각각의 가치들은 서로 모순적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수평적 축의 경우에서 '내부지향성'과 '외부지향성'도 또한 서로 상반되는 가치로 구성되는데, 조직이 외부와 내부 중에서 어디에 더욱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나뉜다. 내부지향적 가치의 특성은 조직 내부의 균형이나 통합, 조정을 강조하고, 외부지향적 가치의 특성은 조직 외부 환경에서 조직이 적응과 경쟁에 초점을 둔다.

경쟁가치모형은 이 두 축에 따라 4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4가지 조직 문화 유형이 도출된다. 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그리고 과업지향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박상언, 김영조, 1995). 또한 각 문화 유형에 맞는 주요 가치(salient values)가 24개 항목이 존재하며, 정보처리 스타일(Information Processing Style) 12개의 항목이 있어 총 36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3] 경쟁가치모형은 각 변수와 관련된 질문을 구성하여 자료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1〉 경쟁가치모형도

관계지향문화는 신축성, 재량과 함께 조직 내부의 통합과 연대감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조직 내의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성원간의 소속감, 상호신뢰, 참여, 충성심 등이 핵심 가치이며, 참여적이고 배려적이며 팀웍을 통한 상호작용의 촉진자로서의 리더역할을 강조한다(이동수, 2007).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주요한 가치로 여긴다.

---

3) Paul Mcdonald, Jeffrey Grandz. "Getting value from shared values." Organizational Dynamics (Vol 20, issue 3, 1992). p.69.

혁신지향문화는 관계지향문화처럼 신축성, 재량을 강조하고, 외부지향적인 특성에 역점을 둔다. 조직 외부의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와 그 환경에서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한 자원의 획득, 미래 예측, 조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등이 중심적 가치로 여겨진다. 혁신지향문화의 리더상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상(initiative)을 조직 성공의 지름길로 전제하고 있는 혁신가에 적합하다(이동수, 2007).

위계지향문화는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규칙에 의한 규제와 질서가 중심가치로써 자리잡고 있으며, 리더에게는 안정지향의 관리자, 조장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할만큼 안정성과 조직 내의 통합과 유지를 강조한다(이동수, 2007).

과업지향문화는 조직 내적으로 안정성과 통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하고자 한다. 명확한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조직구성원간의 경쟁,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중요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성과달성과 생산성 등과 같은 부문에서 결과지향적인 태도와, 기능적이면서 성과독려적인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한다(이동수, 2007).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하여 조직의 문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강제할당방식(forced choice scales)과 리커트방식(Likert scales)이 있다(김호정, 2002). 강제할당방식은 응답자에게 총 100점을 만점으로 4가지 문화유형의 주요 특징을 묘사하는 각 문화유형 항목에 점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어느 특정 문화 유형에 점수를 더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 유형에는 적은 점수를 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은 조직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화적 독특성을 더욱 강조하여 가시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문화유형간에 서로 독립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치간의 의사적 관계를 수반한다는 약점이 있다. 리커트 방식은 1~5점 가운데 해당 점수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4가지 문화유형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등간격 척도(interval scales)이기 때문에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경쟁가치모형의 측정방식에 대한 타당도 분석에는, 다속성다측정방법 (multitrait-multimethod)을 활용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분석법, Q분류법(Q-sort methodology), 구조방정식모형(strictiral equation modeling)으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입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4)]

경쟁가치모형은 개별 조직문화가 갖는 구체적 내용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조직문화 측정에서 공통된 차원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경쟁가치모형은 국내에서 시각장애인

4) P. Kwan, & A. Walker, “Validating the Competing Values Model as a Representation of Oranizational Culture through Inter-institutional Comparisons.” Organizational Analysis (Vol 12, issue 1, 2004). p.24-27.

VOICEYE
KOR
voiceye.com

개발자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더 구체적인 조직 문화 연구를 위한 분석 도구로써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 간의 폭넓은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경험 연구에서 적용 가능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다양한 문화측정도구를 제공한다(이동수, 2007).

정리하자면,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고용과 근무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및 회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 경영 분석 모형 등을 이용하여 조직 환경과 문화를 고찰해보고,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필요한 고용 및 근무 환경을 알아봄과 동시에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에 있어 미비한 현행 시스템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바라볼 것이다. 기업 분석 연구에 있어서 연구 모형을 여러 개로 설정하여 진행한 이유는 첫째, 한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해당 조직을 분석할 때보다 더욱 입체적으로 조직 환경과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조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나 국내에서 시각장애인 개발자를 두고 있는 조직을 분석할 때 기존 국내 선행 연구자료가 적고 1차 자료를 수집할 표본 수 또한 많지 않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환경과 문화의 분석을 다각화하여 접근한다면 연구에 있어서 존재하는 한계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 국내에서 활발하게 시행되지 않은 연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모형들을 다각도로 제시함으로써 실제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환경을 분석해보는데 있어 보다 더 정확한 문화적 특성 따위 등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타 조직간 비교연구 혹은 많은 표본이 생겨 연구를 진행할 때 각 상황에 맞는 모델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Ⅲ. 연구 방법론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국내·외 '시각장애인 개발자'를 연구의 대상자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재직 중인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시각장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 해당된다. 본래 시력의 정도에 따라 시각장애를 제1~6급으로 구분하였지만 2019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기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직업교육을

받을 때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맹(실명)과 저시력으로 구분한다. 이때 맹은 점자 혹은 청각적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해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시력은 시력을 교정한 이후에도 심한 장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교정렌즈, 확대경, 망원경 등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이소현, 박은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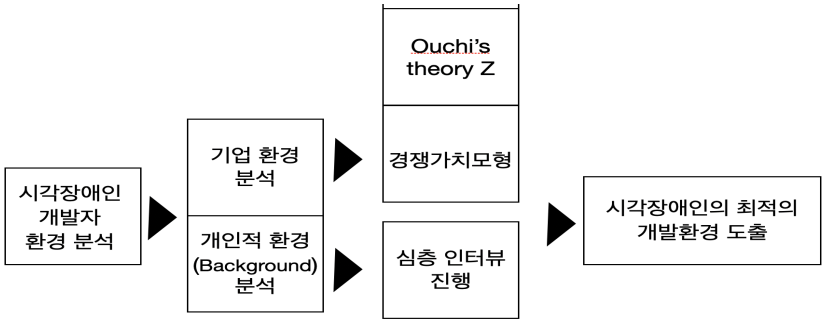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선정은 국내외 미디어에 노출된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메일, SNS, 회사 연락처 등을 통하여 심층 인터뷰와 구글폼 설문을 요청하였다. 이후 인터뷰 요청을 승인한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각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상황(위치, 시간 등)에 맞춘 대면 심층 인터뷰 혹은 화상 통화 프로그램,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과 개인적인 환경(background)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업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Ouchi의 Z이론 모형, 경쟁가치모형 세 가지를 사용했다. Z이론 모형을 통해 해당 조직 문화를 국가별 조직 문화 특성과 비교하는 분석을 시행하며,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조직의 문화를 다양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로써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고용과 근무가 이루어지는 조직 환경 특성 및 문화를 다방면으로 도출해냈다. 한편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개인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방식인 심층 면담 기법(interview)은 질적 연구 방식이다. 조직경영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을 때 배제될 수 있는 개인적인 측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담 기법을 통해 개발자들의 성장 및 발전 측면을 분석했다.

---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019.6.4.〉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그림 2〉 연구방법 요약

Z이론, 경쟁가치 모형을 통한 분석을 위해 두 모형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국내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고용되어 근무하는 몇 개의 회사 조직들을 대상으로 구글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 어려운 국내기업 또는 해외 개발자의 경우 기존의 문헌연구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 및 분석하여 본 연구에 알맞게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개발자 중 대표성을 띠는 대상자를 섭외하여 개인적인 성장 환경 및 진로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개발자'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조직, 개인, 사회적 단위 조직 등 경계가 있는 현상을 집중적이며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질적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다(전영국, 2017). 따라서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과거 경험, 가치, 영향, 관점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참여자 개인과 조직,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 개발자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영국, 2017).

1) 질문지 구성

기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지는 Z이론, 경쟁가치모형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모형의 구성요소와 그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정리한 후, 유사한 항목 또는 다른 모형의 항목을 통하여 중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및 생략하였다. Z이론에 기초한 질문은 이재열, 박인선(2019)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적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 ICT 기업의 조직문화 및 경영관리방식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한국의 경영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7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대립적인 두 유형을 제시하였다. 경쟁가치모형에 기초한 질문은 이동수(2007)의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한 한국 행정조직문화의 진단'에서 Cameron & Quinn(1999)의

문항들을 번역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토대로 하였으며 문화 종류별로 제시된 특징을 6가지씩 추려 1~16번의 문항으로 무작위 배치하였다. 이때, 현재 조직의 특성과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선호하는 미래 조직 특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문항에 대해 현재 자신의 조직 특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답한 후(1~16번) 자신이 선호하는 조직 특성에 한 번 더 답하도록 하였다(17~32번). 경쟁가치 모형에서 조직문화를 측정하는 척도에는 강제할당방식(forced choice scales)과 리커트 방식(Likert scales)이 있는데 4가지 문화유형 간 독립적인 측정에 더 용이한 리커트 방식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다(이동수, 2007).

〈표 3〉 Z이론 모형의 구성요소 및 해당 질문

모형	구성요소
Z이론 모형	- 고용기간 : 직원들의 평균 고용기간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 의사결정 방식 : 조직의 의사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권한책임 : 권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평가승진 방식 : 업무에 대한 평과와 승진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통제방식 : 조직 내의 통제 방식은 어떻습니까? - 경력설계 방식 : 직원들 기준으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경력설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종업원에 대한 관심 : 회사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출처 : 이춘우. (2014).

VOICEYE
voiceye.com

〈표 4〉 경쟁가치모형의 문화 종류 및 특징

종류	특징
관계지향문화	-조직은 매우 인간적이며 마치 가정의 연장선 같다고 느낀다. -조직의 리더는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조직을 결속시키는 힘은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에 있으며, 직원들의 헌신 정도는 강하다. -조직은 팀워크와 소통, 참여를 중시한다. -조직은 개인의 자아계발과 참여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조직에서의 성공기준은 인력개발과 팀워크, 한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다.
혁신지향문화	-조직은 매우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다. -조직 리더는 혁신 정신과 모험 정신이 있다. -조직을 결속하는 힘은 혁신과 발전에 대한 몰입이다. -조직에서는 최첨단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 -조직은 직원관리에 있어서 개인적 모험과 혁신 그리고 개성을 중시한다. -조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통한 성장을 강조한다. -조직에서의 성공기준은 가장 독창적인 것이거나 최신의 성과달성이다.
위계지향문화	-조직은 제도화되어있고 안정적이다. 직원들은 절차를 중요시 한다. -조직의 리더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 역할이다. -조직을 결속시키는 힘은 공식적인 규정과 지침이다. -조직에서는 원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중요시한다. -조직은 직원관리에 있어서 신분안전과 일체감 및 관계 지속을 중요시한다. -조직에서의 성공기준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실현하는 것이다.
과업지향문화	-조직은 결과와 업무완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직원들은 경쟁적이며 성취 지향적이다. -조직의 리더는 도전성과 성과지향성을 강조한다. -조직을 결속시키는 힘은 과업성취와 목표달성에 대한 강조이다. -조직은 직원관리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과 성취력을 중시한다. -조직에서 목표달성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조직의 성공기준은 타경쟁사와 경쟁에서의 승리다.

2) 면담지 구성

심층 면담은 질문지 조사에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개인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식으로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형의 구성요소 질문을 일부 포함하여 개발자가 되기까지의 개인의 경험을 중심적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경험은 크게 '(1) 개발자를 접하고 희망하게 된 계기, (2) 입사 과정에서의 대우, (3) 입사 후의 대우'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특히 입사 과정과 입사 후의 대우에서는 시각적인 제약에 대한 업무적인 배려를 포함하여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았거나 입사 준비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표 5〉 심층면담의 해당 질문

면담 기법	1.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과정(사원), 혹은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와 과정(CEO) 2. 코딩 및 개발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여 현재 개발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나? (교육시스템의 유무 등) 3. 개발, 채용 과정 및 업무 과정에서 유익했던 국가적, 기업적, 혹은 사회적 도움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4.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시각적 제약으로 인한 가장 큰 불편은 무엇인가? 5. 입사하기 전에 회사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6. 입사 전후(회사 설립 전후)를 비교하여 심리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자존감, 소속감, 자기효능감 등 7. 입사한 후, 회사생활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업무 상황 및 업무 환경이 있다면 무엇인가?

3) 자료수집

국내외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하여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구글 폼 설문지조사를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경쟁가치모형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국내외 시각장애인 개발자 총 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더하여 심층적인 내용은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나,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국내외 개발자 혹은 기업은 온라인 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더불어 언론사에서 진행되었던 인터뷰 자료나 기업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 양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4) 자료분석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는 각 문항이 어떤 모델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했다. 1번 문항부터 32번까지의 문항들은 경쟁가치모형에 포함되는 네 가지 문화유형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배적인 문화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문화적 일관도와 문화적 불일치도를 비교 분석했다(이동수, 2007: 227). 문화유형은 〈표 5〉와 같이 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로 구분된다. 이는 문화적 일관도는 각 문화유형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의미하며 각 항목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이용했다. 반면 문화적 불일치도는 같은 항목에 답한 현재의 조직 특성과 선호하는 조직 특성의 답변의 격차 정도를 본다. 이는 현재의 평균점수와 선호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통해 파악했다.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응답되었기에 평균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배점한 후, 같은 문화유형에 해당하는 문항끼리의 평균값을 구했다. 이때 문화적 불일치도 측정을 위해 현재 조직 특성(1~16번)과 선호하는 조직

KCI VOICEYE voiceye.com

특성(17~32번)을 구분하여 평균값을 계산했으며, 같은 문화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은 다음의 〈표 6〉을 참고했다. 33번, 34번 문항은 네 가지 문화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직의 성공 기준과 조직 결속에 대한 문항으로, 평균점수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유형 판단 시 함께 고려했다.

〈표 6〉

문화 유형	해당 문항 번호 (현재 / 선호)
관계지향문화	2, 6, 10, 13 / 18, 22, 26, 29
혁신지향문화	1, 4, 7, 12 / 17, 20, 23, 28
위계지향문화	5, 9, 14, 16 / 21, 25, 30, 32
과업지향문화	3, 8, 11, 15 / 19, 24, 27, 31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35번부터 39번까지의 문항은 Z이론 모형에 관한 질문이다. 각 질문에 제시된 두 가지 유형의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선택된 답을 통해 고용기간, 의사결정 방식, 평가승진 방식, 통제방식, 경력설계 방식의 유형을 파악하고 공통적인 조직 특성을 분석했다.

한편, 시각장애인 개발자와의 면담 내용과 문헌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기법 중 전통적인 내용분석(context analysis) 절차를 따라 표본 추출, 범주구성, 측정단위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졌다(주재현, 2002). 문헌자료는 해외 기업 조직 환경의 분석을 위해서 언론사에 진행되었던 다수의 시각장애인 개발자 인터뷰 사례와 기존 문헌 자료에서 시행되었던 아마존, 구글에 관한 기존 모델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표본을 추출했다(이정환 외, 2016). 측정단위는 문단으로 하여 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단위로 요약했다. 이후 의미 단위를 비슷한 주제 또는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각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다. 같은 범주 내에 있는 답변 내용을 공통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를 발전시켰다. 각 문항별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이야기를 추출하여 각 문항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삼았으며. 추가적으로 특이사항도 추출하여 이후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조직 환경을 분석하는 데 이용했다. 문헌자료의 경우 기존 분석모형을 수정하여, 인터뷰에 기록된 내용을 문장단위로 나누고 해당 유형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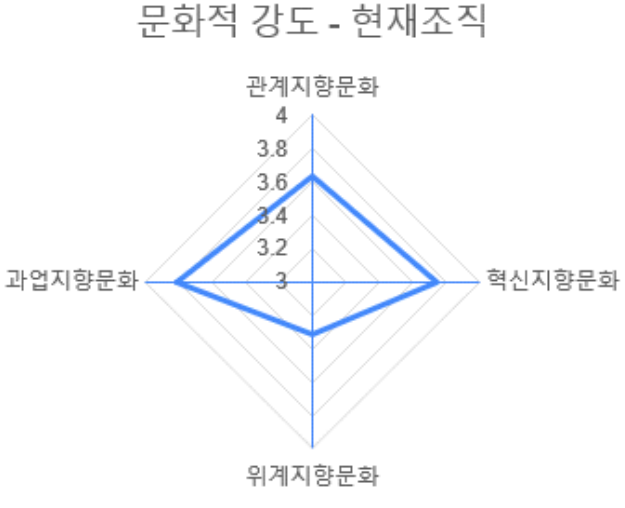
Z이론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춘우(2014)의 논문 내의 기존에 일본과 미국 조직 문화 유형에서, 한국 대기업 조직 문화와 새롭게 설정된 범주 유형이 추가된 Z이론 모형으로 활용했

다. 기존 A, J, Z타입과 이춘우의 한국 대기업 조직 타입 등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조직과 비교하는 역할로 활용했다.

경쟁가치 모형과 Z이론을 통한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통계적 결론을 얻기 위한 표본의 수가 충족되지 않아 자세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들을 통해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IV. 연구결과

1. 경쟁가지 모형을 통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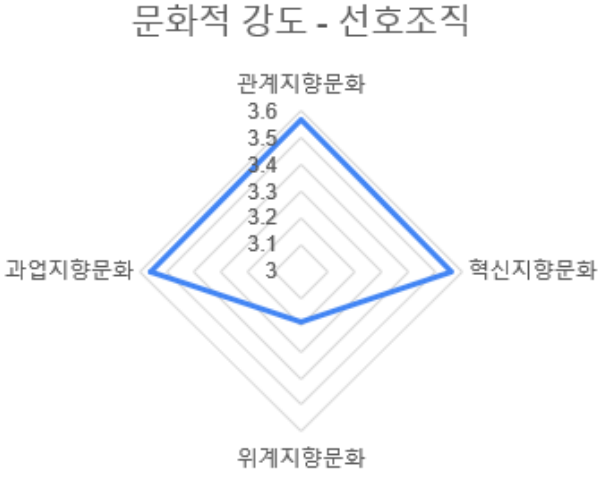


〈그림 3〉 현재조직의 문화적 강도

경쟁가치 모형을 토대로 표본을 조사해본 결과, 문화유형별 상대적 비교에서 '과업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가 현 조직에서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 유형별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해본 결과, 과업지향문화가 '3.8125', 혁신지향문화가 '3.75', 관계지향문화가 '3.625', 위계지향문화가 '3.3125'라는 값이 도출되었다. 기업 내 안정성과 통제를 동시에 중요시하면서 외부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려는 문화가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지배적 문화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을 발전시

VOICEYE
voiceye.com

켜나가고, 외부환경으로부터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그러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하는 문화도 지배적이라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동수(2007)에 의하면 “위계 중심의 안정성 지향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의 중앙행정조직”(p. 228)과 다르게, 시각장애인들이 종사하는 기업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 능력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켜나가길 원하고, 더 나아가 외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경향이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은 현재 종사하는 기업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선호조직의 문화적 강도

또한, 경쟁가치모형을 통해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 설문을 진행해 본 결과, 관계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가 ‘3.5625’라는 동일한 수치가 나왔고, 위계지향문화가 ‘3.1875’로 낮게 나왔다. 이는 현재 기업문화가 ‘과업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로 지배적인 것을 감안해보면, 관계지향문화가 앞으로 상대적으로 추구되는 기업 문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6]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은 앞으로 조직 내 분위기가 가족적 관계로 형성되길

6) 현재 조직에서의 기업문화 수치와 선호하는 조직에서의 기업문화 수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조직에서의 기업문화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조직에 만족하여 선호하는 조직의 질문지에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표본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호조직 기업문화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조직과 선호조직 내에 존재하는 수치들을 비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려고 한다. 현재 조직과 선호 조직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현재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는 의미로 분석하려고 한다.

호하며, 조직 구성원들 간 연대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쟁가치 모형을 통해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문화를 분석해보자면, 현 기업문화가 '과업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로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경쟁가치 모형에 기초하여 두 문화의 공통적인 양상을 추론해보면, 외부환경으로부터의 경쟁승리와 외부환경에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지향적 가치를 추구하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기업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미래가치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기업문화를 이끌어 내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이러한 기업문화를 선호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기도 한다. '관계지향문화'는 조직 내부의 균형 및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응답한 선호하는 조직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화도 조직의 지배적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길 추구한다.

2. Z이론을 통한 분석

〈표 7〉 Z이론을 통한 두 기업의 조직문화 비교분석

구분 / 기업	시각 장애인 개발자 고용 기업	한국의 대기업
의사결정방식	최고경영계층	오너중심의 전제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방식
평가승진방식	성공 및 능력 중심의 보상시스템	신속한 성과평가와 승진
통제방식	규칙 또는 절차로 규정하는 명시적인 통제	상명하복의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메커니즘
경력설계방식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깊은 전문화	비전문화된, 전문화된 경력경로의 혼합
고용기간	1년 이상	종신고용 → 단기고용 + 중기고용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업무 환경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Z이론을 활용하여 구성원들과 그 구성원들 간의 분위기, 환경 등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적 특성'과 시각장애인이 종사하는 기업 조직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한다면 그들에게 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대기업의 조직문화'와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을 비교 분석하자면, '의사

KOR VOICEYE voiceye.com

결정방식'과 '평가승진방식', '고용기간'에서 서로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로 최고경영계층에서 일어나며, 개개인의 승진은 신속한 평가제도를 통해 성공 및 능력을 인정받아 이루어진다. 또한, 대기업의 구성원들과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은 공통적으로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유지하여, 한국 기업 및 시각장애인 개발자 고용 기업들이 단기적, 중기적 고용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두 기업의 문화를 비교해본 결과 '통제방식'과 '경력설계방식'에서 차이가 두드려졌다. 한국 대기업에서의 통제방식은 '상명하복의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 메커니즘'을 따르는 반면에, 시각장애인 개발자 고용 기업에서는 '규칙 또는 절차로 규정하는 명시적인 통제'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대기업에서는 명시적, 비명시적 통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 후자 기업에서는 오직 명시적 통제방식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력설계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 대기업에서는 '비전문화된, 전문화된 경력경로의 혼합'이 나타나지만 시각장애인 개발자 고용 기업에서는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깊은 전문화'가 더욱 주목받았다.

이러한 유의미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시각장애인 개발자 고용 기업에서는 성과제도를 운영하여 능력을 인정해주며, 명시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개발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업무에 전문화된 인력들을 고용하며, 고용을 단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 개발자 고용 기업이 한국의 대기업 조직문화보다 더 개방적이고 구성원들끼리 우호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심층면담

1) 각 문항 별 답변 (Q1 - Q7)

Q1)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과정(사원), 혹은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와 과정(CEO)

"저는 인생에서 제가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개발자로서 현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면접관님들이 제가 시각장애인인 걸 보셨고, 저도 코딩 면접에서 화이트보드 대신 컴퓨터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여쭤본 후 제 컴퓨터로 그들의 코딩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개발자 A)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그러던 중 시각장애인 학교의 친구가 웹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adorable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하다 보니 중독되는 기분을 느낄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건 컴퓨터가 아니야, 이건 나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는데, 그러다보니 진로를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채용은 일반 면접과 동일하게 했었는데 솔직하게 시각장애인을 당당하게 알리기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느낄만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시키는 거를 해내는 모습만 보여주자는 마음가짐으로 과제 해결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발자 B)

"저는 장애가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장애는 어떻게 기술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신체적인 장애는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의 적용이 적용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문제가 참 많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개발자들과의 컨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된 개인적인 이유는 이런 부분이었고, 실질적인 이유로는 요즘 기업에서는 인적성 시험이라는 것을 봐요. 그런데 문과직렬의 경우 문제를 소리로 듣고 빠르게 풀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 내로 문제를 푸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개발자 직렬의 시험의 경우 코딩테스트로 긴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이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 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시각장애로 인한 손해가 좀 줄어들어서 개발 직렬에서 시각장애인이 공채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높아지는 거예요."

(개발자 C)

Q2) 코딩 및 개발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여 현재 개발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나? (교육시스템의 유무 등)

"제가 고등학생 때 컴퓨터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때 현업은 아니고 취미로 개발을 하는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몇몇 있는 시각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게임 프로그래밍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디오 게임을 만드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서 오디오 기반 사운드 이펙트가 있고 키보드를 컨트롤 하는 시각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코딩 실력 향상은 독학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개발자 A)

"저는 8살 때 제 컴퓨터가 생겼고, 맹인 학교에서 그걸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컴퓨터는 오래된 M.S. DOS 컴퓨터였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워드 프로세스 외에 다른 건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일반 학교로 옮긴 뒤 윈도우 98로 바꿨었는데, 그 때 친구가 웹사이트 만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화면에 뭐가 나타나도록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코딩 실력을 길렀습니다."

(개발자 B)

"처음 코딩을 접한 계기는 대학교 교양 필수 컴퓨터 수업이었습니다. 학습의 경우, 사실 정규 대학에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과정을 공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서 교수님들도 저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공부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교수님들도 이걸 바꾸기엔 작은 일도 아니고 몇 년간 해온 교수법이 있는데 그걸 바꿔야하는 리스크도 있어서 바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 알고리즘은 순서도잖아요. 이런 경우 visuallize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한데 저의 경우 이런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면서 공부했고, 친구들도 감사하게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의 도움보단 친구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개발자 C)

Q3) 개발, 채용 과정 및 업무 과정에서 유익했던 국가적, 기업적, 혹은 사회적 도움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가정에서 제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회사에 취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회사 업무 적응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오픈 마인드라는 점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개발자 A)

"사실 교육기관이나 정부의 도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특히 국가나 학교에서의 서포트는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못되거나 불편한 점을 말하면 개선해주고 고쳐주는 부분은 있었지만,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완전히 끊겨요, 그래서 그 때부터는 진짜 혼자가 돼요. 특히 대학교의 경우 비교적 훨씬 protocol oriented한 경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게 훨씬 힘들어요. 조금 슬프지만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들어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기관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학장이나 학과장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결책을 던져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발자 B)

"딱히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C)

Q4)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시각적 제약으로 인한 가장 큰 불편은 무엇인가?

"사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표나 벤다이어그램 등 시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작동하는지 제 두뇌의 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개발자 A)

KOR VOICEYE voiceye.com

"많은 경우에 비디오나 visualize된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 경우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개발자 B)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설명할 때 많은 그림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 때 주변에서 설명해 주는 방식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업자가 설명해줄 때 '이건 원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개발자 C)

Q5) 입사하기 전에 회사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람들은 제가 만든 결과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이를 수행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었습니다."

(개발자 A)

"본인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타기도 힘들다는 점과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맹인안내견을 수반하여 이동해야한다는 점이 걱정됐습니다. 특히 안내견의 경우 강아지 털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이런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개발자 B)

"기본적으로 저는 회사에 가기 전에 현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학교 수업으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은 있지만, 현업과 학부 프로젝트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업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월급 루팡이 내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할당된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개발자 C)

Q6) 입사 전후(회사 설립 전후)를 비교하여 심리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시각장애가 저를 뒤에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는 것은 제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A)

"회사를 여러 곳을 다녀보고 옮겨보면서 현재의 직업에서 잘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 제가 다시 고용될 것을 알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영역에서 제가 competitive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개발자 B)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발자 C)

Q7) 입사한 후, 회사생활을 하며 개선이 필요한 업무 상황 및 업무 환경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의 회사는 저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업무 상황에 필요한 개선점은 크게 없습니다."

(개발자 A)

"딱히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맹인학교의 경우 맹인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특히 사회의 일부로 건강하게 통합되는 데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은 비하적이고 devauling한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기술들을 배우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학교에서 mainstream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것이 사회적인 능력과 자존감을 기르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 B)

"환경적으로는 크게 개선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C)

3) 공통적인 요건

(Q1)은 회사에서 지원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이때 지원하게 된 계기의 경우 세 개발자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개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A의 경우, 개발자로서의 취직을 시각장애인으로서 많은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B의 경우 코딩을 adorable하다고 느끼고 업으로 삼고 싶다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C의 경우 장애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시각장애인임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기하였다.

A의 경우, 코딩 면접에서 화이트보드를 통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인 컴퓨터를 통해 코딩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B의 경우, 시각장애인으로의 면모를 최소화(minimize)하고 시킨 코딩을 컴퓨터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했다. C의 경우, 처음 지원했던 문과직렬의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많은 문제를 읽어도 되지 않는 개발자 직군이 되기 위한 코딩 능력을 길렀다고 말했다.

(Q2)는 코딩 및 개발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학습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이때 코딩 및 개발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의 경우, C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주변 사람을 통하여 흥미를 갖게 되었다. C의 경우 대학교 정규수업을 통하여 코딩을 접하게 되었다.

학습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친구의 도움을 통한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C의 경우를 참고하면 이 경우 전형적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정보전달 방식보다는 도제식 전달법을 통한 학습이 오히려 효율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의 코딩 능력을 기른 후에는 모두 독학을 통하여 실력을 길렀다.

(Q3)은 개발·채용·업무 과정에서 국가적·기업적·사회적 도움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모든 개발자들은 국가적·기업적·사회적 도움은 크게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개발·채용·업무 과정에서 제도적인 도움은 부재한다고 봐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다만, A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B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장이나 학과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측면의 도움은 일부 존재할 것으로 파악된다.

(Q4)는 업무 과정에서의 시각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모든 개발자들은 visual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개발자 C의 (Q2)에서의 답변을 참고했을 때, 코딩 학습에서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제약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Q5)는 입사 전 회사생활과 관련한 통상적인 우려에 대한 질문이. 이에 대하여 모든 개발자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내용은 회사에서의 주위 사람 관련 문제였다. A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개발자에게 가질 수 있는 stereotype에 관한 우려를 표했고, B의 경우, 본인의 시각장애인적인 요소들이 주변에 미칠 영향(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C의 경우, 본인이 흔히 말하는 프리라이더(free rider)[7]가 되어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이적으로 C의 경우, 현업 경험의 부재로 인한 실질적 업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Q6)은 입사 전후의 심리변화에 대한 질문이다. 이 경우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A의 경우,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심리적 변화가 있었고, B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긍정적 방향의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 C의 경우 앞선 경우들과는 다르게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각기 이유는 상이했지만(주변 중심, 본인 중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심리적 변화가 존재했으며, 모든 경우에서 부정적 방향으로의 심리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Q7)은 업무 관련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질문이다. 이 경우 학습이나 채용과는 달리 모든 경우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련하여 개발자 C는 개발환경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이 개발자가 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맹인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7) 무임 승차자에서 유래된 말로 쉽게 말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VOICEYE
voiceye.com

V. 결론 및 제언

먼저,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종사하는 기업에서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조직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이 느끼는 기업 내의 업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고, 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경쟁가치모형 중 '관계지향문화'를 선호하는 조직문화로 고른 것에 대한 이유를 추론해보았을 때, 기업 내부적으로 통합과 연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최적 환경이 현재 어느 정도 잘 조성되어 있지만, 기업 내의 구성원들 간의 문화 형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개인 환경적 측면에서는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필요 개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의 양성과 시각장애인 채용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시각장애인 개발자의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실질적인 제도적 도움이 없다는 점이 있다. 특히 모든 경우에서, 코딩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된 경위가 굉장히 개인적인 출처였다. A와 B는 주변 사람들(친구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을 통해 코딩에 대해 알고 관심 갖게 되었고, C의 경우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의 교양수업을 통하여 코딩에 대해 알고 관심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시각장애인 커뮤니티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면 코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비 프로그래머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개발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의 도움 역시 현실적으로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모든 경우에서 정규 수업이나 제도적 도움을 받아 코딩 능력을 길렀던 경우는 부재했고, 모두 주변 사람들의 맞춤형 도움을 받아 기초적인 코딩 능력을 길렀다.

특히, C의 경우, 전형적인 교수자-학습자 형태의 프로그래밍 수업도 수강했으나, 면담에서 실제로 교수님들의 수업보다는 친구들의 도움이 코딩 능력을 기르는 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는 시각장애인 코딩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 맞춤형 교습 방법인 '도제식 교육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딩에 관심을 갖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하여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성된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을 다시 도제식 교육의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모든 면담

참가자들이 업무에서 시각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이 visual적인 요소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온다고 답한 점에서, 프로그래밍 중 이해할 필요가 있는 visual적인 요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교수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채용에 있어서는 개발자 직군의 채용 방식은 다른 직군의 채용방식에 비해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모든 면담 참여자가 특채가 아닌 공채를 통하여 현재 회사에 개발자로 취직하였으며, 면접에서의 코딩 테스트 역시 문제없이 통과했다.

그러나 면담에서 취직 전의 시각장애인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생길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답한 점에서 이러한 편견과 두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양성 과정에서 실제 선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주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심리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KCI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강종구. (2013).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통해 살펴본 시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연구. 시각장애연구, 29(4), 111-130.

김두선, 이재은. (2012). 주민자주민자치센터와 소방서의 조직문화와 조직역량 비교 분석: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Ouchi의 Z이론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2), 215-237.

김상준. (2009). 시각장애인의 고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태, 김형준, 김효정, 한동우. (2010). 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0(1), 267-287.

김호정. (2002). 한국행정문화연구와 경쟁가치모형. 한국정책학회보, 11(3), 219-238.

남정한, 강우진. (2011).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고용결정 요인. 임상사회사업연구, 8(2), 115-137.

배선영. (202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 동향: 1993-2020년 국내·외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0), 688-701.

박내회. (1982). Z이론의 한국경영풍토에 적용연구. 경상논총, 4(1) : 149-160.

박상언, 김영조. (1995). 조직문화 프로필과 조직효과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4(3), 213-238.

박성빈, 안성진. (2016). 컴퓨팅 사고력의 역량 탐색 연구 소프트웨어개발자를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9(5), 41-53.

서원선, 서욱영. (2018).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기반 연구 안마업 이외의 직종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8(2), 59-84.

오욱찬. (2014). 장애 통합적 기업전략 I. 연구자료, 2014(1), 28-39.

오욱찬. (2014). 장애 통합적 기업전략 II. 연구자료, 2014(2), 28-39.

이관석, 예기훈. (2019). 시각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안광학회지, 24(1), 1-9.

이동수. (2007).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한 한국 행정조직문화의 진단. 한국행정논집, 19(2), 215-245.

이소현, 박은혜. (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이용성. (2021). [미래현장 르포] 가치관과 문화, 목표의식 공유가 원격근무 성패 가른다 : 미국 실리콘밸리 컨설팅기업 스트래터지 앤드 레스트(Strategy and Rest)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CEO), 알렉스 수정 김방(Alex Soojing-Kim Pang).사목정보, 14(3), 98-102.

이익섭, 박수경, 곽지영. (2003).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4, 149-176.

이정환, 한억수, 정신영. (2016). 글로벌 콘텐츠 기업 구글의 혁신적 기업문화 분석: 7S 모델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31-432.

이재열, 박인선.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적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 ICT기업의 조직문화 및 경영관리방식을 중심으로. 경상논총, 37(3), 45-67.

이춘우. (2014). 한국기업의 조직문화: 조직문화적 역량 관점과 공유가치DNA구조 관점에서의 한국 대기업의 성장동력 탐색. Korean Joulnal of Management, 22(1), 39-93.

이태훈, 김영일, 조성재, 강성주, 김현진, 김훈. (2020).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체계 및 훈련 직종 개발 연구(pp.243-27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국 능력개발 운영부.

이현주, 이원주. (2020). A Study on Effective Software Education Model by Disability Type for Youth.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10), 261-268.

임은정, 김성진, 신현욱. (2013).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연구. 장애와 고용, 23(1), 297-298.

전봉성. (2006). 한국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사례. 세미나·토론회, 165-177.

전영국. (2017).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열린교육연구, 25(1), 147-168.

전영환, 이태훈, 조성재. (2017).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탐색 연구. 장애와 고용, 27(1), 5-28.

주재현. (2002). 내용분석 방법의 수행절차 및 적용 연구사례 분석. 정부행정, 3, 29-56.

Kwan, P., & Walker, A. (2004). Validating the Competing Values Model as a Representation of Oranizational Culture through Inter-institutional Comparisons. *Organizational Analysis, 12(1),* 21-37.

Mcdonald, Paul., Grandz, Jeffrey. (1992). Getting value from shared values. *Organizational Dynamics, 20(3)*, 64-77.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4.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voiceye.com

Abstract

A Study o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Software Developers : In priority of analyses of managemental organizing theories and interviews by qualitative methods

Nam Taegwang*·Lee Sunho·Lee Sucheol***·Jeong Yeeun******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disabled that is pos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usage of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such as smart phone, intern et, computer by disabled is increasingly growing. Especially, in visually-impaired's case, the proportion of usage of smart phone is higher than other disabled,(55.9%), and the proportion of using smart phone every day reaches 90.5%. It means that smart phones and its applicati on programs are more than communication equipments to visually-impaired. Especially, in re cent AI fields, lots of programs for visually-impaired are developed so that they can live m ore conveniently. However, according to a lot of recent studies of AI, there are few attempt s that can improve visually-impaired's life, but they are extremely limited. Also, almost of studies are focusing on the able-bodied.. It means that this kind of attempts can be invalid to the visually-impaired. That is, developments by able-bodied can't be the essential soluti

*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 Department of Chinese Culture, Sog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iy of Seoul
****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n. This researchers try to figure out the optimum environment for independent developing o f visually-impaired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inherently. To this end, we are going to analyze the business environment that visually-impaired developers are working successfully with Ouchii's Z theory, Competing values model. Simultaneously, we are going to pose some depth interviews to the blinded developers so that we can analyze and figure out the best developing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ask-oriented culture" and "innovatio n-oriented culture" were becoming dominant cultures in the current organization, and "re lationship-oriented culture" was lower than developer's expectations. Although they gathe red to be satisfied with most of the environment,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training an d hiring some developers were revealed.

Keywords : software developer with visual impairment, business environment of visually-impaired developers,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the visually-impaired, organizational culture, competing value model, Theory Z.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99 - 132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장애관과 오감교육의 필요성
: 영화 〈천국의 속삭임〉 중심으로

문초비*

본 연구는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천국의 속삭임〉(2009)이라는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 방식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영화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시청하였고, 장애 이미지에 대한 문헌과 학술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한 결과, 영화 속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프란체스카는 미르코를 포함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즉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오감 및 행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하여 학습 및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된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기회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방식, 즉 오감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석사

교육을 제안하였다. 셋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오감'을 활용한 교육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시각적인 표상이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문답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과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또한 영화 속에 나타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현장을 분석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성과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과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방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데 기여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천국의 속삭임, 시각장애, 오감, 교육, 바람직한 장애관

VOICEYE
voiceye.com

Ⅰ. 연구의 필요성 및 기존 연구의 한계

영화는 여러 대중 매체 중의 하나로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김용임, 2004). 그러므로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영화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인식의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즉 영화는 사회를 사람들에게 재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영화도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사회를 반영하지 않는 영화는 없다(안은자, 윤정란, 조원일, 2020). 또한 영화는 단순히 작가의 개성과 세계관을 표현한 텍스트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황인욱, 2010). 텍스트는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작가에 의해서 반영되어지고, 그 후에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텍스트는 독자들의 해석에 의해서 재구성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방식과 현실의 교육방식 사이의 간극과 합일의 전이점을 파악하고 모색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의 도구가 되는 텍스트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황인욱, 2010). Barthes(1997)은 텍스트를 의미의 생산으로 개념화하였으며, Rosenau(1992)는 어떤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다. 따라서 연구자는 텍스트는 작가에 의해 생산되지만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작가보다는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텍스트는 해석을 위한 도구이며, 영화는 그 자체만으로 텍스트가 될 수 있다(황인욱, 2010). 즉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재현인 영화를 통해서 본 연구 대상인 영화 〈천국의 속삭임〉 속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적절한 교육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 변화의 메시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사구조, 영화의 의미와 상징성, 영화에서 재현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영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화를 분석하고 영화 텍스트가 제기하는 문제를 한 사회의 문화적 현실에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다(박길자, 이미식, 2002). 꽤 오랫동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의료적 모델의 관점에서 멸시와 조롱, 열등감을 받는 대상으로 표현되어지고(이규태, 1981), 조홍중과 전이상(2003)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영화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시킴으로써 관객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점(김홍주, 박원희, 2003)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선에서 사회문제화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국외에서도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Nelson(1994)은 영화에서 지배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연구하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은 '불쌍하고 동정적인', '영웅적인 결심으로 차별에 맞서 싸운 또는 초인적인', '사악하고 불길한', '죽는 것보다 나은',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장애 자체가 최악적인', '부담스러움',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의 7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앞서 언급했던 몇몇 선행연구들(이규태, 1981; 조홍중, 전이상, 2003; 김홍주, 박원희, 2003)과 Nelson(1994)이 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영화가 반영한다면, 영화라는 매체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므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전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대부분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재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교육 방식에도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장애 극복서사와 성장을 그리고 있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통하여,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와 더불어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진로 교육을 통해 경제·사회 공동체로서의 투입과 자립까지 살펴볼 것이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의 배경은 1970년대 이탈리아이다. 그 당시 이탈리아의 복지유형은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소득비례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었으며(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2012),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에 맞춘 복지가 이슈화되기도 한 시기였다(Girotti, 1998).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특수학교에만 가야하는 법을 폐지한 시기는 1975년이 되어서였다. 이 시기 이탈리아 정부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함께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는데, 즉 1975년 이전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Nelson(1994)가 언급했던 것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의 이미지와 Haller(1997)이 제시한 '사회 병리적'이며 '도움을 원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시작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며, 더불어 특별하게 제시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 방식을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방식은 자신의 재능을 알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숙제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나가는 주인공의 배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직조공, 용접공, 전화 교환원 등의 교육 이면에는 '무능력은 사회적인 불이익으로서의 장애를 초래한다'는 신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진정한 교육이란 학습이 자유롭게 탐구되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모든 아동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재능이 표출되는 연속선상에서 특수한 아동,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있는 것이고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특정 손상이나 무능력이 개인의 삶에 불이익과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과 지도 선생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어떤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나 감각들의 가치와 느낌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현실 가능성이 높은 오감 교육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화에서 줄리오 선생님은 주인공인 미르코에게 "너에게는 오감이 있는 데 왜 한 가지만 사용하니?"라는 질문을 통해서 시각적인 부분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 미르코는 자신이 청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줄리오 선생님은 중도에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미르코의 마음과 정서적인 부분을 이해해주었으며, 미르코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제공해주었으며, 점자 배우기를 거부하였을 때 책임감으로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배우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줄리오 선생님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사계절을 가르칠 때, 단순히 점자로 된 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준비하여 촉각과 청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촉각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시각적 경험과 다르며, 반드시 시각화하는 것도 아니므로(김영린, 2003)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오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세상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기철(2013)은 오감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다섯 개의 감각은 개별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교육에 제한적이지 말아야 한다.

영화는 이러한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로서 본 연구자는 관객들의 정서적인 부분만을 건드려서 단순히 장애가 있음에도 성공을 하였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아쉽다고 생각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이 관객들이 바람직한 장애관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방식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능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었다고 생각된다.

본격적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애의 정의, 사회·문화 속에서의 장애 그리고 장애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를 설명하려면 먼저 손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Benedict Ingstad와 Susan Reynolds Whyte(2011)의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에서 "손상(impairment)은 심리학적·생리학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성(P. 16)"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판정하는 것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P. 19)". 이에 비해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연유하며, 인간으로서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P. 19)"로 정의되어 진다. 핸디캡(handicap)이란 "신체기관과 활동 수행에서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와 관련된다. 그리고 손상 또는 장애로부터 연유하며(연령·성 및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제약하거나 가로막는, 어떤 개인에 대한 불이익으로(P. 19)"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연유하며, '핸디캡'은 '손상' 또는 '장애'로부터 연유한다. 또한 Colin Barnes, Michael Oliver 그리고 Len Barton(2017)의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에서 장애는 "제한된 활동 그 자체와 동일시되지 않으며(P. 82)", "손상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인되지 않지만, 그러한 제한들은 장애가 아니다(P. 82)"라고 하였다.

장애와 사회·문화를 살펴보면, Colin Barnes, Michael Oliver 그리고 Len Barton(2017)의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에서 장애는 "사회 전체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갖는, 흔한 개인적 경험이면서 지구적 현상이기도 한다. 공인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시초부터, 그리고 모든 사회에 존재해 왔다(P. 14)"라고 하였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와 사회·문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장애는 "사회학 내에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증가(P. 18)"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이 "각각이 전통적인 '장애' 정체성에서 기인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지만, 어떤 것도 그러한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에 대하여 진지

VOICEYE voiceye.com

하게 문제 제기를 시도하지는 않았다.(P. 19)"

장애의 사회적 해석은 "공인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 사회가 실패함으로써, 직접적인 손상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장애화된다고(P. 21)"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손상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손상 위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장벽에 집중(P. 22)"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장벽들은 "사회적으로 속성화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배제하며 억압을 발생시킨다(P. 72)." 다시 말하자면 장애는 "개인적 결함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고(P. 22)",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일부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P. 34)"은 불가피한 점이다. 이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Oliver(1990)는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장애인이 처하는 사회적 불이익은 사회적 환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경험하는 활동의 제한과 무수히 많은 불합리함이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손상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결과(P. 75)"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손상을 지닌' 그리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전적으로 담론에 의해 구성되고(P. 98)", "'결함이 있는' 몸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동시에 충분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없는 것(P. 108)"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은 노동력이 '손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업 생산으로부터 배제되었다(P. 110)." 다시 말하자면 손상이 있는 몸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잉여물에 불과했는지도 모르며(P. 113)", "직업 등의 영역들에서 개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장애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가치화될 것이고, 따라서 장애를 지닌 개인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열등하다는 오명의 부여, 즉 낙인화라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P. 220)."

결론적으로 "손상은 사회적인 것이고, 장애는 체현된 것(P. 119)"이며 "사회는 신체적(P. 135)"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억압의 한 형태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장애화되지 않는 사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견해(P. 211)"를 밝혀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란 "손상을 지닌 개인들에게 중요성을 갖는 노동·운송·여가·교육·가정생활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사회가 조직해 내는 특정한 방식들로부터 발생하는, 변화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역사적 시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각 시대 내의 여러 사회들 간에서도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사회 사이의 '관계'인 것이다(P. 222)." Tom Shakespeare(2006)의 『장애학의 쟁점』에서도 손상은 "보통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는 아니다(P. 122)"라고 말하고 있으며, "장벽의 제거나 지원의 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상은 많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P. 116)"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와 재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우충완(2019)과 Rosemarie Garland-Thomson(1997)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먼저 우충완(2019)에 의하면, “문학과 영화에서 재현되는 장애나 장애 인물들이 대게 불행, 비극, 수난 등 부정적인 은유나 상징으로서 도구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애의 은유나 상징은 지배와 종속의 이분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교묘하게 공론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반면에 Garland-Thomson(1997)은 영화나 문학 등 여러 대중 매체의 텍스트 안에서 장애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활발히 연구되어질 시기의 주요한 연구자이다. 그는 그의 저서인 『보통이 아닌 몸』에서 “문학적 재현은 현실보다는 개연성, 즉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에 더 의존한다(P. 25)”고 하였다. 즉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들에게 주체성 또는 행위 주체성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 장애 인물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P. 26)”. 그리하여 문학 또는 영화에서 재현되는 장애 이미지와 담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재현과 관련된 연구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작용될 것임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장애 인물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 문학 비평가들은 흔히 이들을 은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정치적인 인식 없이 그들을 감상적, 낭만적, 고딕, 또는 괴기적 문학 전통의 관습적 요소로 읽는다(Garland-Thomson, P. 23). 따라서 장애는 오로지 신호하는 시각적 다름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문학 텍스트는 장애 인물들을 정상화 맥락을 박탈하고 단 하나의 낙인찍힌 특성에 둘러싸인 기형인간들로 만드는 것이다(Garland-Thomson, P. 25).

한편 Benedict Ingstad와 Susan Reynolds Whyte(2011)의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에서 “해석은 사회적 과정인 것(P. 51)”이므로 “장애에 관한 개인적인 내러티브 생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며 연구물 생산자들과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P. 54)”고 한다. 영화에서는 연구물 생산자들이 감독이 되고, 독자들은 관객들이 되는데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애관이 영화에 담겨지게 되고,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신념과 관념들로 인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행위자들의 (일차적) 해석을 바탕으로 (이차적) 구성물을 만들어 내는(P. 52)” 것이다. 한편 국외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중 매체 노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현된 이미지는 둔함, 무력함, 이기적임, 무식함의 존재로서 표현되어졌다(Donaldson, 1981).

Barnes(1997)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 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스테레오타입을 ‘불쌍한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약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 슈퍼 장애인, 주인공의 최악의 적, 부담스러운 사람, 성욕이 결여된 사람, 일생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10가

VOICEYE
voiceye.com

지로 나누었다. 이처럼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미지는 주로 동정 받아야 하는 사람, 내러티브의 전개에서 비장애인들을 당황시키는 존재로 표현되었다(강진숙, 김동명, 2019).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격과 욕망을 제거시키고 장애라는 요소만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hakespeare, 1999).

결론적으로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현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주장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대중 매체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진숙, 김동명, 2019). 그러므로 대다수의 대중 매체 속에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패싱(passing) 양상이 심화되어 있으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대중 매체의 재현이 필요하다(강진숙, 김동명, 2019).

다음으로는 국내·외 연구현황 및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국내·외 장애연구는 학제 간 연구가 주를 이루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연구자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그 예로 중요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을 소개한다. 국외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은 오래된 연구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활동이 활발해진 1980년대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졌으며(김홍주, 박원희, 2003), 영화, 텔레비전, 문학 등 다양한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에 대해서 연구되어졌다. 그 연구자들 중 Rosemarie Garland-Thomson(1997)은『보통이 아닌 몸』에서 과거 문학 속에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재현은 그들의 이미지가 소수집단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써 이용되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장애는 문화적 규칙이라고 말하면서, 장애는 형상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이룬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어질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도 그 당시의 이탈리아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드러나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일반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특수학교에만 다녀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였고,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그리고 문화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후반부에서는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시위하는 장면과 저항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이탈리아 정부는 1975년에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특수학교에만 다녀야 한다는 법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Garland-Thomson(1997)이 제시했던 장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저항이자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영화에 비춰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Elliot과 Byrd(1983)는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문학, 텔레비전에 나온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Longmore(1987)도 몇 십 년간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재현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Nelson(1994)과 Haller(1997) 역시 영화와 텔레비전 등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지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시각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재상산하고 있는 결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외 연구들에 비해 영화와 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연구자가 '장애인'과 '영화' 2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을 때, 영화와 장애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작한 영화에 대한 분석이나, 한 두 편의 유명한 영화를 분석한 내용이 대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외 연구들에 비해 국내 연구들은 영화에만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문학이나 다양한 대중 매체 속에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과 사회 공동체로서의 통합까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정(2000)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온 한국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연 또는 조연으로 출현한 영화들을 분석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아의식과 사회의 일반적인 차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김홍주와 박원희(2003)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인물이 묘사되는 것에 따라 나름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권명옥과 서화자(2004)는 문학적,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선자(2007)은 영화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코드를 사용하여 영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고, 서진환과 김정은(2015)과 박홍곤(2017)은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재생산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위의 선행연구자들의 입장과 동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영화 매체의 긍정적인 효과

VOICEYE voiceye.com

와 파급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교육적 영역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지지는 1960~70년대, 제도적인 뒷받침은 1970~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90년대 와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통합에 관심이 일어났으며(정지훈, 이영미, 2009), 1991년부터 국내 선행연구들이 발견되었다. 시각장애교육 관련 연구 주제의 동향을 정지훈과 이영미(2009)가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교과교육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교과로는 국어와 미술로 나타났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도 줄리오 선생님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촉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계절과 관련된 사물들을 준비하여, 그것을 만져보면서 글을 써 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았을 때,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문학을 가르칠 때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오감교육을 활용해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의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관련된 주제이다(정지훈, 이영미, 2009). 본 연구에서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중심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논할 것인데, 앞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관련된 연구에 이어서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효과가 좋은 교육 방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화라는 문화적 산물을 분석하므로 연구자가 제안하는 교육 방식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식 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본 연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상상력을 끄집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계속하여 시각장애교육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민수와 김영일(2010)은 시각장애학교의 개별화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박순희(2006)은 시각장애교육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주인공 미르코를 대하는 줄리오 선생님의 태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덕순(2010)은 시각장애 학생의 교과교육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미선, 김기창, 김정현, 김호연(201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1980년 이후부터는 통합교육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0%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30%만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은송과 한성희(2008)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업은 안마사나 침술사에서 점차 사무

직과 전문직으로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특수학교의 교육과정도 현 시대에 맞춰서 발을 맞추거나 앞서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는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며, 특히 중도 실명자를 위한 직업교육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장애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과정과 방식에 대하여 관심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나아가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대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영화 속 장애 재현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영화 〈천국의 속삭임〉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방식을 현 주소에서도 고민하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필요가 될 것이다. 강경숙(2009)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가르치는 교수적 수정법을 강조한 바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도(박순희, 2006; 이해균, 임안수, 이우관, 2006; 김정현, 이태훈, 2003)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개인별로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오혜정, 황도순 그리고 박현옥(2006)도 개인의 잠재 능력과 강점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교육 동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지훈과 이영미(2009)가 시각장애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과교육에 대한 주제는 25편(18.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감교육'을 통하여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바람직한 장애관이란 무엇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떠한 교육 방식이 적절한가?

VOICEYE
voiceye.com

Ⅱ.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천국의 속삭임〉

본 연구는 장애관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방식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지는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장애관의 초점이 아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 방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자료가 되는 영화 텍스트 역시 장애 재현에 있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상영된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천국의 속삭임〉을 통해 장애관과 교육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을 보이는 영화들은 많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방식까지 다룬 작품은 흔치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중심으로 논하려고 한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인하여 훗날 유명한 음향 감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2. 영화 〈천국의 속삭임〉 주요 정보

1) 개요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드라마, 가족 영화로 2009년 12월 17일에 개봉하였다. 본 영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이탈리아 음향 감독인 미르코 멘카치의 실화에서 출발한 영화이다. 그는 8살의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해 전문 뮤지션 겸 음악 프로듀셔로 활동하고 있다. 미르코는 이탈리아 주요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을 맡았으며, 현재 이탈리아 최초의 사운드 재단을 설립했다.

2) 줄거리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본 영화는 우연한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삶을 그린 드라마/가족 영화이다. 연구자는 이 영화를 통해 앞서 선행연구들에게 언급한 부정적인 장애관과 획일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장애관이고, 어떤 교육이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적합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소년 미르코 멘카치는 1961년에 태어나 토스카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 그는 구

슬치기와 동네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씩 아빠와 함께 극장에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서부 총잡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미르코는 밖에서 구슬치기를 하다가 잠깐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려있던 사냥총이다. 미르코는 아빠 몰래 만지작거리다 땅에 떨어뜨려 총이 격발되었고, 그로 인해 눈에 파편을 맞게 된다. 실명 위기에 처한 미르코는 그 당시 법에 따라 제노바에 있는 타소니 맹인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하지만 미르코는 물론이거니와, 부모님도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함께 뛰어 놀던 동네 친구들과 작별을 하고, 제노바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미르코는 깐깐한 교장선생님과 수녀님들이 계시는 학교 분위기를 처음에는 거북스럽게 느낀다. 하지만 전학 첫 날,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펠리체를 알게 된 후, 펠리체에게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금세 가까워진다. 미르코는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력을 잃기 전 자신이 보았던 세상을 색깔로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기억하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 느낌을 설명해주게 된다. 나무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친구 펠리체와 나누는 대화에서 파랑은 자전거를 탈 때 얼굴을 스치는 바람 또는 바다와 같다고 설명하고, 갈색은 나무 기둥을 만져보라고 한다. 또한 빨강은 불, 하늘의 노을과 같다고 설명해준다.

일반학교 수업과는 다르게 특수학교 수업은 독특하다. 계절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는 직접 계절과 관련된 사물을 만져보거나, 녹음기에서 들려주는 설명을 점자판으로 받아 적는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화 교환원이나 직조원이 되기 위한 기술 훈련을 위주로 받는다. 그러나 미르코는 점자판을 집어 던지면서 자기는 눈이 보이니까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심통을 부린다. 그러자 미르코의 담임선생님인 줄리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점자 배우기를 거부하는 미르코에게 “음악가들은 연주할 때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망한다. 어느 날 줄리오 선생님은 계절에 대해서 조사해오라는 과제를 냈는데, 점자 배우기를 거부했던 미르코는 우연히 발견한 학교 녹음기를 가지고 목소리와 소음, 사물에서 나는 소리만을 녹음해 과제로 제출한다. 교장선생님은 점자로 숙제를 해오지 않은 미르코를 혼냈지만, 줄리오 선생님은 미르코의 재능을 발견하고, 녹음기를 선물한다. 선생님이 선물한 녹음기는 미르코의 잠재된 능력을 빛내 주는 도구가 된다. 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르코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즐거운 놀이가 되며, 이를 계기로 음악 감독의 꿈을 꾸게 된다.

또한 미르코는 학교 관리인의 딸(프란체스카)과 만나게 되는데, 프란체스카는 미르코와 친구들이 시각장애가 있어도 편견 없이 ‘정상인’처럼 대하고 그들은 친해지게 된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

VOICEYE
voiceye.com

고 프랑코와 치쵸가 나오는 영화를 '보러'가고, 영화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말하는 사람의 기분은 어떤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모님들을 모시고 치르게 되는 학예회를 선보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미르코와 프란체스카 그리고 친구들은 이야기를 녹음해서 학예회 발표를 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용과 공주, 왕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하고, 나레이션 뿐만 아니라 배경 음악들도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해 직접 녹음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지만, 결국 교장선생님에게 들킨 미르코는 퇴학을 당한다. 줄리오 선생님은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직업 및 기술훈련만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학교 앞에서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학교를 개편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학예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르코의 퇴학으로 인해 할 일을 잃은 아이들은 당황해하고, 줄리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에게 필사적으로 미르코를 변호하고, 미르코의 녹음 작업을 학예회 때 공개하자며 설득한다. 교장선생님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르코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단순한 맹인 노동자로 길러내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줄리오 선생님은 강력하게 피력한다. 결국 미르코의 녹음 작업은 선생님의 감독 하에 학예회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열 다섯 명의 왕자들과 괴물이 사는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의 소리 연극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학교가 퇴학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학교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된다. 마침내 이탈리아 정부는 1975년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를 폐지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텍스트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장애관과 교육 방식이 드러난 장면의 대사 및 지문의 텍스트를 분석한다.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텍스트는 학자들마다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진다. Rosenau(1992)는 텍스트를 '어떤 사건'이라고 불렀으며, '어떤 사건'이란 '텍스트가 저자의 소멸인 동시에, 독자의 생장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해석은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황인욱, 2010). Barthes(1977)가 말하는 텍스트는 '의미의 생산'이다. 텍스트는 어떤 권위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련의 단어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공간으로서 그 어떤 것도 원작이라고 할 수 없이 다양한 글들이 뒤섞이는 공간이다. 종합적으로 텍스트란 해석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는 단지 감독의 세계관이 표현된 텍스트로 고정되지 않

고, 사회적 담론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집단 무의식,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이 재현되어 있는 텍스트이다(김현숙, 김수진, 1999).

영화를 텍스트 분석한다는 것은 첫째, 한 사회의 문화적 의미가 어떤 식으로 영화에 재현되고 반영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박길자, 이미식, 2002). 재현의 과정은 영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기호학적인 의미체계를 배열함으로써 메시지를 생산하게 된다(박길자, 이미식, 2002). 그러므로 영화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징들과 그의 의미들을 분석하여 이들이 의미하고 있는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함께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영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영화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박길자, 이미식, 2002). Stuart Hall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관념들의 내용과 표면적인 형태를 넘어선 조건들이 재현되고 체험되는 매체가 되는 무의식적인 범주로 정의되어, 우리의 의식 속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된다(임영호, 1996)"고 하였다. Graeme Tunner(1990) 역시 대중 매체의 이데올로기 작용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 영화 분석을 통한 이데올로기 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Tunner(1990)에 의하면 영화의 이데올로기 작용은 "문화에 대한 직접적 진술이나 반영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내러티브 구조 속에 숨어 있으며, 담론 속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화는 생산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관객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러티브 안의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야 한다(박길자, 이미식, 2002).

셋째, 영화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박길자, 이미식, 2002). 영화가 관객들에게 상영되는 순간, 영화의 의미는 관객들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Tunner(1990)는 해석의 다의성을 주장하는데, 해석의 다의성이 생기는 이유는 "관객들 사이에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에 따른 '선호된 읽기(preferred reading)' 방식이 존재(임영호, 1996)"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Hall에 따르면, "의미해석을 달리하는 담론들 사이의 의미투쟁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배적인 담론이 사회적 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드러내는 것(임영호, 1996)"이라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영화의 역사적 배경, 영화의 스토리 구조, 의미체계, 해석의 다의성, 이데올로기 등에 중점을 두고 영화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분석하였으며 영화의 장면 이름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KOR VOICEYE voiceye.com

Ⅲ. 연구결과

1. 영화 텍스트 분석 1 :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프란체스카가 미르코를 대하는 장면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첫 만남

(미르코의 관심을 끌려고 미르코에게 무언가 던지는 중)

미르코 : 뭘 원해? 멍청아!

프란체스카 : 뭐하냐, 바보야?

미르코 : 신경 끄셔.

프란체스카 : 그 쿠키 왜 안 먹어?

미르코 : 이건 드릴 거야. 그럼 수녀님이 옥수수 낟알을 주실 거야.

프란체스카 : 자, 이거 받아! (카라멜을 던짐)

미르코 : 이게 뭔데?

프란체스카 : 카라멜이야. 그걸 수녀님한테 드려. 그럼 또 낟알을 받을걸.

미르코 : (카라멜 냄새를 맡는 중)

#자전거를 타다

미르코 : 여긴 왜 데려왔어?

프란체스카 : 내 자전거를 보여주려고. 어서, 내게 보여주고 싶어. 여기 있다! 근데 타진 못해. 고장 났거든. (중략)

미르코 : (자전거 체인을 만지작거림) 이건 고장난 게 아냐. 체인이 벗겨진 거야. 이걸 뒤집게 도와줄래?

프란체스카: 그래.

(자건거 고치는 중)

미르코 : 다 됐어, 타러 나가자.

프란체스카 : 너 미쳤니? 말썽 일으킬지도 몰라.

(중략)

(둘이 자전거를 타러 나감)

미르코 : 꽉 잡아, 갈 거니까.

프란체스카 : 정말로? 알았어, 대신 천천히 가.

(프란체스카는 미르코의 눈이 되어주면서 극장에 감)

프란체스카는 미르코가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편견과 선입견 없이 그저 친구로서 대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실제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이영숙, 김종현, 2007). 하지만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친숙해져서 그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된다는 주장도 있다(Gottlieb & Corman, 1975). 프란체스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수업을 함께 배우지 않지만, 학교 관리인인 엄마와 함께 학교 안에 살고 있으므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여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은 또 다른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르코는 눈이 보일 때 동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자주 하였는데, 시각장애로 인하여 친구들과 떨어져서 기숙학교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미르코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르코 라는 한 사람으로 미르코를 대했다.

미르코 : 거의 다 오지 않았어요, 아빠?

빌레리 : 그래, 아가.

(동네 친구들은 들판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중)

(미르코가 그들에게 다가감)

미르코 : 나도 끼워 줄래?

친구1 : 안녕, 미르코! 그래, 근데 마지막에 왔으니까 네가 술래 해야 돼.

VOICEYE voiceye.com

친구2 : 근데.. 쟤는...

친구3 : 걔 말이 맞아, 규칙은 규칙이지. 마지막에 왔으니까! 그러니 내가 술래야.

(미르코가 친구1에게서 눈가리개를 받아서 눈을 가림)

미르코 : (친구들을 한 명씩 잡으면서) 하나.. 둘.. 잡았어!

친구들 : 이건 불공평해! 우릴 속였어!

미르코 : 너도 쉽게 잡아!

친구들 : 보고 싶었어, 미르코!

프란체스카와 동네 친구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르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 나오는 프란체스카와 동네 친구들의 태도와 장애관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장애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영화 텍스트 분석 2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한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오감 및 행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해서 학습 및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한경돈, 정희준, 2012).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는 미르코가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후에, 의사가 미르코 아빠에게(빌레리)일반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다.

의사 : 발레리 씨,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르코는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빌레리 : (안도하듯이) 네, 피사의 병원에서도 놀라운 일이라더군요.

의사 : (머뭇거리면서) 당신을 오시라고 한 것은.... 미르코를 학교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입니다.

빌레리 : (황당한 목소리로) 왜죠? 애가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고일 뿐입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의사 : 댁의 아드님은 현재 형체만 볼 수 있습니다. 피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레리 :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겁니다.

의사와 사회복지사 : (머쓱해하면서 눈빛을 주고받는다)

빌레리 : (확고한 목소리로) 분명 회복될 겁니다. 걘 늘 모범생이었어요. 당신이 안 받아 주면 어디로 보내야 하죠?

사회복지사 : 빌레리 씨, 무척 힘든 일이시겠지만 우리 뜻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자기와 같은 애들을 위한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의사 : 우린 적당한 학교를 알아볼 겁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중략)

빌레리 : (화가 난 듯이) 걘 우리가 필요해요. 아기였을 때보다 더 필요하다구요. 어딨는지도 모르는 제노바의 학교까지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의사 :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머뭇거리면서 내뱉는 “당신을 오시라고 한 것은.... 미르코를 학교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입니다.”이라는 말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과 통합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곧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도 나타난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말은 곧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의 제공(황근, 2001)이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통하여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 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 속의 기숙학교 교장선생님은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훈련을 배우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괄적으로 모든 아동들은 직조기술이나 전화교환원 훈련만을 받고 있다. 또한 “애가 하고 싶은 게 뭐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문제입니다.”라는 말은 아동들이 자신의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것을 위법이라고 말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VOICEYE
voiceye.com

의 기회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동들이 자신의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직업기술을 배우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을 제안하려고 한다.

3. 영화 텍스트 분석 3 : '오감'을 활용한 교육 방식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오감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줄리오 선생님이 아이들과 미르코를 가르칠 때 촉각과 청각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시각적인 표상이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문답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장철 외, 2008). 또한 그는 시각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촉각과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다(한경돈, 정희준, 2012).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은 시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주위 환경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개념을 발달해나간다(장철 외, 2008). 청각은 사물 또는 물체가 소리와 소음을 낼 때에만 거리와 방향에 대한 단서를 주지만, 사물과 물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은 새 소리만 듣고 새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대략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울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새의 특징은 알지 못한다. 시각과 청각은 중요한 거리 감각이므로, 시각은 모양과 색, 그리고 다른 물체와의 공간 관계를 인식하게 해주지만, 청각은 막연한 단서만 제공해줄 뿐이다(장철 외, 2008).

촉각은 사물 또는 물체의 형체뿐만 아니라 질감, 촉감, 탄력성, 무게, 온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용기에 담겨있는 것, 불에 타고 있는 것, 눈송이 등은 관찰 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촉각은 물체와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물체에 대한 부분적인 것만 인식하게 된다(장철 외, 2008). 후각 역시 물체 또는 사물의 존재와 거리에 대하여 중요한 단서를 주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장철 외, 2008).

줄리오 선생님 : 솔방울, 나뭇가지, 밤, 말린 과일. 그걸 만져 봐. 솔잎이 어떤지 느껴 봐.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

아동들 : (솔방울, 나뭇가지, 밤, 말린 과일을 손으로 만지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있음)

줄리오 선생님 : 이 솔잎들은 눈이 휘몰고 지나가는 겨우내 살아남아야 하지. 난 여러분에게 계절에 관한 에세이를 쓰도록 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어. 우리가 이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도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변하는지를.

(중략)

줄리오 선생님 : 넌 꽃을 보면 향기를 맡고 싶거나 눈이 올 때 그 속을 걷고 싶진 않든? 그걸 만지고 네 손의 냄새를 맡아 보는 건? 네게 비밀 하나 말해 줄게. 연주자의 연주를 보면서 난 뭔가를 알아차렸지.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아. 왜 그런지 아니? 음악을 좀 더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서지....(중략)....음악이 마치 육체적인 감각인 것처럼 말이야. 미르코 내겐 오감이 있어. 왜 굳이 한 가지만 이용하지?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줄리오 선생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 즉 촉각과 후각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촉각과 청각, 후각의 감각을 사용하여 솔방울, 나뭇가지, 밤, 말린 과일을 탐색하고 있다. 시각을 사용할 수 없으니 솔방울에서 나는 향기, 까슬까슬한 느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으로 이것이 솔방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정보를 시각으로 90% 받아들이면서 정보를 인식하는데, 시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오로지 다른 감각들만을 이용해서 받아드리려니 얼마나 낯설고 이상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오 선생님은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을 한다. “왜 굳이 한 가지만 이용하지?”라는 말을 미르코에게 하면서 시각에만 의존하는 감각보다, 나머지의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를 풀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자 미르코는 사계절을 작성하는 에세이 과제에서 점자로 에세이를 쓰지 않고, 펠리체와 함께 녹음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물들의 소리를 녹음하여 에세이(제목 : 비가 그치고 태양이 떠오르네)를 완성하게 된다.

VOICEYE
KOR
voiceye.com

#바람

미르코 : (유리병을 입으로 불면서 바람 소리를 만들어 내는 중)

펠리체 : 이거 들었어?

미르코 : 뭔 거 같아?

펠리체 : 바람, 맞지? 네가 전에 말해준 적 있어. 바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걸 늘 들었거든!

(미르코와 펠리체는 창문 가까이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중, 커튼이 휘날린다)

#벌

미르코 : 벌은 뭘로 하지?

펠리체 : 우린 벌은 못해. 진짜 벌집이 필요해.

미르코 : 알았다! 우리 입술로 할 거야.

펠리체 : 맞아! 우린 뭬벌도 할 수 있어. 들어봐..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냄)

미르코 : 잠깐 멈춰!

(미르코가 펠리체의 입술 가까이에 녹음기를 갖다 댐)

펠리체 : (입술로 소리를 냄) 붕붕-브르르-웅웅-

#비

(미르코와 프란체스카는 학교 안에서 빗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녹음하고 있음)

(나팔꽃과 잎사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창틀에 빗소리가 떨어지는 소리)

#해바라기

(해바라기 밭에서 해바라기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녹음함)

위의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르코는 자연의 소리들을 이용해서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이러한 줄리오 선생님의 교육방식과 미르코가 해온 과제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교장선생님은 아동의 흥미와 재능을 알아차리고 사용하는 것보다, 그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아래의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다.

교장선생님 : 이 모든 소음과 소리가 네게 뭘 의미하는지?

미르코 : 이건 자연의 소리에요.

교장선생님 : 아, 그야 물론이지! 그걸 너만 아는 거네? 누가 그런 특권을 줬지? 학교의 녹음기를 가져다가 그저 재미로 공공재산인 테이프나 망가뜨리라고?

한편 오감을 사용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체험활동'과 '미술활동'이 있을 것이다. 박영균(2005)은 체험활동의 목적은 "각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적성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P.3.) 또한 체험활동의 목적은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통하여 자신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관계개선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박혜정, 1997).

이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체험활동은 오감을 사용하여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실에 앉아서 점자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는 것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박영균, 2005).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체험활동보다는 교실에서 다양한 감각적 접근을 활용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빗소리, 물소리, 말발굽 소리 등을 듣거나, 식물의 뿌리와 줄기, 꽃, 나뭇가지 등을 냄새 맡거나 소금, 설탕 등을 맛보는 것이다. 즉 실제 사물, 살아있는 유기체 등을 사용하여 지식전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정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장철 외 10명, 2008).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사물이나 물체를 촉각으로 탐색하여 얻는 개념에는 종합적 촉각과 분석적 촉각이 있다. 종합적 촉각은 물체나 사물의 겉모양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알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작은 사물을 탐색하는 데 사용된다. 분석적 촉각은 촉각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알아볼 수 없는 큰 물체를 탐색할 때 사용하며, 다양한 부분을 만져서 각각의 부분들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촉각과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나왔던 청각을 사용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교육하는 것을 제안한다.

VOICEYE KOR voiceye.com

4. 영화 텍스트 분석 4 :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현장'을 분석할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에또레와의 만남

프란체스카 :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해! 엄청 많아! 시위하나 봐.

시위하는 사람1 : 애들아 조심해! 누구랑 왔니?

프란체스카 : 우리끼리 왔어요.

(중략)

프란체스카 : 아저씨 부모님은 아저씰 학교에 안 보내셨어요?

에또레 :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알 거 같냐? 거기 10년 동안 있었지.

미르코 : 도망친 적 없으시죠?

에또레 : 응. 나이가 다 차서 거길 떠났어. 교장선생님 얘긴 관두자!

미르코 : 지금은 뭘 하시는데요?

에또레 : 하고 싶은 걸 하지. 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제철소의 전화 교환원이기도 해.

(중략)

에또레 : 난 너처럼은 안 봐도 돼. 난 원하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거든.

미르코 : 뭐 같은데요?

에또레 : 그게.. 뭐 같냐면.. 매우 높고 넓고 화려하지. 식탐 많은 애들을 위해 만든 빵 같아.

미르코 : 상상력이 아주 끝내주네요!

#줄리오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대화

줄리오 선생님 :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셨겠죠?

교장선생님 : 시간이 별로 없네. 낭비할 시간 없어.

줄리오 선생님 : (열정적인 목소리로)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걔가 좀 지나친 건 알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지녔습니다.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말하는 방식요. 걘 전혀 달라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 자넨 이 학교가 100년도 더 된 걸 알고 있나? 여기서의 삶은 항상 매우 부드럽게 가고 있지. 어떤 문제도 없이. 왜 그런지 아나? 여기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이들에겐, 그들은 바보에 시대에 뒤쳐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 애들이 학교를 마친 후에도 바깥의 삶을 살도록 허용했어.

줄리오 선생님 : 저 애들은 볼 수 없죠. 사실이긴 하지만 아들은 살아있어요! 열정과 상상으로 가득 찼다구요! 애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우린 애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 애들한테 상처를 주라고?

줄리오 선생님 : 왜요? 그것도 교육의 일부예요.

교장선생님 : 자유는 사치야. 우리 같은 맹인은 엄두도 못 내지.

#시위 현장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

시위하는 사람들 : 카쏘니 학교 책임자는 물러나라! 학교를 개편하라!

(노동자와 학생 투장 연합)

#수녀와 교장선생님의 대화

수녀 : 교장선생님과 통화하고 싶답니다. 매우 화나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 도대체 저들이 원하는 게 뭐래요?

수녀 : 이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투쟁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제철소 노동자 대표단도 있는 것 같구요.

교장선생님 : 뭣 때문에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요?

수녀 : 우리가 퇴학시킨 학생들을 재입학시키지 않으면 제철소를 닫을 거랬답니다.

에또레는 기숙학교에 10년 동안 있었고 나이가 차셔 학교를 떠났으며, 제철소의 전화 교환원으로 일함과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직조공과 전화 교환원이라는 기술만 훈련시키는 학교를 개편하라고 외치고 있다. 수녀와 교장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오로지 학교를 마친 후에 사회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기술 훈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교장선생님은 “자유는 사치야. 우리 같은 맹인은 엄두도 못 내지.”라고 말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교장선생님의 말 뒤에는 ‘나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나온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술 교육이 아닌,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나 활동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오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문학인 장애 교육과 문화적 산물인 영화는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에 있지만, 문화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교육을 제시한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오감 중에서 시각을 제외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발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도 촉각, 청각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주인공 이러한 오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청각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훗날 유명한 음향 감독이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오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감 교육을 통하여 주인공처럼 자신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동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아동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조향사 같은 후각적인 능력을 이용하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단순한 행동만 반복하는 노동보다는, 그들도 개인적인 능력과 관심, 흥미 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 제공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장애관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와 사회로의 투입 및 자립, 더 나아가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영화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시청하였고, 장애 이미지에 대한 문헌과 학술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시사점을 얻어 바람직한 장애관은 무엇이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영화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국내·외 논문 및 저서,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방식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방식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한 결과, 영화 속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프란체스카는 미르코를 포함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즉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오감 및 행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하여 학습 및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된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기회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방식, 즉 오감교육이 제안되었다.

셋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오감'을 활용한 교육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시각적인 표상이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문답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과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또한 영화 속에 나타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현장을 분석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

VOICEYE
KOR
voiceye.com

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성과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과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와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와 영화 그리고 교육 방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와 관련된 연구에 인식론적 변화를 제시하고, 장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데 활용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영화 작품에서 재현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장애 교육 부분은 앞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통합교육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 미르코가 시각을 잃기 전에 보았던 자연 환경과 색깔들을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펠리체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처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직접 생생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감교육을 접목시킨 통합교육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및 독립성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이덕순, 2009),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오감으로 학습하면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장애관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을 형성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이 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시각장애 중에서도 여러 종류로 진단이 내려지는 장애명에 따라서 어떤 오감을 사용해야 이들의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혹은 시각장애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숙. (2009). 경도장애학생의 교수적 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특성 및 협력 변인 비교. 한국특수교육학회, 44(2), 231-258.

강진숙, 김동명. (2019). 장애인 관련 영상제작자 및 활동가들의 '소수자-되기'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구-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과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63(1), 286-324.

권명옥, 서화자. (2004). 장애인관의 발달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0(3), 339-365.

김미정. (2000). 한국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자아의식과 차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구.

김영린. (2003). 시각장애학교 미술교과 수업실태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카톨릭교육대학원, 경기.

김용임. (2004). 한국 영화에 재현된 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적 양상과 대안적 형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정현, 이태훈. (2003). 시각장애학생의 효율적인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4(4), 57-73.

김현숙, 김수진. (1999). 영화 속의 모성, 영화 밖의 모성. 한국사회사학회『사회와역사』, 52, 231-387.

김홍주, 박원희. (2003). 한국영화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논총, 12, 1-27.

박길자, 이미식. (2002). 영화 텍스트 읽기와 사회과 수업. 시민교육연구, 24(2), 43-64.

박순희. (2005).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박순희. (2006). 시각장애교육 교사 자질 기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0(4), 135-164.

박은송, 한성희. (2008). 시각장애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 경향. 시각장애연구, 24(1), 89-108.

박홍곤. (2017). 영화에서 재현되는 시각장애인의 이미지와 성차 -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4, 423-452.

서진환, 김정은. (2015). 영화 속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강 연구 -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6(2), 177-204.

안은자, 윤정란, 조원일. (2020).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의 장애관에 나타난 발달장애인과 신체

장애인의 공생상 - M. Prestley (1998)의 다중 장애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발달장애연구, 24(2), 45-70.

오혜정, 황도순, 박현옥. (2006). 장애유아 언어와 관련된 국외 실험연구의 내용분석. 특수교육저널『동이론과실천』, 17(4), 213-235.

우충완. (2019). 문학적 장애재현과 담론의 한계와 가능성 - 장애학적 관점에서 고정욱의 장편 동화 다시 읽기.『동화와번역』, 37, 85-119.

유민수, 김영일. (2010). 시각장애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 방안. 시각장애연구, 26(2), 01-25.

이규태. (1981).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이덕순. (2009). 시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방안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44(2), 93-119.

이덕순. (2010). 시각장애학생 교과교육의 쟁점과 한계. 시각장애연구. 26(3), 01-24.

이미선, 김기창, 김정현, 김호연. (2010). 시각장애아교육 개선 방안 연구 - 조기발견, 진단평가, 배치, 시각 중복장애아 교육을 중심으로 -. 시각장애연구. 26(4), 285-314.

이선자. (2007).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7, 77-111.

이해균, 임안수, 이우관. (2006). 저시력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정기철. (2013). 오감을 활용한 글쓰기. 국어문학, 53, 361-384.

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지훈, 이영미. (2009). 시각장애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과 조망 -「시각장애연구」학술지를 중심으로 -. 시각장애연구, 25(2), 121-139.

조홍중, 전이상. (2001).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차를 중심으로 -. 특수교육 저널『이론과실천』, 4(4), 379-402.

황근. (200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대상 방송에 대한 평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 대상 방송 TV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71-90.

황인욱. (2010).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섹슈얼리티와 가족 〈바람난 가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14, 109-136.

Barthes, R. (1977). Image, music, text(trans. S. Heath). *London: Fontana.*

Ingstad, B., Reynolds, S., & Whyte. (2011).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서울: 그린비.

Barnes, C. (1997). Principles for media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The British Council of Organisations of Disabled People.*

Barnes, C., Oliver, M., & Barton, L. (2017).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서울: 그린비.

Donaldson, J. (1981). The visibility and image of handicap people on television. *Exceptional Children, 47*, 413-416.

Elliot, T., & Byrd, E. K. (1983). Attitude change toward disability through television portrayal.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4(2)*, 35-37.

Girotti, F. (1998). Welfare State: storia, *modelli e critica, Roma: Carocci*

Tunner, G. (1990). British Culture Studies: An introduction (김연종 역). 서울: 한나래

Hall, S. (1996).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슈트어트 홀 선집 (임영호 역). 서울: 컬처룩.

Haller, B. (1997). Image of Disability in News Media: Implocations for future Reasearch.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Longmore, P. K. (1987). Uncovering the Hidden His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views in American History. 15(3)*, 355-364.

Nelson, W. J. (1994). Disabil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 *Social Security Bulletin. 57(3)*, 27-41.

Oliver, M. (1990). Politics of Disablement. *Macmillan Education LTD.*

Garland-Thomson, R. (1997). 보통이 아닌 몸. 서울: 그린비.

Rosenau, P. (1992). Modern and Post-Modern Science: Some Contrasts. *Research Foundation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5(1)*, 49-89.

Shakespeare, T. (1999). The Sexual Politics of Disabled Masculinity. *Sexual and Disability, 17*, 53-64.

Shakespeare, T. (2006). 장애학의 쟁점. 서울: 그린비.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5.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A desirable View of Blindness and The Need for the Roles of Senses in School Curriculum : A focus on the movie 〈The Whispering of Heaven〉

Moon Cho Bi*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Christiano Bortone's 〈The Whispering He aven〉 (2009) examines an ideal educational method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proposing a more positive view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in the eyes of the publ ic. This study methods are to watch the movie 〈Whispers from Heaven〉 with a focus on movie text analysis, and to analyze the literature and academic papers on disability imag es.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ttit udes of children without visual impairment toward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Fran cesca, who does not have a visual impairment in the film, accepts her friends with visual impairments, including Mirco, as they are,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treated with a positive perspective without prejudice. This is considered to be a positive and desirable v iew of obstacles that this researcher is aiming for.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have practical contact with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nd appropr iate education to avoid the traditional and dominant ideolog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required. Second,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have limited access to educatio n compared to children without visual impairment. In other words, compared to children without visual impairment,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re not free to acquire infor

*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Christianity,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tion due to limitations in their five senses and behaviors due to their disabilities, so th ey have inconvenience in learning and social activities, and they may not be able to rece ive education. It was also confirmed in the film that opportunities were limited. This rese archer believes that it is unreasonable to deprive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by la w. Therefore, this researcher suggests an appropriate educational method, that is, educati on for the five senses. Third, an educational method using the 'five senses' was proposed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This study teache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who do not have visual representations about all external objects only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Rather, it suggests learning through actual experiences using art and experi ential activities. Lastly,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otest scenes of workers and student s with visual impairments in the movie, and analyzed the needs of people with visual imp airments, which are as follows.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want to enjoy 'freedom of expression', and what they want is not technical education, but freedom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nd characteristics, and the work and activities they want, just like people w ithout visual impairment. is an opportunity to learn Thus,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 nity to think once again about the educational method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 ts, and it is a practice that aims to lead not only to research, but also 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be used in the educational field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 realisti c effort must be made. In addit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abilit y-related research, an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by people in the fi eld of teaching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Keywords : Cristiano Bortone, The Whispering of Heaven, blindness, sense, education, new definition of disability

VOICEYE
KCI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133 - 180

일과 여가를 바탕으로 살펴본 발달장애인의 삶 : 그들을 가두는 투명상자의 본질*

성소현·김가람*****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를 통해 그들의 전체적인 삶을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에 따라 그들의 사회성과 자립성이 달라지고, 그러한 특성이 취업 여부(혹은 취업 의지), 여가 향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발달장애 근로자 대상 인터뷰와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이 졸업한 학교 유형에 따라 사회성과 자립성이 달라졌으며, 실태 조사에서는 일반학교-특수학급 졸업자가 가장 높은 사회성과 자립성을 보였다. 또한 학교 유형에 따라 사회성과 자립성에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일과 여가 경험이 달랐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과 여가의 관계를 비롯한 중요도의 차이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나 장애 정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존재가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발달장애인을 사회참여나 자립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투명상자를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제한된 경험, 보호자의 인식, 그리고 사회의 시각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투명상자를 부수는 것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 신체적 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초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일, 여가, 삶의 만족도, 학교 유형

---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태균 교수님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Ⅰ. 서론

"Being disabled should not mean being disqualified from having access to every aspect of life. (Emma Tompson)."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일과 여가이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과 그 외의 삶인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워라밸(work-life balance)', '워라하(work-life harmony)'가 이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삶의 중요한 측면들을 누리고 있을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이 65.9%인데 반해(통계청, 2020),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특히 발달장애인이라 분류되는 지적,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각각 23.3%, 21.3%의 고용률을 보인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에게 있어 직업을 갖는 것이 힘들며, 특히 신체적 장애인들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일로의 접근이 더 어려움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장애인에게 일이란 경제력을 갖추게 하여 자립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한다(이선우, 1997). 또한 직업을 갖는 것은 생계의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 일이란 그들의 자립과 자아실현을 포함하고 있어 삶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김자영, 2020).

여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장애인들은 요일 평균 4.2시간 정도 여가를 향유하고(문화체육관광부, 2020), 여가 만족도의 경우는 28.8%(통계청, 2019)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0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5점 기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인들이 향유하는 여가의 종류를 살펴보면, TV보기, 휴식, 컴퓨터 이용, 취미나 자기 개발 등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있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여가 참여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96.6%가 여가활동으로 TV 시청을 꼽았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는 장애인의 적극적 여가활동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사회적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외출보다는 집안에서 TV 시청과 같은 단순한 일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삶에 건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장애인들에게 여가를 통한 사회참여를 이끌 수 있다(김동화, 김미옥, 2015). 또한, 여가활동 참여는 장애인의 능력 향상 및 발휘와 일상에서의 만족을 높여주는 기본적인 사회활동이다(김소영, 2014; 김학천, 2017).

1. 연구의 필요성

일과 여가가 삶에서 중요한 두 개의 큰 축이며, 특히 장애인에게 더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삶에서 일과 여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그 중에서도 더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일과 여가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에 비해 의사소통이 힘들고,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며, 따라서 일과 여가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일과 여가의 의미는 더 특별하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직업 활동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학습을 통해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김태건, 임경원, 2018). 또한 여가활동은 그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박수경 등, 2018).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주관적 평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학문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거나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동화, 김미옥, 2015; 윤혜림, 배영미,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에 집중하여 그들의 삶을 일과 여가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설명하는데 있어 일과 여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연구가 없으며, 이러한 관점의 부족은 발달장애인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발달장애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로 여기고, 복지의 수혜자 혹은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르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일과 여가, 그리고 일과 여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를 상위 수준에서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면적인 연구의 결과, 그 이유는 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장애 그 자체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소외의 원천은 단순히 장애 그 자체가 아닐 수 있고, 또는 여러 원인의 중첩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된 원인을 그들의 목소리와 국가적 데이터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삶의 여러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투명상자'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투명상자를 정의하고, 그 상자들을 깨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사회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과 여가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 밖에서 보내는 일상생활은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지원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집 밖에서의 생활'은 부정적 인식과 차별에 부딪힐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이나 수동적 대상화는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 연구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과 여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전의 경험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이끄는지 탐구하여, 전반적인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일과 여가는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의 심각도를 통제하고도 일과 여가 참여를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발달장애인을 사회참여에서 소외시키는 투명상자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선행 연구의 간극을 채워 발달 장애인의 삶을 조망하는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국가 수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설정한 모형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VOICEYE
voiceye.com

Ⅱ. 이론적 배경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1]라고 정의된다. 한국에서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장애의 유형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한 후, 정신적 장애 내에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소분류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를 두 장애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

2016년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김정현, 박현옥, 2020), 장애와 관련된 주류 학문 및 사회적 모델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발달장애인은 꽤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으며(Carlson, 2001; Goodley, 2004), 대부분의 장애인 연구는 신체적 장애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국내 발달장애 성인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정현, 박현옥(2020)은 연구 대상이 지적장애에 한정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지적장애 연구는 주로 전환교육,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이성용, 김진호, 2017). 전환교육은 장애 학생이 성인 사회로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통합적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되며, 통합교육은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 아동을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다(이성용, 김진호, 2017). 우리나라는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2007). 2020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72.1%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20). 그러나 현재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들은 통합수업에서 특수한 요구나 수준을 고려되지 않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문성은, 2020). 그에 반해 특수학교는 장애인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고, 직업이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편 영화 ‘학교 가는 길(2020)’에서 특수 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까지 꿇는 발달장애

[1]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인 자녀를 둔 보호자를 고려하면 특수 학교의 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사회의 인식 또한 아직 발달장애인을 분리하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을 살펴볼 때 학교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학교 유형에서 추구하는 교육이 실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교육 효과를 보이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국내 연구는 실태 조사가 주를 이뤘고(99편 중 40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효과, 능력 및 특성 분석, 지원 요구 순으로 나타났다(김정현, 박정옥, 2020). 이중 발달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대한 연구 주제로는 크게 발달장애인의 삶의 경험(정상미 등, 2017), 일상생활 만족도(박수경 등, 2019), 삶의 질(이원정, 윤은재, 2019; 정상미, 김민아, 2019; 정소연, 서홍란, 2016; 정지희 등, 2019) 등이 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이지수, 2007),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주관적 삶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삶의 만족도를 선택하였다.

2.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을 의미한다(박주영, 2013).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데,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김자영, 2020).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경제 활동과 여가 활동이 그들의 사회성과 자립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자영, 2020; 박수경 등, 2019).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친교성, 사교성,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성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Diener, 2009).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취업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인에 있어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조금분, 2018; 황현각, 김주일, 2020). 그러나 다수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활발한 사회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측면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한다(김정효, 이정은, 2008; 박애선, 2018).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사용이 어렵고,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술(사회성)의 부족은 그들의 심리적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tton & Coles, 2016). 한편 취업한 발달장애인은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김자영, 2020),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은 긍정적 대인

VOICEYE
voiceye.com

관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수경 등, 2019).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높은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은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이란 스스로의 건강관리, 식사 준비와 같은 일상의 모든 활동과 본인의 판단, 기준에 의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장애인의 자립 능력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정연수 등, 2014). 장애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생활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송미영, 2011). 발달장애인은 인지 능력, 자립 역량의 부족으로 자립 생활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이며,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성희 등, 2013).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은 중요한데, 높은 자기결정 기술과 자립성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며, 자기존중을 충족시킬 수 있다(이복실 등, 2018; Wehmeyer et al., 2000).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로 나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장애유형, 여가활동, 대인관계, 일상생활능력, 경제활동 참여 등이 있다(김동화, 김미옥, 2015).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경제활동 참여가 높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크고,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높은 일상생활능력이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거나 사회적 기술이 뛰어날 때 여가생활 참여와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등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를 넘어 발달장애인 삶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김동화, 김미옥, 2015).

3.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

장애인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소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체적 장애인보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과 근로 유지에 필요한 환경적, 정책적 지원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강동선, 신진숙, 2015). 발달장애인은 특히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삶의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박주영, 2017). 또한 취업을 한 발달장애인은 삶의 만족

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김용탁, 전미리, 2019).

여가활동 참여는 장애인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권재숙, 2012; 김소영, 2014; 김학천, 2017; 이중섭, 2010).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여가란 자기표현, 사회 기술 습득,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회연, 2014; 최선경, 2018; Dahan-Oliel et al., 2012).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나 환경은 미흡한 실정이다. 성인발달장애인 2명 중 1명(49.7%)은 1년 동안 가정 밖의 여가활동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경 등, 2018). 그 이유로는 발달장애인의 기술이나 능력 부족 등의 내부적 요인, 기회와 시간의 부족 및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의 외부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권회연, 2014).

종합하면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김선현, 2015; 김용탁, 전미리, 2019). 또한 문화, 여가활동 참여는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김동화, 김미옥, 2015; 박수경 등, 2018).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여가 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 예측 변인은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과 자기 관리 능력, 강한 취업 동기 등을 꼽을 수 있다(강수연, 주란, 2020; Foley et al., 2013; Rose et al., 2005). 또한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수준, 여가활동 관심과 선호 정도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Badia et al., 2013), 사회적 관계와 자기 결정 등이 여가활동 참여를 예측할 수 있다(이진아, 김유리, 2017; Duvdevany & Arar, 2004). 따라서 사회성, 자립성, 학교 유형 등이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여가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일과 여가는 어떤 관계를 보일까? 김태건, 임경원(2018)은 발달장애 직장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발달장애 교육공무직원들의 여가생활은 제한적이었으며, 취업 전후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는 일과 여가의 관계 탐구라고 보기 힘들며, 교육공무직원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호주 연구(Cordes & Howard, 2005)를 참고하면, 지적장애인들은 일과 여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의 안녕에 있어 이 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과 여가의 균형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여가의 가치는 업무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일과 여가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고, 여가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회복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으

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와 호주와 한국의 장애인 관련 법안과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4.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소외 원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에서의 소외 원인은 무엇일까? 선행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원인은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행동적 특성과 능력의 부족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참여에 문제가 두드러지고, 사회적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특성과 사회적 능력의 부족은 전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다(최문경 등, 2017). 따라서 발달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기술 등의 부족이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발달장애 보호자의 장애인식 또한 발달장애 아동의 자립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긍정적인 장애인식이 높다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숙(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이 향상될 수 있다(공인주, 신중일, 2015).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의 강점과 가치를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자녀의 자기 결정 능력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희, 염동문, 2019). 따라서 발달장애 보호자가 발달장애 자녀를 부정적 인식 및 수동적 존재로 바라볼 때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 복지 발달 과정에서 소외를 겪어 왔는데,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손꼽힌다(최복천 등, 2016).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소외는 그들의 장애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기인할 수 있다. 실제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인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그러한 차별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박수경 등, 2018). 김도현(2019)은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75p)”고 주장한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것은 그들의 인지적 손상이 원인이 아닌, 사회의 차별이 원인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투명상자는 크게 발달장애 그 자체와 보호자와 사회의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투명상자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개관

앞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에는 교육과 개인의 특성이 중요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 의해 발달장애인 개인의 사회화와 자립 의지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개인이 일과 여가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 한 사회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작동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와 장애의 수준으로만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며, 비장애인, 신체적 장애인과 유사하게 과거 교육 경험에 따라 일상생활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또한 일과 여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일과 여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삶을 행복하게 조망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한 표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혼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삶과 이전 경험에 따른 현재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듣고,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모형을 구축하였다(연구 1).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설계한 모형을 확인하였다(연구 2). 마지막으로 비장애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검색 키워드 분석으로 탐색하였다(추가 연구).

Ⅳ. 연구 1 : 심층 인터뷰

문헌 탐색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관심 쟁점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수행하며, 특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반응하는 맥락과 깊은 생각,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Creswell, 2010).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무작위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장애인일자리센터에 의뢰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KCI VOICEYE voiceye.com

1. 인터뷰 대상 및 절차

대상자들은 서울 소재 장애인일자리센터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근로 중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총 3회에 걸쳐 자발적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센터 담당자를 통해 1차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본 후 동의한 발달장애인만을 추천받았고,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연구에 대해 설명 후 사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이 후 인터뷰 실시 하루 전 통화로 다시 한번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인터뷰 시작 전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 최초 추천받은 13명의 대상자 중 2명이 중간에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혀 제외되었고, 총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음료 교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구분	성별	연령대	장애등급	졸업학교 유형
참여자 1	여	30대	1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참여자 2	남	20대	2급	특수학교
참여자 3	남	50대	3급	중졸
참여자 4	남	20대	2급	특수학교
참여자 5	남	30대	1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참여자 6	여	20대	3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참여자 7	남	20대	2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참여자 8	남	30대	2급	특수학교
참여자 9	남	30대	2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참여자 10	남	20대	3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참여자 11	남	40대	3급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인터뷰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일자리센터 주변의 독립된 회의실과 센터 내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1인당 40-50분씩 소요되었으며, 인터뷰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반구조화된 방법(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란 기본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지만 더 구체적인 응답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심층적인 질문 및 긴 발언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기본 질문지는 인터뷰 참여자의 기초 배경 질문, 전반적인 학교 생활, 성격적 특성, 일 관련 질문, 여가 관련 질문, 삶의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적인 질문이나 유연한 질문 방식의 수정을 통해 응답을 이끌어 내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각 참여자의 근로 능력에 대한 제 3자의 객관적 평가를 얻기 위해 센터 담당자에게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센터에서의 일 처리 능력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본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들만 접근 가능하며, 연구 종료 3년 후 폐기를 약속하였다.

2. 인터뷰 결과

근로 중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전 경험에 따라 근로 능력과 여가 향유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으로 졸업한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성과 자립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는 각각의 일과 여가를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1) 이전 경험에 따른 근로 능력과 여가 향유의 차이

본 인터뷰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자리 유무보다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계속하여 현 센터에 근무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직장 내에서의 능력 발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총 8명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 6명이 현재 일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전부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1명 모든 참여자가 현 센터에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했다. 여가의 경우에는 여가에 대한 이해, 최근에 주로 한 여가 활동, 코로나19 이전의 여가,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난 후 하고 싶은 여가에 대한 응답을 들었다. 참여자들은 여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상이했고, 여가를 이해하는 참여자들 중 일부가 구체적인 여가 활동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자들은 근로 능력과 여가 향유에 있어 차이를 이끈 주요 원인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특성을 꼽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성, 자립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현재 근로 능력과 여가 향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과 관련된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과거 혼자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이나 주도적으로 행동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자립성이 높은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높은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OICEYE
voiceye.com

"집에서 주로 쉴 때 컴퓨터도 해요. 컴퓨터로 한글자판 연습을 하거든요. 그게 손에 힘이 손을 안 떨게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 요리 좋아해요. 계란 같은 간단한 거. 계란 후라이랑 반찬 같은 거 해서 먹었는데 … 그 때 누전이 되면서, 위에서 누전이 됐다고 하면서 화재가 쫌 났던 거에요. 그 때 안 좋은 추억이. 약간 연기 좀 마시고. 그 때 출근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연기가 막 나는 거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배터리는 없지, 충전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의 배터리는 없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결 하셨어요?) 빨리 옆집 아줌마한테 빨리 119에 전화해달라고 하고. 신발장 위에까지 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소화기로 껐는데도 불씨가 남아 있는거에요. 그 때가 저한테는 공포로. (소화기 사용하실 줄 아세요?) 네. 소방안전교육 가서. 대피하라고 해서. 119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서 그 때. 그 때 목요일이었는데 그 때 출근 못 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집에 가있었어요."

(참여자 1)

참여자 1에게 일상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달라고 하자 화재 사건과 그 경험 속에서 참여자 1이 해결하려고 했던 행동을 묘사했다. 참여자 1은 스스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혼자 못하는 몇몇 일들이 있고, 그 일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일하는 센터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센터 담당자도 참여자 1이 뛰어난 근로 능력을 보인다고 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전한 자립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주도적으로 행동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전에 남자친구랑 동거를 했었는데 … 지금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 동거는 혼자 결정했고, 동거하다가 부모님께 통보했는데 부모님이 쿨해서 알아서 살라고 했어요. … 은행 업무 혼자 다 가능하고, 살면서 거의 다 혼자 해요."

(참여자 6)

"저희 어머니 생신 날 어머니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고 데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어머니가 안아서 강아지 데려왔어요. 동물 등록증을 한 번 만들었거든요. … (강아지 이름은) 해피예요. 제 이름에 H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정했어요. 강아지 사진 갖고 있는데. (사진 보여주심) 제가 직접 사진 찍었는데 순수해요. 멕시코 출신이에요. 처음 보시죠? … (배변) 패드 갈아주거나 제가 치워요. 밥은 어머니가 줘요."

(참여자 8)

참여자 6과 8은 스스로의 일상 생활 자립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면접 내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과거 경험 묘사는 높은 자립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는데,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선택에 큰 간섭을 하지 않거나 가족의 지지를 통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 높은 자립성을 키웠음을 암시한다. 이 둘은 각각 센터 내에서 다른 직원들의 교육과 가장 중요한 업무인 배송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가족의 모습이더라도 보호자가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를 수동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립성이 키워지는 환경이었다면 발달장애인이 높은 자립성, 주도성을 보이며, 일자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내용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졸업 고등학교 유형은 특수학교 3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6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1명이었고,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1명 있었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주로 제과 제빵, 바리스타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시절 경험한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특수학교를 졸업한 참여자의 경우 여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며 여가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에서 맨날 건담 만들어요. 자주 한 5일. 누구랑 같이하는지 잘 몰라요. (혼자하시는 걸까요?) 네. 건담 만들면 기본이 좋아요. … 건담 만들 때 그 부품을 하다가 스티커도 붙혀야 되요. 건담하고 설명서 보다가 만든건데. (건담 꺼내서 보여주심) 이거 처음에 설명서 보고 만든거에요. (설명서 보면) 막히지 않아요. … 건담할 때는 항상 좋아요. … 코로나 끝나면 돈 모아서 일본가서 건담 살 거에요. 일본 여행 엄마랑 친구들이랑도 같이 갈 거예요.”
>
> **(참여자 2)**

> “코로나 전에는 볼링 치는 거 좋아했거든요. … 볼링 주로 가족이랑 가고, 혼자도 몇 번 치러 갔어요. 친구랑 간 적은 없어요. … 스트라이크 칠 때 기분 좋아요. 가족끼리 2 대 2로 편 나눠서 게임하는데 … 잘 치면 축하해줘요. 스페어 못 했을 때는 기분 안좋아요. … 여가는 네, 제가. (결정해요). 혼자 볼링장 가고, 혼자 집 근처 미용실도 가요. 머리 손질도 혼자 하거든요.”
>
> **(참여자 8)**

한편 인터뷰 참여자 중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TV 보기, 집안일 하기, 음악 듣기 등의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비교적 제한적인 좁은 범

VOICEYE
voiceye.com

위의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답했으며 여가를 묻는 질문에 센터에서 한 활동을 말하는 등 다소 여가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이해도는 과거 다양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한정된 여가 정보로 인한 결과로 추론된다.

> "(여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쉬는거요. … (쉴 때 주로) 야구. 저 혼자서 해요. 야구를 하는게 아니라 봐요. 핸드폰으로 봐요. 질 때는 별론데 이길 땐 좋아요. 가족들은 야구 관심 없어요. … (밖에서 하는 여가는요?) 여기서(센터) 해요" (참여자 7) "굿즈 같은 거 모으는 것도 좋아하세요? 야구 팬들은 굿즈도 많이 모으잖아요. 막 야구장 같은데 가면 많이 팔던데.." (연구자) "그런건 안해요. 하고 싶은데. 직접 가서 사야되니까. … 야구장 가고 싶고 굿즈 사고 싶어요. 굿즈에 용돈 쓰고 싶어요. … 야구장 가본 적 없어요. 어디서 갈지 몰라서. … 야구장 코로나 끝나면 잠실로 올 때 혼자 갈 거예요."
>
> **(참여자 7)**

참여자 7은 여가 시간에 TV나 핸드폰으로 야구 시청을 즐긴다고 답했다. 연구자가 굿즈에 대해 물어보며, 일깨워주자 이후 응답부터는 야구장에 가고 싶고, 가서 굿즈를 사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소극적 여가를 즐기고 있더라도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는다면 여가의 범위를 확장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 졸업자에게 여가활동에 대해 질문하니 "코로나 때문에 바깥도 못 나가고, 놀러 나가지도 못해서 답답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여가를 묻는 질문에 매일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현재 여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참여자가 1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 결과는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2) 졸업한 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성과 자립성의 차이

앞서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적 특성이 일과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성과 자립성 같은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 시기 여러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학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유형에 따라 경험의 종류와 범위, 환경이 달라지며 이는 참여자들의 사회성과 자립성에 영향을 주었다.

특수학교 졸업자들을 보면, 비슷한 수준의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활동(예, 합주, 축구부)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비교적 높은 사회성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업무적 측면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등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자립성을 보였다.

> “저는 합주부했어요. 옛날에 친구랑 같이 합주도 했거든요. 친구는 지금 바쁘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어요. 저 징 했어요. …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좋았어요. 선생님 좋아했어요. … 학교에서 다 같이 강촌가서 레일바이크 타고 재밌었어요. 다른 고등학교랑 같이 갔어요. … (새로운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재밌고, 기분 좋아요.”
>
> **(참여자 4)**

참여자 4는 특수학교 재학 시절을 회상하며 생생한 경험들을 소개했다. 이러한 특수 활동들로 인해 높은 사회성을 보였지만 자립성을 질문할 때는 여행이나 새로운 일자리 등의 결정을 주로 엄마가 내린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교육이 높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지만 높은 자립성을 예측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속했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시절,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이동하며 두 곳 모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반학급에서의 비장애인 친구 유무에 따라 사회성과 자립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학급의 친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그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하고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사회적 교류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로 인해 높은 자립성을 보였으나 사회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비장애인 친구에게 무시당할까 봐 거리를 두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한 참가자들은 높은 사회성을 보였으나 자립성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보이는 높은 사회성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참여자들이 보이는 높은 사회성과는 그 유형이 달랐는데, 특수학교 졸업 대상자들이 보이는 사교성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여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사회성이었다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대상자가 보인 사회성은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사회성이었다.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참여자들은 특수학교 참여자들과 달리 자신들이 잘 응답하고 있는지,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계속 확인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특수반은 초등학교 수준이랑 비슷해서 배운 거 없어요. … 공부할 때 (일반반)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학교 경험이 (자립성에) 도움 돼요. 공부할 때 한문 혼자 공부했어요. … 특수반은 별로.”
>
> **(참여자 7)**

VOICEYE
voiceye.com

참여자 7의 응답을 바탕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자는 일반반과 특수반 모두에서의 경험이 있지만 특수반 교육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특수반의 경험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반반에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취 경험이 자립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공부를 도와준 친구를 심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친구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스스로 평가한 낮은 사회성이나 인터뷰 동안 보여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고려하면 이 경험이 높은 사회성을 조형했다고 보긴 힘들었다.

> "특수반에서 수학 배우고, 일반반에서는 기탄 수학 풀었어요. … 일반반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다가가려고 하면 싫어했어요. 친구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싫어했어요.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 (일반반에서) 딱히 기억에 남는 경험 없어요. 일반반 애들이 저랑 같이 안하려고 했거든요. … 삶의 만족도는 10점이요. 이렇게 답하면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
> **(참여자 10)**

참여자 10은 인터뷰 내내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잘 응답하고 있는지를 묻고, 연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혼자가 되는 것, 외로운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답하였다. 참여자 10은 자신의 학교 경험을 자신을 배척하던 일반반 친구들과 자신은 데면데면했지만 먼저 다가와서 친해진 특수반 친구들로 묘사했다. 따라서 일반반과 특수반에서의 경험으로 사회성을 길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참여자 7과 10의 응답을 함께 고려하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과 특수성 발달에 있어 스스로 특수반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일반반에 친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1명의 참여자에게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정도를 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로 표현해 달라고 하였을 때, 64%의 참여자가 10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경우는 6점이었으며, 평균 9.18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가를 못하거나 일을 못할 경우 각각의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두 이전에 응답한 만족도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일과 여가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0점이요. 생활 지금 괜찮거든요.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 하는 게 좋아요. (일을 못하게 된다면요?) 8점이나 9점 같은 정도요. (여가를 못하게 된다면요?) 6점."

(참여자 8)

"일할 때 좋아요. 재밌으니까요. … 일하면 재밌으니까 그런 일도 해보고 다른 일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배우면 다른 데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일하고 싶어요. 딴 데 가기 싫어요. 여기서 많이 배울래요. … 매일 일 못 나와서 아쉬워요. 출근 못하면 기분 안좋아요.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9점. 전반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게 된다면요?) 한 7점. (여가를 못하게 된다면요?) 4점. (둘 다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1점."

(참여자 9)

4) 삶에 있어서 중요한 2개의 가치

참여자에게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일과 여가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일이 중요하다는 참여자와 여가가 중요하다는 참여자로 나뉘었다.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응답한 경우와 다른 이유로 선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삶에 있어 일과 여가가 모두 중요하지만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명으로 이들 중 1명만이 일 그 자체로써 일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참여자 5), 그 외 2명 중 1명은 일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를 (참여자 1), 다른 1명은 일자리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이유로 일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자 3).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웃음 치료, 연극, 만들기, 단체 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적으로 향유하는 여가가 단조로운 대상자에게서 이러한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쉴 때 주로 뭐 하세요?) 일 안하면 나가서 한 바퀴 돌아요. (출근 안하는 날은요?) 집에 있어요. 한 바퀴 돌아요. … (돈 많아서 일 안 해도 되도) 일하러 올 거예요. 일하러 와야 돼요 … 일 못하면 산책으로 마음 안 채워져요. (그냥) 쉬는 것보다 일하고 (여가)하는 게 좋아요. … 일 잘해야 돼요. 작업량 많아요. … 일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참여자 5)

VOICEYE
voiceye.com

"(복권이 당첨되어도) 일할 거예요. 일하는 생활이 저의 생활이 됐어요. 같이 얘기를 하거나 집에 있으면 같이 얘기 못하고 그게 슬퍼요. … 일하면 돈 나오고, 일 익숙해서 좋아요.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 있으면 얘기 못해서 슬프니까요. … 지금 일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 일이 행복에 중요해요. 매우. 근데 여가는 적당히요."

(참여자 1)

"돈 벌려고 (일)해요. … 탁구는 잠깐 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율동하는 것도 안 해요. 탁구 재밌어요. 코로나 끝나면 하겠죠. …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직접 시범 보여주심) 다 같이 했는데. 윷놀이하고 꽃 이것도 해주고. 어머님 날. 이것도 해주고. 여기서(센터)에서 해줘요. 빙수도 사주고. 다 같이 다양한 거 해서 재밌어요. 그림도 그려요. … 집에 있으면 안 좋아요.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 (일, 여가) 둘 다하면 좋고, 일이 더 중요해요."

(참여자 3)

일과 여가 모두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 여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5명이었는데, 이들은 일을 하는 이유를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일자리에서 사회적 교류와 여가활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들은 센터 외부에 사회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대상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있는 참여자들이었다. 대부분 일에서 돈을 제외하고 얻는 만족이 낮았고, 일은 여가를 대체할 수 없지만 여가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여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취미 생활. … 컴퓨터 저 컴퓨터 좋아해요. (컴퓨터로 뭐하세요?) 저 공부 하는 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공부합니다. … (코로나 때문에 못가서) 기분 나빠요. 코로나 끝나면 운동하고 싶어요. 지금은 밖에 못 나가니까 … 복지관 와서 프로그램도 했어요. 꽃도 만들었어요. … (일보다) 여가가 더 중요해요."

(참여자 4)

"행복한 건 여가만 있는 삶. 중요하건 일, 여가 둘 다요. … (일은) 돈 벌어야 하고, 아빠 때문에요. … (로또 당첨되면) 일 안 할 거예요. (동료들) 가르치기 힘들고 차비 들어요. 또 서서 일하기도 힘들고 다리 아파요. 점심에도 이 근처 먹을 거 없어요. 보셨죠? … 행복한 삶에는 여가가 더 많이 필요해요."

(참여자 6)

3. 논의

연구 1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근로 중인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전반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발달장애인의 삶에 있어 일과 여가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며 개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모두 일과 여가가 충족되어야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으며, 둘 중 한 개가 결핍될 경우, 삶의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과 여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있어서는 일을 하는 목적이나 일자리를 제외한 다른 사회적 교류의 대상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둘째, 장애 정도를 제외하고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과 여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그들의 사회성과 자립성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성과 자립성은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 경험,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 등)을 바탕으로 여가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였으며,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교류를 하여 비교적 높은 사회성을 보고하였으나, 낮은 자립성을 보였다.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여가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였고, 비장애인 친구의 유무에 따라 다른 사회성과 자립성을 보였다. 비장애인 친구가 있는 참여자는 비장애인 친구와 같이 공부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험을 통해 비교적 높은 자립성을 보였지만, 이는 전반적인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비장애인 친구가 없는 참여자의 경우는 높은 사회성을 보였으나 자립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 향유하고 만족할 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의 범위를 넓히는 데는 다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향유하는 여가와 관련되거나(ex. 야구장 직관, 굿즈 모으기) 또는 관련 없는 새로운 경험(ex. 여행)을 제시할 경우, 매우 기뻐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라는 투명상자에 갇혀 자신들의 삶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인터뷰의 결과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방향을 보인다. 일은 사회의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박주영, 2017), 여가 참여 역시 장애인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권재숙, 2012; 김소영, 2014; 김학천, 2017; 이중섭, 2010). 또한 일부 연구에 의하면 사회성과 자립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자영, 2020; 박수경 등, 2019) 인터뷰 결과, 둘 간의 관계를 일과 여가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였다.

KCI VOICEYE voiceye.com

또한 인터뷰를 통해 사회성과 자립성이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 도출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신만의 확고한 여가가 있는 경우, 그 여가가 일과 여가의 만족도 모두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참여자 2는 일하고 쉴 때 건담을 만드는 것이 좋고, 쉬는 것보다는 건담을 만들고 다음 날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즉, 긍정적인 여가활동이 일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무 후 즐기는 여가는 여가의 만족도 역시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일과 여가는 삶의 긍정적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일과 여가의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매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였지만 이를 단순히 그들이 삶에 있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로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게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질문에서 1, 2나 9, 10과 같은 극단치의 값을 찍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일반적인 리커트 척도 응답에서 비장애인들이 양극단의 답변을 피하고 중간의 값들로 응답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뷰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이 종종 일을 여가와 혼동하거나 그 둘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적 특수성과 장애라는 장벽으로 인해 사람 만날 기회가 매우 적은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이들에게 더 중요한 사회적 교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듯했으며, 그로 인해 높은 업무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추후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다양한 외부 행사가 개최되거나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의존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한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센터의 환경적 효과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2를 진행하였다.

V. 연구 2 : 2차 분석

1. 2차 분석 데이터

연구 2는 연구 1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의 일반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취업 실태 등을 파악하고, 고용, 복지 정책 설계와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로, 본 데이터는 쌍체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총 3,000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발달장애인의 학교 유형, 일, 여가 의지와 실태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얻은 결과를 더 많은 표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인터뷰에서 확인한 고등학교 유형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유형을 '대안학교 등 기타'라고 응답한 발달장애인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장애등급의 효과를 모형에 투입하여 통제하기 위해 2019년 7월 이후 등록하여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더불어 경제활동인구가 만 15세부터 64세로 정의되어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한 응답의 수는 총 2,165개이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의 결정 요인과 종속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수들을 통해 모형을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 문항과 응답은 〈표 2〉와 같다.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학교 유형으로 고등학교의 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수학교,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 학교 내 일반학급 이렇게 3개의 범주형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을 위해 더미 코딩을 하였다. 참조집단은 가장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들이 진학하게 되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20 특수교육통계」, 2020).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최종적인 종속변인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이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호자와 당사자로부터 각각 응답을 얻었지만 실제 당사

VOICEYE
voiceye.com

자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의 응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매개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제외한 주요 관심변인은 자립성, 사회성, 취업 여부, 근로 의지, 여가 향유이다. 자립성은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의 자립 의지가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과 보호자가 생각한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지의 여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주된 의사결정권자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성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묻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 여부는 1(일하고 있지 않음) 또는 2(취업하여 일하고 있음)라는 이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 의지는 '지금 또는 나중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려는 의지 정도'를 물어본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은 1(매우 약하다)~5(매우 강하다)로 이루어져 있다. 여가 향유 정도는 여가활동 7가지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경험 여부(1=경험, 0=경험하지 않음)를 묻는 문항의 응답한 값을 합하여 사용하였다(0~7점).

4) 통제변인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발달장애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인 장애등급(김정현, 박현옥, 2020), 인터뷰 분석에서 차이를 보였던 성별, 그리고 나이, 가계 소득 이렇게 총 4개를 독립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제하였다.

〈표 2〉 2차 분석 활용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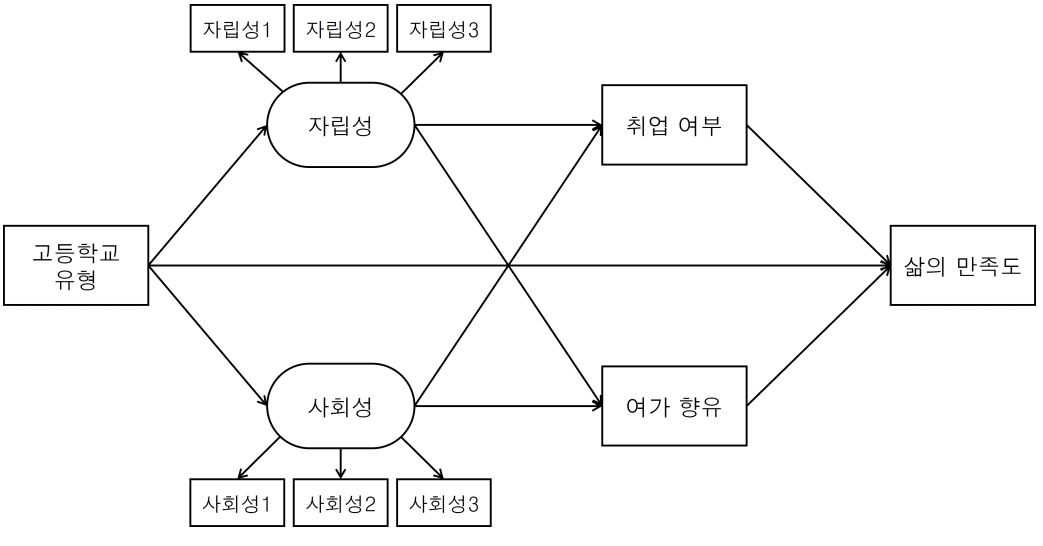
개념		측정문항	응답
독립변인	학교유형	B3_3. 학교유형: 3. 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매개변인	사회성	G16.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1=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 5=잘 어울린다
		G15.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1=매우 싫어한다 ~ 5=매우 좋아한다
		QB5. 000님은 친구가 있나요?	1=없다, 2=있다
	자립성	G24. 보호자님이 생각하기에 당사자의 자립 의지	1=매우 약하다 ~ 5=매우 강하다
		G23. 보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가능 여부	1=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2=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이미 혼자 힘으로 살고 있음
		G26. 일상생활에서 당사자 관련 의사결정의 주된 결정권자	1=다른 사람, 2=장애인 본인
	취업여부	C1. 취업 여부	1=일하고 있지 않음, 2=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근로의지	F2. 지금 또는 나중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려는 의지 정도	1=매우 약하다 ~ 5=매우 강하다
	여가향유	G17_1~8.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활동	경험한 활동의 개수 (0-7)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QB2-1. 000님은 요즘 생활이 행복해요?	1=전혀 아니다, 2=그냥 그렇다, 3=매우 그렇다
통제변인	장애등급	A9. 주된장애 등급(장애등급제 폐지 전 시점)	1=1급, 2=2급, 3=3급
	성별	A3. 성별	1=남성, 2=여성
	나이	A4_4. 만 나이	
	가계 소득	H6. 월 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50~100만원 미만, 3=100~150만원 미만, 4=150~200만원 미만, 5=200~300만원 미만, 6=300~400만원 미만, 7=400~500만원 미만, 8=500~600만원 미만, 9=600~700만원 미만, 10=700~1000만원 미만, 11=1000만원 이상

2. 연구 모형

앞선 인터뷰를 바탕으로 2차 분석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일과 여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전의 교육환경과 성격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교육환경을 고등학교 학교 유형으로 설정하였고, 성격적 특성은 구체적으로 사회성과 자립성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의 유형이 개인의 사회성과 자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이들의 일과 여가 향유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예상한 연구 모형 〈그림 1〉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사회성과 자립성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일과 여가를 다르게 예측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이 일을 하고, 여가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것이다.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3. 분석 방법

2차 분석은 SPSS 25와 M-plus 7.3을 사용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추정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변수 간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으로 이르는 경로와 그 효과의 크기,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하여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모델의 표본이 충분히 클 때 다양한 종류의 범주형 변수에 상당히 강하고(Muthen & Kaplan, 1985, 1992), 범주형 CFA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Brown, 2006) 평균 및 분산 조정 가중 최소제곱법(WLSMV: weighted least squares means and variance adjuste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와 RMSEA, 그리고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범주형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WRMR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Chi-square 통계량은 표본 크기가 클 경우 영가설을 기각시키는 한계가 있어, RMSEA를 주요 지수로 살펴보았다. RMSEA는 .05이하일 때 매우 좋은(close) 적합도를 .05 초과 .08 이하일 때는 괜찮은(fair) 적합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08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한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Schermelleh-Engel et al., 2003). CFI는 최소 .70 이상이어야 하며,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한다(Hair et al., 1998). 마지막으로 WRMR은 표본크기 및 모형의 복잡성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Sass & Schmit, 2013). 따라서 WRMR은 최종 모형의 적합도 보고에서 제외하였다.

4.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실태조사의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6.7세(SD=8.8세)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성이 1600명(73.9%), 여성이 565명(26.1%)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562명(26%), 일반학교 특수학급 763명(35.2%), 특수학교 840명(38.8%)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등급은 1급 667명(30.8%), 2급 813명(37.6%), 3급 685명(31.6%)으로 구성되어 있다.

VOICEYE
voiceye.com

2) 측정 모형 분석

측정된 변인들이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χ^2=64.961, df=8, RMSEA=.057, CFI=.976).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적재량을 고려하였다〈표 3〉. 전체적인 요인들의 표준화 적재량이 .5이상이므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잠재변인인 사회성이 3개의 개별적인 측정 변수로, 또 자립성이 3개의 개별적인 측정 변수로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성과 자립성은 .519로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suero,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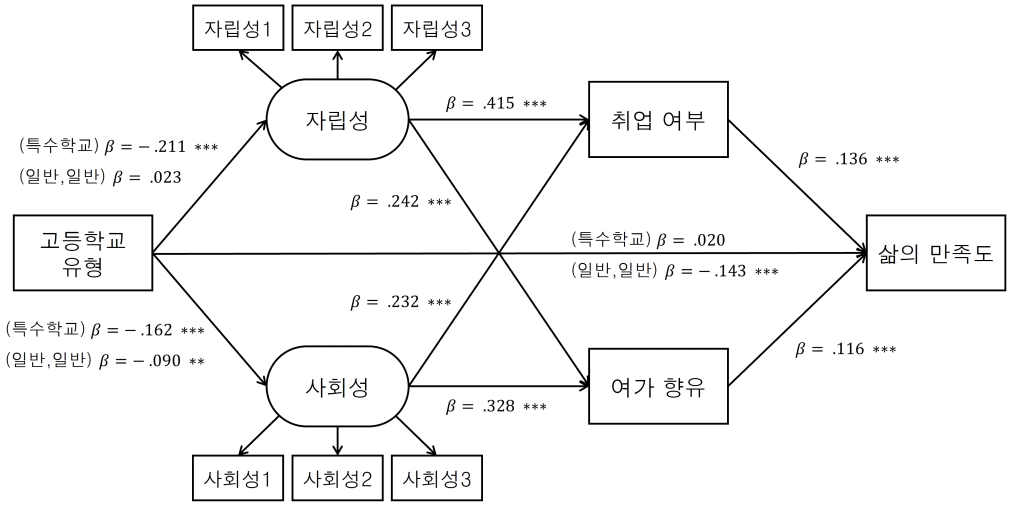
〈표 3〉 잠재변인의 요인 부하량

모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자립성			
자립성 1	1.000	–	0.852***
자립성 2	0.830	0.046	0.801***
자립성 3	0.631	0.039	0.609***
사회성			
사회성 1	1.000	–	0.833***
사회성 2	0.658	0.045	0.629***
사회성 3	0.583	0.043	0.574***

$^{***}p < .001$; $^{**}p < .01$; $^{*}p < .05$

3) 구조 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유형, 자립성, 사회성, 취업 여부, 여가 향유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717.157, df=52, RMSEA=.077, CFI=.784로 RMSEA 값은 유효하며, CFI 값은 좋은 값은 아니지만 최소 범위 안에는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에서 잠재변인은 타원형으로 표시되며 측정변인은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측정된 각 변수에는 오차항이 있지만 용이한 시각화를 위해 오차항은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취업 여부)

그림을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비해 낮은 자립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의 경우는 자립성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성의 경우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모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비해 낮은 사회성을 보이지만 특수학교에서 좀 더 낮은 추정치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립성과 사회성의 경우는 취업 여부 및 여가 향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 여부와 여가 향유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사회성과 자립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비해 자립성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의 경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비해 낮은 사회성을 보였지만 자립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성의 경우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 특수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립성과 사회성은 취업과 여가 향유의 차이를 야기한다. 사회성 및 자립성이 높을수록 취업에 영향을 주었으며, 여가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여부나 여가 향유 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을 했거나 여가를 많이 즐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학교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졸업한 사람들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졸업한 사람보다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이 자립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주고, 자립성과 사회성이 취업 여부나 여가 향유에, 그

KCI VOICEYE voiceye.com

리고 최종적으로 취업 여부와 여가 향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변인 간 총 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취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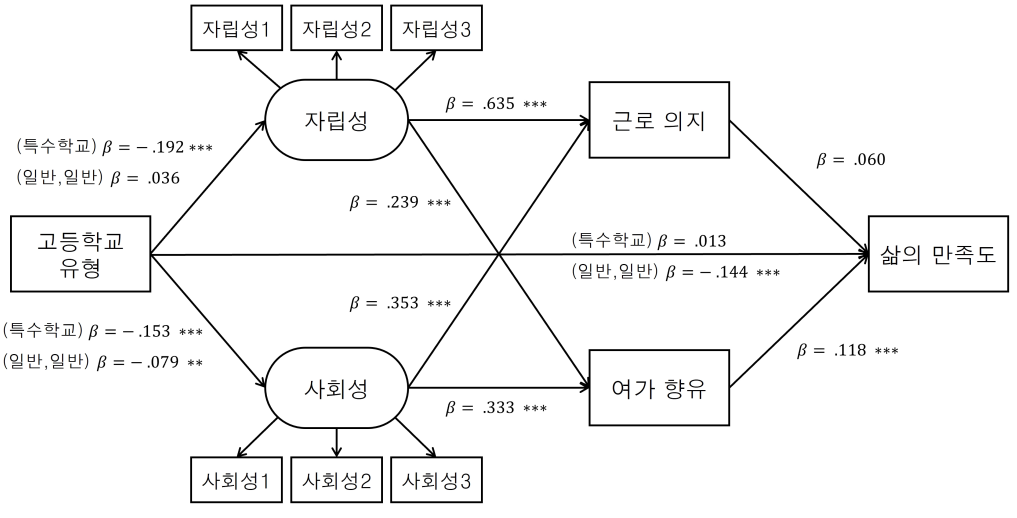
경로		간접효과 (B)	직접효과	총효과	표준오차	표준화 (β)
학교 유형 → 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12	0.045	-0.009
			0.025		0.045	0.020
		-0.037***			0.008	-0.029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207***	0.043	-0.147
			-0.201***		0.043	-0.143
		-0.006			0.005	-0.004
학교 유형→자립성 →취업여부→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15***			0.005	-0.012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2			0.002	0.001
학교 유형→사회성 →취업여부→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06*			0.003	-0.005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4			0.002	-0.003
학교 유형→자립성 →여가 향유→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07**			0.002	-0.006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1			0.001	0.001
학교 유형→사회성 →여가 향유→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08**			0.003	-0.006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5*			0.002	-0.143

학교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총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Kinnon, et al., 2002). 따라서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비해 낮은 자립성이나 사회성이 취업 여부와 여가 향유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효과의 경우 특수학교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의 경우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총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직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보다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의 경우 유일하게 학교 유형→사회성→여가 향유→삶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부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자립성의 차이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

서는 유의하였으나(β=-0.088, t=-6.050, p<0.001),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010, t=0.826, p=0.409). 사회성을 거쳐 취업 여부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특수학교(β=-0.038, t=-4.020, p< 0.001)와 일반학교 내 일반학교(β=-0.021, t=-2.538, p=0.01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찬가지로 학교 유형이 자립성을 거쳐 여가 향유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만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β=-0.051, t=-5.971, p<0.001). 그러나 사회성을 매개해서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53, t=-5.073, p<0.001; β=-0.030, t=-2.792, p=0.005). 즉 학교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있어 특수학교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가,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는 직접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인터뷰가 근로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미취업상태의 발달장애인의 경우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기존의 취업 여부에서 미취업 상태인 발달장애인들의 근로 의지를 투입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였다. 해당 모형은 아래 〈그림 3〉과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χ^2=745.016, df=53, RMSEA=.078, CFI=.800로 RMSEA 값은 유효하며, CFI 값은 좋은 값은 아니지만 최소 범위 안에는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근로 의지)

고등학교 유형, 자립성, 사회성, 근로 의지, 여가 향유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취업 여부가 포함된 모형과 거의 유사한 방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

VOICEYE
voiceye.com

다. 자립성과 사회성은 취업 여부와 마찬가지로 근로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의지 모형과 취업 여부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 의지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유형에 따라 자립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주고, 자립성과 사회성이 근로 의지와 여가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 향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근로 의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구조모형의 효과를 분해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근로 의지)

경로		간접효과 (B)	직접효과	총효과	표준오차	표준화 (β)
학교 유형 →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12	0.045	-0.009
			0.016		0.045	0.013
		-0.028***			0.010	-0.022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207***	0.043	-0.147
			-0.203***		0.043	-0.144
		-0.003			0.004	-0.002
학교 유형→자립성 →근로의지→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19***			0.007	-0.017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2			0.002	0.001
학교 유형→사회성 →근로의지→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04*			0.003	-0.003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2			0.002	-0.002
학교 유형→자립성 →여가 향유→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07**			0.002	-0.005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1			0.001	0.001
학교 유형→사회성 →여가 향유→삶의 만족도	특수학교	-0.008**			0.003	-0.006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0.004*			0.002	-0.144

변인 간 총 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앞선 분석 모형과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도 특수학교의 경우 총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나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의 경우, 총 효과와 직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비해 매개 변수와 상관없이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논의

연구 2에서는 학교 유형이 자립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형성된 자립성과 사회성이 현재의 취업 여부나 여가 향유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첫째, 발달 장애인의 삶에 있어 일과 여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앞선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 두 요인 모두 매우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 여부는 삶의 만족도를 높였지만, 미취업상태의 높은 근로의지는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여가 향유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변인을 바탕으로 2차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장애등급을 통제하고도 자립성과 사회성이 일과 여가 참여를 설명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유형이 자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수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 특수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과 특수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교 유형이 사회성과 자립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성과 자립성이 현재의 취업 여부나 여가 향유 정도를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분석의 결과는 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앞선 인터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즘 생활이 행복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3점 척도의 응답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결측치를 제외한 표본의 5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연구 1의 인터뷰에서 참여자에게 10점 척도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기를 요청했을 때 극단치로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응답 척도 간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대규모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어려워 단순한 척도를 사용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보기가 존재하는 척도로 이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정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태조사 질문을 활용하여 분석하기에는 일과 여가 관련 질문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이나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일과 관련된 변인의 경우 취업 여부(0=미취업, 1=취업)가 이분 변인이었으며, 근로 의지의 경우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현재 근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근로 의욕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여가의 경우는 특히나 더 제한적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가

VOICEYE
voiceye.com

변수는 여가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여가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여가의 빈도나 질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Ⅵ. 추가 연구 : 발달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시선

앞선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와 실태조사로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비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의한 투명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해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1.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연구 2에서 사용한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는 보호자와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보호자와 본인이 응답한 답변을 비교 분석하여 보호자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는 좋아한다 79.7%, 그저 그렇다 17.5%, 싫어한다 2.8%로 발달장애인의 응답인 '일 다니는 것이 좋다' 78.4%, '그냥 그렇다' 18%, '일 다니는 것이 싫다' 3.5%로 보호자와 발달 장애인 모두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힘듦 정도에 있어 보호자는 '힘들다' 26.4%, '힘들지 않다' 26.7%라고 응답했으며, 발달장애인은 '힘들다' 24.1%, '힘들지 않다' 45.3%로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에 비해 업무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을 할 때 필요한 도움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59.1%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하나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다. 그러나 보호자의 경우는 도움을 받고 있거나 도움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였으며, 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항목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61%가 건강하다고 응답했으며, 16.7%가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것에 비해, 보호자는 47.9%가 건강상태 좋음에, 22.7%가 건강상태 나쁨에 응답하여 건강상태에

있어 보호자의 건강상태 인식이 당사자가 응답한 건강상태에 비해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행복)에 대한 질문에서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49.6%), 그냥 그렇다(41.1%), 전혀 행복하지 않다(8.8%)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가 판단한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좋아한다(26.8%), 그저 그렇다(40.7%), 싫어한다(12.4%)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달장애인 중 53.6%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응답한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는 장애인 본인이 31.8%, 보호자 68%로 대부분의 결정이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호자 및 가족들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체로 비슷한 비율의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겪는 사회생활과 도움의 필요성에 있어 업무가 더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생생활에서도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각한 자립성에 비해 더 적은 자립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적은 결정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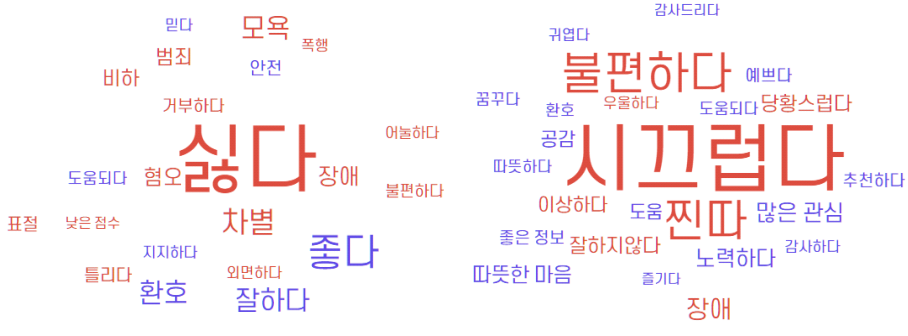
2. 일반 대중

충청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 조사(충청복지종합사회복지센터, 2021) 결과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49.6%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8%가 비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결과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응답한 62.4%와 비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응답한 36.3%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거나 느낀 경험이 있다고 77.6%의 사람들이 응답했으며,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의 미흡 원인으로 49.4%의 사람이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인,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장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는데, 일반인과 의료인이 장애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금순 등, 2010).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와 같은 감각장애와 비교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큰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 2013).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편 설문 응답은 사람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 본 연구자들은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사람들의 장

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썸트렌드(sometrend)라는 플랫폼을 통해 최근 3개월의 뉴스와 트위터의 텍스트 데이터를 키워드에 따라 연관 단어의 긍·부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글이 여러 곳에 재배포된 경우나 광고성 글의 경우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장애인'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싫다'는 부정단어가 31,967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좋다'가 13,928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키워드 긍·부정 분석(왼쪽 – '장애인', 오른쪽 – '발달장애인')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끄럽다', '불편하다'와 같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선 결과의 '싫다', '좋다'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를 통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키워드 관련 긍·부정 분석이 실제 해당 키워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정단어가 해당 키워드들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최근 키워드 긍·부정 분석 결과, 대중이 장애인, 발달장애인과 함께 언급한 키워드는 부정 단어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과의 공생을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Ⅷ. 종합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 그들의 일과 여가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과거 경험(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성과 자립성의 차이, 일과 여가 경험의 차이,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모형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일과 여가 참여 예측 변인: 학교유형, 사회성과 자립성

본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이 졸업한 학교의 유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변인(사회성, 자립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1의 결과, 특수학교를 졸업한 참여자들은 낮은 자립성과 높은 사회성을 보였으며, 일반학교-특수학교 졸업자들은 비장애인 친구 유무나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자립성과 사회성을 보였다. 연구 2의 결과, 일반학교-특수학급을 졸업한 발달장애인보다 특수학교 졸업자가 더 낮은 자립성과 사회성을 보였으며, 일반학교-일반학급 졸업자는 일반학교-특수학급 졸업자보다 더 낮은 사회성을 보였다. 즉, 일반학교-특수학급의 졸업자가 가장 높은 자립성과 사회성을 보였다. 연구 1, 2의 결과는 일관적이라 보기 어렵지만 연구 1의 심층적인 인터뷰에서는 참여자의 학창 시절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출신 학교 유형별 사회성과 자립성 차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과 자립성은 일과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2의 결과, 자립성과 사회성은 모두 취업 여부(또는 근로 의지)와 여가 향유를 설명하였고, 근로 의지를 제외하고는 취업 여부와 여가 향유 모두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일과 여가를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취업과 여가 향유는 모두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일과 여가의 의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의 일-여가 관계와 중요도 차이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달랐으며, 실태조사 분석 결과 일과 여가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일과 여가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는 확언할 수 없으며,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투명상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정의한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투명상자는 세 가지이며, 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투명상자들을 깨야 한다고 제안한다.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첫 번째 투명상자는 발달장애인의 한정된 경험과 환경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좁게 바라보고 있으며, 새로운 활동을 탐구할 환경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인터뷰 결과, 자신의 관심 여가와 관련된 추가적인 활동을 접하고 나면 여가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 2에서 낮은 여가활동 빈도에 따른 낮은 삶의 만족도를 고려하면 발달장애인의 한정된 경험과 환경이 그들을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 관련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강수연, 주란, 2020).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두 번째 투명상자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부모)의 시선이다. 연구 1을 진행하며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부모가 월급 관리나 삶의 대부분의 결정을 대신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선택을 존중한 경우, 자녀의 자립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 결과, 보호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들에게 자녀 및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며, 이를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덜 인식하고, 미래조망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공인주, 신중일, 2015).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세 번째 투명상자는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와 장애 심각성에 의해 삶이 결정될 것이라는 사회의 시선이다. 흔히 발달장애는 대인관계가 힘들며, 삶의 전체 영역에서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여겨진다. 학계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연구 대상에서 소외하는 경향이 있었다(김동화, 김미옥, 2015).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발달장애인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게 하여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국내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 여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 여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근로 중인 신체적 장애인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Kim et al., 2021). 또한 직무 만족도와 여가 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둘 다에서 만족할 때 가장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발달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 모두의 삶에서 일과 여가가 중요하며, 행복한 삶을 위해 일과 여가 둘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연구에서 대중의 키워드 검색 결과, 발달장애인은 주로 '시끄럽다', '불편하다' 등의 부정적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적 장애에 비해 정신적 장애에 대해 더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신체적 및 대인적 거리감 모두에서 나타난다(김미옥, 2002). 가까운 주변인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정신 장애에 대해 더 가깝게 느꼈다는 연구 결과(김미옥, 2002)와 발달장애인들이 일과 여가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발달장애인이 사회로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면 자연스럽게 발달장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더욱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4. 연구 함의 및 한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은 비장애인, 신체적 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발달장애인들을 가두는 투명상자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삶이 발달장애나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며, 삶의 여러 경험에 의해 삶의 모습이 그려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투명상자의 본질을 탐구하고, 정의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해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적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안은자, 윤정란, 조원일,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두 요소인 일과 여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구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설립에 주춧돌 역할을

VOICEYE
voiceye.com

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유형의 학교 교육에서 자립성과 사회성 중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일과 여가가 모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일과 여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순탄치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터뷰 연구는 대부분 보호자나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라포를 형성한 후 진행되는 질의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인터뷰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 조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하여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연구 2에서는 대규모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성인발달장애인 연구의 65.6%가 1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하면(김정현, 박현옥, 2020) 대표성이 높은 연구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패널 조사 등을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여러 질적 방법이 혼합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의 장애 정도는 개인이 결정할 수 없지만 학교 유형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졸업한 학교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일반 학교의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현장이라 볼 수 있고, 특수학교는 장애 당사자들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장애 아동끼리 생활하기 때문에 분리교육의 현장이라 볼 수 있다(박정훈, 김종인, 2020). 본 연구 결과 일반 학교(일반 학급, 특수 학급)와 특수학교 중 어느 교육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중요시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발달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지만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른 집단과 삶의 큰 틀이 다르지 않음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발달장애인, 신체적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나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요인을 구성하는데 이미 측정이 완료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여가의 경우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3점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

하여, 더 정교한 모형을 설계하고,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극단 응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문항 구성을 통해 해당 변수에 대한 질적 내용을 탐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가 발달장애인을 가두는 세 개의 투명상자를 깨고, 발달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강동선, 신진숙. (2015).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 발달장애연구, 19, 1-22.

강수연, 주란. (2020).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취업 여부의 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 관련 조력자 여부의 인과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0(1), 5-24.

고은. (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127-151.

공인주, 신중일. (2015).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이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2), 115-123.

교육과학기술부. (2020). 2020 특수교육통계.

권재숙. (2012).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권회연. (2014). 발달장애 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적극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18(1), 1-25.

김금순, 박연환, 이범석, 김정이. (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 일반인, 의료인, 장애인의 비교. 재활간호학회지, 13(1), 13-22.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오월의 봄

김동화, 김미옥. (2015).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25(2), 209-233.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4, 99-126.

김선현. (2014). 발달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심석준, 김동주, 강민희, 정희경.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소영. (2014).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김용탁, 전미리. (2019). 발달 장애인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수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4), 25-46.

김학천. (2017). 장애인 삶의 만족도 비교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지역 중심으로, 박사학

위논문. 대구대학교.

김자영. (2020).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0(1), 25-50.

김정현, 박현옥. (2020). 국내 발달장애 성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24, 1-26.

김정효, 이정은. (2008). 한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의 삶에 관한 어머니들의 보고. 특수교육학연구, 42(4), 245-276.

김태건, 임경원. (2018).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삶: 포토보이스와 마인드맵으로 들어본 이야기. 특수교육학연구, 53(3), 67-96.

문성은. (2020). 중학교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분리수업 교과 수행평가 적합화 과정 탐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박수경, 김소민, 이선우. (2018). 성인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이 긍정적 대인관계를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40(40), 123-149.

박애선. (2018). 어머니의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자녀의성인기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93-113.

박정훈, 김종인. (2020).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4, 41-63.

박주영. (2013).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 53-77.

박주영. (2017). 발달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과 직업유지 요인. 발달장애연구, 21(1): 51-68

반태현. (2016). 교육만족도와 교육성과가 취업가능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 통제위치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4), 495-521.

송미영. (2011). 남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31(1), 143-155.

안은자, 윤정란, 조원일. (2020).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의 장애관에 나타난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공생상-M. Prestley (1998) 의 다중 장애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4, 45-70.

윤정헌, 이정학. (2011). 일과 생활의 조화, 긍정적 태도와 여가 및 관광활동 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23(4), 59-78.

윤혜림, 배영미. (2021). 임금 근로 발달장애인의 직무환경과 직무적합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2), 65-98.

이복실, 제철웅, 이동석. (2018).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40(40).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287-313.

이성용, 김진호.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적장애연구학술지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지적장애연구, 19(1), 1-19.

이원정, 윤은재. (2019). 성인 발달장애인의 미용관리 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융합, 41(6), 1117-1150.

이중섭. (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7, pp.187-212.

이지수.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114.

이진아, 김유리. (2017). 자기결정 구성요소를 적용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성인의 여가동기, 여가태도 및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6(2), 27-56.

장영희, 염동문. (2019).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유형과 유형별 특성비교. 지역과 세계, 43(3), 93-118.

정상미, 김민아. (2019). 성인초기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결속력과 가족융통성의 조절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50(4), 151-184.

정상미, 허일권, 김민아. (2017).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지적장애인의 성인초기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6, 5-31.

정소연, 서홍란. (2016).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재활복지, 20(4), 107-134.

정연수, 이영선, 김승현, 박원희. (2014).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근거 이론적 접근, 지적장애연구, 16(1), 245-281.

정지희, 홍주희, 박승희. (2019). 발달장애성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특수교육, 18(4), 53-80.

조금분. (2018). 취업장애여성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조명환, 김희진. (2012). 대학 교과과정 내 여가교육이 대학생의 여가태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4(1), 257-272.

충청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2021). 2021년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 조사. 충청복지 제 80호

최문경, 임지희, 신원식. (2017).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식유형. 한국장애인복지학, 37(37), 5-32.

최복천, 변용찬, 황주희, 김미옥, 박희찬, 심석순, 오다은. (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선경. (2018). 발달장애학생 여가활동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 평생계획 관점에서 학교-지역사회 연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4(4), 107-114.

통계청. (2019).「사회조사」.

통계청. (2020).「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2020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현각, 김주일. (2020).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6, 93-118.

Asuero, A. G., Sayago, A., & Gonzalez, A. G. (2006).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 overview. *Critical Reviews in Analytical Chemistry*, *36(1),* 41-59.

Badia, M., Orgaz, M. B., Verdugo, M. A., & Ullán, A. M. (2013).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leisure participation of youth and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7(4)*, 319-332.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T*he Guilford Press.*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 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Cordes, T. L., & Howard, R. W. (2005). Concepts of work, leisure and retirement in a 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99-108.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흥식 등,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13).

Dahan-Oliel, N., Shikako-Thomas, K., & Majnemer, A. (2012). Quality of life and leis ure participation in children with neurodevelopmental disabilities: a thematic analysis of the literature. *Quality of Life Research, 21(3),* 427-439.

Diener, E. (2009).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well-being,* 11-58.

Duvdevany, I., & Arar, E. (2004). Leisure activities, friendships, and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Foster homes vs community residential set 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7(4)*, 289-296.

Foley, K. R., Jacoby, P., Girdler, S., Bourke, J., Pikora, T., Lennox, N., ... & Leonard, H. (2013). Functioning and post-school transition outcomes for young people with Down syndrom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9(6),* 789-800.

Hair, J. F., Tatham, R. L., Anderson, R. E., & Black, W.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 is, 5th ed,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Hotton, M., & Coles, S. (2016).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groups for in 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Review Journal of Autism and Devel opmental Disorders, 3(1)*, 68-81.

Kim, M., Jasper, A. D., Lee, J., & Won, H. (2021). Work,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for Employee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9.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

ts. *Psychological Methods*, 7,83-104. doi: 10.1037/1082-989X.7.1.83

Muthén, B., & Kaplan, D. (1985). A comparison of some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8(2)*, 171-189.

Muthen, B., & Kaplan, D. (1992). A comparison of some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A note on the size of the model.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5(1)*, 19-30.

Rose, J., Saunders, K., Hensel, E., & Kroese, B. S. (2005).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ill gain employmen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9(1)*, 9-23.

Sass, D. A., & Schmitt, T. A. (2013). Testing measurement and structural invariance: Implications for practice. In T. Teo (Eds.)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s for educational research(pp. 315-345)*. Rotterdam: Sense Publishers.

Schermelleh-Engel, K., Moosbrugger, H., &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PR-online, 8(2)*, 23-74.

Wehmeyer, M., Bersani, H., & Gagne, R. (2000). Riding the third wave: Self-determination and self-advocacy in the 21st century.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2)*, 106-115.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voiceye.com

Abstract

Illuminat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work and leisure : The essence of the transparent box that traps them*

So Hyun Seong**·Garam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verall life of people with developmenta l disabilities through work and leisure. We conducted interviews for workers with develop mental disabilities and then used survey data as a second analysis to confirm the results of interviews of how their sociability and independence vary depending on school types, how such characteristics affect employability (or willingness to work), leisure experiences, and finally,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ur findings indicated that sociability and indepen dence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school whe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 ties graduated from, and graduates of speci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showed the highe st sociality and independen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work and leisure experi ences differ based on varied sociability tendencies and independence depends on the sch ool type, which can predict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research funding from professor Taekyun Hur of the School of Psychology of Psychology at Korea University.
** Master's course, 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 Integrated MA-Ph.D, 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and import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depends on individual values, suggesting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 es are not only influenced by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the severity of the disability. T herefore, researchers defined ‘transparent boxes’ as a concept that alienat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social participation or self-reliance, and suggested the im portance of breaking these transparent boxes. They are namely limited experiences, guar dians' perceptions, and social perspectives.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at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with non-dis abled and physical disabilitie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ir lives.

Keywords : Developmental disabled, work, leisure, life satisfaction, school type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181 - 213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역대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과 차기 후보 공약 제언
: 18, 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자료집을 중심으로

신우철*·김은총·이종승*****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선거 담론으로 장애인 의제가 출현하였다. 선거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치열한 공약 경쟁과 정당의 이념 경쟁을 통해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나는 공약 정책 양상은 어떠한가?”라는 거시적인 주제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18, 19대 대통령선거의 장애인 공약 양상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하나인 토픽 모델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장애인’은 ‘소수자’로 일컫는 취약계층 공약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밝혔으며, 장애인 공약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었다. 이후 전체 공약집 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빈도 단어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18대에서 22위, 19대에서 39위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19대 선거에서 그 수치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짧은 검증 기간’, ‘집권 여당 심판론’ 등으로 인해 표를 획득할 수 있는 ‘절대다수를 위한 공약’에 비중을 두는 선거 전략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거 공약집 양의 차이에 따라 토픽의 개수(K)를 달리 설정하여 구체적인 주제명을 설정하였으며 당선인의 공약과 실제 이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20대 대통령선거 중 논의 될 장애인 정책 의제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융합한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 이념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 부문에서 득표를 위한 공약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외협력, 간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재무금융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학과, 석사

질적인 문제 해결 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토픽모델링, 대통령선거, 공약, 동향, 장애인 담론

Ⅰ. 서론

선거 공약 담론 분석은 후보자 간 언론 보도와 공약집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후보자 간 비교, 다중 비교 공약 담론 분석을 통해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담론을 둘러싼 이익집단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주로 활용해 온 문헌 연구는 공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 적절한 분석 틀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연구자 의존도가 높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도 있었다(이수경 외, 2011). 특히, 대통령선거는 각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성을 띄어 이에 맞는 공약 수립이 이루어져, 명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겠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이 없어 값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텍스트와 음성, 영상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선거에서도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자료집이다. 많게는 400쪽에 달하는 후보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시야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선거 공약이 수립되어 온 동향과 2022년 3월 치러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 담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통령 공약과 장애인 정책 수립' 의제를 살펴보고자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빅데이터 방법론 분석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장애인 의제(Agenda)[1]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후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김윤자, 2021). 이 법령의 기원을 살펴보면 1988년 최초의 장애인 대중집회라 할 수 있는 '기만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규탄 대회'의 개최(유동철, 2005)라 할 수 있다. 이 집회에서는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무함을 짚었다. 또한, 생존법,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후 수많은 노력으로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며 그 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발맞춰 90년대 중 후반부터 대통령 후보자도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대기업 취업 의무제'와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의 '장애우연금제', '장애우정책 총괄 대통령직속 국가조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처럼 민의를 반영하는 공약은 지속해서 발전해왔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이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2]로 흘러가고 있는데,

---

1)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공식적인 정책 문제
2)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와 국회 구성을 하는 간접민주주의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정당-선거-의회를 구성요소로 하는 정치대표체제다(박찬표, 2008).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대통령선거다. 특히, 선거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인 정당이 공약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 홍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시대의 흐름과 해당 이념을 가진 지지자들의 호응이 뒷받침하는 순간, 이는 당선으로 이어지고 공약은 살아있는 정책이 된다. 이에 전문가 집단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장애인 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대통령 선거 공약 자료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 정책 의제 설정과 형성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중요성과 적절한 제언이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나는 공약 정책 양상은 어떠한가? 라는 거시적인 담론 아래, 18대, 19대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장애인 공약 양상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담론에 대한 이행도를 파악하고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담론은 무엇인지 예측해볼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장애인 정책 동향 파악과 수립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18,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공약 대비 장애인 공약의 비중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18,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정책 주요 공약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18,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공약 이행 수준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정책과 선거

선거 공약 장애인 정책 담론을 다룬 연구는 2007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한 '제17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정책 제안 및 정당별 공약 비교 분석 자료집'과 남찬섭이 월간 복지동향에 발간한 '장애인 : 장애인 분야 대선공약 평가'가 있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007)의 자료의 경우 해당 단체 문의 결과 자료 원본이 유실되었다고 밝혔으며, 어떤 기법을 활용하여 공약을 비교하였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남찬섭(2007)의 경우 장애인 분야를 영역별로 나누어 공약 제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영역

은 크게 재정, 소득보장, 고용, 의료, 서비스, 보육·교육,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여성장애인의 8가지였으며 주요 후보 5인에 대하여 어떤 곳에 핵심 가치를 두고 공약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17대 대선 이후 장애인 정책 대선 담론 관련 연구는 진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즉, 18, 19대 대선을 살펴보고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에 관한 연구로 대상을 확대한 결과, 16대 대통령선거부터 지역주의의 약화와 이념 갈등 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6대 대통령선거는 속칭 386세대로 불리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고, 이념과 여러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다(강원택, 2005).

최준영·조진만(2005)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념 지향성 선택이 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념지향 투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18대 대선 이후부터 각 후보의 공약 이념적 차이, 특히 장애인 분야의 공약은 어떤 주제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와 다양한 기법(알고리즘)의 활용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정책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종승(2021)은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각 정권의 정책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행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 분석에 활용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은 Blei et al.(2012)이 제안한 모형으로 문서 잠재 토픽 생성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확률적으로 관측된다고 가정한다(안예지, 2020). 즉, 글을 완성할 때, 특정 주제(topic)를 뽑을 확률과 그 주제(topic)에 맞는 단어(word)를 선택하는 행위가 조건부 확률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제(topic)의 결합은 하나의 문서(document)가 되고 주제의 분포에 따라 문서의 단어 분포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이종승, 2021).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은 한 개의 문서(document)는 한 가지 주제(topic)만 가진다고 가정하는 기존의 유니그램 모형(unigram model)과 유니그램 혼합(mixture of unigrams) 모형과는 달리 한 개의 문서(document)에서 한 가지 이상의 주제(topic)를 포함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존 모형 대비 실제 텍스트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김정수, 이석준 2016).

또한 유재호, 김하나, 전의찬(2021)은 진행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주는 해당 시점의 주요 이슈(issu

e)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한 정책에 대해 주제와 키워드 중심의 분석 방법이 현안 수립 결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음(significant)을 파악하였다.

정지원, 이재민, 최소연(2018)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장애인 노동의제를 분석하였다. 언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화 후 키워드를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장애인 의제에 대한 보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 담론에 대한 대통령선거 공약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으로 분석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지식이 있는 연구자의 해석 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18대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자료집을 분석하여 장애인 공약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림 3-1〉로 연구 진행 과정을 정리한다.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 주요 후보 선정 후[3] 정책 공약집 자료 수집

대선 회차	후보명	소속정당
18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19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데이터 전처리

토큰화 (tokenization)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remove stopwords)

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한 장애인 주요 공약, 정책 담론 분석

공약 이행 정도 분석

〈그림 3-1〉 연구 순서도

3) 공직선거법 제 82조 2항 중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 5% 이상인 후보자”를 만족시킨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과정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은 Python 라이브러리인 KoNLPy, Gensim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우선 분석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노이즈(noise)를 최대한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큰화(tokenization) 과정과 불용어 제거 과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모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제(topic)별 단어(word)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topic)별 단어(word)를 통해 각 후보자 별 주요 공약과 정책 담론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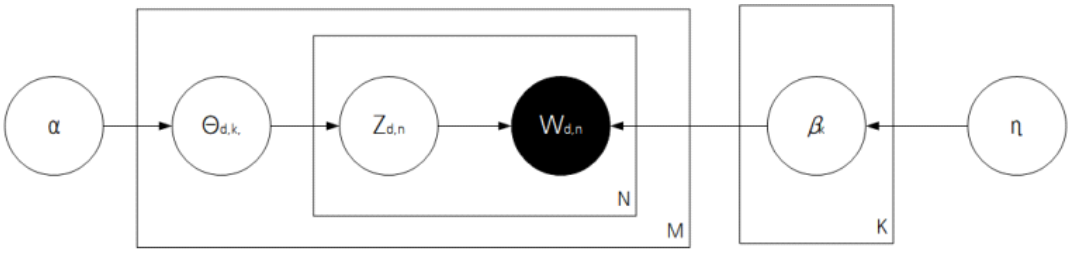
컴퓨터는 숫자 형태로 된 데이터(numeric data)만 인식할 수 있어 인간의 언어인 자연어(natural language)는 인식할 수 없다.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베딩(embedding) 과정을 통해 숫자 형태(numeric data)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된 공약자료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베딩(embedding)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임베딩(embedding) 과정과 이후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 과정에서 오차(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맞춤법 분석기를 통하여 오타를 수정한 후,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을 진행하였다. 토큰화(tokenization)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KoNLPy 라이브러리와 오픈소스 한국어 처리기 (OKT: Open-source Korean Text Processor)를 활용하였다. 오픈소스 한국어 처리기(OKT)를 활용한 형태소 분석은 사전에 학습된 형태소 분석 모형(model)을 활용하여 예측(prediction)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각 단어가 해당 단어의 품사와 함께 분할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결과 값이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만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김민호, 윤호열, 최상옥, 2020).

마지막으로 불용어(stopwords) 제거 과정을 거쳤다. 불용어(stopwords)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명사 단어들을 빈도 분석한 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 결과 공약집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단어인 '국가, 지원, 확대, 국민, 사회'등과, 장애인 공약 분석과 관련이 없는 '여러분, 약속' 등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 불용어(stopwords)라고 판단, 제거하였다.

2.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형은 Blei et al.(2021)가 제안한 개념으로 문서 잠재 토픽 생성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확률적으로 관측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안예지, 2020).



〈그림 3-2〉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모형 (Blei, 2012)

〈그림 3-2〉에서 각 원은 확률 변수를 나타내며, 화살표의 방향은 확률 모형 내에서 상위 변수가 하위 변수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W_{d,n}$은 관찰된 데이터로 d는 문서(document)를 나타내며 n은 단어(word)를 나타낸다. 또한 문서들이 K개의 주제(topic)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며, 주제(topic)의 사전 분포 모수는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 α이며, 토픽의 단어 분포 확률은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 β로 나타낸다. β_k는 문서 전체에 대한 디리클레 분포를 통해 할당되며, 상수 η는 β_k의 사전분포를 결정하는 모수이다. θ_k는 각 문서 d의 주제(topic) 구성 비율의 모수이며, $Z_{d,n}$는 문서 d에 등장하는 각 단어 n에 주제(topic)을 할당하는 모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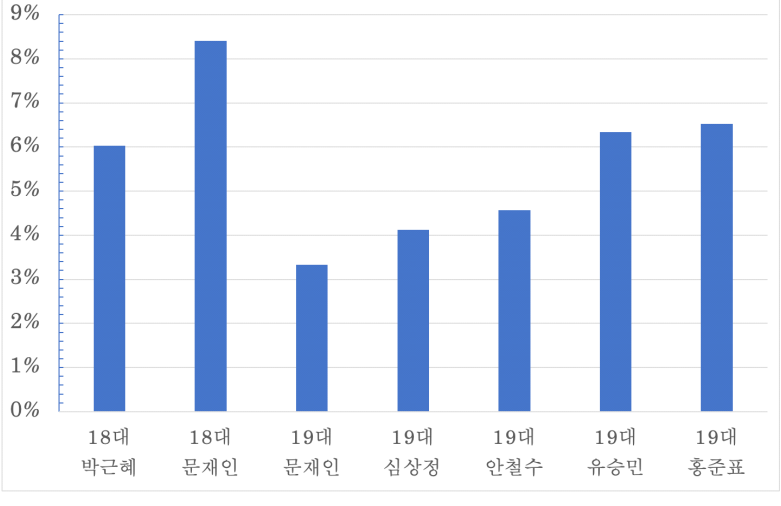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 베이즈 정리(Bayes'theorem)를 이용하여 문서(document)의 주제 분포에 대한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근사 추론(approximate inference)한다. 이 연구에서는 근사 추론으로 Blei, Ng, & Jordan(2003)이 제안한 VEM(variational expectation-maximization)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모수화된(parameterized) 특정 분포를 미리 상정한 후 사후 분포에 가장 가까운 멤버를 찾는 결정론적 접근(deterministic)을 취한다. 즉, 상위 모수를 이미 안다고 전제하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의 로그-우도(log-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θ_k와 β_k를 계산한 다음, 이 값을 이용해 다시 상위 모수 값을 추정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을 사용할경우 주제의 수(K)는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perplexity 값을 기반으로 주제의 수를 5~10개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후 5~10개의 범위에서의 분석 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제(topic)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주제(topic)의 수(K)를 6개 또는 7개로 결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공약 중 장애인 정책 중요도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자료집의 전체 공약 쪽수 대비 장애인 정책이 기록된 쪽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비율을 따져보았다. 목차 내 '장애인'으로 분류된 것과 '장애'로 검색된 페이지를 포함한 것을 수치화하여 계산하였으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근삿값을 사용해 시각화를 〈그림 4-1〉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4-1〉 공약자료집 내 장애인 공약의 비중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자는 전체 공약 381쪽 중 23쪽에 장애인 공약을 기재하였으며 수치는 약 6.03%였다. 문재인 후보자의 경우 297쪽 중 25쪽으로 약 8.41%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절대적인 쪽수로는 박근혜 후보자와 문재인 후보자 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나, 비율 계산 특성상 전체 양이 많았던 박근혜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공약에 대한 비중이 작게 나타났다.

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문재인 후보자는 전체 공약 387쪽 중 13쪽으로 약 3.33%의 수치가 도출되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364쪽 중 15쪽으로 약 4.12%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350쪽 중 16쪽으로 약 4.57%, 유승민 후보는 331쪽 중 21쪽으로 약 6.34%, 홍준표 후보가 230쪽 중 15쪽으로 약 6.52%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VOICEYE voiceye.com

수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비 19대 대통령 거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할애 비중이 줄었다.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짧은 선거 홍보 기간에 장애인 공약을 비중을 두는 것보다 다 득표를 할 수 있는 다른 분야 공약에 집중하였기에 장애인 공약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둘째,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소수자'로 일컫는 여러 취약계층 공약 중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공약이 대통령선거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 중 장애인 정책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해보았다.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 이후 상위 빈도 20개를 나열하여 〈표 4-1〉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중 '장애인'이 상위 20개에 속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순위와 빈도수를 표시하였다.

〈표 4-1〉 18, 19대, 표본 전체(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18대		19대		표본 전체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지역	432	지역	648	지역	1080
2	교육	410	산업	616	교육	953
3	일자리	377	교육	543	산업	947
4	문화	344	도입	522	문화	740
5	산업	331	보장	417	일자리	675
6	체계	280	문화	396	체계	654
7	고용	272	체계	374	보장	644
8	개정	270	노동	371	고용	594
9	서비스	263	안전	363	개정	593
10	복지	257	개정	323	서비스	567
11	보장	227	고용	322	복지	523
12	도입	225	환경	319	환경	523
13	보호	224	기업	305	안전	515
14	경제	220	서비스	304	기업	502
15	소득	217	청년	299	소득	499
16	중소기업	212	일자리	298	보호	485
17	육성	211	기술	286	경제	482
18	환경	204	소득	282	보험	466
19	보험	203	기준	280	육성	442
20	기업	197	위원회	278	청년	432
	(22) 장애인	187	(39) 장애인	231	(28) 장애인	418

18대 선거는 22위, 19대 선거는 39위에 '장애인'이 등장했다. 순위를 따졌을 때, 장애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키워드의 빈도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후보가 5명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증가 값은 50여 개에 불과해 현격히 감소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대 대통령선거의 배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약 두 달간의 짧은 후보 검증 기간, 직전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다당제 구도, 기존 행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중심으로 되었던 19대 대통령선거는 '절대다수'의 관심사에 주목했다. 특히, 산업과 교육, 안전 등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공약에 비중을 두는 전략적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하였다. 때문에'소수자'로 일컫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의 비중이 줄었다.

18대 선거에서는 비교적 상위 20위권에 가까운 22위에 장애인이 등장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급되어 기시행한 장애인연금제도, 성년후견인제도를 넘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새로운 장애 이슈가 출현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특수교사 확충, 문화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 이슈가 공론화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18대 선거에서 장애 담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8, 19대 표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애 담론의 빈도 순위는 28위이다. 주제어 전체 기준으로는 낮은 수치일 수도 있으나, 특정 계층을 나타내는 주제 기준으로는 높은 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장애 관련 공약은 대통령선거 중 무시할 수 없는 의제임을 알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표 4-2〉 18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박근혜 (당선인)		문재인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지역	200	지역	232
2	교육	191	교육	219
3	일자리	171	일자리	206
4	문화	166	문화	178
5	행복	160	산업	173
6	산업	158	경제	143
7	소득	148	개정	143
8	서비스	145	보장	137
9	필요	145	체계	137
10	예산	144	고용	136
11	체계	143	중소기업	134
12	복지	136	보호	127
13	고용	136	복지	121
14	개정	127	서비스	118
15	보험	121	건강	117
16	환경	110	의료	115
17	생활	107	협력	107
18	육성	107	관리	106
19	여성	105	육성	104
20	장애인	104	도입	99
28			장애인	83

18대 선거 후보였던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약 체계를 제언하였다.

"장애인들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대폭 늘려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를 제공하겠다."

이를 정리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와 특수교사 확충,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같은 내용이다. 특히 당선인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법률 제정을 공약한 점, 장애인 주제어 빈도수가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점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낙선한 문재인 후보는 고용평등법, 교육복지법과 같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을 공약한 점, 장애인 주제어 빈도수가 낮은 점을 비추어봤을 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비중이 높았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약집 한쪽당 '장애인'을 주제로 한 비율에서 박근혜 후보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림 4-1〉과 달리 〈표 4-2〉에서 박근혜 후보의 상대적 관심도가 더 높기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19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일자리	126	노동	279	산업	231	계획	187	지역	112
2	도입	83	지역	261	지역	141	과제	173	교육	107
3	산업	83	보장	212	조성	129	개정	170	청년	86
4	기업	71	도입	200	문화	121	국정	166	도입	86
5	보장	56	삶	190	마음	98	교육	164	기업	67
6	지역	56	교육	161	관광	95	문제점	161	안전	59
7	고용	56	산업	155	도시	92	관리	144	개발	57
8	참여	43	기준	143	육성	91	환경	131	운영	56
9	청년	41	고용	132	해양	81	도입	105	보호	55
10	임금	41	건강	131	교육	79	문화	101	소득	54
11	성장	39	안전	130	미래	74	산업	100	시설	50
12	활성화	39	소득	129	기술	70	안전	98	서비스	48
13	보호	38	보험	128	개발	69	기술	95	취업	47
14	강화	38	의무	126	체계	68	서비스	89	산업	47
15	조성	37	경우	122	활용	65	보장	84	문화	46
16	체계	35	복지	118	여성	65	임금	84	일자리	45
17	적용	34	위원회	116	경제	64	인권	78	기술	42
18	비정규직	33	관리	115	장애인	63	지역	78	체계	42
19	중소기업	33	문화	112	교통	62	보호	70	활성화	40
20	개발	33	서비스	111	의료	57	고용	69	보험	40
	장애인 (등외)	2	장애인 (38)	87			장애인 (45)	51	장애인 (50)	28

KOR VOICEYE voiceye.com

19대 주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공약화하였다.

"장애인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요예산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영구임대주택 등 장애인 가구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겠다."

즉, 장애등급제 폐지 혹은 개선(대체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완화, 장애인 주거보장과 같은 공통적인 공약이 있었다.

당선인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주제어 빈도수가 낮았음에도 연이은 대선 참여로 높은 인지도 구축한 점,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진행된 선거로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던 시기에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과 뉴스·선거·재난 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 등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공약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두드러진 점과 같은 요인들이 당선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 중, 유승민 후보는 당선인이 공약한 장애인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 기획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갖춘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21.6만원 및 현행 현물급여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부가급여을 8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 공약, 경증장애인의 추가비용 12.1만원 및 현행 현물급여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애수당을 4만원 인상하는 장애수당 공약과 같이 구체적인 연금·수당 인상 공약이 있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여성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장애인 생활 자립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장애여성 공약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전문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2.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애인 정책 주요 단어와 주제

1) 18대와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분석 결과

〈표 4-4〉 18대, 19대 전체 후보 공약 중 장애인 공약 상위 빈도 단어

주제 연번	주요 단어
1	서비스, 의료, 보장, 활동, 제정, 폐지
2	교육, 건강, 방송, 소득, 보험료
3	복지, 보장, 공급, 주택
4	주거, 기준, 부양, 맞춤, 급여
5	소득, 보장, 도입, 연금, 권리, 기초
6	체계, 문화, 보장, 구축, 고용, 교육

〈표 4-4〉는 18,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의 정책 자료집 데이터를 종합하여 주제 단어를 도출한 결과다. 주제명은 〈표 4-4〉의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 분포를 보고 연구자가 설정하였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 공약 등 장애 정책 담론을 활용해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제명을 정하였다.

〈표 4-5〉 18, 19대 장애인 공약 주제명

주제 연번	주제명
1	장애인 관련법 제정과 장애 등급제 폐지, 의료서비스 보장
2	특수교육과 방송접근권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
3	임대주택(탈시설 지원 포함),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공급 확대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주거급여 확대
5	기초 생활보장과 장애인 연금 확대
6	문화향유권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주제 1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에 근거가 되는 법 제정, 다양한 지원의 구조적인 한계를 주는 장애등급제 폐지, 재활 등 건강관리에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관련법 제정은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

KCI VOICEYE voiceye.com

형 지원체계 구축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의료서비스 보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도입,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공공의료인력 확대 등이 있다.

주제 2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접근권 확대, 의료이용 제한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등이 있다. 방송접근권 확대는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TV와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의 성능 개선 및 보급 확대, 수어 및 화면해설 비율 확대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하위 15% 가구의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주제 3은 장애인 주거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대주택 확대는 공공임대비율 확대 및 장애인 특별분양 활성화와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등과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탈시설 지원도 포함되어 구성되어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는 시외버스·전세버스·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단계적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확대 등이 있다.

주제 4는 복지사각지대를 조성하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완화,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장애인 등의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주거급여 확대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라서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와 지급액 월평균 20만 원으로 인상 등이 있다.

주제 5는 비수급 빈곤위협층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는 대상자 5% 수준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등이 있으며, 장애인연금 확대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연금지급액 인상 등이 있다.

주제 6은 사회취약계층의 문화복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문화향유권 확대, 장애인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문화향유권 확대는 거점별로 장애인스포츠센터 설립, 시각장애인 점자 자료 지원, 장애인예술회관 등 창작 공간 지원, 전문예술교육 실시 등이 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정보역량 강화교육,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등이 있다.

주제명을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분야에서 다뤘던 장애인 관련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완화, 탈시설 지원,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관련법 제정의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화두이다. 현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40년 이상 장애인복지를 규정함에 따라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작동이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장애계 요구에 발맞춰 최근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의 경우, 기존 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경증과 중증으로만 구분하도록 바뀌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 절차를 밟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올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폐지되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후 예산에 맞춘 점수제(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로 교체되었을 뿐 여전히 장애인 중심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된 후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일부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시간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마련된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부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약이 필요할 것이다.

탈시설 지원의 경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이슈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자립지원 이행은 핵심과제이며, 최근 정부에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정책이 점진적이고, 탈시설의 의지가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 장애인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장애계와의 합의점을 찾아 탈시설 정책 구체적 수립 공약이 필요하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증진 정책 내에서 개선요구가 많은 이슈 중 하나이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화와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점, 확대되더라도 이용 효율이 높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점 등으로 인해 공급 확대가 더딘 실정이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모빌리티와 같은 운송 영역을 형성하는 등 막대하게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공약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18대 대통령선거부터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시대의 장애인 의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VOICEYE
voiceye.com

2) 18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분석 결과

〈표 4-6〉 18대 주요 대선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박근혜		문재인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기준	20	교육	23
2	보장	20	보장	19
3	서비스	18	서비스	18
4	기초	17	문화	16
5	계층	15	복지	15
6	생활	14	지역	15
7	소득	13	취약	13
8	급여	13	계층	12
9	체계	12	주거	12
10	수급	10	의료	11

박근혜 당선인은 기준, 보장, 서비스, 기초, 계층, 생활 등이 주제어로 나왔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보장·기초·생활·급여·체계가 구성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의료, 교육, 주거급여의 부처 간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관정책에 대해 연계와 통합을 하여 생활영역별, 정책대상별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급권 보장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근본적인 빈곤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재인의 경우 교육·보장으로 구성된 '특수교사 정원확보 등 교육권 보장', 문화·복지·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 기본권 확장'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특수교사 정원확보와 특수학교 또는 학급의 신증설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회취약계층 좌석 할당제 추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문화복지 기본권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도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4-7〉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장애인 공약 토픽 모델링 구성 단어

주제 연번	주요 단어
1	급여, 서비스, 기초, 생활, 체계, 보장, 해소, 맞춤
2	의료, 보장, 적용, 등급, 이동권, 건강, 부담
3	기준, 소득, 수급, 기초, 부양, 보장, 생활
4	문화, 재활, 접근성, 체육
5	교육, 보장, 대상자, 생활, 발생
6	특수, 학생, 교사, 증가
7	보험, 건강, 진료, 보장, 환자, 중증, 부담

〈표 4-8〉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장애인 공약 주제명

주제 연번	주제명
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료 체계 강화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4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5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개선
6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
7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주제 1은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체계를 재설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2는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지원, 재활프로그램 확충과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3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기초공제와 재산유형별 환산율과 같은 소득 환산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4는 문화예술, 스포츠강사의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등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5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와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

VOICEYE voiceye.com

소통, 문화·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를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6은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교사 증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7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까지 모두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진료)와 기초생활보장이 포함된 주제어가 두 가지인 것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을 방지하고 진료비 지원으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교육권·문화권·의사소통권 보장 등 장애인 권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을 중심으로 공약했다.

3)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분석 결과

〈표 4-9〉 19대 주요 대선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서비스	11	보장	26	복지	9	서비스	11	서비스	10
2	소득	9	급여	16	소득	8	교육	10	도입	7
3	센터	8	건강	14	기준	7	급여	8	맞춤	6
4	시설	7	부양	13	보장	7	주거	8	문화	6
5	교육	6	기준	13	발달 장애	7	복지	7	건강	6
6	구축	6	소득	11	계층	6	기준	7	센터	5
7	임대 주택	6	폐지	11	기초	6	소득	6	훈련	4
8	보장	5	주거	11	생활	5	가족	5	생활	4
9	의료	5	의료	11	단계	5	맞춤	4	교육	4
10	맞춤	5	여성	10	시행	5	시설	4	민간	4

문재인 당선인은 서비스, 소득, 교육, 보장, 의료 등이 주제어로 나왔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서비스·구축·맞춤이 구성되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등 장애인과 연관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심상정의 경우 보장·여성이 구성되어 '장애여성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성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피임·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장애친화적 산전산후서비스 도입, 장애인가족 자녀양육학습도우미 제도 마련 등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계 확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승민의 경우 복지·발달장애로 구성되어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가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대 지정, 발달장애 주치의 제도 시행, 발달장애인 보험적용 항목 대폭 확대 등 발달장애인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안철수의 경우 서비스·교육·복지로 구성되어 '데이터 복지 보장과 미디어 서비스 확대'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월 기본 데이터 무료 제공,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데이터 복지 보장과 미디어 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홍준표의 경우 맞춤·센터·훈련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가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수도권 남부지역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 경북권과 호남권에 맞춤훈련센터 추가 설립,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 매년 1,500여 명의 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배출, 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 시 징벌적 벌금 부과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4-10〉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장애인 공약 토픽 모델링 구성 단어

주제 연번	주요 단어
1	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영구
2	기회, 대학, 균형, 지방, 선발, 정원
3	방송, 미디어, 센터, 접근권, 해설, 자막
4	고용, 중증장애인, 급여, 연금
5	서비스, 공단, 시설, 지자체
6	서비스, 재활, 구축, 교육, 맞춤, 의료
7	환경, 탈시설, 조성, 주거, 보장, 폐지

VOICEYE
voiceye.com

〈표 4-11〉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장애인 공약 주제명

주제 연번	주제명
1	임대주택 장애인 가구 우선 공급
2	대입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3	방송접근권 확대와 미디어 복지 강화
4	고용 활성화 정책과 장애인 연금 확대
5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체계 구축
6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7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정착생활 환경 조성

주제 1은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2는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대학 입시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3은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 환경 마련, 지역미디어센터 장애인 공간 확대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미디어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4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5는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6은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돌봄·교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7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의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

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등을 통해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 대입, 미디어, 고용, 활동, 의료 등 다분야의 주제어가 분포된 것을 보면, 장애인과 연관된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우선시하고 있다. 특정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욕구와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약했다.

3. 당선자의 공약과 실제 이행 정도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공약과 실제 이행 정도를 〈표 4-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2〉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공약과 실제 이행도

연번	주제명	이행 정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전부 이행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료 체계 강화	미이행, 부분 이행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부분 이행
4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전부 이행
5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개선	전부 이행
6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	부분 이행
7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부분 이행

주제 1의 공약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수급자는 167만 명, 개정 전인 132만 명과 비교해 35만 명이 늘어나 정부의 기존 목표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환산 등의 문제로 인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제 2의 공약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당시 장애인 관련 법 제정은 모두 제정 검토 또는 단계적 입법 추진으로 후퇴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은 2016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험사업 추진, 2017년 상반기 최종 모형 확정 및 시행 준비하며 부분 이행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 예산 증액으로 재활프로그램 확충

VOICEYE
voiceye.com

및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 장애인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실시하며 부분 이행했었다. 그러나, 최초로 지방의료원 폐원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호텔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역행하는 행보를 걸었다.

주제 3의 공약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 부과기준, 재산기준 완화를 하며 부분 이행했으나, 주제명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주제 4의 공약은 2014년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개관 등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을 했다.

주제 5의 공약은 2015년 1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6년 8월 시행되었다.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제 6의 공약은 201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라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교원 증원 등 부분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 현황 자료에서 보면 2013년 58.6%에서 2015년 4.2%로 소폭 올랐으며, 매년 11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비해 특수교사의 증가율은 적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제 7의 공약은 3대 비급여의 일부 개선으로 축소하여 부분 시행되었다. 비급여 포함 전액 지원은 미이행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공약과 실제 이행도를 〈표 4-13〉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3〉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공약과 실제 이행도

연번	주제명	이행 정도
1	임대주택 장애인 가구 우선 공급	우려 진행
2	대입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우려 진행
3	방송접근권 확대와 미디어 복지 강화	진행 중
4	고용 활성화 정책과 장애인연금 확대	우려 진행
5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체계 구축	우려 진행
6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우려 진행
7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정착생활 환경 조성	우려 진행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전부 이행에 가까운 공약은 '진행 중', 부분 이행에 가까운 공약은 '우려 진행'으로 표기하였다.

주제 1의 공약은 공공임대주택이 2016년~2019년 32만 8000호가 증가했으며, 2020년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200만 호,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 임대 등의 주거유형 비중은 작아 장애인 주거 대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 2의 공약은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 전형 의무화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외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봤을 때 세부적인 공약이 더 적극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 3의 공약은 한국 수어 방송·외국어 자막방송 지원으로 재난 정보제공 확대, 전국 17대 지자체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상파 뉴스, 정부 브리핑과 뉴스특보에 수어 방송을 실시하였다. 단,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세부적인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 4의 공약 중 장애인연금은 2018년 25만 원 인상, 2021년 10월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장애인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제고는 높게 이루었으나, 장애 근로자 중심의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의 세부적인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 5의 공약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재까지 11개 시도에 설립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을 공모해 3개 시도가 선정됨에 따라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공약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 6의 공약 중 의료지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운영,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어린이재활의료센터 확충 등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하였으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더딘 실정이다. 2019년 7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행 이후 2021년 6월까지 주로 경증장애인이 속한 상위 1~6구간에 포함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무했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2022년 예산도 650억 원이나 삭감되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임기 내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OICEYE
voiceye.com

주제 7의 공약 중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년 7월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3개의 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탈시설 지원의 경우,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어 탈시설 실적이 부진하고,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수준의 격차도 컸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약 이행이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시설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인별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장애인 욕구와 환경에 맞춘 공약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공약의 비중과 주요 공약, 당선인의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공약 대비 장애인 공약의 비중은 전체 평균 6%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18대 대비 19대 대통령선거 때 비중이 줄었다. 선거 대수별 수치상 차이는 존재하나 취약계층 공약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구체화 정도에 따라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별 장애인 주요 공약을 규명하였다. 18대의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수급권 보장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빈곤 해결에 초점을, 문재인이 교육권과 문화복지 기본권,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19대는 문재인 당선인이 맞춤형 지원체계와 연관 서비스의 질 향상, 심상정이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확립, 여성 모성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민은 제도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안철수는 데이터 복지 보장과 미디어 서비스 확대에 중심을 두었다. 홍준표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당선인의 공약 이행 정도는 다음과 같았다. 18대 박근혜는 이행 정도가 전부 이행 3, 부분 이행 4, 미이행 1로 비교적 높은 이행 수준을 보이나, 세부 사항을 살펴볼 때, 빈곤 사각지대

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공의료 강화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축소 시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19대 문재인은 임기 중인 점을 고려해, 미이행을 표기하지 않고 우려 진행 6, 진행 중 1로 나타내었다. 공공성 강화 발표를 발표하였으나 실제 부진한 이행 정도, 세부 공약의 미이행 등 전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체감이 어려웠다.

2. 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공약 제언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제가 형성되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적 부담 감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맞춤형 지원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주요 의제였으며, 이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장애인 현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국가정책의 장애 포괄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의제를 제언한다. 장애계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담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다. 이에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방안, 예산(장애인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등)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같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장애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장애인 개별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화에 관한 담론을 공약으로 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해당 담론은 활동 지원 시간 감소, 조사 문항이 장애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즉, 새로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모델에 입각한 개인별 욕구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장애인 자립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으로 탈시설 지원에 관한 의제를 제언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와 탈시설 자립지원 이행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 42호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발표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추상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를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정책 정비를 통한 핵심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동권 증진 역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전국 시내버스 저상화와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감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동권 구축을 위한 유니버

VOICEYE
voiceye.com

셜 운송 수단을 도입하고 효율을 늘릴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약이 논의되어야 한다.

3.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 제언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대통령 선거 중 발간되는 공약자료집을 분석해 주제를 명명하고 이를 분류하여 장애인 공약의 비중과 주요 공약, 이행정도를 살펴보았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방식의 사례연구나, 인터뷰, 담화를 넘어 데이터를 융합한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 것에 의미가 크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 이념을 넘어 명확한 데이터와 제언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득표를 위한 장애인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해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의제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에는 어떤 담론이 있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후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통령선거의 공약 이행 정도에 관한 주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의견이 명확히 반영된 정책 실현 여부를 살펴 단발성 공약이 아닌, 실현되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 전반에 관한 장애인 의제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 단위를 넘어 다가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지역별 담론을 살펴 장애 현안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와 제언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발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제 분석과 함께 공약을 예측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최근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이 시혜적 관점을 넘어 장애인도 대한민국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약의제가 나오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4(2), 193-217.

국민의당.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권순성, 김재웅. (20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28(3), 107-132.

김동영, 김진병. (2018). 빅데이터로 본 민선7기 지방선거의 의미. [Jthink] Issue Briefing(175)

김민호, 윤호열, 최상옥. (2021). 인공신경망 기반 자연어처리를 적용한 연도별 정책내용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일본 IT신전략 (2018-2020)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8(1), 1-26.

김시진. (2019). 한국의 공교육과 정당의 정책 경쟁.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윤자. (202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정규, 정철. (2019). 특허 정보를 활용한 한국과 미국의 관광 관련 기술 동향 분석 -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43(1), 249-267.

남찬섭. (2007). 장애인 : 장애인 분야 대선공약평가. 월간 복지동향, 110. 40-49.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 나라답게,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동성혜. (2019). 미국 대통령선거와 정치빅데이터 유용성 분석. 미국헌법연구, 30(2), 99-141.

민주통합당. (2012).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

바른정당. (2017).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모두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박찬표. (2008). 제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7(2), 5-40.

새누리당. (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새누리당. (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송근원. (2006).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1-36.

안예지. (2020).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 및 토픽 분석: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명모. (2014).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 분석. 연구자료, 159-183.

유동철. (2005). 한국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1(0), 5-33.

유재호, 전의찬, 김하나. (2019).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 동향 분석 - 한국기후변화학회지를 중심으로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0(3), 161-172.

이수경, 정상원, 김홍기, 염영희. (2011). 한국 간호학 연구주제의 사회 연결망 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41(5), 623-632.

이종승. (2021).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교육복지 정책 언론 보도 분석: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종호, 허선영, 장후은. (2020).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트렌드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3), 260-271.

자유한국당. (2017).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정의당. (2017). 노동이 당당한 나라,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정지원, 이재민, 최소연. (2018).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언론에서의 장애인 노동의제 분석. 장애의 재해석, 48-100.

정회옥. (2018). 19대 대선에서의 공약과 유권자 행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45-6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제17~19대. 선거통계시스템.

최미란. (2007).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장애인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허만섭. (2019). 대통령 후보의 은유적 메시지에서의 판타시아(시각성)와 에나르게이아(생동감) - 한국 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 수사학, 35, 155-196.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Blei, D. M., A.Y.Ng, M.I.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 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Analysis of previous presidential candidates' pledges related to the disabled using topic modeling and prediction of next candidate pledges : Focusing on the 18th and 19th major candidate commitments

Shin WooCheol*·Kim EunChong·Lee JongSeung*****

In South Korea, the agenda for the disabled emerged as a discourse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from the mid-1990s.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ideology of modern democracy, is a very important process that makes it a living policy through fierce competition for pledges reflecting the trend of the times and ideological c 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 a macroscopic theme, "What is the pattern of pledge polic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We looked at the pledges for the disa bled in the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which had not been studied, by topic m odeling, one of the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As a result of that, it was discovered tha t 'disabled'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pledges made by the vulnerable group referred to as 'minority,'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pledge of disabled had a signific ant effect on the election. After that, the entire pledge data were analyzed to search for

* Assistant administrator, Department of Cooperation,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 Ph.D. Student, Departments of Finance, Hanyang University
*** Correspondence Auth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olicy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Policy, Master's degree

KCI VOICEYE voiceye.com

words that had a high frequency of use. As a result, the word ‘disabled’ ranked 22nd in t he 18th and 39th in the 19th. It can be seen that the figure has fallen relatively in the 19 th election, and it can be seen that due to the “short verification period” and the “ruling party judgment theory,” the election strategy focused on the “pledge for an absolute majo rity” that can win votes. In addition, the number of topics (K) could be set differently acc 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election pledges, and the specific subject name could be set, and the pledge of the elected person and the actual degree of implementati on could be confirm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edict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about the policy of the disabled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research marks its significanc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ext mining, a technique that amalgamates da tas, in the process of analysis. Another point of significance is the establishment of basal ground for political parties to reflect the desires of electorates from the analysis of tangi ble data, instead of previously practiced ideological approaches. It is hoped, from this res earch, that the future pledges in the area of disabled rights could ensure the pragmatic a pproach and solution to the difficulties electorates experience, or ensure the rights of dis abled are provided to full extent, rather than pledges concocted in populistic approach a nd devised to garner votes.

Keywords : Topic modeling, Presidential election, Committees, Status, Discourse on the disabled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215 - 255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연구
: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신준용* 최재원**

본 논문은 지적장애인을 수동적이고 무성(無性)의 존재, 또는 성에 집착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을 고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설계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연구를 계획하였다.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관련된 국내 문헌 분석, 설문조사, 관련 종사자 면담 등의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 분석, ②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 ③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성교육 요구(내용 및 방법)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 성적 주체자로서 지적장애 학생을 바라보며, 보편적 학습설계(UDL) 이론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경계를 두지 않는 '모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의 진보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지적장애 학생, 성 고정관념, 성교육

*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Ⅰ. 서론

성은 인간의 탄생과 유희 목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 밖으로 꺼내기 조심스러운 단어이다. 특히, 사회 · 문화적으로 가장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인 성장기 아동 · 청소년, 그리고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즉 본 연구의 부제인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적인 고민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으며, 책임 연구자는 2021학년도 1학기 강남대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 교육' 수업을 수강하며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결혼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흥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갖게 되어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성(sex)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지적장애인의 성, 결혼, 육아, 데이트, 고백, 데이트 예절, 이별 등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과 관련된 다방면의 영역을 성교육으로 크게 범주화하고자 한다. 즉, 언제까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내용, 낯선 사람이 팔을 잡으면 "안 돼요, 싫어요." 등의 거부 의사 표현만을 교수하는 성교육은 지적장애인을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에서의 변화를 주고자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성교육 일부임은 분명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자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 관련한 주체적인 능동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을 적절하게 표현 및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독립적인 삶과 더불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구분을 두지 않는 '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학습설계(UDL) 이론에 입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적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교육이 아닌 성숙 단계를 거치고 있는 13~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적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특성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연인과의 상처를 견디고, 연예인을 사모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 연구에서 희망하는 방향이다. 단, 지적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비장애인이 지적장애 학생을 성적 주체자로서 바라보는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성 고정관념의 유무를 조사함으로써, 성 주체자로서 지적장애 학생의 현 실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관념은 논문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VOICEYE
voiceye.com

본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 및 지적장애 성인의 성과 결혼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관련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적절한 성적 욕구의 해소 및 표현법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유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1. 용어의 정의

1) 지적장애 학생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지적장애 학생이란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8세 청소년기 학생을 의미한다. AAIDD의 정의에 의하면 지적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으로, 지적기능성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양 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다(AAIDD, 2010;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2) 성 고정관념

사회 구성원은 성별에 따라 인지적·행동적 측면, 성격, 감정 등에 대해 다른 특징을 지닐 것이라는 기대치를 하고 있다. 이를 성 역할(gender role)이라고 하고, 성 역할을 기준으로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성 고정관념이다(송현주, 2021). 이 정의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성 고정관념이란 '장애로 인하여 성 역할 부분에서 편협하게 부여받는 형태 및 가치관'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인들은 정도가 다양하지만,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생식능력과 성에 대한 욕구가 있으므로 성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송준만 외 공저, 2016). 즉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각자 성에 따라 이차 성징인 신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라 지적장애인들에게 숨기기보다는 올바른 성 인식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교육 기회 및 사회활동 부족 등으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때로는 부적절한 성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송준만 외, 2016).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기 때문에 생활연령에 적합한 사회화가 어렵다. 이러한 사회화의 어려움은 자

연스레 발생하는 성적인 호기심을 표출할 때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도 이성 관계와 그에 내포된 사랑에 관심이 많으며 결혼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피임, 배우자 역할, 올바른 성인식 등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송준만 외, 2016).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 학생의 독립적인 삶 유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인 삶 안에는 결혼 및 이성과의 관계, 주체적인 성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를 다방면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성교육 내용을 알아보며 장애인을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무성(無性)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적절한 교육을 연구하고 제공해 주고자 한다. 또한, 여러 성교육 자료를 토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 및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론적 내용과 더불어 비장애인들이 가진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토대로 현시점에서의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반응 및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대해 현시점에서 자료 및 설문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대상을 반영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둘째,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성교육 요구(내용 및 방법)는 무엇인가?

셋째,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어떠한가?

VOICEYE
voiceye.com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1) 성교육 실태 :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⑴ 장애 학생 성교육

본 내용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관련 국내 자료들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2015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교과인 '보건 교과'와,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2011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적장애 성교육 지도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의 에듀넷 프로그램을 토대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성 교제 프로그램' 자료도 검토해 보았다.

① 기본 교육과정 : 보건 교과를 중심으로

보건 과목은 일상생활과 건강 영역, 성과 건강 영역, 안전과 건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 내의 내용 요소들을 학습함으로써 최적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이 나이와 발달 단계에 적합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본 교육과정(보건)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중 1~3학년	고 1~3학년	
성과 건강	신체적 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학습하여 생명에 관한 소중함을 안다.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생식기 건강관리 임신과 출산	성 욕구 조절 임신과 피임 출산과 산후 관리	찾아보기 실천하기 제시하기 탐색하기 표현하기
	사회적 · 도덕적 성	사회적·도덕적 성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성 교제 성폭력 이해와 대처	성적 의사 결정권 성폭력 예방과 대처 성매매, 성 상품화	

출처 : 교육부(2018)

② 시·도교육청 자료 : 전라남도 교육청 자료를 중심으로

본 자료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로, 지적장애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적인 삶을 영위하며 올바른 성인 준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신의 인권적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반영한 자료이다(전라남도 교육청, 2011).

③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넷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에듀에이블에서는 인권교육 콘텐츠 일부로 성교육 콘텐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 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자료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식기 위생관리, 성폭력 유형 및 예방, 음란물에 의한 성 상품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④ 국립특수교육원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본 자료는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발달장애인 성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발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즉,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을 다루기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성, 이성 교제, 결혼 등을 다룬 프로그램 자료이다.

⑵ 비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

본 단계에서는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관련 국내 자료들을 조사해 보았다.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2015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인 실과, 보건, 기술·가정 교과와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2018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검토하였다.

① 공통 교육과정 : 보건 교과를 중심으로

공통 교육과정에서 성을 주제로 한 내용은 실과, 보건, 기술·가정 교과에 녹아 있다. 실과와 중학교 수준의 기술·가정은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가정생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VOICEYE voiceye.com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그 경험을 통해 기술적 능력을 높여 현재와 미래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삶의 기술을 주도적으로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중학교 수준의 '보건' 교과는 건강의 가치를 알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건강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공통 교육과정(보건)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성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고, 성 문제는 성 가치관 및 성 윤리 의식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청소년의 성적 발달 이성 교제와 성 역할 임신·출산과 피임 음란물과 성 상품화 성폭력·성매매	탐색하기 이해하기 분석하기 전략 수집하기 제시하기	토론하기 모색하기 도출하기 설명하기 적용하기 계획하기

출처 : 교육부(2015)

② 시 · 도 교육청 자료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표준안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표준안 자료에 의하면, 성교육의 영역은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 건강, 사회와 문화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중학교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과 성징, 신체 이미지, 성 심리와 정체성, 사랑, 이성 교제, 결혼과 가족관계, 성적 의사결정, 성에 관한 주장과 위기관리, 남녀의 성 인식 차이, 성 욕구 조절, 생식기 건강과 임신, 피임, 성 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성폭력 예방, 청소년의 임신, 성 상품화,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 '성 욕구 조절', '피임'과 '청소년의 임신',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이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의 내용이 심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성교육은 삶과 성, 출산과 부모, 자녀 양육, 건전한 이성 교제, 배우자 선택, 성 가치관, 의사소통과 거절 의사 표현, 성 문제 위기관리, 임신, 성욕과 건전한 성생활, 생식기 질병과 성 매개 감염병, 피임과 인공 임신 중절, 신생아 관리, 데이트 성폭력, 성과 표현, 그리고 성생활과 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성의 내용이 심화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사회문화적 성의 내용이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③ 기타

이 외에도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EBS, 한국 양성평등진흥원(젠더원), 학생건강정보센터(교육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제작한 성교육 자료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기관마다 성에 대한 주안점이 다른 것으로 보여 자료 제시는 생략하고자 한다.

2) 성교육 요구

(1) 지적장애 학생의 성적 욕구

지적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성 지식에 따라 제한된 성 충동과 흥미를 보이고, 신체 발달이 지체됨에 따라 부적응행동이 야기될 수도 있으나 성적 발달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애란, 2000;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단, 개인적인 환경과 특성, 교육적인 환경, 사회적 기대, 태도 등에 성적 발달이 영향을 받으므로 개개인의 성적 흥미와 표현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이현혜, 2003;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미국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분류한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 특징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성적 특징 분류(김재인, 2002; 김정옥, 2003; 임선영, 2003; 김명화, 2004; 임세라, 2006; 유서정, 2007; 박명순, 2008; 이경자, 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징이 다를 수 있으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성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성적 특징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VOICEYE
voiceye.com

〈표 3〉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별 성적 특성

분류	성적 특성
경도	지적장애인의 80% 이상이 경도 지적장애인 법주에 속한다. 비장애인과 유사하며 정상적인 심리, 사회, 성적 행동과 유사하다(정진옥, 2001).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욕구로 상대적으로 쉽게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신의 사적, 심리적,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나 일단 자원 활용 방법을 습득한 이후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사회인 대부분과 유사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적응하며 성적 충동이나 자극을 조절한다(유서정, 2007). 성적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하는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성교육, 성 상담, 성 치료에 대한 언어적 방법에 반응할 수 있다. 현재의 성교육, 성 상담, 성 치료 방법들로써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
중등도	이차적인 성적 특성이 지연될 수 있다(김명화, 2004). 성욕과 그것에 대한 권리, 성적 행동의 결과와 성적인 책임감에 대한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자위행위, 비식별 적인 동성이나 이성과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 적절한 적응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성교육, 성 상담의 언어적 방법에 반응할 수 있다.
중도	성적인 충동에 대한 조절이 매우 어렵고 과도한 자위행위가 나타난다. 적응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 행동의 적절한 발달이 부족하다. 관능적/성적 행동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사회적 규칙들, 특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양한 중복장애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강력한 중단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가 요구된다(유서정, 2007). 집단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수정의 기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김명화, 2004).
최중도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따라 기증하며 주된 반응이 충동적이다.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 또는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종종 비위생적인 자위행위가 관찰된다(유서정, 2007).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성적으로 이용당하기 쉬우므로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변화를 주기 위해 행동수정 방법이 필요하다(김명화, 2004).

출처 : 전용호(1991), 최옥순(2000), 임선영(2003), 이경자(2010).

(2) 지적장애 학생의 성 지식 접근의 어려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성 인식에 대해 김영석, 김영걸(2015)은 발달장애인이 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관심은 있지만, 중재 경험이 없어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즉, 성과 관련된 중재 경험이 없는 발달장애인 본인은 성에 대해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은 성에 관해 관심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중재 및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달장애인 본인은 성에 대해 어려움 느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지적장애 학생들도 성교육 요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이해경, 김혜원, 2009)에 의하면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 사귀기, 성기 관련 지식,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기를 원하였고, 성행위 및 성교, 임신·피임·낙태, 성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학습 욕구가 크지 않았다. 특히 중학생은 성기 관련 내용,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아 보였고, 고등학생은 성기 관련 내용보다 이성 교제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더 가짐과 동시에 중학생에게 언급되지 않은 결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김혜원, 2009). 또한, 학부모는 몸과 생식기 관리하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성교육 내용으로써 성교육 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차세진, 황순영, 2018). 청결 유지와 성폭력 대응이 곧 성교육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만연한지(김두희, 2017; 차세진, 황순영, 2018에서 재인용), 실제로 지적장애 학생은 그러한 교육을 원하는지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3) 성 고정관념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의 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사례의 내용을 떠 올리거나, 무(無)성의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내용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성교육을 하면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 켜져 문제만 더 생길 것이다.

장애인들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자칫 잘못하면 성교육이 자극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가까운 예로 서울의 모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원의 경우에

VOICEYE
voiceye.com

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성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안 될 때 오히려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전라남도 교육청, 2011), 표현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무(無)성이거나 지나칠 정도로 성을 즐긴다.

많은 사람이 장애인은 성에 전혀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하여 그들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 표현에 대한 권리를 무시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교육하려 하지 않는다(전라남도 교육청, 2011). 또한, 그들에게 욕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긁어 부스럼 만들기'라는 식으로 터부시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미국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분류한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 특징과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 성적 특징 분류(이경자, 2010)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징이 다를 수는 있으나, 성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성적 특징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욕구가 있으며, 그들의 욕구를 표출 및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뿐이다.

(3) 성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장애인의 학습 능력을 의심하여 성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를 '치료'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장애를 인정하고 잠재된 능력을 꽃피우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인지능력 및 사회적 경험, 개인적인 특성, 장애의 정도 및 유형 등에 따라 그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전라남도 교육청, 2011). 가정환경, 개인적인 특성, 지적 능력, 적응행동에서의 제한성 등으로 성교육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개인의 특성과 대상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제공해 주면 된다. 즉,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 및 방법으로 교수하면 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성 욕구를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비장애인 대부분은 자신의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조절·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상황에 맞는 성적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와 교육여건을 받는다. 반면,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인들의 편견, 무시하는 태도, 제한된 환경, 교육 기회 및 사회활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성행동이 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다(이현혜, 2003;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회가 원치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수용될 수 없는 성적 행동을 발달시킬 위험이 있다. 즉, 이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그들이 지적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그렇게 방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경자, 2010).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의 장애의 정도 및 특징에 맞는 개별적이고 적합한 성과 관련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설문지와 면담 두 가지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지 참여 인원은 15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의 경우 탈락률을 고려해 최소 100명을 지정하였다. 면담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로 특수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면담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근무처	경력	성교육 경력
윤ㅁㅁ	여	20대	대졸	중등 특수교육	특수학교	2년	무
이OO	남	30대	대졸	중등 특수교육	특수학교	12년	무
허O	남	40대	대졸	사회복지학	장애인복지관	15년	무
이ㅁㅁ	여	40대	대졸	광고학	주부	-	무

VOICEYE
voiceye.com

설문 대상자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선정했으며, 면담 참여자는 지적장애 학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전문가 또는 학부모로 선정해 보았다. 연구대상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지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강남대학교 '에브리타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대학생 연구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모집하고, 이 외의 대상자는 소수의 인원에게 설문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들의 지인을 조사하는 누적 표본추출을 통해 모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의 경우 본 연구자가 평소 면식이 있는 특수교육 분야의 관련 종사자들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구두로 연구 동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기 3~7일 전에 연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하나의 연령층이 아닌 2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 성별, 학력, 지적장애인과의 소통 여부[1]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면담 대상자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 학생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다.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장애인복지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과 매우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직·간접적 경험과 더불어 체험적 사례는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때 매우 좋은 양분이 될 것이다. 또한, 면담 대상자로 지적장애 학생의 '학부모'를 섭외하였는데, 이는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의 가정 내의 교육과도 연계해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실제적인 성교육 활성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반수의 연구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 둘째, 연구 참여 의지가 없거나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연구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 셋째, 연구원과 합리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연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연구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

---

1) 지적장애 학생보다 지적장애인으로 범위를 넓혀서 소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질문은 '지적장애인'으로 용어를 잠정적으로 수정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와 개별 면담을 위한 면담 질문지로써, 두 가지의 도구를 동시에 활용하여 상호 보완하였다.

1) 설문지 작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 연구(손순옥, 2012)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비장애인의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채택하여 'Google 설문지' 양식을 활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성 고정관념 11문항, 성교육 요구 4문항, 개인 소감 1문항을 합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 고정관념과 성교육 요구 영역은 선행 연구(손순옥, 2012)의 설문지 문항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하였고,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 문항 영역

영역	문항	문항 수
인적 사항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지적장애인과의 소통 여부	4
지적장애 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2]	성적 발달 수준, 성 욕구, 성적 발달 속도, 성 조절 능력, 성적 자극, 성행동, 성행동 통제, 성 고민, 성교육 역효과, 이성 교제, 결혼	11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3]	중요도, 권리, 필요 범위, 영향력	4
기타	소감 및 하고 싶은 말	1

2) 본 연구 설문 응답자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설문지 소주제 제목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지적장애 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으로 잠정적으로 수정하였다.

3)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를 조사하는 의도를 반영하여,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를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으로 잠정적으로 수정하였다.

VOICEYE
voiceye.com

2) 면담 질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한용현, 2019)에서 사용된 질적 면담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1:1 개별 면담을 위한 반 구조화 형식의 질문지로 개발하였고, 반 구조화 질문지 특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질문 6문항과 응답에 따른 추가 질문을 융통성 있게 혼용하여, 면담 참여자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최대한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질문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면담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당일의 기분에 관한 질문과 본인의 인적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질문이 본 면담 질문지의 도입이다. 그 이후 성 고정관념, 성교육 실태, 성교육 요구라는 3가지 쟁점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성 고정관념, 직접 경험한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관련된 행동, 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지적장애 학생에게 요구되는 성교육 내용 및 방법, 그리고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의 순서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질문들은 구조화된 질문이며, 반 구조화 특성에 따라 참여자 응답에 대한 이유와 부연 설명 등을 요구하는 추가 질문도 덧붙였다.

3) 연구 도구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 설문 문항들이 변수를 일관성 있게 측정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지만, 본 연구는 다른 대상과 조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 검증 작업을 다시 진행하였다(손순옥, 2012).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으로써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0.626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므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교수 1인에게 지속적인 검수를 받았고, 모든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조사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Linelon, Guba, 1985; 최복천, 김유리 2014에서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면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면담을 진행하기 전, 제작된 면담 질문지를 재검토하고 추가 질문에 관한 내용과 면담 규칙도 합의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들이 녹취 및 녹화 자료를 모두 전사한 뒤 확인하고, 같은 발언에서 상반된 해석 및 의견이 제시됐을 때 면담 참여자에게 발언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였다(최복천, 김유리, 2014).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이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이수하고 있는 성교육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적합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조사연구이다(이종승, 2011). 이에 관한 연구 절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절차

1.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 활성화 연구(성교육 실태, 성 고정관념, 성교육 요구) : 국내 문헌 조사	
⇩	
2-1. 설문조사	**2-2. 면담**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요구)	
-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실태**
변인(성별, 나이, 직업, 지적장애 관심 정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 성교육 필요성(요구) 인식	**1:1 반 구조화 면담을 통한 심층 이해**
⇩	
수집된 연구자료 분석	
⇩	
연구 결과에 합당한 성교육 프로그램 선행 연구 조사 : 국내 문헌 조사	
⇩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우선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고, 3가지 연구 쟁점에서 더 구체적인 하위 쟁점이 무엇인지 정하기 위해 국내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 절차로써, 우선 성 고정관념과 성교육의 필요성은 전반적인 추세와 비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지적장애인과의 소통 여부 4가지의 변인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계획하였다.

VOICEYE
KOR
voiceye.com

면담 방식은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이 면담 질문을 합의한 뒤, 개인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특수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학부모 1명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화 및 녹취하고, 참여자는 익명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

설문 응답과 면담 참여 기간은 모두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각각 2021년 10월 20일, 10월 24일로 마무리하였다.

4. 자료 분석

Google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동으로 데이터로 추출되었다. 문항별 응답 수치와 변인에 따른 응답 수치를 분류하여 확인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항별 응답 수치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응답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변인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자의 빈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변인에 따른 응답 수치는 통계 분석에 들어가기 전, 변인 별로 존재하는 표본 집단이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4가지 변인 중 연령과 학력의 일부 표본 집단이 30명을 초과하지 못하여 정규성을 띠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학력은 변인에서 제외하고, 정규성을 만족한 성별과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만 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지 변인 분석

영역		연구 변인		분석 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1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인가?	구분 없음		빈도분석, 기술통계
2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성교육 요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구분 없음		빈도분석, 기술통계
3	비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성별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독립표본 t 검정
4	비장애인의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성교육 요구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	장애인의 성교육 요구	독립표본 t 검정

또한 녹음 및 녹화된 면담 자료는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을 일부 활용하여 다음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Bogdan, Biklen, 1982; 전혜인, 2007; 정유진, 전혜인, 2015에서 재인용).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다. 둘째, 기록된 내용에서 연구 문제에 유의미하게 연관된 구와 절을 추출한다. 셋째, 추출된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고, 각 진술이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함유한 내용에 따라 진술을 범주화한다.

Ⅳ. 연구 결과

1. 성교육 내용

1)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을 토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를 비교 및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도덕적 성 및 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다루고 있었으며,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에는 생물학적 성과 도덕적 성과 더불어 성매매, 에이즈 등의 최신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에서의 공통점으로는 과거보다 최근(5년 이내)에 가까워질수록 생물학적 내용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이성 교제, 결혼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는 내용이 보였고, 차이점은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에서는 사회·문화적 접근으로서의 이성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

2) 면담

면담은 총 5문항 반 구조화 면담지를 활용해 진행하였고, 사전에 면담지를 제공해 주었다. 면담 참여자는 2명의 특수교사, 1명의 사회복지사, 1명의 지적장애 학생의 학부모 총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성교육 필요성, 사례 중심의 성 행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적인 문항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도 포함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문항별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VOICEYE
voiceye.com

⑴ 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문항은 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한 문항이다. 본 문항을 토대로 얻게 된 결과는 답변 전반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횟수 및 내용적인 부분에서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와 반대로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AAC 접근을 강조한 성교육이 주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접적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주었고, 연구 참여자 D의 경우 과거와 비교해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많이 발전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올해 지금 9월이잖아요? 아니, 10월이죠. 지금까지 이번 연도에 한 번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전공과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성인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 중 하나가 전 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중학교 담임을 할 때도 항상 학교는 뭐 형식적인 성교육…. 보고를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연 몇 회에 이제 필수로 실시를 해야 하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록상의 성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문서상의 성교육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사들도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뭔가 자료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저희는 보통 성교육 전문 강사가 와서 그때 이제 몇 시간 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하면 좋은데, 그게 꾸준히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
> **(연구 참여자 A)**

>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교육과정에 보면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학생별로 개개인의 특성이 크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가르친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얕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는 이런 복지기관에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옳은 건가? 라는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B)**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많지는 않지만…. 특수학교든 장애인 복지관이든 장애 유형에 맞추어서 성교육을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교육을 한다던지, 아니면 AAC같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던지, 이러한 방법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연구 참여자 C)

교육 주제가 예전에 비해서 성 관련해서 그래도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제가 직접 그 교육을 들은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교육의 주제가, 예를 들어 뭐 자립 관련된 거 뭐 관련된 거 어? 성 관련된 게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쪽에 이런 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에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연구 참여자 D)

2. 성교육 요구

1)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 실태를 확인하였다. 미국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분류한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 특징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성적 특징 분류(김재인, 2002; 김정옥, 2003; 임선영, 2003; 김명화, 2004; 임세라, 2006; 유서정, 2007; 박명순, 2008; 이경자, 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징이 다를 수 있으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성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성적 특징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영석, 김영길(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에 관해 관심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중재 및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달장애인 본인은 성에 대해 어려움 느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 다른 선행 연구(이해경, 김혜원, 2009)에 의하면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 사귀기, 성기 관련 지식,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누적 표본추출을 통해 모집된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 중 유효 응답자 154명의 응답을 데이터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

VOICEYE
voiceye.com

정관념, 성교육 요구를 쟁점으로, 응답자의 전반적인 생각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는 정규성 검정에 따라 성별,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만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요구에 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조사 응답 결과(성교육 요구)

영역	문항		평균	표준 편차 (SD)	빈도(N)
성 교육 필요성	12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중요하다.	3.87	.356	154
	13	지적장애 학생은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3.90	.409	154
	14	성교육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좋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그들 자신들을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3.78	.527	154
	15	성교육이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준다.	3.63	.646	154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3.79점으로 나와, 그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문항 모두 3.5점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문항별 부정적인 응답도 각각 0.6%, 2.5%, 3.8%, 5.1%에 불과했다. 이는 비장애인이 느끼는 전반적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성교육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의 성별과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모두 전반적으로 지적장애 학생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성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4문항 중 3문항(성교육의 중요성, 성교육 내용 및 방법, 성교육 영향)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설문조사 응답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SD)	t 검정	
							t	평균차이
성 교육 필요성	12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중요하다.	남자	42	3.74	0.497	-2.245*	-0.182
			여자	112	3.92	0.273		
	14	성교육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좋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그들 자신들을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남자	42	3.60	0.734	-2.114*	-0.253
			여자	112	3.85	0.407		
	15	성교육이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준다.	남자	42	3.31	0.897	-3.028**	-0.440
			여자	112	3.75	0.475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지적장애인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평균은 수치가 거의 같았으며, 4문항 모두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면담

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특별하게 요구되는 성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본 문항은 본 연구의 부제로 좁힌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특별하게 요구되는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질문이다. 본 문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항이므로, 위 내용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생물학적 성교육의 내용보다는 사회·규범적인 접근으로서 '올바른 이성 교제'에 대한 내용을 성교육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대상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성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인지능력의 제한성이 있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교수 전달 방법(ex : AAC)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연구 참여자 D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은 개별교수 또는 소그룹 형태로의 교수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첫 번째로 올바른 이성 교제 방법에 대해 이제 성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특수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이한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갑자기 세 명이서 사귄다거나…. 이제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다른 여자 친구를 사귈 거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한 명만 사귀어야 한다. 왜 한 명만 사귀어야 되냐…. 라는 몇 명을 사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 한 명을 사귀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올바른 이성 교제 방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좋으면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성교육 중 하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애 학생들…. 지적장애 학생들 대부분 관심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에 뭔가 피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올바른 관심과 자기한테 좋지 않은 관심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연구 참여자 A)

지적장애라는 범주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구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의 관계를 다 조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면담? 학부모 면담? 학생 면담? 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별화된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아까 그 연구자가 얘기해준 것처럼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웠던 성적 호기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까지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지금 제 상황으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일단은 먼저 아무래도 사람마다 이해 수준이 그 나이 때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을 만들어 내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내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근래에 그래서 가장 많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들이 대부분 AAC를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파트에서 모든 설명 자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연구 참여자 C)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1:1 교육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은 게 근데 이거는 왜 일대일 교육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은 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은 성은 성, 예를 들어 자조는 자조, 학습은 학습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 따로 딱 교육을 한다? 그거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싶은 거죠 (.....) 적어도 뭐 그룹핑을 해 가지고 한 네 명 정도 그룹핑을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이 사람들이 하면은 서로의 경험도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형식이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연구 참여자 D)

⑵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성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본 문항은 확산적 발문 유형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해 각기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먼저,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화 교육(IE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연계해 학교와 일상생활과의 연계된 성교육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답변은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능력과는 별개로 '성인지' 능력에 맞추어진 교육 제공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조금은 더 성인 지적장애인에 맞추어진 내용으로, 지적장애인의 성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순화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학부모 참여자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 부모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서 계속해서 유기적인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성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의 성교육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특수교육의 꽃이라고 하는 게 개별화 교육이잖아요? 학생들이 수준이 정말 다 다르고…. 저희 반만 해도 다 다른데 인지능력이 높다고 해서 성인지 수준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수준에 따른 성교육도 개별화 성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이 뭔지 생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성인지 수준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우선 하고,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게 뭔지 이제 요구 수준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뭔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A)

VOICEYE voiceye.com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성교육이지 않을까…. 어…. 오늘 성교육할 거야 이런 성교육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고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고 이성간에도 자연스럽고 그런 자연스러운 성교육과 에티켓? 이런 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연구 참여자 B)

이건 장애나 비장애와 상관없이 성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 호기심이 높아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특히 사춘기 때나 성장기가 많이 발달될 때가 그런데…. 이때 이거를 "하지 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란 거를…. 이거는 장애나 비장애나 똑같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적으로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이나 방법적으로 다를 뿐이지 그 방향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 욕구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것들로 받아들이도록 얘기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연구 참여자 C)

네 그냥 그거(질문 4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개별화면 더 좋을 거고 그게 어렵다면 그룹핑을 해서 한 네 명 정도의 소수 그룹핑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회차를 늘려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루퍼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 사례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 그루퍼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키라고 한다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다가올 성 문제나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부모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강사일 것 같아요. 강사가 그야말로 전문 강사가 아니라 선배 장애 부모, 예를 들어 강사가 뭐 라이센스만 있는 그런 사람한테만 듣는 거보다는 이미 성인기를 지난 장애 부모, 그래서 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랑 함께 하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 참여자 D)

3. 성 고정관념

1)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한 성교육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성교육을 하면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 켜져 문제만 더 생길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성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성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안 될 때 오히려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전라남도 교육청, 2011), “성 욕구를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인들의 편견, 무시하는 태도, 제한된 환경, 교육 기회 및 사회활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성행동이 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다(이현혜, 2003;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회가 원치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수용될 수 없는 성적 행동을 발달시킬 위험이 있다. 즉, 이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그들이 지적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그렇게 방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경자, 2010).

2)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VOICEYE
voiceye.com

〈표 10〉 설문조사 응답 결과(성 고정관념)

영역	문항		평균	표준 편차 (SD)	빈도(N)
성 인식	1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해서 어린아이 수준일 것이다.	2.50	.931	154
	2	지적장애 학생은 성적 느낌과 욕구 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1.33	.637	154
	3	지적장애 학생은 성적 발달이 늦을 것이다.	1.82	.882	154
	4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한 조절 능력이 없다.	2.50	.938	154
	5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인보다 성적으로 더 쉽게 자극을 받는다.	2.15	.913	154
	6	지적장애 학생은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행동이 더 많을 것이다.	2.19	.929	154
	7	지적장애 학생의 성행동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2.03	.918	154
	8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대한 고민이 없을 것이다.	1.45	.637	154
	9	지적장애 학생은 성을 교육하면 오히려 성에 집착할 것이다.	1.59	.789	154
	10	지적장애 학생의 이성 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	.706	154
	11	지적장애 학생이 성인기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1	.861	154

전체 평균은 1.91점으로, 성 고정관념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해서 어린아이 수준일 것이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0.6%는 긍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을, 49.4%는 부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한 조절 능력이 없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2.6%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록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전반적으로 낮을지라도, 일부 고정관념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의 성별과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성 고정관념 정도를 비교하였다. 성 고정관념 측면에서 남성 집단은 2문항(성 조절 능력, 성적 자극)에서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집단은 9문항(성인지 수준, 성적 욕구 경험, 성적 발달, 성적 행동, 성행동 통제, 성 고민, 성교육 효과, 이성 교제, 결혼)에서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교육 효과와 이성 교제 문항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집단

모두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정도는 낮지만,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효과와 이성 교제에 대한 여성 집단의 성 고정관념 정도가 더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표 11〉은 이성 교제 문항에 관한 결과이다.

〈표 11〉 성별에 따른 설문조사 응답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SD)	t 검정	
							t	평균차이
성 인식	10	지적장애 학생의 이성 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	42	2.00	0.765	3.319**	0.411
			여자	112	1.59	0.651		

* p 〈 .05, ** p 〈 .01, *** p 〈 .001

끝으로, 비장애인의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비교한, 성 고정관념 측면에서 지적장애인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5문항(성적 욕구 경험, 성적 발달, 성교육 효과, 이성 교제, 결혼)이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장애인과 소통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6문항(성인지 수준, 성 조절 능력, 성적 자극, 성적 행동, 성행동 통제, 성 고민)이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문항별 평균 차이는 최소 약 0.037부터 최대 0.161까지 전반적으로 근소하고, 그 차이 또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면담

(1)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성과 관련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연구의 면담에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지적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이러한 고정관념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다양한 답변 중에서 지적장애인의 '욕구', '욕망'에 관한 내용이 대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무성(無性)이거나 성에 관해 집착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제 면담의 핵심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어…. 저는 이거는 정반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제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관념? 뭔가 고정관념을 많이 봤어요. 장애인들은 성적인 욕구를 잘 참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많이 들었었고, 그 반대로는 이제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학생들이 교사나 이제 다른 보조 인력, 교육공무직한테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은 모르고 그랬다, 의도가 없이 행동한 것이다, 그리고 저희 애들은 아직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A)

우리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똑같은 발달과정…. 발달과 성장을 하는 데 장애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성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같지만, 질문하고 표현하는 부분을 몰라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은 성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라고,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장애 교육이 중요한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출발점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B)

우선은 장애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비장애인 분들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쪽에서의 관계를 보면 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또는 교육이 조금 어렵다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쪽으로 관념이 있어 보였었구요, 뇌 병변 장애 쪽으로 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성에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렵다, 못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굳이 성과 관련하지 않아도 사실은 저도 저희 아들을 키우기 전에는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틀이나 생각은 그게 가장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로는 그냥 '관심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욕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⑵ 지적장애 학생이 보인 행동들 중 성(性)과 관련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었나요?

본 문항은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서 알아보고자 한 문항이다. 각각의 지적장애 학생들의 장애의 정도, 개인적인 특성, 가족 환경 등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지적장애 학생의 보편적인 성과 관련된 행동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의된 보편적인 내용은 지적장애 학생이 성과 관련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여기서 연구 참여자 A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본다). 여기서 적절한 대처란 성과 관련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반응하고, 당사자 학생에게 적절하게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급급하게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동을 보았어도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시켜 사전에 방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큰 의의가 있는 면담 문항이었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가 이제 작년에 맡았던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내에 물체에, 모서리에 자위를 하는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말로도 자위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맡기, 맡은 해 작년에 보건실에 가서 자위를 해주게끔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실에 가자고 저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위 행동은 집에서 해야 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항상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계속 보건실에서 했던 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계속 보건실에 가자고 하거나, 그 모서리만 보면 이제 여자,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게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
> **(연구 참여자 A)**

>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많은 학생들…. 보편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은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의 가슴 부위를 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남녀 구별 없이요. 가슴을 치는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 친구가 진짜 알고 치는지 모르고 치는지….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모르고 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신체 위치에서 칠 수 있는 가장 편한 부분을 쳤는데, 그 부분이 뭐 남자 선생님의 가슴, 여자 선생님의 가슴 위치가 되는 그런…. 그니까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의도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였고….
>
> **(연구 참여자 B)**

VOICEYE
voiceye.com

보통 장애인 쪽에서 오시는 지적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중증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행동 자체가 성적인 행동 자체가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욕구는 있으신데, 그게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이 없으셔서 구분을 좀 못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한다. 보다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시다 보니까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행동수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주간 보호 같은 곳에서의 발달장애나 훈련 시설도 마찬가지구요. 청소년 쪽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C)

얘기를 들은 것만 있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년에 한 명씩 장애아동이 있어요. 지금은 졸업하고 중등 간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6학년 때 이제 집에서도 이제 자위를 하고 발기가 되고 했던 친구인 거죠 남자 친구였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욕구가 생겼을 때 선생님이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여기 친구들 있는대서 이러면 안 되고 '자 이리 와' 하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다 아니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줬다. 뭐 그 비슷한 얘기였어요. 지금은 현재는 중2이에요. 지금은 중2고, 이 친구가 우리 학교 6학년 때, 이 엄마한테 들은 거죠. 아! 같은 반은 아니었죠. 반 안에서 아마 친구들이 좀 몇 명, 그러니까 다 있지는 않고 몇 명 있는 상황에서 아마 자기 욕구가 일어났는데 근데 얘가 다른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그다음 상황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눈치를 채고 오 좀 장소를 옮겨줬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D)

4. 프로그램 제시 :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 내에 12개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신체, 이차 성징, 신체 청결 기술, 올바른 의사결정, 효과적인 자기주장, 거부하는 기술, 성적 행동 및 책임, 이성 교제, 대중매체, 음란물, 임신과 태아 성장, 출산과 육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17회기의 과정으로써 특히 지적장애 학생이 겪게 될 사회문화적 성 요소를 교육에 반영하여 자기결정과 선택, 관계 영역은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은 아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성교육 프로그램

회기	영역	주제	주요 내용
1	인간 발달	신체	신체 발달의 특징 알기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분하기 성과 관련 기관 신체 부위 알기
2	건강한 신체	이차 성징 (여)	이차 성징의 의미 알기(사춘기, 변화의 의미) 신체 변화 알기(목소리, 체모, 가슴, 엉덩이, 속옷, 생리 생리대) 심리변화(독립심, 성적 욕구, 불안, 우울)
3		이차 성징 (남)	이차 성징의 의미(사춘기, 변화의 의미) 신체 변화(목소리, 체모, 면도, 생식기, 속옷, 발기, 자위) 심리변화(독립심, 성적 욕구, 불안, 우울)
4	청결 기술	신체 청결 기술	청결의 이유 청결 기술(손, 얼굴, 이, 머리카락, 몸, 생식기, 질병)
5	자기 결정과 선택	올바른 의사결정	의사결정 단계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 표현 좋은 관심과 싫은 관심 구분하기 불법적인 성 행동 구분하기
6		효과적인 자기주장	상황에 대한 반응과 표현 반응 표현의 분류 및 효과적인 표현의 결정 자기주장 표현의 연습
7		거부하는 기술	위험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주는 상황과 그에 대한 행동 “싫다”라고 거부하는 연습 거부하는 과정의 표현

VOICEYE
KOR
voiceye.com

회기	영역	주제	주요 내용
8	관계	성적 행동 및 책임	성적 권리와 책임(1) 신체 접촉의 의미 알기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콘돔 구입처와 올바른 사용 방법 알기 - 공간 구분하기
9			성적 권리와 책임(2) 성적절제, 경계 범위 설정하기 성관계와 임신의 관계 알기 피임의 의미와 방법 알기
10			- (남) 콘돔 구입처와 올바른 사용 방법 알기 - (여) 피임약 구입처와 복용 방법 알기 성병에 대해 알기
11		이성 교제	만남 특별한 느낌 고백
12			데이트 즐기기 데이트 매너 데이트 공개 데이트 스킨십 일상적 연애 이벤트
13			갈등 다루기 이별과 마음 정리 새로운 만남
14	사회적 환경	대중매체	대중매체를 통한 불건전한 성 표현이 미치는 영향 우리 주위의 옳지 않은 성문화에 대처하는 방법
15		음란물	음란물의 사례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음란물에 대처하는 방법
16	임신과 출산	임신과 태아 성장	건강한 임신 준비 태아 성장 관리 건강한 임신 관리
17		출산과 육아	건강한 출산 준비 출산 과정 산후 관리 출생 신고 100일까지의 육아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공통점으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인 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으나, 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에는 생물학적 성과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비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에는 이와 더불어 에이즈, 성병, 음란물 등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육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차후 표준 성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에서 내용의 격차를 줄이고 보편적 학습설계(UDL) 접근으로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단,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교수 매체 및 교육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성교육 요구(내용 및 방법)를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이경자, 2010)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과 관련된 특징이 다를 수는 있으나, 성과 관련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다른 선행 연구(이해경, 김혜원, 2009)에 따르면 그들 또한 분명 성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우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내용은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이 아닌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적장애 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과의 면담을 통해 1:1 교육, 더봄 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학부모 역량 강화, 성인지 수준 파악, 요구 수준 파악, 좋은 관심과 싫은 관심 분별하기, 일반화 전략,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의 교육 허용 등의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생물학적 성(sexual education)이 아닌, 사회적 성의 내용으로 성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단, 이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내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셋째,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성 고정관념의 내용과 그것이 잘못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문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해서 어린아이 수준일 것이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0.6%는 긍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을, 49.4%는 부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했고,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한 조절 능력이 없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2.6%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에도, 지적장애 학생과 관련 있는 대상으로 진행된 면담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접촉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욕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등의

VOICEYE
voiceye.com

응답을 토대로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여러 연구 방법들을 토대로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잘못된 성 고정관념은 아직 존재하고 있으므로 활발한 성을 주제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논의

본 연구에서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을 실질적으로 같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학습설계(UDL)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적 학습설계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점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의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교수 매체 및 교육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성교육의 방법 측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적장애 학생 본인이 성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기를 원하고, 그 내용은 생물학적인 부분이 아닌 대인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부분이다. 이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과 관련된 특징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성의 내용을 어떻게 지적장애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지, 그리고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의 내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적은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적장애 학생의 성 인지 수준과 성 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스킨십, 성 욕구 유무에 대한 사실도 고전적이지만, 아직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 고정관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노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3.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장애 학생에게 개별화된 성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본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별화된 성교육이란, 앞서 제시된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인지능력, 생활연령, 적응 능력, 환경, 행동특성, 장애 특성, 학생의 요구 수준, 현행 수준, 인과관계의 이해 여부 등과 더불어 '성인지 수준'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개별화 교육을 성교육에 접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화 성교육의

법제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에서도 사회·문화적인 최신 경향을 반영해야 한다. 특수교육에서 가장 강조하고, 당사자인 지적장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독립'이다. 즉, 지적장애 학생이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학적 성과 성폭력 예방에만 주안점을 두어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성, 즉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 대인 관계, 이성 교제, 데이트,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내용과 더불어 피임 방법, 올바른 자위 및 관계 방법, 관련 예의, 성병, 에이즈 등과 같이 실제적인 내용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교육 활성화를 더 촉진하기 위해, 장애 학생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 측면에서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 지적장애 학생이 원하는 바가 사회적 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그 사회에 부딪히는 것만큼 빠르고 바람직한 교육 방법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통합 환경이 보장되어 마련된 환경에 지적장애 학생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성 고정관념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장애 학생의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즉, 지적장애 학생 부모를 '성교육 강사'로서 역량을 기른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일반화다. 학교와 가정과 분리된 교육이 아닌 '가정과의 연계된 교육'이 일반화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량을 기른다면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은 매우 효과가 좋을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장애 학생에게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동성애, 이성애 등과 같은 젠더교육이 필요하다. 지적장애 학생은 자신의 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즉, 장애 학생이기에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교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인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학생 그리고 비장애 학생에게도 매우 필요한 요소이므로, 실제 성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다. 그저 장애라는 특성을 보유한 같은 구성원일 뿐이다. 즉, 장애인이 성과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에서 배제될 필요도 없고, 배제될 수도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장애인이 '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피해자가 아닌, 성적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를 다시 재해석하고자 한다.

KOR VOICEYE voiceye.com

4.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비확률표집 방법인 누적 표본추출을 통해 모집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재정, 시간 등이 한정적이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고 제언에 그쳤다. 셋째, 지적장애인 섭외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보지 못해, 실제적인 내용을 연구에 담지 못했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 (2018). 학교 성교육 표준안(고등학교). pp. 1-3.

경기도교육청. (2018). 학교 성교육 표준안(중학교). pp. 1-2.

교육부.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교육부. (2015).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pp. 416-420.

교육부. (2015).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pp. 524-527.

국립특수교육원. (2016).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국립특수교육원, p.107.

국립특수교육원 에듀 에이블. 인권교육 콘텐츠. (2021. 09. 19.). http://www.nise.go.kr/sub/info.do?m=020106&s=eduable&page=0401#tab13.

김영숙, 김영걸. (2015). 발달장애인의 성인식과 성 태도에 따른 성교육지원 연구. 지적장애연구, 17(3), pp. 161-184.

김주연, 김유리, 박은혜, 정지훈. (2020). 자기결정 구성요소를 적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도 지적장애인의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4(4), pp. 230-232.

김혜원, 이해경. (2009). 교사들이 지각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성교육 요구와 성행동 경험: 초, 중, 고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pp. 41-42.

손순옥. (2012).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인식연구: 경상북도 서북부지역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5-69.

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2016). 지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pp. 28-394.

송현주. (2021. 09. 19). 심리학 용어사전. https://www.koreanpsychology.or.kr/user/index.asp.

이경자. (2010). 지적장애인의 성문제와 성교육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 4, pp. 185-190.

이종승. (2011).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pp. 290-291.

전라남도 교육청. (2011).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지도자료. 학교보건, No 4, pp. 3-16.

정유진, 전혜인. (2015). 발달장애학생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 특수교육, 14(1), pp. 340-341.

조연순, 김정효, 이경순, 우재경. (2001). 초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4(2), pp. 225-226.

차세진, 황순영. (2018). 발달장애학생 성교육 실태 및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20(1), pp. 109-133.

차세진, 황순영. (2021).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모듈형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적장애연구, 23(1), pp. 48-52.

최복천, 김유리. (2014).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부모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3), pp. 74-75.

한용현. (2019).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관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2.

원고접수 : 2021. 11. 13.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ex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hin Jun yong*·Choi Jae won**

This thesis was designed to examine and correct the society's prejudice that views peo 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passive and asexual or sexually obsessive. This study w as planned to suggest a plan to revitalize sex education for students. Focusing on researc h methods such as domestic literature analysis, survey, and interview with related worker s related to the sexualit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①Analysis of sex educati on data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students, ②Requests for sex educa 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③Sexualit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 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stereotypes. The res 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 nd in the sex education data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students. Seco nd,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needs (contents and methods) of sex education suitabl e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ir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gender st ereotypes of non-disabled students with respect to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 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a plan to revitalize sex education centered on ‘all students’ that does not set boundaries betwee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 bled students based on the universal learning design (UDL) theory, looking at students wit 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a sexual subject. there is Through various studies including th

* Department undergraduate,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undergraduate, Kangnam University

VOICEYE
KOR
voiceye.com

is study, we expect the progress of sexu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 ties.

Keywords : intellectually disabled students, gender stereotypes, sex education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257 - 293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방안*

양수연**·김정은***·장도희****·민재명*****

본 연구에서는 '청년시설'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과 이머징이슈 분석(emerging Issue Analysis),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에 대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둘째 환경스캐닝을 실시하여 청년시설의 이머징 이슈로 베리어프리를 발굴하였으며 구성 요소로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관계망, 사회안전망을 도출하였다. 셋째,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청년시설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케어 활성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재구조화, 청년활동인증제,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년시설, 배리어프리, 커뮤니티케어

---

* 이 연구는 2021년 행전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센터장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팀장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팀장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Ⅰ. 서론

청년시설(청년센터,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Activity)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비장애인 청년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장애 청년을 포함한 모두가 사용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시설은 장애-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물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 청년은 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위축되었고, 사회환경은 장애인 청년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공공서비스의 올바른 역할은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시설은 소외된 정책대상자들에게도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시설의 재구조화 방안 논의가 가능하다.

즉, 청년시설이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탈시설과 함께 사회적 화두로 논의되어 왔다. 청년시설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에게 예방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조성된 청년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시설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깨달은 것은 내 이웃이 안전하지 않다면 나 역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는 상호돌봄 의무가 존재한다. 청년을 복지정책의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면 공동체 돌봄 의무를 통한 참여소득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이를 통한 청년시설의 역할과 방향성 재고, 청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년시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이머징 이슈 분석을 진행한 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양적으로 부족하다. 조영임과 채진기는 청

VOICEYE
voiceye.com

년시설이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으며 고가온은 청년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외부유입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문제를 고용에 따른 실업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 관점에서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고찰하여 장애인 접근권에서 시작된 베리어프리 개념을 통해 청년시설 이용에 있어 소외된 정책대상자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다. 청년시설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계를 제안한다. 청년시설이 다양한 청년주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커뮤니티케어를 청년으로 확장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청년시설은 2015년 서울시에 무중력지대가 생겨난 이후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청년인구 유입 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청년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청년시설의 개념이 생겨나지 않아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는 청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성장을 돕는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고가온 외, 2019). 그러나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시설들은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임대주택과 청년시설의 연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안과 함께 공간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시설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정책이다. 잘 정착된다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유해연, 박연정, 2019).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사회고립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된 청년 집단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이 사회참여를 원하고 있음에도 경제적·구조적 원인에 의해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공된다(박수명, 2013). 청년의 문제는 고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청년의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공간 마련,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생활 안정과 문화 혜택, 건강 검진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청년의 삶에 개입했을 때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이윤주, 2018).

청년이 당면한 문제는 단순히 취업이라는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즉 청년은 도전을 상징하는 세대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로 전락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허필윤,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청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주거, 복지,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불완전하고 취약함을 가진 존재로서 상호돌봄 의무를 이행하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이다(신영전, 2018). 따라서 공동체 경계를 허물고 포용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김희강,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공동체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사회를 토대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지역과 함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국내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포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으로 오랜 기간 논의됐다. 2018년 국정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과 법 제도 정비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현 단계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주거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및 개별 법률 법제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문경주, 신유리, 김정석, 2020).

VOICEYE
KOR
voiceye.com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청년시설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배리어프리, 커뮤니티 케어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청년시설 재구성 방안을 탐색한다. 두 번째로 '청년시설' 수집키워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스캐닝(STEPPER)을 실시함으로써 트랜드와 이머징 이슈를 파악한다. 세 번째로 대전세종청년시설 센터장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타당성을 도출한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미디어 뉴스 기사, 인터넷 공간 교류 및 커뮤니티 활동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문장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비정량적 비정형 분석방식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자료수집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청년시설' 수집키워

드를 대상으로 연산자 기능을 적용하여 이뤄졌다.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로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인 TEXTOM을 이용하였으며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블로그, 뉴스, 카페, 학술정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과정에서 불용어(stopword)를 제거하여 자료를 정제하였다. 자료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비정형화된 데이터 수집

항목	컨텐츠
수집 채널	NAVER, DAUM
수집 기간	2018.01.01 ~ 2020.12.31
수집 도구	TEXTOM
수집 키워드	YOUTH FACILITY

3. 빅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년시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비롯한 몇 가지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우선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빅데이터의 구조 분석을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analysis)과 CO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analysis)을 추가로 시행하여 수집된 빅데이터 자료가 보여주는 사회연결망을 분석하였다.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데이터의 자연어 처리 과정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구조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으로서 수집한 텍스트를 통해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 활용하고 나아가 의미 있는 가치를 발굴 및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빈도 분석과 TF-IDF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빈도 분석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한다. 따라서 빈도 분석에서 빈도가 높을수록 자료에서 해당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TF-IDF 분석은 단어의 빈도와(Term Frequency: TF) 문서빈도의 역수(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를 곱

VOICEYE
KCI
voiceye.com

하여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도출하는 분석 기법이다. 따라서 TF-IDF 값이 높다는 것은 해당 단어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연결망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가 참조하는 노드(node) 및 링크(link)의 모델링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의 표준이 되는 연결 중심성과 CONCOR 분석을 하여 사회연결망을 확인하였다. 중심성의 경우 특정 노드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기준값을 뜻한다. 연결 중심성은 노드 간의 연결된 수준을 파악하는 네트워크 중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연결 중심성을 활용하면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CONCOR 분석은 네트워크 집단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위집단들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한, CONCOR 분석은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측정 방식으로, 행위자 간 관계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도출한다. 이때 구조적 유사성은 단일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같은 관계패턴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이머징이슈 분석

본 연구는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STEPPER(환경 스캐닝)를 활용하였으며, 앞 절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기술적,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각종 키워드를 수집하고 이머징이슈(emerging issue)를 도출하여 사회적 변화양상을 정리하였다.

STEPPER는 사회(Social),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인구(Population), 정치(Political), 경제(Economy), 자원(Resource)에 따라 부문별 영향 요인을 정리하는 거시적인 환경분석기법으로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변화의 핵심 동인과 발전과정을 탐구하여, 정책 이슈를 도출 할 수 있다(장한울, 이광형, 2015).

우선 네트워크 집단에 숨겨진 하위집단 관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동질집단을 분류한다. 그 결과 형성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이러한 클러스터를 사회변화 주요 동인 각 요소 관점으로 다시 맵핑한다. 즉, 앞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키워드를 기준으로 하여 청년시설의 방향과 내용, 파생되는 문제와 특성을 예측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5.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포커스그룹인터뷰는 특정 모집단의 대표성보다는 어떤 목적이 중요시되는 경우, 참가자를 선택적으로 구성해 그룹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심층 그룹 인터뷰이다. 이때 구성된 그룹은 특정 주제에 집중(focused)된다. 따라서,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연구 참여자는 특정 주제에 대해 할 말이 있고, 적절한 인구구조 범위 내에 있으며, 목적하는 바와 관련된 상호 유사한 사회적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 및 다른 참가자와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Richardson & Rabiee, 2001).

포커스그룹인터뷰의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는 그룹 구성에 따른 상호작용이 인터뷰 중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본 연구 또한 청년시설과 관련된 참여자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유형과 범위가 보통 일대일 인터뷰에서 얻은 데이터보다 더 깊고 풍부하리라 기대하였다(Thomas et al., 1995).

Ⅳ. 연구결과

1. 자료수집 결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최근 3년 간 '청년시설'을 키워드로 추출한 데이터의 양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청년시설' 키워드 추출 데이터

자료수집 항목		데이터 수	용량
기간	채널		
2018.01.01. ~ 2020.12.31.	NAVER	3,907	1,531KB
	DAUM	2,475	931KB
	Total	6,352	2,462KB

자료수집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의 데이터 수가 3,907개, 용량은 1,531KB, 다음의 데이터 수는 2,475개, 용량은 931KB로 집계되었다.

2.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1) 빈도 분석 결과

청년시설에 관한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11903), 시설(6412), 주택(2530), 창업(2179), 연구(2125), 공간(1230), 지역(1066), 사회(1046), 복지(942), 주거(885)가 상위 10위의 단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청년, 시설, 주택, 창업, 연구의 단어의 수가 2,000개 이상으로 등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수가 확인되었다.

2) TF-IDF 분석 결과

청년시설에 대한 TF-IDF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4370.082), 주택(4146.325), 창업(3940.056), 청년(3491.634), 시설(2525.402), 공간(2470.643), 복지(2308.847), 사회(2295.186), 지역(2200.106), 주거(2046.15)가 상위 10위의 단어로 출현되었다.

〈표 3〉 TF-IDF 분석 결과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Term	Freq	Term	TF-IDF
1	youth	11903	research	4370.082
2	facility	6412	House	4146.325
3	House	2530	Startup	3940.056
4	Startup	2179	youth	3491.634
5	research	2125	facility	2525.402
6	space	1230	space	2470.643
7	area	1066	welfare	2308.847
8	society	1046	society	2295.186
9	welfare	942	area	2200.106
10	dwelling	885	dwelling	2046.15
11	lease	796	culture	1964.07
12	center	786	lease	1962.663
13	culture	761	center	1936.558
14	Job	707	Job	1805.924
15	Seoul	667	Seoul	1741.084
16	life	659	education	1669.885
17	education	592	life	1606.878

18	city	588	city	1576.422
19	public	580	public	1560.308
20	community	474	community	1290.727
21	Generation	370	child	1138.181
22	share	359	Generation	1131.142
23	citizen	347	share	1112.169
24	child	319	citizen	1099.968
25	charter	277	charter	1031.54
26	environment	275	happiness	943.8412
27	Convenience	274	safety	940.4354
28	happiness	271	environment	913.7821
29	government	244	busan	896.3466
30	busan	236	Convenience	885.4294

3.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1) 연결 중심성 분석

청년시설에 관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0.263922), 시설(0.173597), 주택(0.057555), 창업(0.056414), 연구(0.053303), 공간(0.053096), 지역(0.052681), 사회(0.047496), 교육(0.039199), 서울(0.037333)이 상위 10위의 단어로 출현하였다.

〈표 4〉 청년시설에 관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단어		연결 중심성
1	youth	0.263922
2	facility	0.173597
3	House	0.057555
4	Startup	0.056414
5	research	0.053303
6	space	0.053096
7	area	0.052681
8	society	0.047496
9	education	0.039199
10	Seoul	0.037333

VOICEYE
KOR
voiceye.com

11	culture	0.036399
12	center	0.036192
13	city	0.035051
14	Job	0.030488
15	dwelling	0.029866
16	welfare	0.028933
17	life	0.026755
18	public	0.0224
19	government	0.022296
20	environment	0.020429
21	Generation	0.019081
22	lease	0.01794
23	citizen	0.017422
24	obstacle	0.016696
25	program	0.016696
26	busan	0.015348
27	child	0.014311
28	growth	0.014207
29	share	0.014103
30	school	0.013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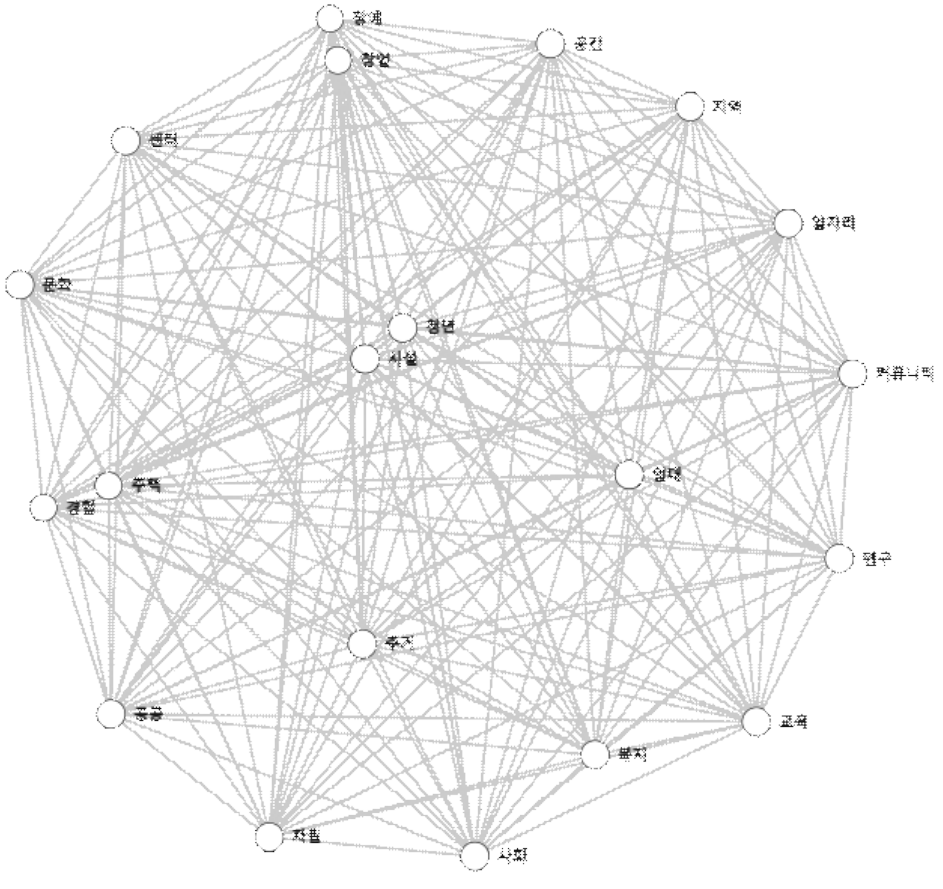
2) CONCOR 분석

CONCOR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집단에 숨겨진 하위집단 관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표 5〉 및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CONCOR 분석 결과

군집		범주화
1	Accessibility	society, lease, center, facility, research, job
2	Diversity	independence, obstacle, community
3	inclusive	space, experience, welfare, public, education, culture
4	locality	area, youth, dwelling, home, startup

CONCOR 분석 결과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동질집단을 분류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군집은 임대, 센터, 사회, 시설, 연구, 일자리로 나타나 접근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공동체, 장애, 자립으로 나타나 다양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세 번째 군집은 복지, 공간, 경험, 공공, 교육, 문화로 나타나 포용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네 번째 군집은 청년, 주거, 주택, 지역, 창업으로 나타나 지역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림 2〉 CONCOR 분석 결과

4.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청년정책의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시설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KCI VOICEYE voiceye.com

연구, 주거, 창업등의 키워드가 중요도와 영향력이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 관심이 낮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이머징이슈 분석 결과

1) 분석절차와 데이터 범주화

주요 분석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우선 앞 절에서 청년시설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시각화 및 범주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앞 절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 스캐닝 단계를 거쳐 이머징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림 3〉 분석 데이터 이머징 이슈

우선, 네트워크 집단에 숨겨진 하위집단 관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동질집단을 분류한 결과 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성과 STEPPER 요소 관점을 교차 활용하여 맵핑하였다. 즉, 도출된 클러스터인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기준으로 청년시설의 방향과 내용, 파생되는 문제와 특성을 예측하였다.

〈표 6〉 연구항목 분류 및 정의

항목	정의
Accessibility	The degree to which the maximum number of users can access and use any product or service conveniently
Diversity	State of many kinds.
Inclusive	The act of including someone or something as part of a group
Locality	Pertaining to a specific element of an area

2) 환경스캐닝 결과

위 범주화된 카테고리를 STEPPER와 매핑하여 미래 변화 동인을 도출한 환경스캐닝 결과, 사회적(Social) 관점의 키워드는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안전망, 사회 관계망이 도출되었다. 기술적(Technology) 키워드는 웹접근성, 유니버설기술, 적정기술, 어반테크가 도출되었다. 환경(Environment) 관점의 키워드는 코로나19, 다문화, 저탄소, 로컬푸드가 되었으며 인구(Population) 관점의 키워드는 저출산, 1인가구, 인구데드크로스, 지방소멸이 도출되었다. 정치적(Politics) 관점의 키워드로는 사각지대, 미래세대, 세대갈등, 청년수당이 도출되었다. 경제적(Economic) 관점의 키워드로는 노동유연화, 긱이코노미, 참여수당, 로컬크리에이터가 도출되었다. 자원(Resource) 관점의 키워드로는 오픈소스, 지식재산, 청년니트, 로컬공동체가 도출되었다.

〈표 7〉 환경스캐닝 결과

항목	키워드	변수
Social	Accessibility	social participation
	Diversity	social integration
	inclusive	social safety net
	locality	social network
Technology	Accessibility	web Accessibility
	Diversity	universal Technology
	inclusive	Appropriate technology
	locality	Urban technology
Environment	Accessibility	COVID-19
	Diversity	Multicultural
	inclusive	low carbon
	locality	Local Food

Population	Accessibility	low fertility
	Diversity	One-person households
	inclusive	Population Deadcross
	locality	local extinction
Politics	Accessibility	Blind Spot
	Diversity	Future Generations
	inclusive	generational conflict
	locality	youth Income
Economy	Accessibility	Labor Flexibility
	Diversity	gig economy
	inclusive	Participation Income
	locality	Local creator
Resource	Accessibility	open source
	D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nclusive	NEET
	locality	Local community

3) 이머징 이슈 도출 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 가지 클러스터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환경 스캐닝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청년시설의 이머징 이슈로 발굴하였다.

〈표 8〉 이머징 이슈 도출 결과

항목	정의
배리어프리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인간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사각지대

6.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1) 실시개요

본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청년시설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먼저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청춘정거장, 동구동락, 세청나래 센터장 총 3명으로

구성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조사 일정은 2021년 8월 28일이었으며 실시 내용과 질문자와 답변자로 구성된 참석자의 프로파일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FGI 참석자 프로파일

그룹	소속	성명	직급	일정/장소
답변자	청춘정거장	김**	센터장	8월 28일(토) 15:00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 Zoom
	동구동락	조**	센터장	
	세청나래	홍**	센터장	
질문자	청춘너나들이	황**	센터장	
	청춘나들목	노**	팀장	
	청년벙커	조**	사무국장	

2) 조사내용(질문지 구성 항목)

본 조사는 청년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청년시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시설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질문으로 청년시설 실무자들로부터 사전의견을 받아 구성하였다. 다만, 면담 진행 중에 즉석에서 필요한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전면담을 통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사용한 질문지의 주요 항목과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FGI 질문지 주요 항목 및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질문자 A	목적과 방향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이용자의 요구
	지자체와 소통
질문자 B	도심내 위치 적정성
	장애인접근권
	프로그램 참여자
	필요한 청년정책
질문자 C	구성원 처우
	참여자 모집
	사회적 인식

VOICEYE
voiceye.com

3) 대전 세종 청년시설 센터장 FGI 결과

본 장에서는 대전 세종 청년시설 센터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텍스트에 기반하여 발췌 정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연구 결과는 청년시설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청년시설의 목적과 방향성

- 로컬커뮤니티 조성의 필요성과 한계

우선, 센터장A는 로컬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선순환할 수 있는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청년시설의 지향점을 밝혔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자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 로컬커뮤니티(Local Community)다. 로컬커뮤니티가 잘 구축이 된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자본이 또 새로운 청년을 키울 수 있는 자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본이 정말 많아야 한다. 사실은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 그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는 큰돈을 번 사람들이 기여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새로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센터장 A)**

- 청년 커뮤니티 케어

센터장B는 다양한 청년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의 연대와 자생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주도의 한계와 청년의 주도적 역할을 피력했다.

> 청년시설이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향후의 자생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중간 마중물 역할이자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민간 주체가 뛰어드는 일이 없다. 특히 로컬에서는 더 부족하다. 나 살기도 바쁜 시점에서 공공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강력한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년시설에서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낸다면 정부의 도움 없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의 문제는 운영에 있어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의 문제는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청년시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맞혀나가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청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청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센터장 B)

(2) 필요한 청년 정책

- 청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다음으로 센터장들은 청년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당사자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청년 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의 경우 대전시에서 청년을 위해 만든 예산이 580억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전혀 못 받은 것 같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누가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히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센터장 C)

센터장A는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소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자체 청년 정책이 보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 사각지대 연구 지원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 연구가 비전문가 청년들이 하는 연구가 아니라 정말 전문성 있게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 교수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하는 연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센터장 A)

VOICEYE
voiceye.com

반면 센터장B는 청년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독립된 추진체가 필요하다며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시설이 독립적 운영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조정기관의 필요성과 운영 권한 강화

>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추진체가 강력하게 있어야 한다. 지역의 청년 문제는 지자체가 관할하여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말고 누군가에게 조정요청을 한다거나 혹은 중앙정부 간에 조정요청을 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 지금 국무조정실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셔서 너무 애매하다.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예산제가 있어야 한다. 청년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본예산 반영을 지난 연도에 올리는데 청년문제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싶다. 대안으로 추경이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집행구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
> **(센터장 B)**

(3) 프로그램 참여자

다음으로 청년시설이 특정 연령에 의한 계층만으로 공간이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년시설을 다른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시설의 세대 협력 방안

> 청년시설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개인적으로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데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
> **(센터장 A)**

(4)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청년의 사회참여와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한다고 언급했다. 양적 지표에 매몰되기보다 민간영역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시설로서 역할과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회구성원으로서 청년의 역할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 시작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청년이 많다. 그러나 세상에는 청년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다. 우리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센터장 C)

- 청년시설의 역할

센터장B : 세종에는 청년시설이 하나뿐이다. 그래서 사명감이 필요하다. 시에서는 인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양적 지표보다 가치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4시간 개방에 대한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세종이 많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카페도 일찍 닫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센터장 B)

수도권과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싶다. 서울의 힙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와 문화를 만드는 행위들을 구현하는 것이 방향성이다.

(센터장 A)

(5) 지자체와 소통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권한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정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 민간위탁제도의 한계

소통이 당연히 원활하지 않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소통이 안 되더라도 공간 운영의 핵심가치를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핵심가치에 대한 부당한 행정간섭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만두고 이직하겠다.

(센터장 A)

- 청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다. 작년 같은 경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다. 그래서 주무관님 한 명이 모든 업무를 했다. 업무가 바빠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최근 개편이 됐다. 바라는 점은 권한을 주는 것을 의견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준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센터장 B)

공무원들과 현장에서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 우리는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은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절한 조율을 해나가려고 한다.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를 보면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 됐고 담당하는 분들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뭘 성과로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학습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도 자주 만나려고 하니 시간 내주시고 협조해주신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다.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면 대화가 안 된다.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정기관이 필요하다.

(센터장 C)

(6) 참여자 모집

가치 제안이 명확하면 필요한 청년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단발성 프로그램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원하는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여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청년시설의 정체성

>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질을 높이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숫자를 채울 수 있다. 구태여 홍보에 매몰될 필요 없다. 청년들은 필요하면 찾는다. 찾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에 잘 모르는 청년이 많은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은 힘들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체성이 명확하면 청년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 **(센터장 A)**

- 커뮤니티 중심 운영

> 분야별로 커뮤니티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이 분야별로 관심사가 다르고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다르다. 이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일 좋은 것은 개인화하는 건데 그건 어렵다. 예술인/구직자/기업인 분야로 구분하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의견을 상시로 반영하고 있다.
>
> **(센터장 B)**

- 청년시설의 역할 구체화

> 청년시설을 운영하면서 홍보의 중요도는 낮다. 홍보보다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가 명확하면 이용자는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
> **(센터장 C)**

(7) 도심 내 위치 적정성

청년시설의 도심 내 위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사회적 접근성이 중요하다. 관리자들의 대외활동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공공기관 사이트 같은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타났다.

- 물리적/사회적 접근성

세종은 BRT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BRT와 애매하게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원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 다이렉트로 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캠퍼스와 나성동, 청년센터를 경유하는 노선을추가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센터장 B)

공간 접근성은 훌륭하다. 그러나 공간성이 좋다고 하여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 활성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목적성이 더 중요하다. 원데이 클래스 참여자들은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지 않는다. 독서실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도 네트워크로 이어지지 않는다. 청년시설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청년들의 문화센터 내지는 스터디카페 기능이 주목적이라면 물리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회관계망 형성이 주목적이라면 사회적 기준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시설의 사회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시설 관리자들이 사회관계망을 확대를 위한 대외활동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

(센터장 C)

-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사이트를 기획했다. 웹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시설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청년시설 이름을 바꾸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협안으로 웹사이트 이름을 세련되게 변경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조금은 웹 접근성이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장 A)

(8) 구성원의 처우

청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청년시설 근로자는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속에서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미션까지 부여받고 있음

> 임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야지 조직이 운영된다.
>
> **(센터장 A)**

> 우리는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애로사항은 팀원들이 9급으로 적용된다. 호봉도 대부분 1년 미만이다 보니 대부분 최저임금에 가깝다. 그거 받고 일을 하려니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호봉이 오르면 조금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예산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
> **(센터장 B)**

> 많고 적음의 문제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만 금액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재미와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함께 협업했으면 한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급여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
> **(센터장 C)**

(9) 이용자의 요구

취업준비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친구를 만나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때 만족도가 높았다.

>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 스터디, 면접, NCS 준비가 가장 많다. 이러한 요구에 일부 동의하지만 다른 방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센터장 A)**

세종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다. 따라서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 또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취업할 곳이 부족하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전반적으로는 문화적인 욕구, 사회관계망에 대한 욕구,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센터장 B)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물론 취업 준비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와 멘토를 연결해 줄 때 이들이 사회관계망의 필요성을 자각한다. 많은 청년이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어색하다. 친구를 사귈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색해한다. 그러나 만나보고 서로 소통해보고 함께 놀아보면 정말 좋구나 하는 감정을 경험한다. 우리 구청에서는 젊은 주무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어디에 소속되었는가를 떠나 청년기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센터장 C)

(10) 장애인접근권

센터장 A는 장애인접근권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또한 청년시설이 다양한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접근성 물리적/심리적 기준, 운영철학의 다양성

물리적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심리적 기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다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인근에 있는 청춘너나들이가 잘 충족해주고 있다. 장애인 청년이 방문한다면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를 추천하겠다. 청년시설이 고유의 운영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장 A)

장애인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 장애인접근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찾아보겠다.

(센터장 B)

장애인접근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장애인접근권은 이미 충실하게 반영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장애인 접근성, 다문화청년, 사회안전망

> 감사하게도 장애인 접근성 좋은 편이다. 휠체어를 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다. 오실 때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신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도 오실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이 한글이 서툰 분들이 많으신데 서류작성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용자 중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다문화 청년이 어린이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회안전망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 **(센터장 C)**

(11) 사회적 인식

청년시설에 대한 정치적 낙인이 있으며 세대갈등과 표퓰리즘에 대한 비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시설을 경험하지 않는 이들의 비판이 과 대표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했다.

- 정치적 낙인 경험

> 청년시설을 운영하면 정치하려고 하냐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청년시설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한다. 청년시설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
> **(센터장 A)**

- 청년시설의 정체성

> 카페 공간은 커피를 마시는 곳, 도서관은 책 읽는 곳, 게임방은 노는 곳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그러나 청년시설의 정체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
> **(센터장 C)**

VOICEYE
KOR
voiceye.com

4) 대전세종청년시설 센터장 FGI 결과 정리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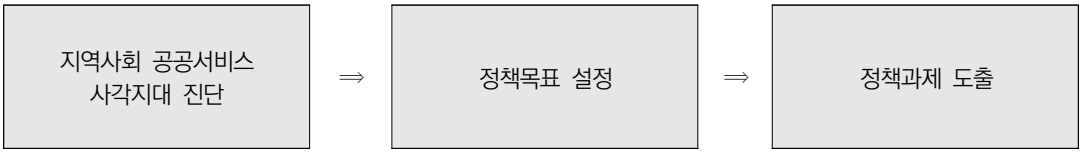
이상으로부터 센터장들의 집단 면담의 주요내용과 이슈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FGI 주요내용 및 이슈

항목	주요 내용	이슈
목적과 방향성	지역공동체 구축 지역생태계 조성 연대와 거버넌스	리더의 부재 공공영역의 한계성 정부의존과 자생력 부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 사회안전망 지역문화 창출	민간영역과 차별성 수도권과 문화 격차
이용자의 요구	취업준비	일자리 부족 사회관계망
지자체와 소통	소통이 어려움	가이드라인 부재 조정기관 부재
도심내 위치 적정성	대외활동 확대	심리적 접근성 개선 웹 접근성 개선
장애인접근성	물리적기준/심리적 기준	운영철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참여 제한	세대협력 사회적합의
필요한 청년정책	청년정책연구 활성화 청년정책추진체 필요 조정기관의 필요성	정책실효성 의문 사각지대 해소 독립성과 권한 부족
구성원 처우	낮은 임금 수준	잦은 이직율 서비스 질 저하
참여자 모집	명확한 가치 제안 구성원 의견 상시 반영	커뮤니티 중심 운영
사회적 인식	정치적 낙인	세대갈등, 포퓰리즘

V. 제언

위에서 청년시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머징 이슈 분석, FGI 분석 등을 통해 청년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청년시설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청년시설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 청년시설의 정책적 방향성 제시

1.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지역사회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청년시설을 배리어프리 목적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배리어프리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시설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activity)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비장애인 청년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장애 청년을 포함한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시설은 장애-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물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인 청년에게 편리한 환경은 모두에게도 편리한 환경이다. 그동안 장애인 청년은 사회의 불편한 물리적 환경 때문에 사회참여가 제한되었고, 사회환경은 장애인 청년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접근권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시설은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으나 개인 활동 목적의 청년들이 독서실 또는 커피숍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취준생 청년의 독서실 목적의 공간 사용은 정작 그 공간에서 사회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청년기본법 제 8조(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시설이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도 접근성을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18세를 기준으로 쉼터에서 퇴소한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의

VOICEYE
voiceye.com

연령 기준은 19세부터 시작되기에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올바른 역할은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시설은 보편 청년과 더불어 소외된 정책대상자들에게도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정책목표

청년시설의 재구조화는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적 방향성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청년시설은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가 청년의 자립을 돕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취약성과 불완전성을 가진 존재이며 상호 돌봄 의무가 존재한다. 청년을 시혜적 복지정책의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본다면 공동체 돌봄 의무를 통해 참여소득을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지역에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탈시설과 함께 사회적 화두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시설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관계망,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청년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은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여, 공적 돌봄 체계 밖에 있는 고립된 청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웃 청년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른 공공시설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분야 창업과 연계할 경우 청년 구성원의 자립을 도우며 지역 내부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케어 핵심 취지와도 부합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과적인 이유는 공동체 구축이 청년에게 가장 익숙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청년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청년시설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미 조성된 청년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3. 정책과제

청년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청년활동인증제,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1)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을 위해서는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용하여 몸이 불편한 청년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준으로는 퇴근 후 직장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24시간 개방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보건소' 사업을 통해 청년센터에서 간단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험적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 종료 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18세를 기준으로 500만 원의 정착금과 함께 쉼터에서 퇴소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청년기본법의 나이를 18세로 조정하거나 조례로서 법률을 보완하여 보호 종료 청소년이 위치한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청년에게 편리한 환경은 모두에게도 편리한 환경이다.

2) 청년활동인증제

청년의 생애주기를 4단계(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안정기) 중에서 진입기간 동안을 갭이어(Gap Year)로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경력에 반영할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유사한 제도로 청소년 성취포상제가 있으며 전국의 청년시설이 운영기관이 되어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시설이 커뮤니티 구축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취창업기관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 측면에서 청년들의 도전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학점부여 또는 기업연계 프로젝트로 인턴십을 연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명의 수료증을 지급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아이디어 실현을 돕고 기술적 장벽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노코드, 디지털 협업, 빅데이터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VOICEYE
voiceye.com

3)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

청년시설 근로자는 지역의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부여받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사회안전망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위탁수수료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 3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 6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 등 부대비용에 따른 적정 수준의 위탁수수료 지급이 필요하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시설'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과 이머징이슈 분석(Emerging Issue Analysis),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한 연구를 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에 대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둘째 환경 스캐닝을 시행하여 청년시설의 이머징 이슈로 배리어프리를 발굴하였으며 구성요소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청년시설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목표는 '청년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청년활동인증제,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청년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원데이클래스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평소에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커뮤니티 활성화 취·창업 활성화,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본 사람, 취·창업을 해본 사람, 정책 제안을 해본 사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재구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크고 작은 성취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정책 제안이든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를 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

년활동인증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이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과 청년시설의 역할과 방향성 재고, 청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함의가 있다. 특히 배리어프리 청년시설의 확산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가 청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담론이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배리어프리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은 개념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이를 설명하는 변인을 모두 포함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커뮤니티 케어를 청년으로 확장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 운영방안이나 실천방안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배리어프리 청년시설에 대한 조성 및 운영방안과 청년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장호진. (202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법적 쟁점과 한계. 노동법학, (78), 285-317.

김보영. (2021).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월간복지동향, (270), 47-53.

홍진주. (2021).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이태헌, 김정석, 정하영. (2021). 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33-441.

지은, 이미지. (2021). 2030 미취업 청년장애인의 구직역량 및 사회적 지지기반 유형별 특성 분석. 장애와고용, 31(1), 323-344.

간기현, 김경희, 조상미. (2021). 장애인의 사회적자본 형성능력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별(gender)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와고용, 31(2), 149-173.

조진우. (2020).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법학논총, 48, 615-648.

박선아. (2020). 비수도권 지역 청년공간 기능 향상 연구.

정세정, 김문길, 임덕영, 류진아, 임완섭, 이상림, 기현주, 신영규, 박대승, 강예은, 김보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희, 김혜자, 황연숙. (2020). 청년복합문화공간의 공간구성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5), 76-86.

박성준, 이세형. (2020).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의 주요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분석-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2(1), 61-86.

황정훈. (2020). 공유도시에서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의 보장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8(1), 139-163.

김희강. (2020).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여성학, 2020, 36.1: 59-93.

문경주, 신유리, 김정석.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함의. 지역사회연구, 189-224.

김민수, 박희정. (2020). 대학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정신장애인의 변화 경험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81-3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강현철, 최조순. (2019). 지역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1(1), 39-54.

김미숙, 이수현. (2019). '행복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 커뮤니티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4), 39-50.

왕단, 윤지영, 티엔휘, 이지엔화. (2019). 공공 문화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58-76.

오영인. (201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16-21.

최순종. (2019). 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청소년학연구, 26(1), 253-273.

고가온, 김희수, 정석. (2019).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6), 103-118.

유해연, 박연정. (2019). 서울시 청년시설의 정책적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 35(5), 31-40.

최항순. (2018).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월간공공정책, 157, 62-65.

김윤영, 윤혜영. (2018).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60), 135-168.

최하예, 황성수. (2018).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 75-99.

김도형. (2018).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만족도 및 필요도 분석. 도시행정학보, 31(4), 55-81.

이윤주. (2018).지역 사회 청년 참여의 필요성과 역할. 월간공공정책, 156, 25-28.

허필윤. (2018).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에 관한 고찰. 진보평론, (77), 153-181.

신영전. (2018).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성공의 전제. 보건사회연구, 38(4).

이용원, 박주로, 임병훈. (2017).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청년허브·프로젝트 노아.

이영환. (20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설계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1), 56-57.

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배진우.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59.

장한울, 이광형. (2016). 스테퍼(STEPPER) 트렌드 분석 기법을 통한 미래예측. 미래연구, 1, 69-90.

박지혜, 이선혜. (2016).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위험 추정. 사회복지연구, 47(4), 361-388.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 (2016).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의미에 관한 탐색적 고찰. 장애와고용, 26(1), 125-152.

최은희. (2016). 장애인 인권보호 안전망 작동을 위한 과제. 충북 FOCUS, (125), 1-16.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Richardson CA & Rabiee F. (2001). 'A Question of Access' - an explor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of young males aged 15-19 living in Corby and their use of health care services. *Health Education Journal 60,* 3-6.

Thomas L, MacMillan J, McColl E, Hale C & Bond S. (1995). Comparison of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 methodology in examin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Social Sciences in Health 1, 206-219*.

원고접수 : 2021. 11. 14.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Barrier-free expansion plan for youth facilities to improve blind spots in public service in local communities*

Yang Soo yeon**·Kim Jeong eun***·Jang Do hee****·Min Jae myung*****

In this study, a study was conducted using big data analysis, emerging issue analysis, an d focus group interview with the keyword 'youth facility'.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 d as follows. first. A cluster of accessibility, diversity, inclusion, and locality was formed b ased on interrelationship through big data analysis. Second, by conducting environmental scanning, barrier-free was discovered as an emerging issue of youth facil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 and social safety net were derived as co mponents. Thir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the blind spots of public service in the local community were diagnosed, and policy goals and policy tasks for youth facilities we re derived. The policy goal is 'revitalization of youth community care' to improve the blin d spots of public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as policy tasks to achieve this, bar rier-free restructuring of youth facilities, youth activity certification system, and sustainab le youth facilities operation plan were proposed.the system related to the employment re cognition factor for the disabled is in operation,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system is being used and the effect are insignificant. In this rega

*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2021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Acts and Safety and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 Daejeon Youth Neonadeul-i Managing Director
*** Daejeon Youth Neonadeul-i Manager
**** Daejeon Youth Neonadeul-i Manager
***** Master, Science in futurestratery, KAIST

VOICEYE
KOR
voiceye.com

rd, the direction of how to utilize the employment recognition factors affecting the empl oyment of the disabled as a system and how it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its effecti veness was suggested.

Keywords : Youth facility, Barrier-Free, Communitycare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295 - 326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주는 주변환경의 변화

오상택*

본 연구는 연구자가 종사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이 불균형해지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를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생활의 안정화가 가져다 주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삶을 이용시설 종사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개입이 발달장애인 개별화였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고, 이에 가족 뿐만 아니라 종사자,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 인지적·기능적 능력에 맞는 개별화 계획을 성립하고 그에 따른 관찰일지를 2021년 8월 16일부터 11월 5일 까지 8주간의 시간동안 발달장애인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8주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영향평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개별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지역사회이용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해 나타나는 주변환경의 변화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변화, 발달장애인의 자립화, 욕구해소로 인한 활동범위 확대, 적응력강화,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빈도가 미치는 장애인식의 변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로 주변환경 즉 발달장애인의 가족, 이용시설, 지역사회 시설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가족의 돌봄부담완화, 이용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최소화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개선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개별화, 안정화, 긍정적인 변화, 장애인식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평안밀알센터 사회재활교사(침례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복지현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자립, 사람중심지원, 이용자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기반은 선택, 선호, 자기결정이다(김고은, 2021). 개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기회는 발달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게 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Morris, 2004). 자기결정 원칙은 삶에 관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욕구와 권리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양옥경 외, 2011).

환경 속의 인간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심리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 혹은 상황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조학래, 2017).

또한 장애인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자리잡고 있다(김고은, 이해영, 2015)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잘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반응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고 그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와 정보, 대안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신은경, 이웅, 2019; Lee et al., 2012).

하지만 발달장애영역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이나 결정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나 기관의 영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사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결정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현장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이복실 외, 2018).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는데, 초기에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요인이 강조되었으나(Cristina et al.,2017), 점차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중시되고 있다(Wehmeyer and Abery, 2013). 특히 환경적 요인 중 실무자의 인식과 지원방식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변수이자 영향력이 크다고 입증되었다.(Wong and Wong, 2008).

이번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개별화는 발달장애인

VOICEYE
voiceye.com

이 자유롭게 자기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통한 자율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주변환경은 발달장애인의 가족,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시설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변환경의 변화는 자기결정권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해소와 일상생활에서 자기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자녀돌봄,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초점으로 관찰 및 조사연구하였다.

2. 연구 문제

장애인가족, 이용시설, 지역사회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질문을 조성하였다.

1) 발달장애인가족 :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한 가정내 자녀 돌봄의 부담 완화 여부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이용시설의 21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중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1) 센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2) 최근 1개월 사이에 자녀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되었는가

(3) 가정에서 이용인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는가

(4) 이용인이 자기결정이나 스스로 욕구에 따른 활동을 하는 빈도가 늘었는가

(5) 가정에서 이용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 행동이 감소하였는가

(6) 이용인이 센터 등원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하였는가

2) 이용시설종사자 :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한 사회복지실천개입에 대한 변화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이용시설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8주동안의 개별화지원을 통해 관찰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1) 개별화지원을 통해 나타난 이용인의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2) 개별화지원이 이용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행동에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3) 개별화지원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4) 개별화지원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부적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5) 추후 개별화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지역사회이용시설종사자 :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여부

개별화지원을 하는 동안 발달장애인이 이용했던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변화되는 장애인식개선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평상시에 발달장애인을 경험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

(2) 처음 발달장애인을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3) 발달장애인을 경험할수록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4)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함께하는 것이 편안해 질것인가

(5)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VOICEYE voiceye.com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의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장애인 돌봄역할의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장애인 돌봄 역할의 변화

장애인 돌봄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장애인은 기여하는 구성원 보다는 돌봄의 수혜자로서의 인식이 강하다. 이에 박혜진(2013)과 오세란(2008)은 장애인의 직업은 개인의 경제적 수단 뿐만 아니라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과 삶의 질,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르는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장애인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가족 돌봄의 수혜자로서 강조되어 온 현실 속에서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성인 장애인의 기여 제공에 대한 인식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특히 성인장애인 보다는 가족이 더 약간 긍정적인 인식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당면한 과제는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도 여전히 의존적인 돌봄의 대상이나 주변으로 지각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이다(김정은, 조태흥, 2015).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인 이득으로서 가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정서적으로 가족의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바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자기결정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보다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용되기 위한 끊임없는 기회가 보장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Carter el al., 2013).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으로 선택한 일상에 대한 일반화[1]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선택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1) 어떤 반응양식이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일반화가 발생한다(이인정, 최해경, 2010).

특히 이용시설에서 새로운 기회를 접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지적·기능적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능력을 고려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인지적·기능적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권에 의한 직업재활활동, 소근육활동, 여가생활, 지역사회시설이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주변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족과 실무자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가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친숙한 사람과 익숙한 환경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라는 연구결과를 보였다(Devi el al., 2020; Wehmeyer, 2005).

실무자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실무자의 지식이나 인식수준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 당사자와 부모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등은 실무자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지원할 때,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는 기관의 지침이나 철학 등과 실무자 자신의 이해와 같은 내부적 요인들이 훨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복실 외, 2018).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향상여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기 활동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최유임, 2019).

이번 연구는 이용시설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관찰하여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화된 발달장애인의 삶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감정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가족의 장애자녀의 돌봄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은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지체로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행위이지 능력으로 일

VOICEYE
KOR
voiceye.com

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Wehmeyer, 1998).

강동선(2016)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자기결정 기술을 응용한 방과 후 놀이프로그램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최유임(2019)이 진행한 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 대상 요리프로그램에서 대상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의 기회가 없었기에 프로그램 초기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험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이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사료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가족이나 실무자의 기회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 저하와 사회성 결여로 인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에 제약이 있고, 타인과의 교류나 친목활동 참여 등의 사회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김고은, 이해영, 2015). 발달장애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 시민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질을 온전히 보장받기는 어렵다(Devi el al., 2020).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용시설에서의 환경조성과 실무자의 사회복지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인지적·기능적 능력에 맞는 개별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의 범위를 넓힘으로 인해 가정과 이용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외에 평상시 발달장애인을 잘 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식개선정도를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의한 개별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를 확인하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선정기준

본 연구는 연구자가 종사하는 이용시설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21명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와 장애인 가족의 사정으로 시설을 주 2회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6명과 발달장애인 개인의 인지적·기능적 여건에 의한 2명 총 8명의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13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표집 방법 및 대상자 특성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13명을 대상으로 이용시설에서 종사하는 동안 관찰해온 것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인지적·기능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활동범위를 정하였고, 그 활동범위에서 2021년 8월 16일부터 11월 5일 까지 8주간 발달장애인들의 개별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연약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용시설 내에 배치한 다양한 소근육키트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산책 및 소근육활동 중 선택하게 한 이후 프리맥 원리[2]로 인해 컴퓨터활동에 대한 집착을 최소화 하여 그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를 지켜보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감정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 평소 수영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발달장애인에게 수영활동을 지원한 이후 그에 따른 이용시설에서의 변화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직업재활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활동을 한 이후 자기결정권에 의한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참고 〈표 1〉).

---

[2] 심리학 용어로,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행동을 강화물로 사용하여 일어날 확률이 적은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21).

KCI VOICEYE voiceye.com

〈표 1〉 이용시설 발달장애인(13명) 개별화 활동현황

활동내용	소근육활동	산책or소근육활동 / 컴퓨터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수영장)	직업재활활동 / 지역사회시설이용
참여인원	8명	1명	1명	3명

2.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도구로는 먼저 개별화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활동변화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관찰은 연구자를 포함한 이용시설 종사자 4명이 같이 2021년 8월 16일부터 11월 5일 까지 8주간 진행하였다.

그 외에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활동에 의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가족, 이용시설 종사자, 지역사회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개별활동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완화와 이용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변화, 지역사회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식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 부터 11월 05일 까지 2주 동간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13명에 대한 개별화활동에 의한 일상생활 변화가 미치는 주변환경(가족, 이용시설, 지역사회시설)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변화 확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발달장애인 13명의 개별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는 연구자를 포함한 이용시설 종사자 4명이 함께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와 더불어 관찰일지의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기준으로 가족 내에서의 돌봄상황, 이용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변화, 지역사회시설에서의 장애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13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조사기간 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 내의 발달장애인의 가정생활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용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관찰한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진행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개입에 대한 긍정적인변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이용했던 지역사회이용시설의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평소에 발달장애인을 접하는 빈도와 그에 따른 장애인식변화를 조사하였다.

3. 코딩 및 연구 결과 분석 방법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관찰일지와 설문조사로 수집한 가정내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와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은 질적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제분석(Themetic Analysis)으로 분석했다. 연구자는 발달장애인 가족, 이용시설 종사자,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와 연구자가 8주동안 진행한 발달장애인 개별화지원에 대한 관찰일지를 토대로 개별화지원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요소를 분류하였고, 분류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대상별로 진행된 설문조사결과를 최종분석 했다. 그 결과 '1) 일상생활 안정화, 2) 자립화, 3) 활동범위 확대, 4)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 5) 장애인식의 변화'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화

발달장애인 A의 경우 평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활발하게 시설을 이용하였는데, 코로나19이후 여러 사정으로 이용시설에서는 매우 수동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빈도가 많았다.

이에 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 A의 불안감정과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 개별화 활동을 지원하여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종사자와 긍정적인 언어를 통한 감정해소를 통하여 연구기간이 종료될 시점에는 다시 밝은 모습을 회복하고 스스로 원하는 소근육활동을 찾아서 진행하고 시간에 맞춰서 정리하는 모습이 일상화 되었다(참고 〈표 2〉).

발달장애인 B의 경우 수영활동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D의 욕구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에 약물의 변경에 의한 후유증으로 체중이 불고 수면이 불규칙해 짐으로 인해 시설에서 불안한 감정이 증가하고 큰소리를 치는 빈도가 많아지는 도전적행동의 빈도가 강해지고 있었다.

VOICEYE voiceye.com

이에 상황에 따른 약물변경과 함께 종사자와 함께 수영활동을 개별화 활동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 B의 도전적행동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연구가 지속되면서 컨디션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발달장애인 B는 도전적행동이 감소하고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또한 안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참고 〈표 3〉).

발달장애인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설문조사결과 84.6%가 최근 1개월 이내에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되고 자녀돌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진행된 8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이다(참고 〈표 4〉).

그 외 이용시설에서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하여 종사자의 개입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활동이 오히려 이용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심 향상을 통해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 이용인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 **(사회재활교사 A)**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 교사의 물리적 도움이 점차 줄어들고 언어적 도움만으로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회재활교사 C)**

〈표 2〉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A

<table>
<tr><td>활동주제</td><td colspan="4">이용인의 의사표현과 그에 따른 활동지원으로 인한 불안감정 및 행동 감소</td></tr>
<tr><td>추진배경</td><td colspan="4">- 이용인은 코로나19이전에는 밝은 모습으로 교사와 다른 이용인들과 대화를 하는 등 즐거운 모습을 자주 보였으나, 코로나19이후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많아 졌음.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시 프로그램 활동을 하도록 언어적 도움을 줄 때에 우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음.</td></tr>
<tr><td>추진목표</td><td colspan="4">-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과 욕구에 대한 대화를 함으로써 센터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회복하고자 함.
개별활동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활요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td></tr>
<tr><td>진행과정</td><td colspan="4">- 등원이후 오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대화한다.
자기결정권에 의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준비한 이후 해당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해당 활동이후 정리를 스스로 한다.</td></tr>
<tr><td colspan="5">참여내용</td></tr>
<tr><td colspan="2">2021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td><td colspan="3">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td></tr>
<tr><td>9월 13일(월)</td><td>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그러나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말하기 전 까지는 원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음.</td><td rowspan="2">10월 25일(월)</td><td rowspan="2" colspan="2">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활동을 하였음. 퍼즐을 하면서 교사에게 말을 걸며 긍정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도 같이 긍정적인 언어로 힘을 실어주자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임.</td></tr>
<tr><td>9월 14일(수)</td><td>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퍼즐을 한 이후 프로그램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교사가 정리하라고 말하자 정리를 하였음.</td></tr>
<tr><td>9월 17일(금)</td><td>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그러나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말하기 전 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td><td>10월 29일(금)</td><td colspan="2">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퍼즐을 스스로 가져와서 퍼즐을 잘 하였으며, 퍼즐활동을 마친 이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임.</td></tr>
</table>

KCI VOICEYE voice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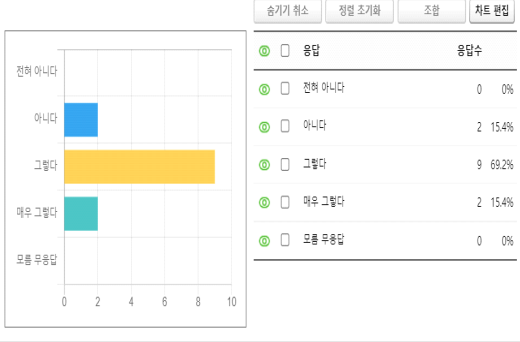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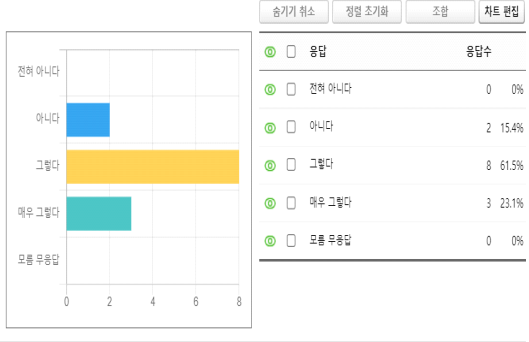
〈표 3〉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B

활동주제	수영활동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도전적행동 감소
추진배경	- 이용인은 정신질환약 복용으로 인한 비만이 발생된 상태이며, 밤늦게 수면을 취하지 않고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등 일상생활의 밤낮패턴이 바뀌어 밤에는 수면을 취하지 않고 새벽에 잠이 드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음. 낮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 센터에서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도전적 행동(소리치는 행동)을 보이고 있음. 이용인은 코로나19 발생전에 수영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약 2년의 시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영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음. 또한 부모에게 수영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자주 하였음.
추진목표	- 이용인의 정신질환약 복용의 횟수를 줄임.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인 수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욕구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균형을 바로잡고자 함. 욕구해소를 통한 센터활동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가정에서 이용인에 대한 부모의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자 함.
진행과정	- 주 3회 수영활동을 지원한다. = 진행요일 : 화.수.목요일 - 30분이상 수영활동을 하고 이후에 이용인의 변화를 관찰한다.

참여내용

2021년 8월 16일(월) ~ 8월 20일(금)		**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8월 24일(화)	오전에 센터에서 소리를 치는 등 도전적행동을 보임. 오후 수영활동 시 빠른 행동으로 수영을 준비하였으며, 풀장에서 수영을 할 때에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물속에서 물놀이를 하였음.	10월 28일(목)	이용인은 수영활동을 즐겼으며, 수영활동이 끝나는 시간까지 물놀이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음. 수영활동과 센터 내 일상생활 교육을 통해서 센터 내에서 소리를 내거나 흥분하는 빈도가 많이 줄고 있음. 센터 내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음.
8월 26일(목)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겼으며, 정리하기 위해 물밖으로 나오라고 했으나 더 있고 싶어하였음.		

〈표 4〉 2021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개별화 지원에 따른 변화 유무)

이용인의 개인별지원에 따른 변화유무 - 최근 1개월 사이에 자녀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되었습니까?	이용인의 개인별지원에 따른 변화유무 - 가정에서 이용인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습니까?
	

출처 : 네이버폼

2. 발달장애인의 자립화

발달장애인 C의 경우 시설에서 수시로 종사자의 눈치를 보며 종사자의 언어를 따라하며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종사자를 쳐다보거나 종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이에 개별화 지원을 통해서 수시로 발달장애인 E가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종사자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기결정권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 C가 원하는 소근육활동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 E는 연구가 지속될수록 자신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가 종료될 쯤에는 종사자의 눈치를 보는 행동은 여전히 있었으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정도로 자립적인 모습을 보였다(참고 〈표 5〉).

발달장애인 D의 경우 시설에서 매우 수동적인 생활을 보내왔다. 특히 자기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경우 몸을 앞.뒤로 뛰거나 몸을 떠는 등 편안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감정모습을 보였는데, 개별화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D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불안정한 감정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시 연구가 지속될수록 종사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빈도가 늘고 자기결정권에 의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이 많아 지게 되었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발달장애인 D에게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갖도록 했을 때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VOICEYE
voiceye.com

것이다. 결국 발달장애인 D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었으나 그동안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수동적인 생활패턴을 이룬 것이라 판단하였다(참고 〈표 6〉).

발달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이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7%가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스스로 욕구에 따른 활동을 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동기와도 부합하였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의 61.6%가 자녀의 일상생활능력과 지역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결국 가정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과 부합하여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참고 〈표 7〉).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단순히 개인의 일그 외 이용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서도 종사자들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개별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발달장애인 개별화을 지속할 필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결국 욕구해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자립화와 연결된다고 평가하였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립화로 이어져 자기결정권에 의한 활동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 모든 사람의 욕구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의 욕구가 다르고 매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
> **(사회재활교사 A)**

> 개인별 지원이 잘 이루어져 이용인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
> **(사회재활교사 B)**

> 이용인들에게 기분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사회재활교사 C)**

〈표 5〉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C

활동주제	이용인의 욕구에 따른 소근육 활동과 대화
추진배경	- 이용인은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및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음. 그러나 매 순간 교사의 눈치를 보며 교사가 이용인에게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님에도 교사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다른 이용인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거나 교사가 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 관련 교육내용을 다른 이용인에게 가르치는 행동을 보임.
추진목표	- 이용인이 원하는 소근육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혼잡함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고자 함. 다른 이용인과 대화를 함으로써 상호존중의 태도에 익숙해 지도록 한다.
진행과정	- 등원이후 오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대화한다. 자기결정권에 의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준비한 이후 해당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해당 활동시 활동키드를 옆에 있는 이용인과 공유하거나 함께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참여내용

2021년 8월 30일(월) ~ 9월 3일(금)		**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8월 30일(월)	등원이후 교사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가 원하는 활동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자 블록놀이를 가져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블록놀이를 하였음. 블록놀이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교사를 쳐다보며 무슨말을 하는지 주시하였음.	10월 25일(월)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교사를 쳐다봤음. 이에 교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하였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스스로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만지작 거리거나 조립을 하였음. 블록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수시로 교사를 쳐다봤음.
8월 31일(화)	등원이후 교사가 무슨말 하는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가 이용인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하는 활동을 하라고 말하였으며, 활동시 교사가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이 있거든 묻지 말고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이야기 해주었음.	10월 26일(화)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 이에 교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하였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스스로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거나 만지작 거림. 해당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가 무슨말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쳐다봄.
9월 1일(수)	등원이후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시간표 앞에 있는 다른 이용인에게 앞에서 서성거리면 안된다고 명령조로 말함. 이에 교사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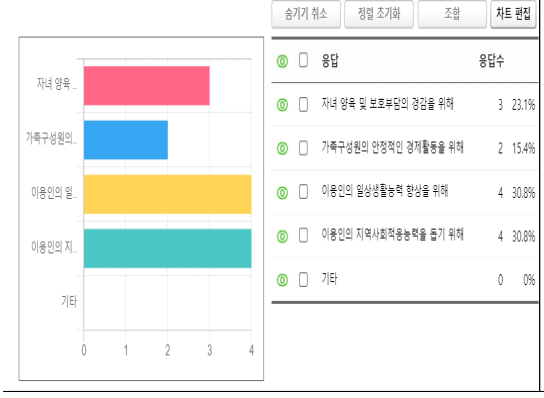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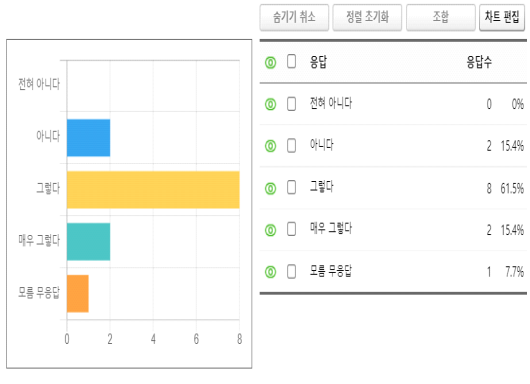
KCI VOICEYE voiceye.com

	이용인에게 명령조로 말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줌. 이후 이용인에게 센터에서 쉬는 시간에는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을 교사의 허락이 없어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 해줌.	10월 29일(금)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만지작 거리거나 조립을 하면서 휴식을 보냈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가지고 놀기도 했지만 창문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9월 3일(금)	등원이후 교사가 원하는 활동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자 블록놀이를 하였음. 블록놀이에 집중하다가 수시로 교사를 쳐다봄.		

〈표 6〉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D

<table>
<tr><td>활동주제</td><td colspan="3">이용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소근육 활동 및 여가생활</td></tr>
<tr><td>추진배경</td><td colspan="3">- 이용인은 교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많음..
센터 생활시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용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추진목표</td><td colspan="3">- 이용인이 원하는 소근육활동과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함.
이용인의 자유로운 센터생활을 지원하고자 함..</td></tr>
<tr><td>진행과정</td><td colspan="3">- 등원이후 오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대화한다.
자기결정권에 의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준비한 이후 해당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해당 활동이후 정리를 스스로 한다.</td></tr>
<tr><td colspan="4">참여내용</td></tr>
<tr><td colspan="2">2021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td><td colspan="2">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2일(금)</td></tr>
<tr><td rowspan="2">9월 15일(수)</td><td rowspan="2">등원이후 하고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퍼즐을 다한 이후 스스로 정리하였으며, 자기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음. 이에 교사가 다른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교사를 가만히 쳐다봤으며, 이에 교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물어보자 알겠다는 대답을 하였음. 이용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상동음으로 간단히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임.</td><td>10월 26일(화)</td><td>등원이후 자기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냈음. 이에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는 빈도가 적어졌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하였으며, 퍼즐을 다 한 이후 스스로 정리하였음.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td></tr>
<tr><td>10월 28일(목)</td><td>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하였으며, 퍼즐활동을 한 이후 스스로 정리하였음. 이후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더 해도 괜찮다고 하자 자기자리에 앉아서 교사를 가만히 쳐다봤음. 이에 교사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지 물어보자 상동음으로 그렇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음.</td></tr>
</table>

〈표 7〉 2021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센터 이용 동기 / 개별화 지원에 따른 변화 유무)

센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이용인의 개인별지원에 따른 변화유무 - 이용인이 자기결정이나 스스로 욕구에 따른 활동을 하는 빈도가 늘었습니까?
	

출처 : 네이버폼

3. 발달장애인 욕구해소로 인한 활동범위 확대

발달장애인 E는 평소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원활하게 새로운 일상생활에 적응해 갔으며, 시간이 지나면서는 흥미를 갖고 참여하여 시설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E는 시설 내에서도 다른 발달장애인들 보다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뛰어났는데 자신이 싫은 것은 가까이도 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강했다. 그런데 이번 연구가 지속될수록 새로운 일상생활인 직업재활활동에 집중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고 연구가 종료될 시점에는 직업재활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며 해당 활동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참고 〈표 8〉).

그 외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서 문제중심의 개입에서 발달장애인의 강점 중심의 개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더욱 부각 됨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범위가 넓어 졌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주체로서 개인적 강점과 성장, 발달에 집중하여 좀더 일상생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별화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용인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커질 것이다.

(사회재활교사 B)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인들의 강점과 성장, 발달을 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재활교사 C)

〈표 8〉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E

활동주제	이용인 기능 및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센터생활 만족도 향상
추진배경	- 이용인은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명확함. 다른 이용인에 비해 기능이 좋고 직업재활활동시 집중력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센터에서 단조로운 생활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용인의 기능에 맞는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퇴화를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통한 센터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추진목표	- 직업재활활동을 통해 주어진 시간동안 집중도 있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일상생활능력 퇴화 방지를 지원하고자 함. 자기결정권에 의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센터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함. 타의에 의해 수동적인 활동 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활동을 원하는 이용인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함.
진행과정	- 주 3회 등원이후 오전 1시간동안 직업재활활동을 진행한다. = 진행요일 : 화.수.목요일 - 원활한 직업재활활동을 할 경우 다음주 1시간 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함. = 지역사회시설(편의점, 마트, 카페)이용 및 여가생활 등

참여내용			
2021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2일(금)**	
9월 14일(화)	주어진 직업재활활동(쇼핑백에 끈을 연결하고 매듭짖기)을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잘 하였음.	10월 19일(화)	교사의 인도에 따라 작업을 잘 하였으나,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임. 빨리 작업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여유 있게 직업재활활동을 하였음. 이에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며 웃으며 직업재활활동을 하였음.

VOICEYE
voiceye.com

9월 15일(수)	주어진 직업재활활동(쇼핑백에 끈을 연결하고 매듭짖기)을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잘 하였음.	10월 20일(수)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집중하며 직업재활활동을 잘 하였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마트 이용을 하였음. 마트 이용을 하러 가는 동안 계속 신나하였음.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잘 고르고 마트를 구경하는 것을 즐김.
9월 16일(목)	주어진 직업재활활동(쇼핑백에 끈을 연결하고 매듭짖기)을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잘 하였음.	10월 21일(목)	1시간동 쉬지 않고 직업재활활동에 집중을 잘 하였으며, 중간에 힘들어하기도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업재활활동을 하였음.

4. 발달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발달장애인 F는 자신의 욕구해소를 위한 도전적 행동이 강화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받지 못할 경우 도전적행동을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F를 위한 개별화를 통하여 도전적 행동의 감소를 관찰하고자 하였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F가 좋아하는 활동인 컴퓨터활동을 보상으로 지원하되 대신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산책, 블록놀이, 퍼즐을 하도록 하여 시설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발달장애인 F는 컨디션에 따라 도전적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개별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참고 〈표 9〉).

개별화지원을 통해 도전적행동이 감소된 근거는 시설 외에 가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개별화지원에 따른 변화유무를 묻는 내용에서 69.2%가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 행동이 감소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92.3%가 발달장애인이 시설 등원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하였다고 답한 것을 참고할 때에 발달장애인 개별화는 발달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참고 〈표 10〉).

또한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도전적행동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해소에 개별화가 영향을 미치기에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지원할 때에 발달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통한 가정에서의 돌봄완화, 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였다.

자신이 결정해서 활동하다 보니 도전적행동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재활교사 A)

스스로 원하는 것을 최소 1가지 정도는 선택할 수 있으며, 욕구 충족이 되었을 때는 도전적 행동감소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재활교사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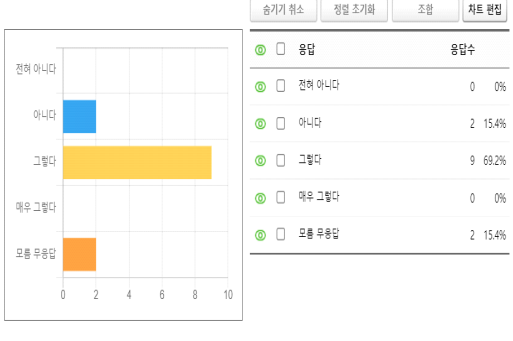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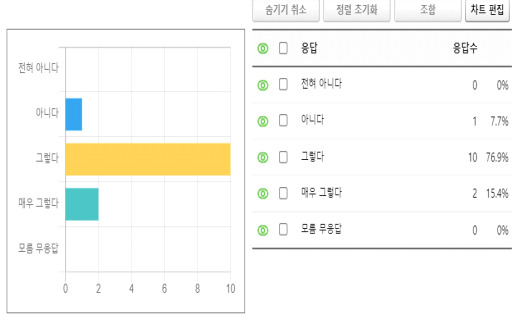
〈표 9〉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M

활동주제	이용인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활동을 통한 도전적행동 및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추진배경	- 이용인은 불규칙한 정신질환약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의해 식탐이 늘어 비만이 발생한 상황이며,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활동하면서 늦은시간에 식사를 하는 패턴이 연속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또한 낮과 밤의 생활패턴이 바뀌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용인은 원하는 음식이나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소리를 치는 도전적행동을 보임. 이용인은 컴퓨터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만화 캐릭터(미키마우스,뽀로로 등)를 좋아하여 해당 활동을 통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생활리듬을 변화시키고자 함.
추진목표	-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욕구활동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에 산책, 퍼즐 및 블록놀이 이후에 보상으로 컴퓨터 활동을 지원하여 도전적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함. 센터 등원 후 산책을 진행하여 건강관리를 하고자 함.
진행과정	- 등원이후 오전에 날씨확인 후 산책을 진행한다. = 진행요일 : 월.화.금요일 ※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인해 월.화.금요일 만 등원하고 있음. - 산책 이후 잠을 자지 않을 경우 퍼즐이나 블록놀이를 진행한다. 위 활동을 모두 했을 경우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내용			
2021년 8월 16일(월) ~ 8월 20일(금)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2일(금)**	
8월 17일(화)	등원이후 피곤해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잤음. 오전 11시에 점심식사를 한 이후 퍼즐을 하도록 지원하였음. 퍼즐이후 컴퓨터활동을 지원하여 스스로 컴퓨터를 켜고 원하는 캐릭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시간을 보냈음.	10월 18일(월)	등원이후 침대에 누웠으나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의 인도에 따라 산책을 하였음. 처음에는 산책을 하기 싫어하였으나 산책을 하면서 불안감이 없어지고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임. 산책이후 퍼즐을 하였으며, 그 후 이용인이 좋아하는 활동인 컴퓨터를 하였음.

			시간이 지날수록 컨디션이 좋아졌으며, 오후 프로그램에도 20분 참여하였음. 하원하기 1시간 전부터는 매우 밝은 표정으로 센터 생활을 하였음.
8월 20일(금)	등원이후 피곤해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잤음.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퍼즐을 했으며, 이후 컴퓨터를 하였음.	10월 19일(화)	등원이후 퍼즐을 하였으며, 퍼즐을 한 이후 컴퓨터를 하였음. 너무 오랜시간 컴퓨터를 하여 오후 2시에 산책을 가기 위해 이용인에게 컴퓨터를 그만 하자가 하자 소리를 치며 거부함. 20분동안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임. 이후 편안한 모습으로 하원 하기 전 까지 공룡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센터를 돌아다님.

〈표 10〉 2021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개별화 지원에 따른 변화 유무)

이용인의 개인별지원에 따른 변화유무 – 가정에서 이용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 행동이 감소하였습니까?	이용인의 개인별지원에 따른 변화유무 – 이용인이 센터 등원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하였습니까?
	

출처 : 네이버폼

5.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빈도가 미치는 장애인식의 변화

발달장애인 개별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이용했던 지역사회이용시설 3곳(수영장, 카페, 편의점)의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해당 이용시설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가 종사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발달장애인을 만났으며, 그에 따른 장애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발달장애인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생각과 발달장애인을 경험할수록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종사자 자신의 장애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통하여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들의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을 만날수록 편안했다고 답했으나, 3명은 경험을 했어도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6명은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만큼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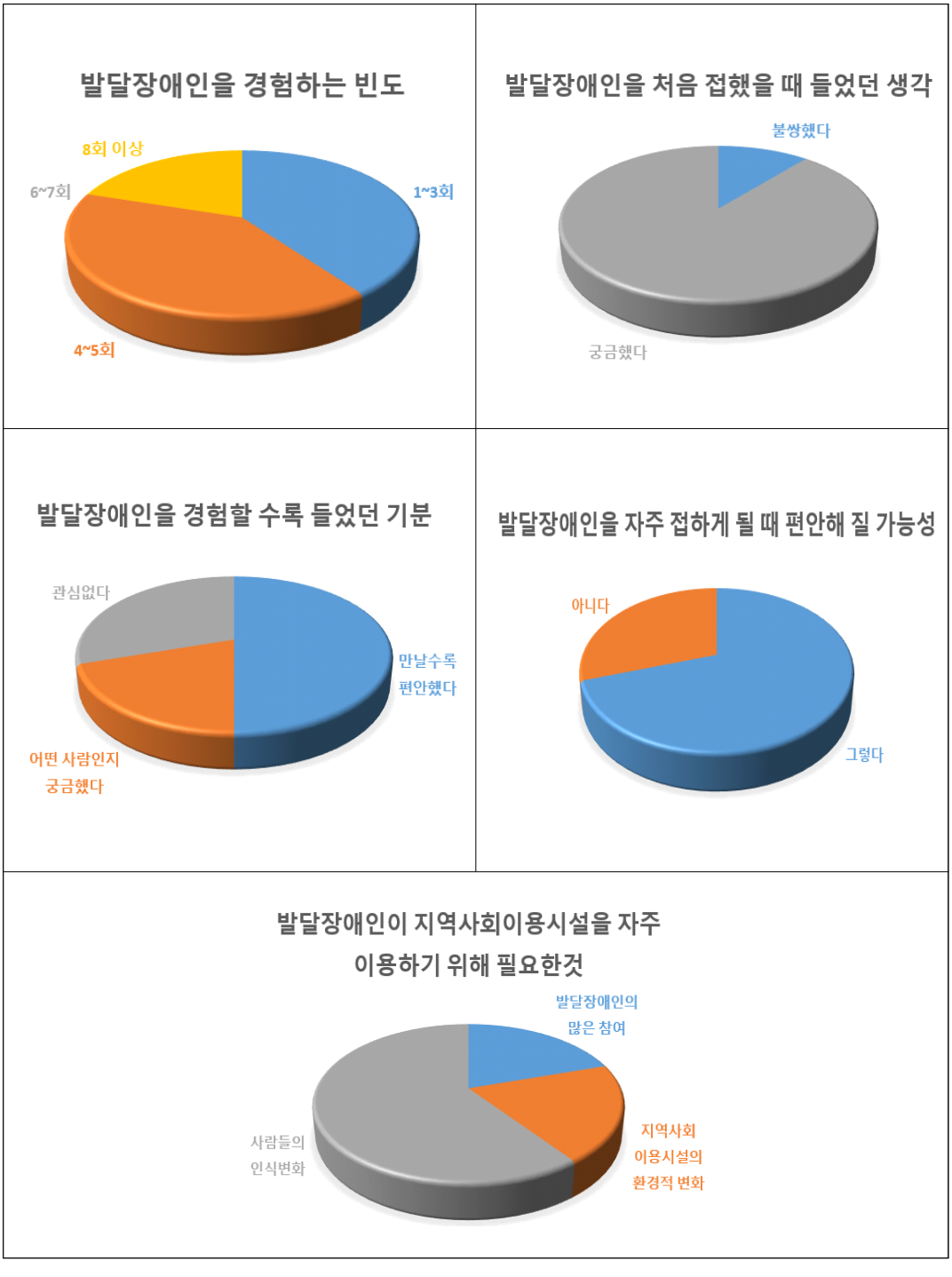
반면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종사자 중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경제활동에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랫동안 발달장애인을 경험했어도 바라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에 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10명 중 7명의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경험할수록 발달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나 편안했졌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표 11〉).

VOICEYE
voiceye.com

〈표 11〉 발달장애인 경험에 의한 장애인식변화 조사 결과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에서 진행하는 개별화 지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이용시설 종사자,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삶이 단순이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과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연구자가 종사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으로 인해 주 2일 이상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발달장애인 13명에 대한 개별화 계획을 통해 관찰일지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완화 및 장애인식의 변화를 설문조사하여 그에 따른 결과와 관찰일지를 통한 개별화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변화를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1. 결과 논의

1)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화

이번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감정과 자율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개별화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돌돔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발달장애인이 도전적·감정적 행동의 빈도가 줄어듦으로써 가정의 생활 또한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컨디션에 따라 일상생활의 안정화에는 매번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발달장애인 옆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언어를 하도록 돕는 가족 및 이용시설 종사자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2) 발달장애인의 자립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결국 발달장애인의 자립화로 연결이 되어져 갔는데, 가족이나 종사자의 언어적·물리적 도움이 아닌 발달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자기결정권을 통해 선택하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립적인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

VOICEYE
voiceye.com

발달장애인의 자립화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생활 또변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용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빈도가 늘어남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가정에서도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가족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대한 가족의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화를 위해 발달장애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가족과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3) 발달장애인 욕구해소로 인한 활동범위 확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직업재활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퇴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화를 진행하게 되었다.

개별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흥미를 갖을 수 있는 보상활동을 지원함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활력이 있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보상으로 주어지는 자유시간 동안에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연구가 지속될수록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해당 활동에 대한 기능적능력 또한 향상되어 발달장애인이 보상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보상활동에 의한 새로운 활동기회 제공은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와 자기결정권에 의한 여가활동증진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인지적·기능적 퇴화방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판단된다.

4) 발달장애인의 적응력 강화

연구자의 이용시설에서는 일부 발달장애인이 욕구에 대한 집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요소로 인해 이용시설 내에서도 도전적행동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지원과 그에 상응하는 일상생활 지원으로 도전적행동이 감소하고 이용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근육활동, 산책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패턴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

게 되었다.

비록 발달장애인의 컨디션에 따라 개별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 해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인하여 가족과 종사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5)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빈도가 미치는 장애인식의 변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단계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지역사회에 주는 장애인식의 변화였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의 활동이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할수록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대하는데에 편안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자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장애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음을 확안히게 되었다.

장애인식의 변화는 결국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남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식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이기에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파악하였다.

2. 제언

이번 연구는 기존 장애 연구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의 돌봄의 범위에서 조금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욕구해소와 더불어 자기결정권에 의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살아감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 종사자,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의 범위에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에 대한 개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김고은. (202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부모개입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1): 329-344.

김고은, 이해영. (2015).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부모의 중요성 인식과 교수실행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8: 99-118.

김기덕, 장은숙. (2008).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9: 83-113.

김정은, 조태흥. (2015).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181-229.

박혜진. (2013), 고등학교 졸업이상 성인장애인의 취업현황 및 취업영향 요인 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2): 145-167.

신은경, 이웅. (2019),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개념, 그 의미와 오해. Crisisonomy, 15(11): 57-87.

이복실, 제철웅, 이동석. (2018).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40: 5-32.

조학래. (2017). 사회복지실천론, 신경.

최유임. (2019). 의미 있는 선택 활동의 참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2): 583-590.

Carter, E., Lane, K., Cooney, M., Weir, K., Moss, C. k., & W. Machalicek. (2013). Parent' assessments of self-determination inportance and performance for student with autism or intellectual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118(1)*: 16-31.

Cristina Mumbardo-Adam, Joan Guardia-Olmos, Ana L. Adam-Alcocerm Maria Carbo-Carrete, Anna Balcells, Climent Gine, and Karrie A. Shogren. (2017). Self-Determination, Intellectual Disability, ane Context: A Meta-Analytic Study.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55(5)*, 303-314.

D. S. Kang. (2016). The effect of after-school self-determination skills program applied to self-determinationabilities and self-efficacy of juvenil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5*, No1, pp.1-13.

Morris, M. (2004). “ndependent living and community care: a disempowering framew ork, *Disability & Society , 19(5),* 427-442.

Wehmeyer M. L. and Brian H. Abery. (2013).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Intellect 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1(5)*, 399-411.

Wehmeyer M. L. (1998). Student sefl-report measure of self-determination or student 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 d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31*, pp.282-293.

Wong P. K. S. & Wong D. F. K. (2008). Enhancing staff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 s in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resident al settings in the Hong Ko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52(3)*, 203-243.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voiceye.com

Abstract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used by individualiz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h Sang Teack*

This study started with the fact that the life of the fami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came imbalanced and difficulties in daily life due to the accidental behavior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the facility for the disabled where the researcher is enga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ositive changes in the lives of famili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rought about by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 thought about ways to help the life of the family that affects the life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intervention was individualized for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e to the individu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ositive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daily life of famil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us a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changes in percep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only in their families but also in the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This researcher established an individualized plan suitable for the cognitive and functional abilitie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using the facilities, and observed and recorded the observation log for 8 weeks from August 16 to November 5, 2021. In addition, after 8 weeks,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the family, and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ere evaluated and confirmed for workers.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rough individualization of

* Social rehabilitation teacher, Pyeongan MilaL Cent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summarized into five categories: changes i n daily lif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ansion of the scope of activities due to self-reliance and resolution of needs.

Through this study, positive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amily, use facilit ies, and community facilities, were confirmed by individualization of people with develop 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Developmentally disabled, Individualized, Stabilization, Positive change, Disability perception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327 - 354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동향 분석 : 2011년~2021년 논문을 중심으로

윤혜정*·황예림·윤수빈*****

본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과 주제를 모색하고 활성화시키며, 근로 장애인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제언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갖는 현실적인 문제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방향에 길잡이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학위논문(박사), 학위논문(석사) 34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제언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는 2011년~2017년 사이 급증하였고, 그 이후 다소 주춤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의 주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의 주제에 편중되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의 문헌대상이며 연구대상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 시기는 2017년~2019년이다. 넷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양적연구가 32편(94%)을 차지하였으며, 양적 연구 중 실험법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개발 및 배치를 통한 고용의 질 향상', '물리적, 사회적인 근무환경 개선' 등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에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제시되는 제언이며 최근 2020년대에 들어서, 초기에는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제언들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분석과 적은 연구대상으로 심층적 분석에 어려움을 가짐을 밝히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대적인 패러다임을 수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 장애인, 삶의질, 근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연구동향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직업 활동이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의 원천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행복의 조건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삶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된다.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직업재활을 할 수 있게 하며, 생계유지 및 자기 정체성의 확립 등 경제적, 심리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임수정, 이준우, 2011).

하지만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고 직업선택의 어려움이 있기에 일자리를 통한 보다 풍부한 삶의 경험에 제한을 받기 쉽다. 특히 취업의 취약계층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더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거의 대부분 상승세를 그려오고 있다. 하지만 근로 장애인은 저숙련, 노동, 낮은 임금, 대인관계의 어려움, 장애에 대한 배려 부족, 근로환경 열악으로 낮은 질적 환경에 처해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중석, 2021).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취업률의 증가를 넘어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취업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 유무에서 더 나아가 임금, 승진, 대인관계, 근로환경 등의 측면에서 취업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의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박선희, 2014).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 학회의 주제로 선정되면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박중석, 2021).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삶의 질의 연구는 근로 장애인 경제활동의 특성, 대인관계의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이채식, 김명식, 2016), 근로 장애인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매개역할에 대한 연구(김미경, 고정훈, 2021), 근로 장애인의 직장차별경험의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영향에 대한 연구(최한규, 염동문, 2019), 근로 장애인의 직무적합성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김준수, 김미옥, 이은실, 2017), 근로 장애인의 직업스트레스가 일생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김수환, 2013) 등 각자의 연구 주제와 방법에 맞게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무환경, 대인관계, 차별, 자아효능감 등의 특정 매개와 장애인의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근무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 삶의 질 등 비슷하지만 다른 변수와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용되고

VOICEYE
voiceye.com

있던 주관적인 변수들을 통합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각각의 매개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삶의 질의 상호영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해가 지나갈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미숙련한 근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단순노무 제공, 복리후생제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 분야 다양화, 환경 개선, 복리후생제도의 마련 등의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송진영, 2014).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며 더욱이 연구 발전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논문의 동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그들의 삶의 질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동향을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장애인일자리와 삶의 질이라는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경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연구제언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특징과 보완점, 새롭게 나타나는 제언의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관련 연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연구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상생활 만족도, 직무 만족도, 삶의 질 등 복잡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념과 용어 그리고 이에 관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통찰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추후 진행될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연구의 경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변화를 도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의 연구시기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의 연구제언 동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고용 지원과 보조 등의 복지적 접근을 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업을 통한 소득보장과 복지를 실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에게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복지적 접근의 고용을 통해 직업적 장점을 향상시키며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박철현, 2017).

장애인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고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 기존에 저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직장에 대한 체험을 통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을 제공하기에 장애인에게 근로가 가지는 희망을 심어주며 이러한 확신은 장애인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목적은 일자리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장애 유형별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 취업 연계 활성화를 통해 근로연계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박선희, 2013).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유형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였으며, 배정인원의 확대를 이루어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연도별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인원 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920	10,300	10,800	14,500	14, 594	14,879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4,827	17,352	17,352	19,857	22,396	24,896

출처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VOICEYE
voiceye.com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등의 직무를 맡으며 2021년 배정인원 9,465명이다. 복지 일자리는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에 직무를 맡으며 2021년 배정인원은 13,644명이다. 마지막으로 특화형 일자리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안마서비스와 요양보호사 업무보조를 진행하며 2021년 배정인원은 1,777명이다.

2. 장애인과 삶의 질

삶의 질은 곧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종합적인 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안정감 등을 말한다. 이는 삶의 질이 인간이 느끼는 행복 및 행복하게 살 권리와 직결되기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구하고 있다(유민지, 2020).

삶은 질이란 자신의 물질적, 신체적 심리적 욕구와 동기를 만족시킴으로써, 개인의 생활과 삶 전체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체험하는 정도를 말한다(박철현, 2017).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개인마다 다르며 정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등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정도와 주관적 복지, 사회적 관계 등 다분화된 측면에서의 요인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삶의 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정 사회가 가지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객관적 측면이다. 경제수준, 사회보장, 교육 수준 등 객관화된 수치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개인이 스스로 삶의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측면이다. 개인의 가치와 목표 등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가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측면이다(이채식, 김명식, 2016).

근로 장애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활동이 아닌 일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하기에 고용과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삶의 질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백지은(2019)의 연구에서는 근로 장애인에게 취업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김자영(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박자경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분석 연구를 통해 장애 수용과 사회 참여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단순한 취업의 유무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본인의 적성

에 맞고,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근무환경과 질을 파악할 수 없는 단순한 고용률이 아닌 그들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박선희, 2014).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삶의 질의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일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만족, 일의 중요성 등의 근무상태와 소득 수준, 경제활동 등의 주관적 경제 상태 그리고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등의 대인관계, 자아효능감 등은 개인적 상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자리잡아가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무환경', '근로환경', '만족', '삶의 질'의 주제를 가진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과정 및 준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둘째,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만족도 및 삶의 질의 연구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학위논문, 대학논문집, 학술지논문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무환경(근로환경)'으로 검색된 33편의 논문, '장애인 일자리', '만족(도)'으로 검색된 47편의 논문, '장애인 일자리', '삶의 질'로 검색된 13편의 논문, 총 9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셋째, 검색된 92편의 논문 가운데 저자, 제목, 내용 등에 있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된 논문 49편을 제외하고 학술논문 27편, 학위논문 15편, 대학논문집 1편으로 총 43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넷째, 정확한 분석을 위해 원문이 지원되지 않는 논문 7편을 제외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 선정 기준에 준하여 36편의 논문을 재검토한 결과, 장애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 2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가 가지는 분석대상은 학술논문 24편, 학위논문 10편으로 총 34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2. 분석기준

1) 연구시기 분석기준

최근 10년간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관한 논문은 지속해서 수행되어 오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연구의 증감소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실태조사의 단위인 3년을 연구시기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실태와 욕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중요한 활용가치가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10년간 장애인실태조사가 시행된 연도(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를 기준으로 2011~2013, 2014~2016, 2017~2019, 2020-2021 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주제 분석기준

연구주제 분석기준은 분석대상 연구들이 가지는 주제를 범주화하여 분석준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집중되거나 미흡한 주제를 파악하고 연구주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 분석기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실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실태는 근무환경, 인식개선, 대인관계 4가지 세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근무환경은 장애인 편의시설 수, 교통, 사업장의 청결과 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하였고, 고용현황은 임금, 일자리 형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였고 인식개선은 장애인 인식교육, 차별방지 교육 등의 실태들을 포함하였고, 대인관계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비장애인과의 차별문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업무능력) 등을 포함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도 근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 삶의 질, 직업유지 4가지 세부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근로만족도는 직무적합성, 근무환경 등 근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포함하였고, 일상생활 만족도는 심리적 안정 및 변화 등 개인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포함하였고, 삶의 질은 근무와 개인을 통합한 삶에 대한 영향요인을 포함하였고, 직업유지는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향요인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개선방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포함하였다.

연구주제 분석은 박영선, 강경아(2020)의 연구주제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기본적으로 논문 한 편당 주제 범주 하나에 표시하였고 한 논문이 2개의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범주별 합이 1이 되도록 각 범주에 0.5씩 표시하였다. 선정한 연구주제와 각 주제별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주제 분석기준

연구주제		세부내용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실태	근무환경	장애인 편의시설 수, 교통, 사업장의 청결과 안전 등
	고용현황	임금, 일자리 형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인식개선	장애인 인식교육, 차별방지 교육 실태 등
	대인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비장애인과의 차별문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업무능력)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	근로 만족도	직무적합성, 근무환경 등 근무와 관련된 영향요인
	일상생활만족도	심리적 안정 및 변화 등 개인과 관련된 영향요인
	삶의 질	근무와 개인을 통합한 삶에 대한 영향요인
	직업유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향요인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개선방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분석기준

(1) 연구대상 분석기준

연구대상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분석기준은 크게 인적대상과 문헌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인적대상은 근로 장애인, 보호자, 사업장으로 세분화하였다. 근로 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 장애인을 포함하였으며 보호자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등의 가족과 대리인을 포함하였고, 사업장은 근로 장애인 사업장의 시설장, 동료, 상사를 포함하였다. 문헌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기타로 세분화하였는데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포함하였고 기타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제외한 관련 문헌을 포함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대상 분석기준과 세부내용은 〈표 3〉과 같다.

VOICEYE
KOR
voiceye.com

〈표 3〉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대상 분석기준

연구대상		세부내용
인적대상	근로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근로 장애인
	보호자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등 가족과 대리인
	사업장	근로 장애인 사업장의 시설장, 동료, 상사
문헌대상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기타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제외한 관련문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2) 자료수집방법 분석기준

주요 자료수집방법을 파악하고 다차원적인 자료를 분류하기 위하여 자료수집방법의 분석기준은 질문지법, 실험법, 질적자료수집, 질적·양적 자료수집으로 분류했다. 양적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 실험법, 검사법, 관찰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실험법 위주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에 검사법과 관찰법을 분석기준에 제외하였다. 질문지법은 관련 문제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하며 실험법은 독립변수를 조작하고 종속변수를 통해 조작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질적자료수집은 질적 양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면접, 사례연구 등 관찰, 면담을 위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경우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는 질적 연구가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면담 이외의 자료 수집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기에 면담 이외의 하위범주를 나누지 않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자료수집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질적·양적 자료수집에 포함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대상 분석기준과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자료수집방법 분석기준

연구주제		세부내용
양적연구	질문지법	관련 문제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한 경우
	실험법	독립변수를 조작하고 종속변수를 통해 조작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질적 연구	질적 자료 수집	면접, 사례연구 등 관찰, 면담을 위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경우
혼합연구	질적 · 양적 자료수집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자료수집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4) 연구제언 분석기준

제언을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특징과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제언의 분석기준은 교육프로그램, 근무환경, 직무개발 및 배치, 관리, 기타로 분류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심리 및 정서와 기술 및 지식 측면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심리 및 정서는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 개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를 포함하였고 기술 및 지식은 직무교육, 직무훈련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근무환경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사회적 환경은 인식개선, 장애 이해교육, 차별 등 인적 근무환경과 관련 경우를 포함하고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 등 시설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직무개발 및 배치는 장애 유형고려,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질적 기준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며 관리는 사후관리, 종합도우미서비스 등 전담인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에는 이 외의 제시된 제언들을 포함하였다.

연구제언은 기본적으로 논문 한 편당 여러 개의 제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도계산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각 논문에서 제시된 제언들을 나열하고 통합적으로 최소 2번 이상 제시된 제언들을 수집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제언 분석기준과 세부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제언 분석기준

연구제언		세부내용
교육 프로그램	심리 및 정서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 개인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술 및 지식	직무교육, 직무훈련 등 취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근무환경	사회적 환경	인식개선, 장애 이해교육, 차별 등 인적 근무환경에 관한 경우
	물리적 환경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 등 시설 근무환경에 관한 경우
직무개발 및 배치		장애 유형고려,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질적 기준에 관한 경우
관리		사후관리, 종합 도우미 서비스 등 전담인력에 관한 경우
기타		이 외의 제시된 경우

VOICEYE
voiceye.com

5)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박영선, 강경아(2020)의 연구동향 분석을 참고하여 연구절차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 논문 수집, 분석기준 수립, 예비분석, 본 분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절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살펴보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을 검색 후, 수집하였다. 이후, 논문 가운데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주제, 키워드 등을 나눠 Excel 프로그램에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자, 제목, 내용 등에 있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된 논문, 원문이 지원되지 않는 논문, 장애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논문을 저장하고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 인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중복된 논문이 저장되지 않았는지 등 재확인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 논문을 수집하였다.

둘째,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제언 등에 대한 분석기준을 수립하였다. 특히, 3인의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논문들을 직접 검토하였으며, 논문들마다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제언을 범주화한 후 협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며 분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세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34편의 연구를 선정하고 분석준거에 맞게 논문들을 대상으로 예비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비분석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분석이 불일치한 부분을 찾아내고 함께 협의 및 수정하면서 분석기준을 논의하였고, 분석준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기준을 확립하였다. 또한 분석기준의 세부내용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보장하였다.

넷째, 연구자 3인은 본 분석의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확립된 최종 분석기준에 따라 각각 모든 연구 대상 논문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교차 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해 분석항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절차를 통해 수집된 연구대상 논문 34편을 연구시기별,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 자료수집별, 제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해 처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시기 동향

2011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표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시기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시기 동향

단위 : 빈도(%)

발행연도		학술논문	학위논문 (석사)	학위논문 (박사)	합계	총 합계
2011-2013	2011	1(3.0)			1(3.0)	5(14.7)
	2012	1(3.0)			1(3.0)	
	2013	1(3.0)	2(5.8)		3(8.8)	
2014-2016	2014	2(5.8)			2(5.8)	7(20.6)
	2015	1(3.0)			1(3.0)	
	2016	3(8.8)	1(3.0)		4(11.7)	
2017-2019	2017	6(17.6)	4(11.7)		10(29.4)	17(50.0)
	2018	1(3.0)			1(3.0)	
	2019	6(17.6)			6(17.6)	
2020-2021	2020		2(5.8)		2(5.8)	5(14.7)
	2021	2(5.8)		1(3.0)	3(8.8)	
합계		24(70.5)	9(26.5)	1(3.0)	34(100)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 34편이 발표되었다. 연구시기별 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1편(3.0%), 2021년 1편(3.0%), 2013년 3편(8.8%), 2014년 2편(5.8%), 2015년 1편(3.0%), 2016년 4편(11.7%), 2017년 10편(29.4%), 2018년 1편(3.0%), 2019년 6편(17.6), 2020년 2편(5.8%), 2021년 3편(8.8%)로 2011년~2013년 5편(14.7%), 2014년~2016년 7편(20.6%)이던 연구가 2017년~2019년 17편(50.0%)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2020년~2021년 5편(14.7%)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발행종류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학술논문이 24편(70.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7년~2019년에 13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학위논문(석사)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다소 줄어드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2. 연구주제 동향

2011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표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주제 동향

단위 : 빈도(%)

연구주제		2011-2013	2014-2016	2017-2019	2020-2021	합계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실태	근무환경			1.5(4.4)		1.5(4.4)
	고용현황	0.5(1.4)		1(3)		1.5(4.4)
	인식전환		0.5(1.4)	1(3)		1.5(4.4)
	대인관계		0.5(1.5)	0.5(1.5)		1(3)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	근로만족도	1(3)	3(8.8)	6(17.7)	2(5.8)	12(35.3)
	일상생활만족도	1(3)	1.5(4.5)	2(5.8)		4.5(13.3)
	삶의 질	1(3)		4(11.8)	3(8.8)	8(23.6)
	직업유지	0.5(1.4)	0.5(1.4)	1(3)		2(5.8)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방안			1(2.9)	1(2.9)		2(5.8)
합계		5(14.7)	7(20.6)	17(50)	5(14.7)	34(100)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주제 분석 결과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의 근로 만족도가 12편(3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삶의 질이 8편(23.6%), 일상생활 만족도가 4.5편(13.3%)으로 세 개의 주제를 합하면 24.5편으로 전체의 72.2%나 되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의 주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의 주제 위주로 이루어짐을 통해 주제가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동향을 2011년~2013년에 5편(14.7%), 2014년~2016년에 7편(20.6%), 2017년~2019년에 17편(50%)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2021년에 5편(14.7%)으로 줄어드는 동향을 나타냈다.

3.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방법 동향

1) 연구대상 동향

2011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표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대상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대상 동향

단위 : 빈도(%)

연구대상		2011-2013	2014-2016	2017-2019	2020-2021	합계
인적대상	근로 장애인	1(3)	2(5.8)	3(8.8)	1(3)	7(20.6)
	보호자				1(3)	1(3)
	사업장			1(3)		1(3)
문헌대상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4(11.8)	5(14.7)	10.5(30.9)	2(5.8)	21.5(63.2)
	기타			2.5(7.3)	1(2.9)	3.5(10.2)
합계		5(14.7)	7(20.6)	17(50)	5(14.7)	34(100)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는 장애인고용 패널조사를 활용한 논문이 21.5편(63.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 7편(20.6%), 기타 3.5편(10.2%),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 1편(3%),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3%)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 시기는 2017년~2019년이며 2017년~2019년에는 장애인고용 패널조사를 활용한 논문 10.5편(30.9%),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 3편(8.8%), 기타 2.5편(7.3%),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3%)으로 총 17편(50%)의 논문을 발표했다.

2) 자료수집방법 동향

2011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표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자료수집방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VOICEYE
voiceye.com

〈표 9〉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자료수집방법 동향

단위 : 빈도(%)

연구주제		2011-2013	2014-2016	2017-2019	2020-2021	합계
양적연구	질문지법	1(3)	2(5.8)	2.5(7.3)		5.5(16.1)
	실험법	4(11.8)	5(14.7)	13.5(39.6)	4(11.8)	26.5 (77.9)
질적연구		질적 자료 수집			1(3)	
혼합연구		질적 · 양적 자료수집				1(3)
합계		5(14.7)	7(20.6)	17(50)	5(14.7)	34(100)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 관련 논문의 자료수집방법 분석결과, 양적연구가 질적연구, 양적 · 질적 연구보다 많았고, 32편(94%)을 차지하여 대부분 양적연구가 논문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연구 중에서도 실험법을 사용한 논문 26.5편(77.9%)이 질문지법을 사용한 논문5.5편(16.1%)보다 자료수집방법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질적연구 자료수집방법과 혼합연구는 각각 1편(3.0%)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위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혼합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수집되었다.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 관련 논문의 양적연구 자료수집방법은 초기부터 증가하다가 2017년-2019년 16편(46.9%)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적 자료는 2017년-2019년 1편(3.0%), 혼합연구는 2020년-2021년 1편(3.0%)으로 나타났다.

4)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제언 동향

2011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표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제언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제언 동향

단위 : 빈도(%)

연구제언			
교육 프로그램	심리 및 정서	2011-2013	
		2014-2016	· 대인관계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2017-2019	· 여가활용 및 권리의식에 대한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
		2020-2021	· 자기효능감 등 심리, 정서적 지원 실천 프로그램
	기술 및 지식	2011-2013	· 전문적인 직업 교육
		2014-2016	·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한 업무능력이 향상 지원
		2017-2019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2020-2021	·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근무환경	사회적 환경	2011-2013	·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 감시 및 구제 지원
		2014-2016	· 동료 및 상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2017-2019	· 장애인 인식 개선
		2020-2021	
	물리적 환경	2011-2013	
		2014-2016	·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체의 실천적 대안 제시
		2017-2019	·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직무편의 등 물리적 환경개선
		2020-202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직무개발 및 배치		2011-2013	· 고용의 질이 높은 직장 취업 도움
		2014-2016	· 장애유형을 고려한 업무분담 및 취업알선
		2017-2019	· 장애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직무배치 · 장애를 고려한 직무개발
		2020-2021	· 고용의 질적 기준 반영에 따른 직무 배치
관리		2011-2013	
		2014-2016	·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서비스 도입
		2017-2019	· 전담인력의 배치제도 신설
		2020-2021	· 종합 도우미 서비스를 통한 사후서비스 및 관리
기타		2011-2013	· 양호한 건강상태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 및 지원
		2014-2016	
		2017-2019	·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세제혜택 · 각 일자리에 대한 특수목적 제시
		2020-2021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취업 인프라 구축 · 여성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 및 취업확대

VOICEYE
voiceye.com

교육프로그램을 심리 및 정서 교육프로그램과 기술 및 지식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었고 근무환경을 사회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직무개발 및 배치, 관리, 기타로 총 7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 연구 관련 논문 제언이 발표됐다. 심리 및 정서 교육프로그램은 대인관계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여가활용 및 권리의식에 대한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 자기효능감 등 심리, 정서적 지원 실천 프로그램을 제언하였다. 기술 및 지식 교육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직업 교육,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한 업무능력이 향상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사회적환경은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 감시 및 구제 지원, 동료 및 상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의 내용을, 물리적환경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체의 실천적 대안 제시,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직무편의 등 물리적 환경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직무개발 및 배치에는 고용의 질이 높은 직장 취업 도움, 장애유형을 고려한 업무분담 및 취업알선, 장애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직무배치, 장애를 고려한 직무개발, 고용의 질적 기준 반영에 따른 직무 배치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관리에는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서비스 도입, 전담인력의 배치제도 신설, 종합 도우미 서비스를 통한 사후서비스 및 관리의 내용을 제언하였으며 기타로는 양호한 건강상태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 및 지원,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세제혜택, 각 일자리에 대한 특수목적 제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취업 인프라 구축, 여성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 및 취업확대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시기 10년 동안 꾸준하게 제시된 제언들은 기술 및 지식 교육 프로그램의 '직업훈련 및 교육의 기회', 직무개발 및 배치의 '고용의 질 향상'이며 2020년-2021년에는 연구 초기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우리나라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용률 등의 양적인 측면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만족도와 삶의 질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연구로 확장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석관호, 윤세정, 2021). 이처럼 장애인의 삶과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고용의 질 보다는 고용률 중심의 논문들이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연구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의 수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업무 환경 속에서 질적인 측면의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그

렇기에 이를 해결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와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관한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향후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지원전략, 앞으로 관련 연구가 나아가는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들의 결과와 제언을 분석해 좀 더 나은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일자리와 만족도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논문 가운데 총 43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한다.

첫째, 연구시기 동향을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이후 감소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인다. 최근까지의 연구가 낮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지만 분석대상인 2021년이 아직 남아 있기에 앞으로의 연구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근로 장애인의 질적 측면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근무만족도, 근무환경, 인식 등 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됨(석관호, 윤세정, 2021)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라는 연구 분야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여러 연구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시기별 동향 분석에서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범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의 주체적 삶에 대한 국정과제 시작을 알린 것과 연관이 있으며 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질적 측면의 삶과 만족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상승했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장애인 근로자와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 및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분야의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연구가 처음 소개되는 시초시기가 존재하고, 이 연구들이 특정 분야의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연구자들은 이로부터 파생된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양적 팽창기가 온다. 이후, 다양한 주제와 다각화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이는 심화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시기로 발전 및 정착되어간다(박영선, 강경아, 2020).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근로 장애인의 삶과 만족도는 양적인 팽창기에 놓여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VOICEYE
KOR
voiceye.com

까지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연구들에 있어 학술논문이 학위논문보다 많다는 점, 일정 수준의 논문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을 통해 연구 분야의 심화기로 발전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일자리와 질적인 지원 방향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논문들이 부족한 실태이기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요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연구 분야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동향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실태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방안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직무만족도 요인, 삶의 질 요인, 일상생활 만족도 요인, 직업유지 요인 순으로 이루어졌다. 요인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실태연구와 방안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요인연구는 근로 장애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일자리 환경이 일자리 만족도, 삶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연구로(전혜영, 2019) 본 연구도 직무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삶의 질,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근로 만족도 영향요인은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고 일상생활 만족도는 최근에 적게 수행되고 있는 반면,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업무, 직무 등의 근무 만족도와 개인의 심리, 장애수용 등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구별하여 분석했다면 최근에는 업무, 개인적 심리, 신체적 안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삶의 질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개인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의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상태에서 느끼는 만족감. 이는 주관적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만족도와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직무적합성이 높아야 하며, 대인관계와 환경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김준수 외, 2017; 전혜영, 2019; 정다찬 외 2019; 장성철, 2017). 또한 차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나 인식은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송진영, 2014; 최한규, 엄동문, 2014; 김수환, 2013). 김준수 외(2017) 연구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개인에게 성취감이나 성공경험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으며 송진영(2014) 연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 등의 작업환경요인과 상사와의 관계 등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둘러싸는 환경, 개인적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윤미리 외(2019)의 연구결과처럼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스스로 장애를 수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구

성원과 융합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업무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방법 중 연구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연구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의 데이터,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에 연구된 문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패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널조사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며 장애인의 장애정보, 개인소득, 가구정보, 일상생활 등을 포함하고 있다(박주영, 2017). 김수환(2013)의 연구에서는 1-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통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직업이 유지된 임금근로장애인, 김은주(2020)의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3차조사를 통한 여성장애인, 정준수(2017)의 연구는 5-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직무만족도 평균이 3.0 미만인 임금근로장애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통해 각자의 연구 특성 및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맞는 연구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문헌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이 인적대상인 연구는 문헌대상인 연구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최근까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사업장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 장애인 당사자와 근로 장애인의 주위에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들의 실태 및 주관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사료할 수 있다. 근로 장애인의 경우, 근무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습득하고 경험을 시도하기 보다는 보호자, 가족,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주변인과의 소통을 통해 밀착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유민지, 2020). 그렇기에 근로 장애인을 인적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응답이 어려울 경우,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 안에서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설문 및 응답하도록 하였다(김형주, 2017; 유민주, 2020; 박철현, 2017; 장성철, 2017; 황윤의, 유애란, 2016). 근로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연구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에 주변인을 통해서 인적대상으로 그들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근로 장애인 당사자, 이를 넘어 주변인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각적이고 다양한 요소의 측면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방법 중 자료수집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적연구의 비중이 많았고, 질적연구과 혼합연구가 소수 나타났다. 특히, 양적연구 중 실험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삶의 질과 만족도의 영향요인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VOICEYE voiceye.com

점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질적, 혼합 연구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근로 장애인의 특성, 모습 등을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풍부한 질적 자료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질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주관적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필요성 및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제언 측면에서 살펴보면 10년 동안 꾸준하게 제시되는 제언과 최근 들어 생겨나는 제언으로 나눌 수 있다. 10년 동안 제시되어 왔던 제언 중 가장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제언은 '직무개발 및 배치를 통한 고용의 질 향상', '물리적, 사회적인 근무환경'이다. 김준수 외(2017)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설계 시 직무설계와 배치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적합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맞춤형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윤미리 외(201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개인의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직무소양능력을 고려한 직무배치와 동료와 상사와의 인식 개선을 통한 조화로운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제언이 비슷한 방향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근로 장애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배치에서 큰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준수(2017)의 연구결과처럼 직무적성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통해 직무 배치 및 적절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김진주 외(2014)의 연구결과처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장애이해교육이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양적인 측면의 확대에서 벗어나 적절한 직무배치를 수행하고 기업체의 고용환경 개선 및 장애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개선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2020년대에 들어서, 초기에는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제언들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 및 취업확대'(김은주, 2020; 박중석, 2021),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취업 인프라'(박중석, 2021), '종합도우미서비스를 통한 사후서비스 및 관리'(유민지, 2020)가 대표적이다. 또한 심리 및 정서 교육 측면에서도 연구 초기에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근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면(이영광, 지은구, 2016; 장성철, 2017) 최근에 들어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자아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김미경, 고정훈, 2021; 전혜영, 2019)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장애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상황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제언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사회

와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했음을 사료할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삶의 질은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기에 당시의 문제와 상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 장애인의 질적인 측면의 변화 및 개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물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고, 특히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의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통합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동향의 결과와 논의점을 토대로 좀 더 나은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 연구에 대한 제언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근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 삶의 질 등 측정되는 주관적 실태의 양상이 다양하고 차별경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등 주관적 실태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다차원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동향을 통해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영향요인에게만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삶을 파악할 수 있기에 삶의 질이라는 논문에 있어 의미있을 수 있으나 주변인과의 영향이 필수적인 장애인이 다수임을 짐작해 주변인을 연구대상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질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각의 연구가 제시하는 제언들을 통해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의 양상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 사회 환경 및 욕구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을 제고하고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 연구 등 오랜 기간 개선되고 변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고용의 질’, ‘지역 사회 연계 인프라’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그들의 삶의 질이라는 연구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성장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 동향을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인 분석을 활용하여 결과를 제

VOICEYE
KOR
voiceye.com

시하였기에 구체적인 제도 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논문이 많지 않다는 점을 통해 심층적 분석에 어려움을 가짐을 밝히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대적인 패러다임을 수반할 수 있는 연구가 이우러져야 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미경, 고정훈. (2021). 근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546-557.

김수환. (2013). 근로장애인의 직업스트레스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업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223-246.

김은주. (2020).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서울.

김자영. (2020).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0(1), 25-50.

김진주, 박재국, 김일수. (2014). 지체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5(4), 559-585.

김준수, 김미옥, 이은실. (201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적합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3), 33-55.

김형주. (2017).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충청남도.

박선희. (2014).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 발달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충청남도.

박영선, 강경아. (2020). 남자유아교사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73-94.

박은경. (2021).「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거제시를 중심으로 - 」

박자경, 김종진, 강용주. (2012). 장애인 근로자 직무만족도 분석. 장애와 고용.

박주영. (2017). 발달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과 직업유지 요인. 발달장애연구, 21(1), 51-68.

박중석. (2021).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직업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박철현. (2017).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경기도.

보건복지부. (2021). 2021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백지은. (2019).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석관호, 윤세정. (2021).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만족 수준의 차이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3) ,425-450.

송진영. (2014). 임금근로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4), 96-120

오혜경, 백은령. (2003).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 서울지역 지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3(2).

유민지. (2020). 경제활동이 발달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서울.

윤미리, 남예지, 홍세희. (2019).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 간의 구조관계 검증: 직무몰입과 일자리 만족도의 직렬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2), 105-134

이영광, 지은구. (2016). 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20-1230

이채식, 김명식. (2016). 장애인의 일자리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6(2), 107-131

임수정, 이준우. (2011). 장애인근로자의 삶의 만족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장애와 고용, 21(1), 115-142

장성철. (2017).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업장애인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경상남도.

전혜영. (2019). 장애 및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유형과 영향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29(1), 5-34

정다찬, 도유미, 나운환. (2019). 장애인 근로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직무만족과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13(4). 287-296.

정준수. (2017).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무불만족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3). 41-167.

조윤주. (2020).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민, 박재국. (2017). 취업 장애인의 일자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4), 309-333.

최한규, 염동문. (2019). 임금근로장애인의 직장차별경험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영향연구: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4), 265-27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한 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황윤의, 유애란. (2016). 각 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실태 및 만족도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7(1), 209-238.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Analysis of trends in job programs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2011~2021

Yoon Hye Jeong*·Hwang Ye Rim·Youn Su Bin*****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 d, sought and activa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topics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disabled.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that serves as a guide to the direction of research that can respond to the practical problems and demands of the current job program for the disabl ed. To this end, from 2011 to 2021, 34 academic papers, dissertation (Doctor's/Master's t hesis) published in Korea were analyzed for research period, research topic, research met hod, and research suggestion tre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increased rapidly be tween 2011 and 2017, and has been somewhat stagnant since the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opics of research related to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 e for the disabled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topics of job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influencing factors.

Third, the subjects of research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re personal subjects such as the Employment Panel Survey for the Disabled, and the most di verse subjects were from 2017 to 2019.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tudent, Yo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tudent, Far East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tudent, Yonsei University

Fourth, 32 quantitative studies(94%) accounted for the data collection method of resear ch related to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nd most of the quantitati ve studies were conducted through experimental methods.

Finally,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through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and "improving the physical and social working environment" are proposals that have be en steadily presented for 10 years in research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nd in the 2020s, a paradigm of new proposals has emerged.

This study reveals that it is difficult to analyze in-depth with quantitative and small rese arch subjects, and enhances interest i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I 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that can improve th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this reserch,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involve a modern paradigm is needed.

Keywords : Job program for the disabled, Quality of life, Work satisfaction, Daily satisfaction, Research trend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355 - 382

고대 로마의 장애인 검토

이진실*

이 논문은 고대 로마의 장애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흔히 고대 장애인을 핍박과 차별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온 편견에 답하고 기존에 알던 지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선을 전달하고자 한다. 선천적 장애의 경우 가족에 의해 버림받는 유아 유기가 많았다. 이러한 유아유기는 대중의 고대 이미지에 깊숙이 자리하는 만큼 출산과 장애아동의 탄생을 주위 깊게 살펴본다. 고대 로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구해 볼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장애인의 복원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 고대 로마의 장애인 생존자들의 존재와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고학적 증거와 사료들은 로마에 고대 장애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들 역시 로마 사회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로마인의 육체에 대한 정의 및 질병과 장애를 향한 시선을 연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능동적이고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을 통해 미진한 연구 분야인 고대 장애사를 살펴 새로운 장애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

주제어 : 고대 로마 장애 장애관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전공 석사과정

Ⅰ. 서론

최근 전 분야 학계에서 장애를 향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가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생기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의학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에 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역사의 필요성과 재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장애를 다룬 역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는 인류 역사의 모든 단계, 모든 사회, 모든 인구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장애인의 삶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간과되어왔다. 역사학이 늘 소수자들에 관심을 기울여왔음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역사학은 시대별 소수집단이나 차별계층인 예술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흔적을 상기시켜 왔음에도 장애와 장애인을 향한 재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대의 장애와 장애인에 관련된 재고는 최근에야 조금씩 연구가 시작된 실정이다. 학문으로서의 장애에 관한 진정한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는 장애인과 기형아 역사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나 몇 가지 단편적인 사료들에 기초한 편견이 대부분이었다. 초기 학자들은 고대의 장애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으며, 기형이나 눈에 띄는 장애 징후-내과적 질환이 아닌-를 보이는 아기가 영아 살해 또는 유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서양 고대 스파르타나 로마제국을 향한 이미지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환원적 접근이 점차 불명예를 안고 고대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미묘해지게 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Draycott, J, 2015). 고대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사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출산 후 죽이거나 유기했다고 흔히 가정해왔다. '유기'로 알려진 이러한 관행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문자적 사료에서 비롯되기에 항상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개척 분야이고 장애인 인식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역사라는 측면에서 고대 장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를 향한 상대측에서의 접근 방식은 늘 변해왔다. 고정되지 않은 장애인의 대우는 동시대에도 학대, 차별, 핍박, 이해 부족, 연민, 돌봄이 공존한다. 장애의 물리적 사실과 장애의 형태에 대한 반응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성을 분리하는 일은 암묵적이고 명시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고대 서양 장애에 관한 다양한 태도를 새로이 인식하는 일은 장애 해석의 또 다른 지표를 열어주고 장애를 향한 시선을 개선하고 반성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논문은 고대 장애인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존재했다면, 살아남은 이들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갔을까. 사회에서 그들의 삶에 한계는 무엇이며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어

VOICEYE voiceye.com

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고대 장애관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다양한 사료를 기반으로 고대 로마인들의 장애관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날의 시각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찰할 것이다. 첫 번째로 장애 탄생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 도 있다. 두 번째로 영아 살해와 유기, 낮은 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존재하는 고대 장애인의 삶을 다양한 사료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살아남은 장애인들을 향한 인식과 고대 로마 사회의 시선을 고찰해 보려 한다.

논의에 앞서 구별해야 할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과 누군가의 삶에서 특정한 사건- 고대의 경우 사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후에 장애를 습득하는 후천적인 것이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이 점은 특히 고대 로마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 질 수 있는데, 당시 로마는 영양실조, 질병, 근친혼인, 신체적 탈수, 사고, 위험한 운동, 전쟁, 출산 시 감염 위험 등의 후천적 장애를 가져올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많은 수의 장애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로마 제국의 장애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장애를 나눠 살펴볼 것이지만, 장애의 인식에서는 분명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살펴볼 기간은 로마의 공화정 말부터 제정 초반이다. 로마는 기원전 510년 공화정 시대에 들어섰다. 더 이상 왕이 통치하지 않는 로마인들은 상류층, 즉 원로원과 기사계급이 통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수립했다. 공화정 시대 로마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갔고 기원 전 338년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한 기원전 60년부터 차츰 제국의 모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51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켈트족의 갈리아를 정복했고 처음으로 로마의 국경이 지중해 지역을 넘어 확장되었다. 카이사르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원로원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기관이었지만 그 힘은 약화 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암살되자 그의 후계자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통치했으나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에 로마는 이집트와 손을 잡은 안토니우스를 격퇴시키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로마의 제국 시대는 기원전 31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등장하여 기원후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됐다. 이 기간 동안 로마는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 확장을 경험했고 기원후 117년에 이르러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3개 대륙에 걸쳐 최대영토를 지니게 되었다. 서기 286년 로마제국은 동로마제국과 서로마제국으로 나뉘었고

각각의 황제가 통치했다.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고, 기원후 455년에는 반달족에게 약탈당하다 계속 쇠퇴의 과정을 겪으며 기원후 476년 멸망한다.

이 글에서 살펴볼 기간의 끝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장애인을 돌보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장애인들은 그들처럼 신의 창조물이며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장애인을 돌보는 병원과 장소를 만들었고. 장애인에 대해 쓰는 자료들은 고대 후반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됐다(Laes, C, 2014). 이 글의 초점은 기독교의 공인 이전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로마 공화정부터 제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애와 기형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논의를 조사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용어의 문제이다. 고대에 장애에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되며, 그 중 주된 이유는 실제로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고대에는 '장애인'이라는 공식적인 범주의 사람은 없었다. 다시 말해 오늘 날 사용되는 범주로 장애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 더러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인 개인 또는 집단 정체성은 없었다. 고대 로마에는 기형과 장애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으며 현대 명칭에 해당하는 정확한 그리스어나 라틴어도 없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등가물이 없는 근대적 명칭인 장애라는 용어와 범주를 사용한다(Trentin, L., 2011; Rose, M. L., 2003). 오히려 고대 로마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연속적인 기형을 개념화하고 지칭했다. David(2000)는 비록 장애가 일반 사람들에게 꽤 만연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장애가 18세기 이전에는 사회적 범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Ⅱ. 장애의 탄생

1. 선천적 장애

영아 살해(infanticide)는 고의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1세 미만)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직계존속이 살해하거나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회에서 그것은 널리 퍼진 관행이었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Kohl, 1978). 고대 로마 장애아는 탄생 시 유아유기(exposure of infants)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이해하기 위해 로마인의 가족관과 경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로마인은 소규모의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며, 부모들은 한두 명의 아이만 갖고자 했다(차영길, 2010).

VOICEYE voiceye.com

이는 아마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심리를 자극하였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Laes(2014)는 6천만 명의 로마 시민 중 4천만 명이 빈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녀가 많아짐으로 생기는 짐이나 장애아를 양육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원치 않는 아이가 탄생했을 때 영아 살해나 유아유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높은 유아 사망률은 장애아의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유아 사망률은 고대 사회가 다른 산업화 이전 사회와 다르지 않았던 일상생활의 한 측면이다. 태어난 후 첫 날은 특히 불안정했다. 비록 우리가 통계학적 인구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고대 자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대 역사학자들은 국제 연합에 의해 개발된 생명표 시뮬레이션에서 그럴듯한 비교점을 발견했다. 아마 고대 탄생한 30퍼센트에서 35퍼센트 사이의 유아들이 그들의 1년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후 전체 신생아의 약 50%가 열 번째 생일을 맞았다. 열 번째 생일을 맞은 사람들 중 약 절반이 50살이 되기를 바랄 수 있었고, 그들 중 3분의 1만이 60세 이상을 살았다.

기형과 장애는 고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흔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양실조, 질병, 세균 감염 등은 많은 유아들이 선천적이나 출생과정에서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다(Abrams, 2010). 기형이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자들이 만연해 있었다.

로마 유아 살해의 이유를 장애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 빈번한 유아 살해는 경제적, 선천적 기형 이상으로 불건전한 관계에서 탄생한 아기일 가능성이다. 또 다른 요소, 성별을 들 수 있는데 종종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유기되었다고 설명된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살게 하고, 여자아이라면 유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고대 유아 살해 정황을 미루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에 직면했는지 또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고민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장애가 아닌 경제력이나 원치 않는 출산, 여아 등의 이유로도 유기의 가능성은 있다. 유기된 아기들은 살아남아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이는 유기 관행이 로마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유아 유기는 로마 사회 경제의 근간이 되는 노예제 공급을 촉진했을 것이다.

Laes(2018)는 대중의 인식에서, 고대 사회는 종종 영아 살해나 약자 제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러한 주장은 반복해 인용되는 5개 구절에 기초하고 있다.

첫 두 가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건강한 아이에 대한 선택을 논하는 글이다. 그러나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둘 다 '이상적' 상태의 이전의 '유토피아적' 맥락에서 신생아의 선택을 언급함을[1]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로마의 플루타르코스의 한 문장에 근거하여 이 명성을 얻었다.

"한편 스파르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다. 먼저 레스케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검사관에게 보여야 했다. 아기를 검사해 보고 튼튼하면 기르도록 하여 땅을 나누어주지만, 건강하게 자랄 가망이 없는 아기는 타이게토스 산의 아포테타이 계곡에 갖다 버리게 했다. 따라서 여자들은 갓난 아기의 건강함을 알아보기 위해 포도주로 몸을 씻겼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아기는 포도주로 더욱 튼튼한 몸이 되지만 허약하거나 간질병이 있는 아기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2]

이중 확인이었다. 여성은 간질이나 병든 것을 분류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포도주로 씻었다. 플루타르코스는 미래의 스파르타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관 앞에서의 시각적 검사들과 이어 포도주에 몸을 씻기는 일등이 진행되었다고 저술했다. 비판적으로 바라 볼 것은 플루타르코스는 그는 묘사한 사실 이후 약 700년 뒤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스파르타에 관해 저술한 플라톤, 크세노폰 등 동시대 작가들은 스파르타의 유아 선발 절차를 저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오스(443-360년경)가 마른몸에 한쪽 다리를 절었음은 유명한 사실이다.[3]

네 번째는 키케로가 언급한 12표법의 한 구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끔찍하게 기형이 심한 아이는 살해되어야 한다"[4]는 12표법의 내용을 정리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세기에 이르러서야 점차 흔하지 않게 되었고, 부모가 장애가 있는 유아를 돌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으로 역전되었다. 기원후 374년 로마에서는 유아 살해가 중죄가 되었다.[5]

다섯 번째는 세네카의 글이다.

"많은 아버지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기를 버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신체 일부가 결핍되어 허약하고 생존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버리기를 좋아할 것입니다."[6]

---

1) Plato, Republic 415c, 460c; Aristotle, Politics 7.1335b
2) Plutarch, Lycurgus of Sparta, 16
3) Plutarch, Agesilaos 2, 그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조금 짧아서 다리를 약간 절었다.
4) Cicero, On the Laws, 3.8.19
5) C. 1, Cod. Theod. III 3
6) Seneca, Controversiae 10.4. 16)

VOICEYE voiceye.com

또 로마는 병든 짐승이 우리 양 떼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살하며 나쁜 징조를 나타내는 새끼를 죽이고 또 아기가 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러한 고대 사료들을 바탕으로 고대 장애유기는 힘을 받아 왔다.

에베소의 소라누스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일한 기원 1세기와 2세기의 그리스 의사였다. 소라누스는 다양한 의학 서적을 저술했고 산부인과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다. 그 책에서 소라누스는 모든 아이가 키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썼다.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이 있는지 또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는 9개월 말이고, … 땅에 내려놓으면 즉시 원기 왕성하게 운다. 울지 않고 오래 살거나 울지만 약하게 사는 사람은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의심된다. 또한 귀, 코, 인두, 요도, 항문 등 모든 부위와 감각에 완벽하다는 점, 즉 귀, 코, 인두, 요도, 항문의 막힘이 없다는 점, 모든 기관이 자연적인 기능이 둔하거나 약하지 않다는 점, 관절이 구부러지거나 펴지는 것, 모든 면에서 적절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절하게 민감하다는 점. 손가락들을 몸의 표면에 대고 누르는 것… 언급된 조건과는 반대의 아기라면, 양육할 가치가 없는 아기로 인정된다.”[7] 라고 상세하게 의학적 문제들을 살펴보는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로마인들 사이에 장애인이 언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정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사실 로마의 가정에서 많은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가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 장애 아동은 종종 데려가서 벌거벗은 채로 숲 속에 남겨졌다. 로마인에게 장애아 출산을 큰 불행으로 여겼다. 많은 로마인들이 나머지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장애아들의 높은 비율은 태어난 직후 야외에서 버려지고 죽임 당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이 나치 독일에서 특히 열심히 연구되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주의자와 나치 이데올로기가 강조한 고대 사상의 한 측면인 우생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던 역사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도망쳤다. 이러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고대 작가들의 실제 생각보다는 고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었는가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고대인들이 인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대를 우생학과 잇는 일은 무의미할 것이다(Petersenet al. 2003).

---

[7] Eastman, N. J. (Ed.). (1991:79-80).

2. 후천적 장애

후천적인 기형은 훨씬 더 흔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 스포츠 경기, 바이러스성 및 박테리아성 질병 등에 의해 장애를 입었다. 심지어 부러진 팔이나 다리 같은 사소한 골절조차도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었다. 당시 고대 세계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누구나 평생 동안 큰 부상이나 기형을 입지 않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한번 장애를 획득하면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골절을 당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먼저 살펴볼 것은 출산 과정에서 장애의 습득이다. 고대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출산은 여성의 일이었다. 출산은 집에서 이루어졌고 여성 조산사, 가족 또는 친구가 책임을 져야 하며 복잡한 출생의 경우 의사나 외과 의사가 아닌 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아이들을 낳는 것은 위험한 의무였으며 수천 명의 죽음이 제국 전역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 감염, 출혈, 산모의 아주 어린 나이 등은 산모와 아기에게 높은 위험요소가 되었다. 임신 50건 중 1건의 출산은 산모 사망으로 끝났다.

고대 세계에서 출산 행위는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엄마와 아기모두에게 극도로 위험했다 . 위생과 관련해 미생물에 대한 지식 부족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전통 의학은 경험 많은 산파의 지도와 지원, 약초 사용, 신에게 기도,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의존했다.

로마의 장애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고대 로마 제국의 확장은 거의 모든 경우에 군사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로마 문화는 전체적으로 확장과 보호를 위해 군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끊임없는 공격과 지리적 확장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격으로 인해 작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군대에 대한 전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지만(Nutton, 2016), 전문화된 형태의 의료 서비스는 아우구스투스 시대(기원전31-기원후14)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 그 전에는 군인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군인들은 자립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스스로 질병을 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Byrne, 1910).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발표된 로마 민법의 일부인 로마법대전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제대가 있었다고 한다.[8] 퇴역 군인의 경우 제대 유형이 중요한데, 제대 유형이 이후 삶의 방식도

VOICEYE
KOR
voiceye.com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대 유형은 missio causaria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제대), missio igno miniosa(불명예스러운 제대) 및 honesta missio(명예로운 제대)가 있었다. 명예 제대는 군복무를 마친 후 또는 군인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특별한 황실 선물로 주어졌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혹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인해 복무가 부적합해진 군인들은 상해제대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불명예제대는 군 기강과 법을 따르지 않는 군인들에게 내려졌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평판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은 퇴역 군인의 특권인 토지나 돈, 시민권, 결혼할 권리를 받지 못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군에서 의료 서비스를 연구해왔다. 의료병은 제국 시대부터 줄곧 군대에 있었다. 군사 수용소에는 병실이 지어졌고 많은 돈이 군대의 건강에 투자되었다(Campbell&Tritle, 2013). 그러나 군을 떠나 시민사회로 복귀한 병사의 삶은 지금까지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로마 시민사회에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들의 통합 군복무 후 눈에 보이는 신체적 결함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군인들이 상처나 질병에 의한 손상은 반드시 장애와 관련이 없더라도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외모의 손상을 말한다. 분명히,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만 종종 공존하는데, 안구 손실이 좋은 예이다. 결국, 병사들은 류머티즘 질환, 질병, 전염병, 그리고 기후의 영향과 같은 다양한 전쟁과 관련된 일상적 위험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었다.

로마 제국은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제되었다. 군대의 핵심에는 훈련, 훈련, 전투 능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단이 있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할 때까지 군대는 60개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각각은 최대 480명으로 구성된 10개 집단으로 나눠졌다. 기원 후 1세기 군인의 최소 복무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각 군단병은 무기와 갑옷,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단검을 휴대했다. 또한 '필룸'(창 던지기), 투구, 갑옷, 방패 및 보급품이 담긴 꾸러미를 휴대했으며, 군인들은 장거리를 행군하고, 정확한 대형으로 싸우고, 가지고 다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죽이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군인들에게 가장 힘든 곳은 로마 제국 의 변방이었으며, 변방의 군단병은 보급품이 충분하지 않았고 적대적인 지역 부족과 맞닥뜨리는 아슬아슬한 일상을 견뎌야 했다.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그곳이 할 일이 거의 없는 춥고 외딴 적대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군인들처럼 그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 편지를 쓰고 소식과 따뜻한 옷을 요청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들이 은퇴했을 때, 모든 군단병은 경작할 토지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군인들은 평생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이 관대한 보상을 고대했다.

---

8) Dig., 3.2.2.2.

로마가 토지 지급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항상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기 14년, 티베리우스 가 황제가 된 직후 , 중부 유럽의 군단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군인들은 로마가 약속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군 생활의 시련과 결합된 복무 기간은 군인들이 깊은 동료애를 키울 수 있음을 의미했으며 이러한 불만은 다른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반란은 추진력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장교를 약탈하고 죽였다. 심각한 군대 반란은 국내외에서 그의 권력이 군대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황제에게 잠재적인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최대 규모로 볼 때 로마 군대에는 약 50만 명의 군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병사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 '군단'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군단에는 4,000~6,0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보통 촘촘한 대형으로 전투를 위해 줄을 섰다. 무시무시한 화살과 포병의 폭발이 있은 후, 로마 병사들은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적을 향해 진군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창을 던지고 검을 뽑아 적에게 돌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기병을 사용하여 도망치려는 사람을 추적했다.

Ⅲ. 고대 장애인 서술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이미 살아남지 못했거나 침묵 속에 제거되었다면, 결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유아 살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는 있었다. 고대 유물을 살펴보면 선천성 기형을 검사한 결과 다양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 구순 구개열증, 왜소증, 짧은 사지, 다지증, 소두증 등을 볼 수 있다. 고고학과 골격학적 연구는 고대 장애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점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연구는 출생부터 현저한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의 무덤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고고학은 때때로 부모의 연민과 생존자의 존재를 암시한다(Dettwyler, 1991). 다른 고대 출처와 고고학적 증거는 유아학살이 행해진 상충되는 기록들에서 분명한 것은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획일적으로 유기를 당한 것만은 아니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서양 장애에 대한 관념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들의 분노를 담고 있고 죽여야 한다는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노예, 시민, 그리고 군인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살펴 볼 자료들을 고대 사회에 일반화하기에 어려운 측면은 대부분의 사료들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편향 되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는 말과 언어, 이성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문화에서 소수

VOICEYE voiceye.com

의 도시 지배층 남성의 자료에 의존해 재구성할 수 밖에 없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애인 노예들과 장애인 빈민층들의 결과는 비참했을 것이다. 귀족 집안의 여자나 사생아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개인들은 고대 로마의 많은 장애인 집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은 거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경 또는 사회 계층은 핵심 개념이다.

역사학자들은 장애인들이 외면당하거나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로마 사회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이 장에서는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진 신 불카누스와 로마 장군이었던 실루스 그리고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살펴보려 한다.

1. 신화에 나타난 신, 불카누스

로마 제국은 다신교 문명이었고, 이는 사람들이 여러 신과 여신을 인정하고 숭배했음을 의미한다. 로마 신화 는 로마인 문학과 시각 예술로 대표되는 고대 로마 문화의 집합체이다. 로마 민속, 로마 신화는 이러한 표현의 현대 연구를 참조하고, 어떤 기간에 문학과 다른 문화의 예술 표현으로 주제에 있다. 로마 신화는 이탈리아 민족의 신화 와 궁극적으로 인도유럽조상의 신화에서 유래한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잠재적으로 일찍이 로마의 원사 (protohistory)이지만 주로 그리스 영향 의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의 그리스 정복을 통해 로마 작가에 의한 그리스 문학 모델의 예술적 모방을 통해 직접 그린다. 로마인들은 확인 된 그들의 자신의 신들의 사람들과 고대 그리스 밀접한 역사적 같은 경우에 관련이 있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쓰여진 오비디우스의『변신』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의 판본들은 정경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신성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의식과 숭배가 일차적인 로마인보다 그리스 종교 신앙 체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마 종교에서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신화판테온에서 흡수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로마인들은 그들의 문화에 맞는 한 다른 외국 신들을 종교에 포함시켰고 마침내 12세기에 걸친 제국의 끝 무렵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이 불멸이며 하늘, 땅,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다. 로마 종교에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신과 여신은 많은 신들이 일부 일반적인 개념, 이미지, 특성 및 감정을 의인화함

으로써 확대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 종교는 매우 창의적이고 풍부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의 신 불카누스였다. 그리스의 헤파이스토스 신을 기원으로 로마인들은 그들의 불카누스를 복제해 헤파이스토스와 불카누스의 기원 이야기는 거의 같다. 불카누스는 불의 신이자 화산의 신이었고, 그는 무생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천부적인 대장장이이자 재능 있는 공예가였다. 불카누스는 인간으로서의 직업을 가진 유일한 신이다. 신체적인 아름다움으로 구별되는 다른 불멸의 신들과는 대조적으로, 불카누스는 그의 발 중 하나가 절뚝거리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도 못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헤파이스토스와 불카누스를 둘러싼 신화들은 장애와 관련된 서양 시적 전통의 초기 저작들 중 하나이다(Kerényi, 2016).

로마 신 불카누스의 장애에 관해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신이라는 설도 있고 올림푸스에서 떨어져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잔치에서 포도주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다른 신들은 불카누스를 비웃었다.

왜 로마의 신(혹은 그리스 신)은 장애를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 완벽의 육체적 화신이 되려고 했던 신들.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론을 만들어냈다. Garland는 또한 마치 보상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한다. 불카누스의 장애는 특별한 선물로 보상받았다. 이 선물은 벌컨이 "생명체를 무생물 물질에 주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갑옷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Bruce&Young, 1998)

호메로스의 일리야드에 따르면 불카누스는 올림푸스 산에서 추락하여 비선천적 절뚝거림을 일으켰다고 소개한다.[9] 어머니 헤라는 화를 내며 모인 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제 보아라, 그[제우스]는 나 외에 모든 축복받은 신들 중에서 으뜸인 밝은 눈의 아테네를 낳았다. 그러나 내가 낳은 내 아들 헤파이스토스는 모든 복된 신들 중에 연약하고 발이 마른 자로 하늘에서 내게 부끄러움과 욕을 주는 자라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잡아 내쫓아 큰 바다에 엎드러지게 하였느니라"[10]*

불카누스는 다리는 절뚝거리고 발은 기형이었기 때문에 팔의 힘과 손의 기술은 그에 상응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세계에서 재단사와 장인에서 석공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일에 고용된 많은 장애인을 볼 수 있다.

---

9) Homer, Iliad 1.600.

10) Homeric Hymn, To Apollo 310 (transl. A.T. Murray,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1924) 94-95)

2. 마르쿠스 세르지오 실루스(Marcus Sergius Silus)

제2차 포에니 전쟁(BC 218-201년)동안 군사 작전에서 오른손을 잃은 마르쿠스 세르지오 실루스는 그 뒤 왼손으로 검을 잡고 절단된 오른손으로는 방패를 잡기 위해 철제 손을 착용했고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두 번의 원정에서 실루스는 부상을 입었다. 손이나 발을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나중에 여러 전쟁에 참전했지만 장애를 얻게 됐다. 그는 한니발에게 두 번 포로로 잡혔고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0개월 동안 사슬과 족쇄에 갇힌 후 탈출했다. 네 번이나 그는 왼손으로만 싸웠고 두 마리의 말이 그의 밑에서 죽임을 당했다. 크레모나 포위전을 일으켜 플라센티아를 방어하고 갈리아에 있는 적의 진영 12개를 점령했다. 이 모든 것은 실누스가 총독직에 있을 때 동료들이 실누스의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신성한 의식에서 그를 제외시키려고 할 때 그가 한 연설에서 알 수 있다.[11)]

실루스는 자신의 용기의 영구적인 지표라고 생각하는 장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델이며, 이로 인해 자신을 주변화하려는 비방자로부터 자신을 방어 그는 의수를 처음으로 역사에 남겨진 사용자로 보조 재활에서 유명하다. 금속 의수는 그가 전투에서 방패를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실루스는 포에니 전쟁 동안 큰 역할을 했으며, 전투 기간 동안 그는 적어도 23번의 부상을 입었고 오른손도 잃었고 이를 철 의수로 교체했다. 에피로테스가 기원전 216년에 카르타고를 지원하기 위해 로마에 선전포고하고 일리리아의 로마 수비대를 진군했을 때, 한니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유능한 장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루스가 구호 부대를 이끌도록 선택되었다.

3.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제국,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조카이자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고 3대 황제 가이우스의 숙부인,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장애를 살펴보자. 고대 장애인 연구는 사료의 제한과 오랜 기간 지속된 편견으로 탐구하기에 순탄치 않지만, 개인으로 상당한 자료가 남아있는 사람은 단연코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다.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장애 사례를 로마의 장애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황제라는 특별한 위치에 현대의 시각에서도 두드러지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이가 올랐다는 사실은 충분히 역사적 제고를 해볼 만한 일이다.

클라이디우스는 기원전 10년 8월 1일 로마의 최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인 리비아의 아들 드루수스이며 어머니 안토니아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딸

11) Pliny. Natural History 7.28.104-5

이었다. 출산 이후 클라우디우스의 신체적 결함을 그의 부모가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4세의 토가 비릴리스 의식(theceremony of the toga virilis)을 전통적인 행렬 없이 자정에 비밀리에 거행됐다는 사실을 통해 부모가 그를 알리기 꺼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조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어린 소년을 동정했지만 그의 나이와 지위에 맞는 공직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조부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때때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며 실제로 클라우디우스의 장애에 대한 가장 큰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조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클라우디우스를 보호하기도 했다.[12)]

클라우디우스는 가족과 상류 계급의 로마인들로부터 고립되어 상대적으로 느긋한 생활을 하며 생애초반 40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역사와 문학 연구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역사를 142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술한 역사가 리비우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클라우디우스의 역사 연구는 에트루리아와 카르타고 역사에 관한 책 저술이 알려져 있고,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지만 남아 있는 저작은 없다.

클라우디우스가 24세였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었다. 클라우디우스는 정계 인사를 위해 그에게 접근했지만, 거액의 돈 외에 실제로 티베리우스는 그를 모욕하고 무시했다.[13)]

41년 1월 24일, 가이우스 황제가 근위대 대대장이었던 카시우스 카이레아와 코르넬리우스 사비누스, 그리고 소수의 근위병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가이우스를 죽인 직후, 근위병 하나가 활실 커튼 뒤에 숨어있는 가이우스의 숙부 클라우디우스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끌러내어 근위대 병영으로 데리고 갔고 바로 그날 그를 황제로 공포했다. 클라우디우스의 나이는 오십 세였다.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아내 아그리피나의 음모로 죽게 되는 54년 10월 13일까지 약 14년간 통치했다. 그는 의붓 아들 네로에게 뒤를 잇게 한 채 세상을 떠났다. 세네카가 쓴 것으로 알려진 작품 Apocolocyntosis divi Claudii (신성한 클라우디우스를 호박으로 만들기)에서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장애를 묘사한다.

> *"키가 크고, 머리카락에 회색이 흩뿌려진 남자. 그는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고 오른발을 끌었다."*

---

12) Suetonius, The Lives of the Caesars, 4.2.
13) Ibid. c.5.1.

VOICEYE
KOR
voiceye.com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도 클라우디우스의 신체에 관한 문제점을 기록했다.

> *"키는 크지만 호리호리하지는 않았고, 매력적인 얼굴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목이 굵었다. 그러나 걸을 때는 약간 무릎 때문에 비틀거렸고 거슬리는 점들이 많았다.… 입에 거품을 물고 콧물을 흘리곤 했으며, 말을 더듬을 뿐 아니라 머리를 늘 심하게 흔들었다."14)*

왕족인 클라우디우스의 부모는 클라우디우스를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으로 여겼고, 일반 대중과 격리되어 단호하게 훈육하는 가정교사의 보살핌을 받았다.15) 역사가들은 그가 빈번한 질병으로 인해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 보호용 망토로 숨이 막혔다고 보고한다. 이렇듯 클라우디우스는 눈에 띄는 장애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클라우디우스의 병명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까지 지속돼왔다. 오랫동안 소아마비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뇌성마비의 변종일 수 있다는 제안이 우세하다.

Leon(1948)과 Emberger(2012)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클라우디우스를 뇌성마비로 평가한다. 뇌성마비는 뇌 손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일으켜 움직임과 자세,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뇌성마비는 운동경련, 운동장애, 혼합/기타 등으로 분류된다(Emberger, 2012). 클라우디우스의 신체적 이상에는 오른쪽 다리와 아마도 팔 근육 약화로 인한 정상적이지 않은 걸음걸이가 증언됐다. 또 그는 팔다리의 떨림과 머리의 비자발적 떨림이 있었다. 클라우디우스는 거칠고 말을 더듬는 방식으로 불명확하게 말했고, 종종 입에 침이 고이고, 코가 막 뛰는 경향이 있었다. 지능은 정상이거나 약간 손상된 추체외로 변형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 복합적인 증상이 뇌성 마비의 진단에 적합하고 아마도 편마비 마비였으리라 예상한다.

A. Murad(2010)는 클라우디우스의 병명을 뚜렛 증후군으로 설명했다.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광범위한 신체 틱과 장애를 겪었으며, 이를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클라우디우스가 뇌성마비를 앓았다는 가설을 세웠다. 보행 장애, 머리 틱 및 복합 언어 장애를 기반으로 한 GTS(Gilles de la Tourette) 증후군을 앓았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문제의 원인을 현대의학 지식에 비추어 고대 역사 자료들을 재검토하여 클라우디우스가 투레트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

14) Suetonius, c. 10.1.
15) Ibid. c.2.1.

클라우디우스가 오늘 날 어떤 진단을 받았을지 단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고대 저자들은 현대 의학체계로 저술하지 않았으므로 현대 용어로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클라우디우스는 선천적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신체적 어려움은 자타가 보기에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고대에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일반적인 장애인의 지위가 높았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결함- 예를 들어 청력이나 내과 질환-이 아니고, 황제에 제위한 뒤 사고로 생긴 장애도 아닌 신체적 결함을 지닌 사람이 황제가 됐다는 사실은 분명히 고대의 장애에 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마 황제에게 군사적 업적의 의미는 매우 크다. 기원전 1세기까지 로마는 영토 팽창에 집중하였기에 황제가 전쟁에 참여하고 의미있는 공을 세워 수도 로마에서 개선식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등자가 없던 당시 말에 타기도 어렵다. 현실적인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황제로서 정복에 참여한 이력을 남기고자 브리타니아 원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육체적으로 군 업무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1세기에 로마가 이룩한 몇 안 되는 영토 확장의 업적으로 꼽히는 브리타니아 정복을 이루었다. 브리타니아 정복은 40년에 칼리굴라가 구상했지만 3년 후인 클라우디우스의 원정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격부대의 지휘는 아울루스 플라우디우스가 맡았지만, 클라우디우스도 북쪽의 갈리아 지방으로 가서 16일 동안 참여했다. 그는 카몰로두눔에서 브리타니아를 속주화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책을 결정했다. 그는 카물로두눔에 로마 시민인 퇴역병을 이주시켜 식민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 그는 로마로 돌아와 다음해에 개선식을 가졌다. 그는 원로원에서 허락한 정식 개선식을 가졌는데, 정식 개선식에서는 네 필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몰아야 했다. 그가 과연 전차를 몰 수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황제로서의 위엄을 위해 개선식은 필수적이었다.

Ⅳ. 선천적 장애에 대한 견해

의학적 진단-예를 들어 아기의 체중 측정, 현대의 정밀 검사 등-이 없는 세상에서는 정상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대한 의학적 결정은 모호했을 가능성이 크다. Edwards는 더 나아가 어린이의 기형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과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Davis, 2016).

VOICEYE
voiceye.com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애의 사례들 법적, 사회적, 철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로마인의 시선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로마법

로마법이라는 용어는 종종 로마 사회의 법 이상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법제도는 로마제국이 사라진 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민족들의 법에 영향을 미쳤고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를 들면 독일 의 많은 지역에서, 1900년 제국 전체에 대한 공통법체계가 채택될 때까지 로마법을 "보조법"으로 사용했다. 즉, 상반되는 현지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근대까지도 적용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멸망한 지 한참 뒤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이 법은 원래의 로마법이 아니었다. 그 기초는 실제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성문화된 법률인 로마법대전이였지만, 이 법률은 11세기 이후 세대의 법학자들에 의해 해석, 개발 및 수정되었으며 로마 이외의 출처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로마 공화국과 제국이 존재했던 광대한 기간 동안에는 많은 법적 발전 단계가 있었다. 공화정 시대(기원전 753~31년)에 민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중반에는 또 다른 유형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만민법은 로마인들이 그들 자신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발했다. 만민법은 입법의 결과가 아니라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정의를 집행 할 책임이 있는 치안 판사와 총독에 의해 발전이 되었다. 만민법은 큰 범위로 된 유연한 법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 치안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다른 고대 체계와 마찬가지로 로마법은 원래 시민의 원칙, 즉 국가의 법은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들은 권리가 없었고, 그들의 국가와 로마 사이의 어떤 조약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로마인에 의해 소유자가 없는 재산처럼 압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상호 보호를 보장하는 외국과의 조약이 있었다.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로마의 증가하는 상업적 이익으로 인해 로마는 어떤 형태의 정의를 통해 국경 안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을 보호해야 했다 . 치안 판사는 로마법을 단순히 시민의 특권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외국인들은 아마도 초기의 성가신 형식주의에 반대했을 것이다.

12표법은 장애아를 보통 돌팔매로 사형시켜야 한다는 법이 포함되어 있었다.[16] 또한 디오니시오스는 도시의 설립자 로물루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언덕에 유기하도록 요구 했

16) Lucilius, The twelve tables 4.3

다고 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세기에 이르러서야 점차 흔하지 않게 되었고, 부모가 장애가 있는 유아를 돌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기원후 374년 로마에서는 유아 살해가 중죄가 되었다.[17)]

최초의 법률 텍스트는 기원전 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12표법이다. 8년 간의 정치적 투쟁 끝에 평민의 사회 계급은 귀족들 에게 솔론 의 법칙 을 베끼기 위해 아테네 로 대표단을 보내도록 설득했다 . 그들은 또한 비슷한 이유로 대표단을 다른 그리스 도시에 파견했다. BC 451년에 10명의 로마 시민이 법률을 기록하도록 선택되었다. 그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은 최고의 정치 권력을 부여받았지만, 치안 판사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기원전 450년에 10개의 서판(tabulae)에 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은 평민들에게 불만족했고 두 번째 십인위원회는 기원전 449년에 두 개의 서판을 더 추가했다. 이 새로운 십이표 법이 인민의회에서 승인되었다.

현대 학자들은 라틴 역사가 들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십이표 법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451년의 관습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을 포함했으며 로마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믿었다. 게다가, 초기 로마법에 대한 그리스의 영향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이 논의된다. 많은 학자들은 라틴 역사가들이 믿었던 것처럼 귀족들이 그리스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그 학자들은 로마인들이 로마와 그리스 세계 사이의 주요 관문 인 그리스 도시 마그나 그라에키아(Magna Graecia)에서 그리스 법률을 획득했다고 추측한다. 현재 십이표법의 원본은 보존되지 않기에 의문은 더욱 강해진다. 서판은 기원전 387년에 로마가 갈리아 에 의해 정복되고 불태워졌을 때 파괴되었을 것이다.

살아남은 파편들은 이 서판이 현대적 의미의 법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적용 가능한 모든 규칙에 대한 완전하고 일관된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법적 해결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십이표법에는 당시 존재하는 관습법 을 변경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법률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법 및 민사 소송에 집중한다.

로마법은 주로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초기 로마시대에 지적 결핍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 관리를 도울 보호자를 제공받았다(Winzer, 1993).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해 군대에서 일찍 은퇴하도록 강요받은 군인들은 로마 국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에 그들의 시간을 다 보낸 퇴역 군인들과 같은 특권을 누렸다. 법적으로 두 퇴역 군인 그룹은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여 생활했다.

---

17) C. 1, Cod. Theod. III 3

VOICEYE
voiceye.com

2. 고고학적

고대 그리스 연구보다 고대 로마 연구를 위한 자료와 출처가 훨씬 더 많다. 대부분의 로마 출처는 지배 엘리트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하층 계급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고대 로마를 연구할 때 주의 깊게 밟고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만 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계를 이해하고 구조의 취약성과 모순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고대 세계에서 신체 장애인의 이러한 증거 발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발적이다. 오늘날 신체 및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의학적 합병증에 직면하는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도 그러했다. 고대 로마에서 영유아나 부모가 장애아동을 테베레강에 던졌다는 소문은 과장일 수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에 대한 물질적 증거는 고전 및 고고학 분야의 장애 연구를 촉진시킨다. 고대 세계에서 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희소한 고고학적 증거는 대부분 의도적인 수색보다는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된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난쟁이들과 꼽추들이 행운의 화신으로 보여지고 몇몇 운 좋은 맹인들이 선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또한 제한적으로 보인다. Lisa Trentin는 연구에서 장애인의 역사적 주변화에 대한 기사로 실렸다. 그녀의 연구는 고대에 이러한 상태를 시각화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구로 간주된다. 고대의 상징인 '고전적인 몸'에 초점을 맞춰 모자이크, 작은 조각상, 도자기, 벽화, 조각, 고전 문헌에 묘사된 척추 후만증으로 알려진 "꼽추"의 시각적 표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물품들을 공공 및 사적 공간에서 볼 수 있기에 신체에 대해 생각할 때 고대 장애인의 삶이 고대 문헌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더 다양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고고학에서 고대 장애는 더 연구해야할 분야이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장애인의 존재와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적 부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점은 오늘날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계의 현실은 고고학자들이 신뢰성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연구 역시 고고학과 고전에서 전통적으로 다른 문화적 발견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과되었을 수 있다. 이것은 학계의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억제제로서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드러낸다.

고고학자들은 서기 3세기 로마 묘지(Minozzi et al. 2015)와 신석기 시대의 다운 증후군 환

자의 우상(Diamandopoulos et al. 1997)에서 거인의 증거를 발견했다. 다운 증후군을 나타내는 다른 골격 발견으로는 프랑스의 어린이 해골, 독일의 여성의 시체, 인신 희생의 예가 될 수 있는 로마의 습지 지역의 여성 해골이 있다(Czarnetzki et al. 2003). 자폐증과 같은 다른 지적 장애는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더 어렵다.

고전학자들이 장애에 대한 전체론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골격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헌은 이 하위 영역의 출처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재량권이 필요하다. 지적 장애는 고대 세계에서 의학적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료에 장애나 기형과 같은 현대적 단어가 없다. 예를 들어 라틴어 로 누군가를 말괄량이 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지적 장애가 있거나 단순히 세련되지 않은 사람을 암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특성에 의존하는 것조차 까다로울 수 있다 .

Goodey와 Rose는 “정신 상태, 신체 성향 및 식사 예절”이라는 기사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바보”와 같은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고학적 발견은 종종 예측할 수 없고 우연한 일이지만, 고전주의자들은 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그러한 어휘를 포함하는 문헌을 찾기 위해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사료에 나타난 장애관

장애의 범주 확실히, 노동이라는 용어조차 일반적으로 고대 로마 세계에 단순히 겹쳐질 수는 없다. 고대 법학자들에게 노예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주인들이 명령한 일을 했을 뿐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고통이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고대인들은 이해했다. 이러한 해석은 기능적 손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매우 가깝다. Galen은 질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질병은 자연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상태로 정의되며, 따라서 기능을 저해한다.”[18]

18) G. (Galen, De sanitate tuenda 1.5 [6.18 Kühn])

VOICEYE
voiceye.com

반대로, 그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아무런 고통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강이다."*[19]

질병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육체적 건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의 어떤 상태로 정의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기나 열은 몸 전체의 질병이다. 예를 들어, 실명은 어떤 부분의 질병이다. 비록 사람은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지만 결점과 질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말장난하는 사람]과 같이, 이것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흠이기 때문이다.

몇몇 유럽 언어에서 stoic이라는 단어는 불평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부를 때 사용된다. 금욕주의적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사용은 고대 기독교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학파 중 하나의 복잡성에 대한 매우 피상적이고 극히 좁은 해석에 불과하지만 불행에 대한 인내(또는 방해받지 않는) 것은 실제로 스토아 철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무감각(또는 무감각)은 스토아 철학자 개개인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비르사피엔스(Virsapiens)라고 부른다. 불행을 견디는 것(constantia)은 도덕적인 힘(fortitudo)의 중요한 측면이며 신들이 우리의 기대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은 일반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며 스토아 철학자들의 눈에는 실제 가치가 없는 이른바 무차별(무관심한 것)의 영역-자신의 삶, 평판, 건강, 빈곤, 사회적 지위 등-에서 발생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의 죽음이나 친구들의 죽음을 눈물 흘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신적 육체적 장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장애를 무차별화로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소세네카의 신성한 클라우디우스를 호박으로 만들기에서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장애를 조롱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심신 구별에 대한 스토아 학파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고 게다가 나는 소세네카 와 같은 중요한 스토아 철학자가 명시적으로 신체 손상을 조롱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구별의 양립성을 탐구할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 고문, 죽음, 질병 또는 심신 장애와 같은 불행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

19) Digest 21.1.1.7 Ulpian; trans. S. P. Scott)

평하는 대신 오직 덕에만 관심을 갖는다(Lagrée 2010: 150).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불행은 악이 아니며 나중에 우리가 그것들을 검사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Lagrée 2010: 157). 이 관점에 따르면, 소세네카는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썼듯이, 육체보다 도덕적 미덕이 훨씬 더 중요하다.

> *"나는 너무 크고 내 몸의 노예가 되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어. 내 몸은 내 자유가 구속되는 사슬의 일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행운에게 이 몸을 바칩니다. 행운은 나를 방해할 수 있지만, 그 몸을 통해 어떤 상처도 나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무엇이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그게 내 몸이야. 이 허약한 집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살고 있다. (…) 네 몸을 경멸하는 것은 자유가 확실하다."(Seneca, Epistulae Morales 65.21-2)*

건강한 신체는 일반적으로 스토아 철학자가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철학자가 갑자기 특정한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세네카의 논평은 남아있다.

> *"병이나 적이 손을 뗐을 때, 사고로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을 잃었을 때, 남은 것은 그에게 충분할 것이고, 그의 약하고 훼손된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신의 몸이 다치지 않은 것처럼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가 놓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이것들이 없어진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Seneca, Epistulae Morales 9.4)*

물론 요점은 '모든 것이 현자에게 유용하지만, 그나 그녀의 몸을 포함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1세기)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동료 시민의 공격으로 눈을 잃은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지도자 리쿠르고스(기원전 6세기)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악행을 용서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리쿠르고스는 이 젊은이를 포로로 잡아두고 그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를 잘 대해주었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켰다. 결국 그는 이 젊은이를 스파르타로 돌려보냈다.

미덕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는 장애인을 비웃지 않는다. 그는 삶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웃을 뿐이다. 이러한 조롱이나 웃음은 우월감을 동반하거나 주장을 펼칠 필요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일어나야 한다.

소 세네카에 따르면, 인생은 증오, 시기 또는 경멸을 피하는 것이고, 유일한 목적은 앞서 언급

KCI VOICEYE voiceye.com

했듯이 미덕을 달성하는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동료 인간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데서 비롯되는 도덕적 비난 외에도,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이 그가 할 수 있을 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고대 우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상식이다. 그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세네카는 칼리굴라 황제가 그의 힘없는 목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조롱했던 카시우스 채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채레아는 더 이상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고, 본질적으로 황제에게 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침착해야 하고 왜 모욕을 당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심지어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유일한 사람은 모욕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욕자라고 주장한다. 에픽테투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라고 충고하는 반면, 세네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한 농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소크라테스를 따라 당신을 비웃을 때 함께 웃는 것이 좋은 생각한다.

모욕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걸음걸이를 따라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체나 언어의 어떤 손상이나 행동을 모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 *"마치 우리가 보여줄 때 보다는 누군가가 따라 할 때 더 잘 알려질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노령, 백발, 그리고 사람들이 성취하고 싶어 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제에서 벗어나면 뻔뻔스러운 사람들과 여러분을 모욕함으로써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제를 빼앗긴다. 자기 자신의 웃음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웃음을 주지 않는다."*[20]

V. 결론

이상으로 고대 로마의 장애인과 장애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의 본질을 이해하는 역사적 의미를 인식했으며, 이후 연대기 및 지리적 범위에 걸친 많은 장애 역사가 발생하여 장애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조사했다. 고고학적 증거와 사료들은 로마에 고대 장애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준다.

---

20) Seneca, De Constantia 17.2

앞서 언급한 역사학자들은 장애인들이 외면당하거나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로마 사회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기형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로마인들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긴 측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역사적 소수자인 장애인을 주제로 연구한다는 것이 사료적 한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능동적이고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 연구의 착수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대의 소외와 차별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모델과 장애에 대한 후속적인 이해가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함의 중 하나는 사회가 장애를 교차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대우해 온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Borsay(2017)는 장애의 역사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지금껏 장애의 역사가 결핍된 이유를 학문으로서 역사학의 맥락에서 찾고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간의 경계는 오늘 날 보다 훨씬 희미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학자들은 사회 변화 과정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의 역사를 다루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과 학문의 틀이 강해졌고 '보편 법칙적'접근법과 '개별 기술적' 접근법으로 나눠졌다. 이후 사회학은 보편 법칙적인 방법론을 통해 "특정한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을 찾았고, 개개의 사건들을 통합시켜 인간을 뛰어넘는 구조를 발견하려 애썼다. 반면 역사가들은 개별 기술적인 방법론을 추구했는데 보편적이기 보다는 특수한 것을,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사회의 구조보다는 행위 주체자를 조사했다. 따라서 역사학적 방법론이 사회과학자들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린 점과 역사학 내부에서도 전문분야 중에 사회사가 뒤늦게 발전한 점, 그리고 장애인의 차별이 학문적 토론의 장 내에도 영향을 미친 점 등 세 가지를 들어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장애 연구 미진 분야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고대 장애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하고 싶은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장애 분류별 차이점에 관해 더 상세하게 연구되길 바란다. 이 논문에서는 장애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차이와 인식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아쉽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 분류와 그 생활 상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고대사 내에서의 비교는 어떤 점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른 혹은 더 늦은 자료들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의 변방인 팔레스타인이나 브리타니아와 같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KCI VOICEYE voiceye.com

비해 사료의 양이 많은 편이기에 수도 로마의 상황과 비교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서 다른 지역과 종교 간의 장애관을 살펴보는 일은 현존하는 사료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고고학과 고전학 분야는 장애인을 인간 경험에 대한 연구에 통합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실사를 통해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해당 분야에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의 중요성을 옹호한다.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진 다른 주제로 대체해야 하고 따라서 더 큰 관심과 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학계의 다양성과 포괄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가 증가함에 따라 고전 및 고고학 분야의 장애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구의 인식과 권리를 발전에 기여한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광범위한 인구 중 하나인 장애는 일반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교육, 경제, 정치 및 사회적 기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다양하고 번영하는 문화를 촉진하는 자신의 기관에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기여한다.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 환경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거나 그들의 참여와 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장애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참고문헌

차영길. (2010). 고대 로마의 임신과 피임에 대한 이론과 실제. 역사와경계, 76, 233-58.

Barnes, Colin, Michael Oliver, Len Barton, Gary L. Albrecht, Carol Thomas, Bill Hughes, Ayesha Vernon, et al. (2017).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서울: 그린비, 179.

Abrams, Judith. (2010). This Abled Body: Rethinking Disabilities in Biblical Studies. *JSTOR*.

Albrecht, Gary L, Ray Fitzpatrick, and Susan C Scrimshaw. (2003). The Handbook of Social Studies in Health and Medicine.

Sage, Aristotle. Politics.

Bruce, Vicki, and Andy Young. (1998). In the Eye of the Beholder : The Science of Face Perception. *Oxford university press.*

Byrne, Eugene Hugh. (1910). Medicine in the Roman Army. *The Classical Journal 5*, no. 6: 267-72.

Campbell, Brian, and Lawrence A Tritle. (2013). The Oxford Handbook of Warfare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Cicero. On the Laws.

Czarnetzki, A, N Blin, and CM Pusch. Down's Syndrome in Ancient Europe. (2003). *The Lancet 362*, no. 9388 : 1000.

Davis, Lennard J. (2016).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Routledge.*

Dettwyler, Katherine A. (1991). Can Paleopathology Provide Evidence for "Compassion"?".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84*, no. 4:375-84.

Diamandopoulos, AA, KG Rakatsanis, and N Diamantopoulos. (1997). A Neolithic Case of Down Syndrome?.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6*, no. 1 : 86-89.

Draycott, Jane. (2020). Disabilities and the Disabled in the Roman World: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by Christian La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94*, no. 1: 135-37.

———.(2015). Reconstructing the Lived Experience of Disability in Antiquity: A Case Study from Roman Egypt. *Greece & Rome 62*, no. 2 : 189-205.

Emberger, Peter. (2012). Kaiser Claudius Und Der Umgang Mit Behinderten Zur Zeit Des Julisch-Claudischen Kaiserhauses. In Behinderungen Und Beeinträchtigungen/Disability and Impairment in Antiquity, *Studies in Early Medicine 2, Bar International Series 2359*, 75-83, Homer. Iliad.

Kerényi, Károly. (2016). The Gods of the Greeks. *Pickle Partners Publishing,*

Kohl, Marvin Ed. (1978). Infanticide and the Value of Life. *Prometheus Books,*

Krigger, Karen W. (2006). Cerebral Palsy: An Overview. *American family physician 73*, no. 1 : 91-100.

Laes, Christian. (2014). Beperkt. *Gehandicapten in het Romeinse rijk.*

Leon, Ernestine F. (1948). The Imbecillitas of the Emperor Claudius. Paper presented at the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Minozzi, S, W Pantano, P Catalano, F Di Gennaro, and Gino Fornaciari. (2015). The Roman Giant : Overgrowth Syndrome in Skeletal Remains from the Imperial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25*, no. 4 : 574-84.

Murad, Ali. (2010). A Neurological Mystery from History: The Case of Claudius Caesar.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19*, no. 3 : 221-27.

Nutton, Vivian. (2016). Roman Medicine: Tradition, Confrontation, Assimilation. *De Gruyter.*

Petersen, Hans-Christian, and Sönke Zankel. (2003). Werner Catel—Ein Protagonist Der Ns-„Kindereuthanasie. Und Seine Nachkriegskarriere/Werner Catel—a Protagonist of the Nazi Programme for" Euthanasia of Children and His Career after World War Ii. *journalname* : 139-73.

Plato. The Republic.

Pliny. Natural History.

Plutarch. Agesilaos.

———. Lycurgus of Sparta.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Discourse on the disabled in ancient Rome

Lee Jin Sil*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disability of ancient Rome and shed new light on its perception. It is intended to answer the prejudice that ancient people with disabilities we re perceived only as objects of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and to deliver a new perspect iv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knowledge. In the case of congenital disabilities, there were many abandonments of infants abandoned by their families. As this abandonment of infants is deeply embedded in the ancient image of the public, we look closely at the birth of childbirth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will study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congenital diso rders that ancient Roman society had. Their stories will provide clu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ancient disabled. Through various source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existence and life of disabled survivors in ancient Rome. Archaeological evidence and historical sources cle arly inform Rome of the existence of ancient disabled people. They, too, tried to argue that they were playing a role within Roman society. It studies the Roman definition of the body at that time and the gaze toward disease and dis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 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study of disability histor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lways existed throughout history and that we have always bee n active and important members of society, not just passively cared for. Through this paper, I hope to help understand new disabilities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ancient disabilities, w hich is an insufficient research field.

Keywords : ancient Rome disability view

* Master's course in Western Dictionary, Pusan University

VOICEYE
voiceye.com
KOR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383 - 421

SNS 이모티콘 시장의 동등한 소비자로서 시각장애인 : 사운드콘과 대체텍스트를 중심으로

임현우*·강은교·김도현***·유우연******

본 연구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데 소외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이모티콘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르게 보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이모티콘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시각장애인이 기존의 이모티콘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 주체로서 이를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크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로, 시각장애인의 SNS 및 이모티콘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대표적인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의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의 유용성을 인식하였다. 둘째로, 화면 음성 해설 및 자막 제작 회사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 한글을 점자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배리어프리한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영학적 비용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대 비장애인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콘 및 대체 텍스트가 적용된 이모티콘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으며, 이들이 보다 배리어프리한 SNS 환경을 구축하는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이모티콘에 사운드콘과 대체 텍스트를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기존 이모티콘 시장에 동등한 소비자로서 활발하게 참가하는 데, 더 나아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 이모티콘 사용에 있어 제한받았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일종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 관한 추가 연구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시각장애인, 이모티콘, 경영학적 분석, 유니버설 디자인, 사운드콘, 대체 텍스트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SNS 활용에 있어 소외되는 시각장애인

(1) SNS 활용 실황 및 시각장애인 현황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일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약 93.1%로 집계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도 크게 늘었다. 장애인 역시 이러한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 장애인 스마트폰 보유율은 84.7%로 비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보다는 낮지만, 전년 대비 7.9%가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서비스(이하 SNS) 이용률은 91.2%로 비장애인의 91.2%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에 더해, 시각장애인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등록 현황(2020)에 따르면 전맹과 부분 맹 모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은 252,324명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이는 90,997명이었던 2000년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또한, 우리나라에서 색각이상이 있는 자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2020)에 의하면, “전체 남자의 5.9%, 전체 여자의 0.4%”로 전체 인구 중 약 163만 명이 색각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색각이상이 흔한 증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시각장애인과 색각이상이 있는 자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역시 다양한 SNS를 이용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계성 형성(자기표현)에 있어서 이모티콘의 기능과 가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SNS의 사용 또한 대중화되면서, 대표적인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모티콘으로, 이는 문자와 그림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결합하여 만든 기호이다. 이모티콘은 비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언어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이모티콘을 활용함으로써 상대를 실제로 마주한 것과 비슷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박현구(2005)에 의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온라인

대화에서 글쓴이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여, 이모티콘이 감정 전달에 효과적인 도구이며, 더 나아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p. 295). 이는 비단 비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각장애인 또한 다양한 SNS에서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조 장치를 이용하여 이모티콘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이모티콘 고유의 가치를 토대로 이모티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이모티콘 시장의 규모는 3,000억~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등록된 이모티콘 상품은 1만 건 정도로 매달 3,000만 명이 24억 건의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SNS상에서의 보조장치 현황

앞서 간단하게 서술한 바와 같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역시 SNS를 활용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 이현미 외(2012)에 의하면 “SNS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해당하는 관계성은 시각장애인들이 서로 관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 이것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하였다(p. 43). 다시 말해, 이들도 SNS의 다양한 효용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장애인의 높은 SNS 이용률은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모바일 접근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이 SNS를 사용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SNS상에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생생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모티콘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소외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모티콘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만큼은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4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시각장애인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시각장애인 이경호 씨의 1인 시위에도 카카오 측에서는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1년 뒤 카카오 측은 접근성 TF를 꾸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모티콘에 한정하여 대체 텍스트를 마련했다. 180여 가지의 캐릭터에 이름, 표정을 설명해주는 것에 불과한 현 서비스는 급격히 성장하는 이모티콘 시장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비슷하게, 애니메이션과 문구가 결합해 만들어졌던 기존의 이모티콘에 소리를 더하여 제작된 사운드콘은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이모티콘은 그 개수가 많고 다양하여 상황에

VOICEYE
voiceye.com

적합한 이모티콘을 골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운드콘은 기존의 이모티콘에 비해 다양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마저도 대다수가 의성어를 표현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을뿐더러, 시각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신정은, 윤주현, 2019). 이 때문에 이는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정보 전달을 방해하여 다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계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 관한 연구는 발달장애와 청각장애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박상아(2021)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각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수화티콘을 제안했고, 김한얼(2019)은 설문을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의 SNS상 의사소통 정도를 연구해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모티콘과 줄임말을 비장애인과 매우 유사하게 사용함을 확인했다. 김화수(2019)와 신수연(2019)은 각각 발달장애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모티콘을 활용한 의사소통 정도를 연구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이해력 부문에서만 발달장애 집단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인식과 사용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청각장애와 발달장애의 경우 이모티콘 사용에 있어 대체로 비장애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관련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으나,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활용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SNS상의 이모티콘 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법인은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SNS상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모티콘은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처리된 비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모티콘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이모티콘 제작자와 이를 배포하는 법인의 명백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모티콘 시장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이모티콘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므로 이모티콘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카카오를 비롯한 SNS 플랫폼이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 있어 존재하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장애인의 이모티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매우 큰 데 반해 시각장애인의 수요는 적은 상황이므로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서 고려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업계에서 이모티콘 소비자로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섣부른 법적 규제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 사업자와 SNS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한 사운드콘과 대체 텍스트의 확대 적용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이모티콘 시장에서의 시각장애인의 지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운드콘의 확대 적용이 가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사운드콘과 대체 텍스트의 도입이 기존 비장애인 소비자에게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인지를 탐구하여 유니버설 이모티콘에 대한 경영학적 가치와 실제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시각장애인의 소비자로서 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연구 문제로 삼는다.

3. 연구목적 : 동등한 소비자 주체로서의 시각장애인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서 날로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과 SNS 시장, 그 안의 이모티콘 시장에서 시각장애인은 카카오톡 기본 이모티콘에 대한 대체 텍스트만을 보조 장치로 지원받고 있어, 동등한 소비자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서비스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이모티콘 시장의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이 이모티콘 소비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모티콘 시장의 새로운 확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VOICEYE
voiceye.com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 비장애인

유니버설 이모티콘의 시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이모티콘 시장의 주축인 2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0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을 표집했다. 설문에 응답한 20대들은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특성이 있으며, SNS를 이용하며 이모티콘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이모티콘의 주 소비자층이다.

이와 함께 연구 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도구에 대한 검증 및 유니버설 이모티콘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2)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소비에 대한 기본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20대 시각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모티콘의 형태는 보이나 캐릭터의 구별은 불가능한 정도의 저시력을 가지고 있어 이모티콘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선정했다. 시각장애인마다 시력의 차이가 다르므로 이모티콘 사용 정도 등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기존 이모티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의 형태의 단서를 얻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는 대면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2. 연구 도구

1)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표 1〉 비장애인 대상 사운드콘 및 대체텍스트 관련 질문지

	질문		응답
카카오톡 이모티콘 및 사운드콘 관련	1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2	귀하께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질문		응답
카카오톡 이모티콘 및 사운드콘 관련	3	귀하께서는 유료 이모티콘을 몇 개 보유하고 계십니까?(2번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 대상)	1~2개 / 3~4개 / 5~6개 / 7개 이상 / 이모티콘 플러스 사용 중
	4	귀하께서 이모티콘을 구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번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 대상)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부족함 /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모티콘으로 출시됨 / 유행에 따라가기 위함 / 기타
	5	귀하께서는 '사운드콘'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십니까?(2번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 대상)	예 / 아니오
	6	사운드콘은 이미지에 소리가 결합된 이모티콘입니다. 귀하께서는 음성 기능 적용이 확대되어 많은 이모티콘이 사운드콘으로 전환된다면 이를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7	귀하께서는 사운드콘의 음성 기능이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8	귀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콘이 확대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ex. '기분 좋아', '슬퍼', '화 나' 등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운드콘 등)	예 / 아니오
	9	귀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콘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이모티콘과 동일한 가격(약2,000원) / 기존의 사운드콘과 동일한 가격(약 3,000원) / 기타
	10	귀하께서는 어떤 소리가 결합된 사운드콘이 사용에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성어 중심(으악, 하하) / 감정표현 중심(행복해, 슬퍼) / 기타
	3	귀하께서 이모티콘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2번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 대상)	가격이 비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으로 충분함 / 구매 방법이 어려움 /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음
	4	귀하께서는 이모티콘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번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 대상)	저렴한 가격 / 구매 방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 / 더 다양한 디자인의 이모티콘 출시
	5	귀하께서는 '사운드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2번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 대상)	예 / 아니오

	질문		응답
대체 텍스트 관련	1	귀하께서는 대체 텍스트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2	대체 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글이나 문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대체 텍스트가 시각장애인의 SNS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3	현재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에 한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수줍수줍 라이언 움직이는 이모티콘) 이러한 대체 텍스트가 기본 이모티콘 외에도 확대 적용된다면, 귀하께서는 이모티콘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4	귀하께서는 대체 텍스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이모티콘과 동일한 가격(약 2,000원) / 기존의 이모티콘보다 비싼 가격 / 기타
	5	대체 텍스트가 확대되어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을 때, 대체 텍스트를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2) 경영학적 가치 분석을 위한 도구

〈표 2〉 아이디어 비용 분석표

비용항목				
이모티콘 제작비	대체텍스트 콘텐츠 제작 비용	대체텍스트 삽입 비용	TTS 활용 음성 삽입비	총 비용
200,000	0	6,000	4	206,004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모티콘 사용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크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SNS 및 이모티콘 사용 실황,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의 유용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화면 음성 해설 및 자막 제작 회사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 한글을 점자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SNS 사용에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한 이모티콘의 연관성, 효용 및 비용 분석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콘, 대체 텍스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에 대한 수요, 보다 배리어프리한 SNS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니버설 이모티콘이 갖춰야 할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모티콘의 유니버설 디자인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유니버설 이모티콘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니버설 이모티콘에 대한 잠재적 소비성을 측정하기 위한 경영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Ⅲ. 연구결과

1. 이모티콘 시장의 소비자로서 시각장애인 :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포섭

1) 유니버설 디자인

(1) 유니버설 디자인과 실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따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eople)'으로서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제약받지 않고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디자인이다. 수많은 유니버설 디자인들이 일상으로 포섭되었으며, 경사로, 수도꼭지, 손잡이 등이 대표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제시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의 경사로는 일차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을 보장한다. 이차적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갖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VOICEYE
voiceye.com

이외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경사로를 통한 편리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효용의 대상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그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적이기도 하다.

국내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건축 분야 위주로 다뤄져 왔다. 화성시는 2008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진행해나가고 있고, 서울시 역시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통과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려고 노력 중이다. 각 지자체 역시 조례를 제정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공간 차원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에서는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변화에 대해 물리적 장애의 해소 및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평가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시설 관련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의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도 요구되지만, 물리적 접근성만큼 보장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시각장애인과 정보 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약자로 남아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논의만큼 온라인 공간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정보 약자로 남아있는 온라인 속 SNS 공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감정표현의 수단으로서 이모티콘의 유니버설 디자인적 요소를 살펴보고, 유니버설 이모티콘의 효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모티콘의 유니버설 디자인적 요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유니버설 디자인센터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체화해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7원칙의 핵심은 누구나 공평하게,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융통성과 포용력을 갖춘, 그러면서도 효율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이모티콘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되는 도구로서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고 위험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 측면에 있어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에 착안해 이모티콘의 시각·청각·촉각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

출처: 충북 복지넷

① 시각

모든 이모티콘은 시각적 요소를 포함한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이모티콘 디자인에 관한 연구(신정은, 윤주현, 2019)'에서 43.4%의 사람들은 더욱더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캐릭터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대화의 즐거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 연구에서 43.4%의 사람들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36.2%의 사람들은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결국, 사람들은 관계 형성 및 자기표현을 위해 이모티콘을 활용한다. 그러한 작용 과정에서 시각적 요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기존 1세대 이모티콘인 텍스트 기반 이모티콘은 시각적 요소의 자극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채로운 시각적 요소를 SNS상에 담을 수 있게 되며 사람들은 이모티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카카오톡은 매달 50개 이상의 이모티콘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은 더욱 다

VOICEYE voiceye.com

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이모티콘은 캐릭터를 통해 감정과 상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이모티콘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일반적인 크기의 이모티콘보다 큰 크기의 이모티콘 유형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크기의 이모티콘은 360×360 PX인데 반해, 큰 이모티콘은 540×540 PX 크기로 일반적인 이모티콘보다 약 2배 크다. 크기 변화를 통해 시각적 요소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자기표현과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이모티콘은 그 기능의 고유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수반한다.

② 청각

청각적 요소도 이모티콘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시각적 요소만을 활용하는 이모티콘에서 벗어나 청각적 요소도 이모티콘에서 활용된다. 흔히 사운드콘으로 불리는 소리 나는 이모티콘은 청각적 요소를 통해 더욱 직관적인 감정과 다양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전체 이모티콘 순위에서 33위를 차지하는 '니나니뇨 야코의 속마음'과 50위를 차지하는 '호롤롤로 야코의 입방정'은 모두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결합한 사운드콘이다. 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 더욱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직관적이고 다각화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촉각

촉각적 요소는 시각적·청각적 요소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시각과 청각과는 달리 다양한 상황을 함축하지 못하는 촉각이기에 이모티콘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촉각을 활용한 이모티콘은 '택타일 아이콘'으로 정의되며 진동패턴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2007년 '진동패턴을 이용한 감성정보 표현의 극대화'에서 제안되어 이론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상용화 단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촉각적 요소도 이모티콘의 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였다. 이모티콘 활용에 있어 촉각도 제한적인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2) 시각장애인의 SNS 활용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능성

2014년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에 대하여 캐릭터의 이름과 표정을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를 적용했다. 국내 주요 SNS에서 시각장애인이 이모티콘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이모티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장애인은 기본 무료 이모티콘에 한하여만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대체 텍스트 도입에만 의의를 두었고 그 뒤로 별다른 발전이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은 이모티콘 시장의 동등한 소비자로 여겨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나 연구 또한 전무한 상황으로 일단 연구를 위해서는 인터뷰 방식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 실황을 파악해야 했다. 시각장애인의 SNS상에서 이모티콘 사용의 실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고, 답변에 따라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시각장애인이 SNS를 이용할 때에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다른 SNS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지만 사진, 이모티콘 등의 그림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일일이 제공되지 않는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카카오톡 기본 이모티콘의 사용 여부와 여기에 제공되는 대체 텍스트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평소 이모티콘을 대화 내용을 보충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대체 텍스트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기본 이모티콘 외에도 직접 이모티콘을 구매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두 개의 사운드콘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한 개의 선물 받은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지만, 선물로 받은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모티콘으로 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첫째, 시각장애인도 이모티콘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모티콘에 대한 구매 수요가 있고, 둘째,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은 사운드콘과 대체 텍스트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운드콘과 대체 텍스트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이 이모티콘 시장에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각각의 도입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단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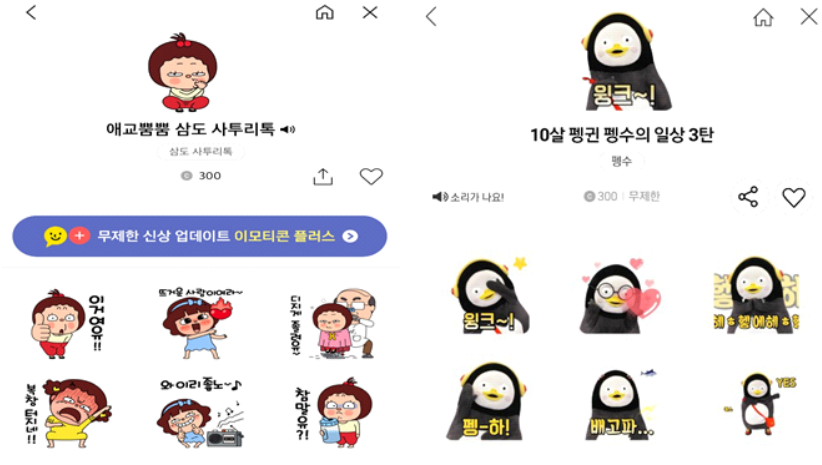
3) 유니버설 디자인 : 사운드콘

사운드콘이란 그림 이미지로 이루어진 이모티콘에 자체적인 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모티콘 발신과 동시에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 소리가 제공되며 이모티콘을 누를 때마다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 이모티콘 시장이 확대되면서 차별화된 이모티콘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리를 입힌 사운드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사운드콘의 경우 이모티콘 구매 창에 '소리가 나요!'라는 표시가 있으며 구매 전에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운드콘은 시장에서 일반 이모티콘보다 1,000원 정도 비싼 3,000원대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사운드콘은 기존 시각적 이미지만을 제공하던 이모티콘과는 달리 소리를 통해 상황을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하다. 사운드콘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에 어느 정도

KOR VOICEYE voiceye.com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리가 나는 사운드콘이 그렇지 않은 이모티콘과 비교하여 인식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 질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시각장애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림 이미지로만 된 기존의 이모티콘은 대체로 인식하기가 힘들어 사용하기 쉽지 않으며, 전맹이나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저시력이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소리가 있는 사운드콘이 유용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일반 이모티콘에 소리가 적용되어 출시된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림 2〉 카카오톡 사운드콘 예시

출처: 카카오톡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사운드콘은 제공되는 사운드에 따라 의성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운드콘과 상황을 설명하는 대사 중심의 사운드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이모티콘은 인터뷰 대상자가 실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2가지의 사운드콘이다. 왼편의 '애교뿜뿜 삼도 사투리톡'에 담긴 사운드는 '이거여유', '디지게 졸려유', '와 이리 좋노', '언능 해라' 등 직접적인 대사를 캐릭터의 목소리로 구현한다. 반면 오른편의 '10살 펭귄 펭수의 일상'에 담긴 음향은 '신이나', '가만 있어 봐', '안 되겠네! 이거' 등의 상황 설명이 담긴 대사도 있지만 윙크하는 소리를 표현하는 '찡긋'처럼 의성어로만 된 음향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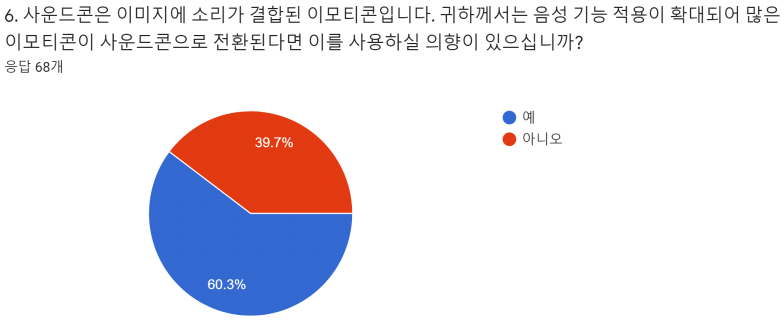
두 종류의 사운드콘 중 상황을 설명하는 대사로 구성된 사운드콘이 의성어 중심의 사운드콘보다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위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직접적인 대사로 되어 있는 왼편의 사운드콘을 의성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오른

편의 사운드콘보다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의성어로 되어 있는 사운드콘의 경우 소리만으로는 인식이 쉽지 않고 이모티콘의 맥락을 잘못 파악해 사용하게 되면 원래의 발화 의도와 달라져 대화 상대방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각장애인이 소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사운드콘이 존재하며, 사운드콘 중에서도 의성어보다는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대사를 제공하는 디자인의 사운드콘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운드콘은 제작에 드는 수고와 비용이 일반 이모티콘보다는 비교적 많이 들기 때문에 이모티콘 시장에서 아직 보편적인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운드콘이 의성어 중심으로 소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상황 설명이 담긴 소리를 제공하는 사운드콘의 확대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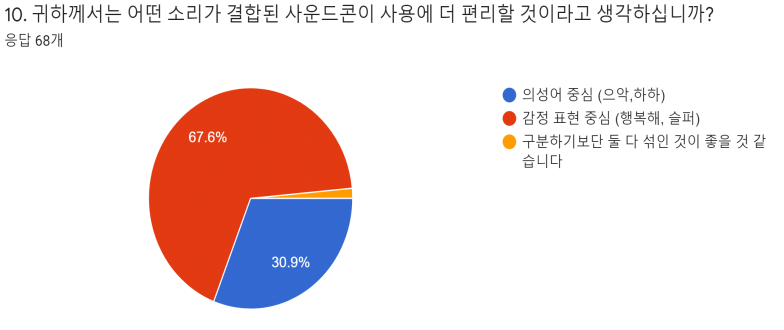
이러한 이모티콘 디자인의 확대 적용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누구나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모티콘을 소비하도록 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상황 설명 중심의 사운드콘은 전맹 또는 저시력의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자체에 대하여 비장애인보다 낮은 이해력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모티콘 시장에서 역시 소외되어왔던 고령 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신정은, 윤주현, 2019)에 따르면 고령 세대는 그들에 맞는 이모티콘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60대가 가장 선호하는 유니버설한 이모티콘 디자인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 글과 표현이 담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사전달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설명 위주의 이모티콘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스마트 워치 또는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직접 채팅창에서 이모티콘을 보지 않아도 상황 설명 중심의 소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사운드콘이 확대 제작될 경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널리 수요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비장애인 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림 3〉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항목
: 기존 이모티콘의 사운드콘 전환시 사용 의향

기존 사운드콘에 음성 기능 적용이 확대되어 많은 이모티콘이 사운드콘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의향을 묻는 문항에 60.3%의 응답자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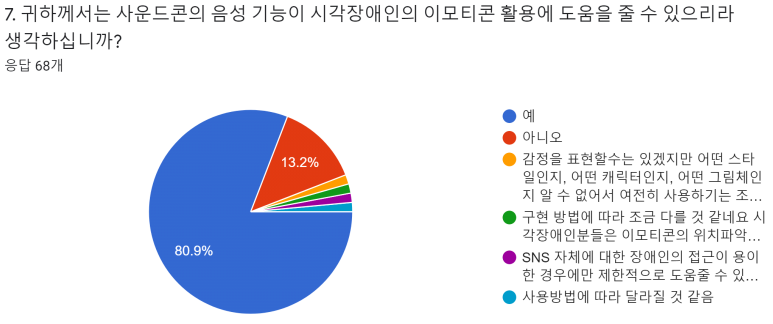


〈그림 4〉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항목: 편리한 사운드콘 유형

사운드콘 중에서도 의성어 중심 사운드콘과 직접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대사가 담긴 사운드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67.6%의 응답자가 상황 설명 중심 사운드콘을, 30.9%가 의성어 중심 사운드콘을 선호한다고 답하여 비장애인에게도 상황 설명 중심의 사운드콘이 더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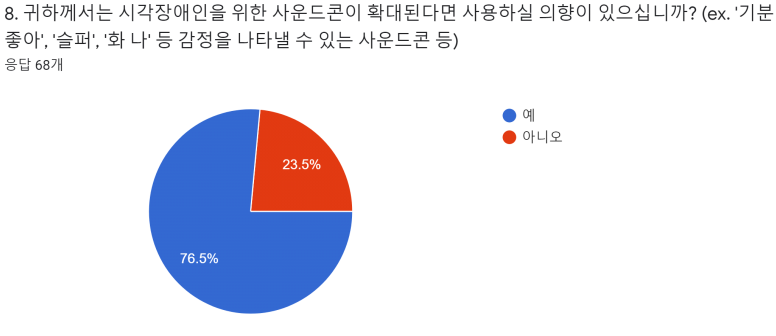
사운드콘 중에서도 의성어 중심 사운드콘과 직접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대사가 담긴 사운드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67.6%의 응답자가 상황 설명 중심 사운드콘을, 3

0.9%가 의성어 중심 사운드콘을 선호한다고 답하여 비장애인에게도 상황 설명 중심의 사운드콘이 더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항목: 사운드콘의 음성 기능 효용

또한, 이러한 사운드콘의 음성 기능이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활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80.9%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사운드콘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재조명하는 새로운 관점에 대부분의 비장애인도 동의하고 있었다.



〈그림 6〉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항목: 사운드콘 확대시 사용 의향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음향이 적용된 사운드콘이 널리 출시된다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의향을 묻자 76.5%의 응답자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비장애인

VOICEYE
voiceye.com

에게도 상황 중심 사운드콘이 확대 제작된다면 이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황 설명 중심의 사운드콘은 일종의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 외에 청각적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이해력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과 어린이,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의 다양한 계층이 이모티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들은 모두 잠재적 소비자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운드콘의 확대 적용을 통해 이모티콘 시장 안으로 포섭될 수 있으며 이는 이모티콘 시장의 활성화와 또 다른 확장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 유인을 마련한다. 한편 시각적 이미지만 제공되는 기존 이모티콘의 특성상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결하여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함을 주며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 확대되어 출시된다면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상황 설명이 중심이 되는 사운드콘을 통해 시각장애인은 이모티콘을 소비하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여 강제로 도입된 것이 아닌 누구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이 복지나 특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모티콘 시장의 동등한 소비 주체 중 하나가 된다.

4) 배리어프리 :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 이미지는 물론 기존 이모티콘에도 대체 텍스트를 삽입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이모티콘을 읽을 수 있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기본 이모티콘 180여 종에 대해 캐릭터의 이름과 표정을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이모티콘 시장에서 소외받던 시각장애인들이 SNS 시장의 소비자로서 한 걸음 다가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텍스트는 기존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없었던 온라인상의 수많은 자료들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스크린리더 기술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와 배너, 그리고 이모티콘 등을 읽어내려면 대체 텍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대체 텍스트는 배리어프리의 한 장치로서 장애인의 SNS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대체 텍스트의 효용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저시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시각적 요소를 넘어 청각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본 이모티콘의 대체 텍스트화를 통해 유료 이모티콘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체 텍스트를 통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2010년 한국실명예방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시력을 잃거나 교정 시력이 0.05~0.3에 그치는 저시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이 76%로 나타났으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2021년 현재 저시력 위험군에 속한 노년층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저시력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5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를 바탕으로, 대체 텍스트라는 장치를 통해 기존에 누리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콘텐츠를 누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저시력에 해당하지 않는 비장애인 역시 대체 텍스트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콘텐츠의 시각적 요소에서 한 발 나아가 청각적 요소를 통한 선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문맹자나 글자를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체 텍스트는 큰 유용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7〉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대체 텍스트 인식 여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대체 텍스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대체 텍스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림 8〉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대체 텍스트 확대시 사용 의향

KCR VOICEYE voiceye.com

대체 텍스트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난 후,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대체 텍스트의 확대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기존 글자로만 제공되던 정보에 청각적 요소를 첨가해 제공받는 대체 텍스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체 텍스트가 확대되어 다양한 이모티콘과 이미지 등에 적용된다면, 비장애인 중 대체 텍스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인 소비층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보조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리어프리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물 제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기존 활용되던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 혹은 이모티콘에 부차적인 텍스트를 삽입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대체 텍스트가 삽입되지 않은 이모티콘과 이미지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비될 수 없었고 여전한 장벽으로 남아있었다. 부차적인 설치 단계가 미비하다면, 장애물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배리어프리를 지향했던 기존 대체 텍스트 논의에서 한 발짝 나아가, 대체 텍스트를 성우가 녹음한 목소리가 적용된 사운드콘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운드콘이 작동하는 방식은 성우가 개별 이모티콘에 맞게 미리 녹음하고, 이것이 해당 이모티콘에 적용되며, 이모티콘을 클릭할 때 이 소리가 나와 울려 퍼지는 방식이다. 이는 스크린 리더라는 장치를 통해 작동하는 대체 텍스트 방식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배리어프리를 지향하는 기존 대체 텍스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하는 이모티콘으로 논의를 확장해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이모티콘에 대체 텍스트 형식 혹은 TTS를 통한 기계음을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모티콘의 대체 텍스트화를 진행할 수 있다.

2. 유니버설 이모티콘의 경영학적 분석

1) 기존 대체 텍스트 및 사운드콘의 한계점 분석

현재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이 카카오톡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대체 텍스트의 경우 180개의 기본 이모티콘에만 적용되어 있고, 사운드콘 또한 다수의 기존 이모티콘에 비해 적은 개수만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이 확대되지 못하였는지 알아보고,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 및 평가해 보려 한다. 이번 논문에서는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로 크게 콘텐츠와 수익 모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가장 먼저 콘텐츠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 텍스트의 경우에는 기본 이모티콘에만 적용되어 시각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카카오톡에서 접근성 TF를 구성하여 이모티콘의 대체 텍스트 제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1]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최은필 카카오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기인한다. 대체 텍스트의 주요 수요층은 전맹의 이모티콘 소비자인데,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맹의 비율은 5% 정도로 낮고[2] 대다수는 부분 맹 또는 색맹이기에, 주로 이들에 초점을 맞춰 대체 텍스트를 활용하기보다는 '이모티콘 사이즈 조절' 등의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콘텐츠 확대를 위한 노력이 미비해졌고 점차 콘텐츠 부족으로 대체 텍스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현재와 같이 180개의 기본 이모티콘에만 대체 텍스트를 적용하게 되었다.

사운드콘의 경우에는 음향이 나오는 이모티콘 특성상 기존의 무음의 이모티콘과 차이가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3]는 한계가 있다. 실제 검색 엔진 구글에 '카카오톡 사운드콘'을 검색하였을 때[4] 상단 10개의 웹사이트 중 7개가 사운드콘 이모티콘을 음소거하는 방법과 관련한 글이 검색되었다. 이는 사운드콘의 특성상 "가즈아~" 혹은, "오우 예에" 등 독특한 의성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많아 일상생활에서 당혹스러운 상황[5]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불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운드콘 이모티콘의 경우 가격까지 일반 이모티콘보다 더 비싸기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콘텐츠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익 모델 측면에서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시장이 너무 작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문제 때문이다. 가장 먼저 대체 텍스트의 경우에는 5%의 전맹 카카오톡 이용자만을, 사운드콘은 기본 이모티콘과 달리 한두 번의 구매 이후 추가적인 구매가 덜 이뤄지는 이벤트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체 텍스트의 경우 하나의 텍스트를 작성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운드콘의 경우 전문 성우의 녹음이 필요하기에, 비용적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의 문제는, 이모티콘 시장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더욱 커지

---

1) 카카오톡, 장애인 문턱 낮췄습니다[웹사이트]. (2015년 12월 23일). Retrieved from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1512230004

2) 당신도 어느날 갑자기 안 보일 수 있다…후천성이 90%[웹사이트]. (2012년 11월 02일).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762.html

3) "크고 아름다워"..카카오 이모티콘 변신[웹사이트]. (2018년 4월 19일). Retrieved from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178

4) 구글에 '카카오톡 사운드콘'을 입력하여 검색해보았다. 검색일 2021.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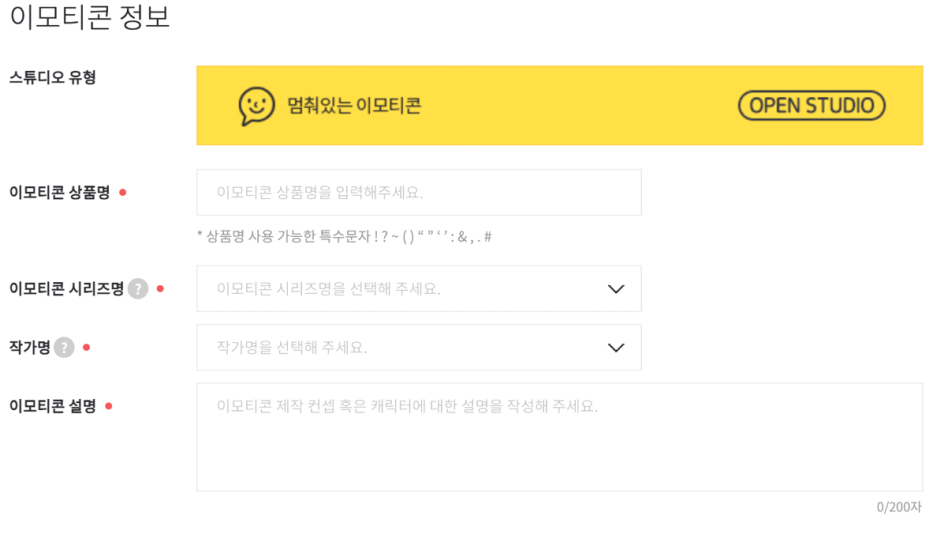
5) 아무때나 소리내는 카톡 '민폐 이모티콘' 끄는 법[웹사이트].(2018년 4월 19일). Retrieved from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4197515A&category=&sns=y

VOICEYE
KOR
voiceye.com

고 있는데, 이모티콘의 경우 한 번의 구매가 평생의 소유로 이어지기에 지속적인 매출을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고 이후 다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콘텐츠의 부족과 맞물려 선순환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사운드콘과 대체 텍스트 모두 이러한 순환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이모티콘은 소수인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이모티콘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2) 유니버설 이모티콘 확대 아이디어 제시

콘텐츠 및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존재하는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았다. 현재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이 직접 대체 텍스트를 작성해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필요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작가들이 카카오톡에 새롭게 이모티콘을 제안할 때 이모티콘 설명란에 각 이모티콘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한 줄 정도 분량으로 선택적으로 입력하게 하여, 대체 텍스트를 위한 콘텐츠를 확보하려 한다.



〈그림 9〉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 신규 제안 사이트 캡처

출처: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

추가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이모티콘의 경우 작가에게 요청 또는 카카오 자체에서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 이는 현재 이미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보인 이모티콘만을 선별하여 요청할 예정이기에, 전맹인 시각 장애인에게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확보한 대체 텍스트 콘텐츠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이를 이용할 이용자의 수는 전체 시각 장애인의 5% 남짓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체 텍스트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TTS 즉, Text to Speech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 텍스트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 API[6]를 통해 TTS 기능을 고품질의 다섯 가지 목소리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의 TTS 기능은 기존 성우들이 녹음하는 방식보다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과거 부자연스러웠던 기계음이 점차 사람이 직접 읽는 듯한 목소리로 발전하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기술을 이모티콘 별로 확보된 대체 텍스트와 연계해 적용하면, 이모티콘의 특징을 전맹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TTS와 연계를 통해 대체 텍스트의 활용 범위를 넓혀 대표적인 한계점인 시장의 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또한, 사운드콘이 의성어 위주의 사운드에서 이모티콘의 자체를 설명해 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면 사운드콘 자체의 호불호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 기존에 전문 성우들의 녹음으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여, 기본 이모티콘보다 가격이 비쌌던 사운드콘의 한계점을 TTS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가격 인하를 통한 추가 소비자 유인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도입된다면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년층과 업무상 핸드폰 확인이 어려워 '알림 읽어주기'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소비자층을 뽑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노년층의 경우 신정은(2019)에 따르면 93% 이상의 응답자가 이모티콘을 활용하며, 이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문구를 담은 이모티콘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같은 논문에서 저자는 고령층은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대신할 수 있는 이모티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만약 앞서 TTS를 활용해 대체 텍스트를 읽어주는 사운드콘 서비스가 노년층에게도 적용되면, 명확하게 이모티콘이 의미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기에 노년층의 이모티콘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장시간 운전 및 노동으로 핸드폰 알림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근로자 또한 이 아이디어를 통

6) Speech API[웹사이트]. (2021년 10월 30일). Retrieved from https://speech-api.kakao.com/#speechSynthesis

VOICEYE
voiceye.com

해, 이모티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IOS 운영체제의 경우 시리(SIRI), Android 운영체제의 경우 빅스비를 통해 '알림 읽어주기'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는데, 현재 기본 이모티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모티콘' 내지는 '사진'이라고 읽어지고 있다. 만약 이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이모티콘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아이디어가 적용되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년층, 특정 직업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들이 이모티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또 이모티콘을 많은 사람이 보다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실제 이러한 TTS 기능이 가장 잘 활용된 사례는 티맵 등으로 대표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이다. 티맵의 경우 기계적인 사운드를 넘어 실제 유명인과 인기 캐릭터의 목소리로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7]를 제공하고 있다. TTS를 바탕으로 티맵과 같이 셀럽의 억양을 혼합하여 사운드콘을 제공한다면 소비자층을 빠르게 넓힐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용은 대체 텍스트의 경우 작가들에게 받고, 음향의 경우 TTS를 활용하기에, 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리라 생각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개별 이모티콘에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출시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와 연계하는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이모티콘 플러스 가입자들 사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더욱 많은 인기 캐릭터와 셀럽들의 목소리를 TTS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벤트 형식으로 전문 성우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3) 아이디어에 대한 경영학적 분석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용의 경우 기존 이모티콘과 비교해 추가로 대체 텍스트 콘텐츠 확보와 TTS 구현을 위한 비용을 추정하여 앞서 제시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두 경우 모두 이모티콘의 디자인 제작 가격은, 인터넷 평균가인 200,000원[8]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비용 분석에 더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7) 티맵, 펭수 이어 개그맨 '최준 목소리로 길 안내[웹사이트]. (2021년 5월 11일). Retrieved from https://zdnet.co.kr/view/?no=20210511110326

8) 숨고 캐릭터/이모티콘 제작 예상 견적[웹사이트]. (2021년 11월 1일). Retrieved from https://soomgo.com/prices/%EC%BA%90%EB%A6%AD%ED%84%B0-%EC%9D%B4%EB%AA%A8%ED%8B%B0%EC%BD%98-%EC%A0%9C%EC%9E%91

(1) 아이디어 비용 분석

① 대체 텍스트 확보

유니버설 디자인 이모티콘의 근간이 되는 대체 텍스트의 경우 각 디자인 별로 제작 단가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개된 대체 텍스트 제작에 대한 비용은 전체 개발 비용의 5%[9]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제시한 서비스는 카카오톡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닌 작가가 이모티콘을 등록할 때 대체 텍스트를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5%보다는 적은 비용이 필요하리라 예측한다. 따라서 이모티콘 평균 개발 비용의 3%로 가정한 후 비용을 계산하였다.

② 사운드콘

현재의 사운드콘은 기존 이모티콘의 제작 과정에 추가로 소리 파일을 첨부하여 음성을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인데, 먼저 TTS를 활용하여 소리를 만들거나 혹은 전문 성우를 섭외해 음성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번 모델에서는 TTS를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했기에, 이때 필요한 비용만을 산정하였다. 사운드콘 제작이 완료된 후의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에 소리 파일을 첨부하는 과정만을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TTS의 경우 현재 카카오톡의 API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용이 제시되지 않아, 포털 엔진 '구글'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다. 구글은 고품질의 음성을 제공할 경우 100만 자당 16USD[10]를 청구하고 있다. 대략 16개로 구성된 하나의 이모티콘이 약 250자[11] 정도의 대체 텍스트로 구성될 것이기에, 하나의 이모티콘 당 요구되는 비용은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9) 늘어나는 간편결제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웹사이트]. (2017년 6월 19일).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00720

10) Text-to-Speech 가격 책정[웹사이트]. (2021년 11월 3일). Retrieved from https://cloud.google.com/text-to-speech/pricing?hl=ko

11) 하나의 대체 텍스트가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뤄져 있다고 가정한 뒤 글자 수를 셌을 때 약 22자로 구성된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하나의 이모티콘 안에 16개의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

VOICEYE
voiceye.com

〈표 2〉 아이디어 비용 분석표

비용항목				
이모티콘 제작비	대체텍스트 콘텐츠 제작 비용	대체텍스트 삽입 비용	TTS 활용 음성 삽입비	총 비용
200,000	0	6,000	4	206,004

즉, 비용 분석을 통해 현시점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기존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구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았다.

(2)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얻고, 긍정적인 점과 한계점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고, 공통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표 3〉 시각장애인용 SW 담당 개발자 인터뷰

좋은 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체 텍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개발 과정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과거 내비게이션에 유명 연예인 목소리를 삽입했었을 때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를 활용하여 이모티콘 음성을 만드는 게 인상적이었다.”
한계점	“비장애인 소비자가 활용하도록 이끌 수 있는 요인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성	“대체 텍스트 같은 경우 이모티콘끼리 겹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전문 성우와 협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리라 판단한다.” “기존 이모티콘과 별개로 처음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이모티콘 내지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반영한 이모티콘 또한 출시되면 좋을 것 같다.” “이모티콘의 소리를 편안하게 ON/OFF 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 대표 인터뷰

좋은 점	“시각장애인의 수가 적기에 이모티콘 수익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의 접근이 좋다고 판단한다.”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제작할 때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특히 인건비의 경우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입된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계점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체 텍스트 창작이 이뤄지기에, 작가들의 대체 텍스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 않으면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성	“실제 소비할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층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 텍스트와 관련한 작가 및 대중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대체 텍스트 창작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표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지만, 이를 짧게 구성하는 방향성을 가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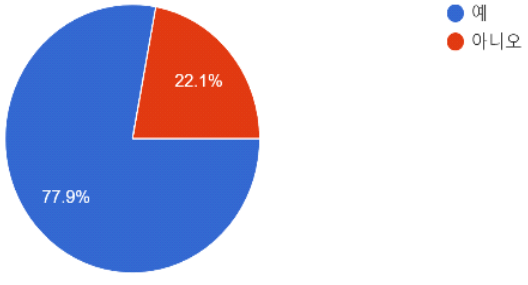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전문가 모두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이모티콘을 만들 때보다 저렴하면서도, 소비자층을 넓혀 수익 및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번째 인터뷰를 통해 이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도입될 경우 시각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3) 비장애인 수요 예측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이모티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소비자들의 구매까지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이 이러한 아이디어가 도입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구매 의사를 표현했는지, 적정 가격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설문 조사 문항을 통해 확인해 보고, 경영학적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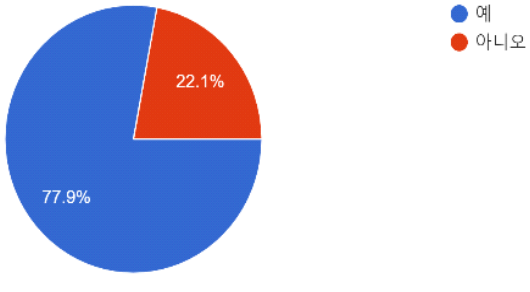
VOICEYE
KOR
voiceye.com

3. 현재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에 한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수줍수줍 라이언 움직이는 이모티콘) 이러한 대체 ... 귀하께서는 이모티콘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 6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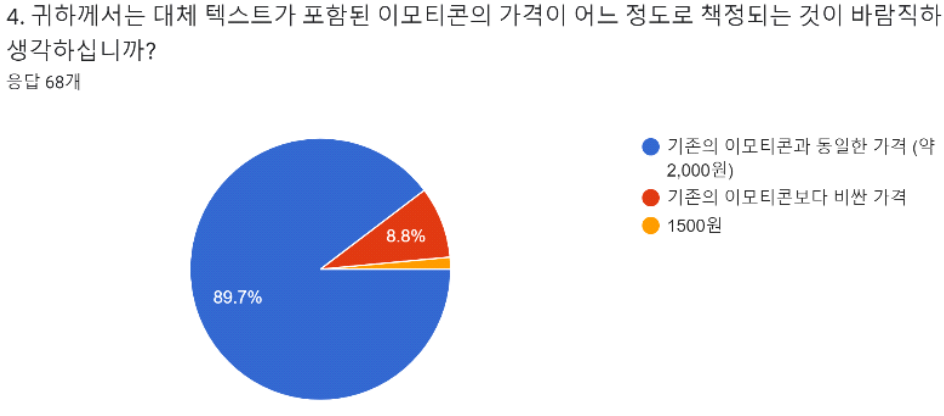
〈그림 10〉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대체텍스트가 포함된 이모티콘 구매 의향

5. 대체텍스트가 확대되어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을 때, 대체텍스트를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 6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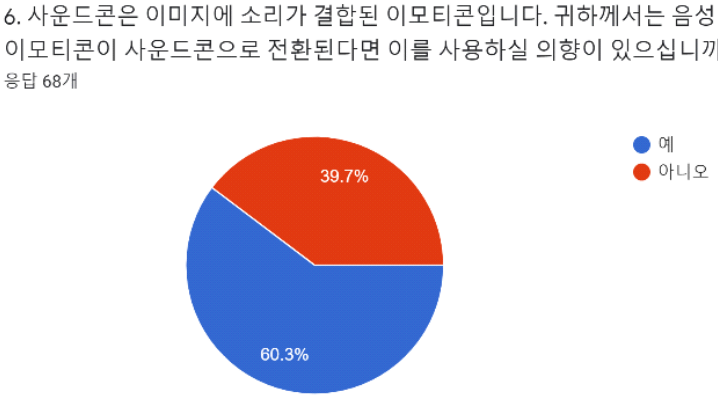
〈그림 11〉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대체텍스트 확대시 사용 의향

가장 먼저 대체 텍스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구매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 77.9%의 소비자는 대체 텍스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대체 텍스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구매하였을 때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77.9%의 동일한 비율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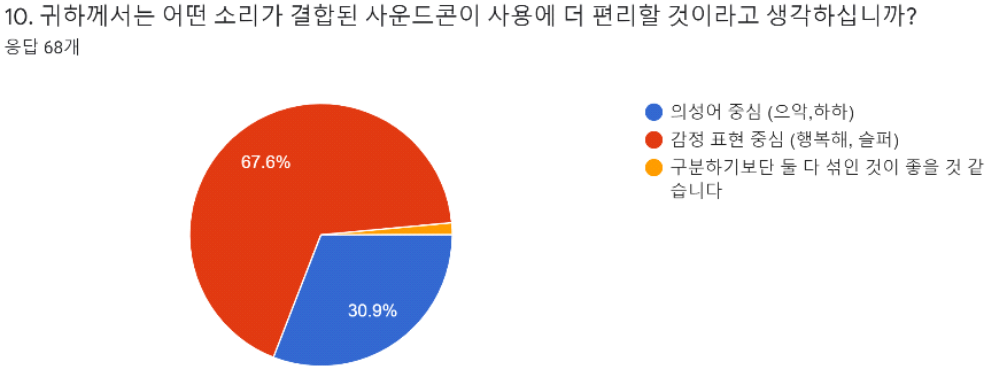


〈그림 12〉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대체텍스트 포함 이모티콘의 적정 가격

대체 텍스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9.7%의 비율로 현재와 동일한 가격인 2,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8%의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돼도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러한 대체 텍스트와 관련한 응답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가격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아이디어에서는 기존의 2,000원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안을 생각하였기에, 이모티콘 시장에서 비장애인 소비자들의 호응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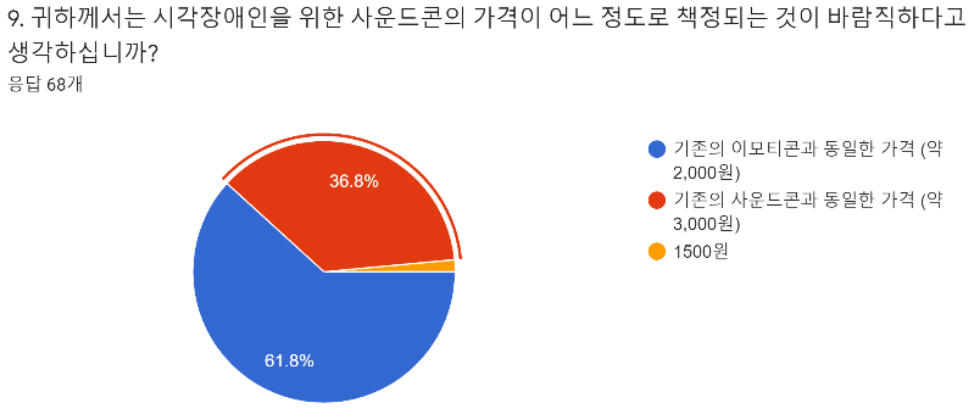


〈그림 13〉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그림 14〉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사운드콘이 기존 이모티콘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하겠냐는 의향을 물었을 때 60.3%의 소비자들은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77.9%였던 대체 텍스트의 응답보다는 낮은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 사운드콘을 어떻게 구성해야 사용 시 편리할 것 같냐는 질문에 현재의 의성어 중심의 의견은 30.9%, 감정 표현 중심은 67.6%로 현재와는 다른 방식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5〉 비장애인 설문조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콘 적정 가격

가격대의 경우 대체 텍스트와 비슷하게 기존의 이모티콘과 동일한 가격인 2,000원으로 응답한 사람은 61.8%로 높게 나타났지만, 기존의 사운드콘과 동일한 가격인 3,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36.8%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 아이디어는 TTS를 활용하여 기존의 가격인 2,000원을 유지할 수 있어, 두 응답 집단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어, 가격을 상향해야 할 경우, 사운드콘의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보다 유동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즉 비장애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체 텍스트를 바탕으로 사운드콘을 확대 적용하였을 때 많은 응답자는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면 추가로 요구되는 비용보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VOICEYE
voiceye.com

Ⅳ.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이모티콘 시장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소비자성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을 장애인의 권리[12]와 자유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로서 이모티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간의 연구는 대부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 역시 이모티콘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시각에만 한정된 이모티콘을 넘어 청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이모티콘을 통해 시각장애인도 이모티콘 시장의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의성어 중심의 사운드콘에서 벗어나 정보 전달 역할까지 기능할 수 있는 이모티콘과 대체텍스트를 확대 적용한다면 기존 주요 소비자인 비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상품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시했다. 잠재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후자가 더 큼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니버설 이모티콘이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배리어프리 장치가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 시사점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이모티콘의 활용성

현재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는 여전히 큰 제약이 존재하기에 이들의 모바일 접근성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주체적인 이모티콘 소비자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이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 텍스트와 사운드콘을 선정 및 분석하였다.

---

12)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체 텍스트를 확대 적용한 이모티콘과 사운드콘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모티콘을 활용하며 소외되었던 고령층 등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경영학적 비용 분석을 통해 기존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 유니버설한 이모티콘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이모티콘은 그 적용 대상이 시각장애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평등하게 사용 가능하므로, 배리어프리한 SNS 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애의 재해석'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추가 연구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도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시장에 법적제재를 부과하여 강제적으로 기업이 시각장애인을 이모티콘 소비자로 인식하도록 하고, 이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경우, 기업의 반감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은 시각장애인을 향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모티콘을 소비할 권리가 있음을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이들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모티콘 시장에 포섭 및 이모티콘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리어프리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법적제재를 중심으로 배리어프리를 실현하려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기존 시장 확대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로 전환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환이 일어날 경우, 시각장애인은 이모티콘 사용 상황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3. 한계점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위한 초석을 쌓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여러 이모티콘 중에서도 사운드콘의 구체적인 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 이모티콘 제작에 따르는 수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된 정보가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경

VOICEYE
voiceye.com

영학적 분석을 할 때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둘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이모티콘 사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발달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모티콘 활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탐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시각장애인 인터뷰, 배리어프리를 위한 기업과 기술 개발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운드콘 및 대체 텍스트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고, 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등급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또 다른 한계가 있다.

셋째로 이번 논문에서는 기존에 대중들이 사운드콘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이 새롭게 제시한 형태의 사운드콘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현재의 의성어 형태의 사운드콘과는 내용 구성이 다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점이 개선되었지만, 대한민국 문화상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타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계속해서 아이디어 적용 이후에도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운드콘이 점차 대중들에게 정보 전달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음성 지원에 대한 on/off 기능을 보다 직관적으로 구성한다면 소비자 사이에서 점차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4. 제언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사운드콘과 대체 텍스트의 유니버설 디자인적 재발견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소비자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후속 연구는 한 발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이모티콘 시장에서 소비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비자로 이모티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본 유니버설 이모티콘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존 이모티콘 및 사운드콘의 유니버설적 기능을 정의할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유니버설 이모티콘에 대한 기능적 및 법적 정의 역시 필요하다. 유니버설 이모티콘의 상용화 이전 무엇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함유한 이모티콘인지에 대한 정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 사운드콘의 유니버설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장치와 매뉴얼을 설정하는 것과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성상 콘텐츠 제작자의 역할이 큰 상황에서 효과적인 제작을 위해 제작자를 위한 명쾌한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프로토타입 제작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6. 19.) “늘어나는 간편결제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00720.

한겨레21. (2012. 11. 2.). “당신도 어느날 갑자기 안 보일 수 있다…후천성이 9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762.

문화체육관광부. (2012).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2014).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박현구. (2005). 온라인 환경의 이모티콘과 비언어 행위의 관계. 언론과학연구, 5(3), 273-302.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 보건복지부.

숨고. (2021. 11. 1.). “캐릭터/이모티콘 제작 예상 견적”, https://soomgo.com/prices/%EC%BA%90%EB%A6%AD%ED%84%B0-%EC%9D%B4%EB%AA%A8%ED%8B%B0%EC%BD%98-%EC%A0%9C%EC%9E%91.

신정은, 윤주현. (2019).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이모티콘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20(2), 209-220.

모바일한경. (2018. 4. 19.). “아무때나 소리내는 카톡 ’민폐 이모티콘’ 끄는 법”,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4197515A&category=&sns=y.

이현미, 홍순구, 김종기. (2012). 시각장애인 SNS 이용자의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ormation systems review, 14(3), 25-51.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0). 색각이상(색맹).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BLOTER. (2015. 12. 23.). “카카오톡, 장애인 문턱 낮췄습니다”,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1512230004.

이코노믹리뷰. (2018. 4. 19.). "크고 아름다워"..카카오 이모티콘 변신“,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178.

지디넷코리아. (2021. 5. 11.). “티맵, 펭수 이어 개그맨 '최준' 목소리로 길 안내”, https://zdnet.co.kr/view/?no=202105111103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2010년도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Text-to-Speech 가격 책정[웹사이트]. (2021. 11. 3.). https://cloud.google.com/text-to-speech/pricing?hl=ko

SpeechAPI. (2021. 10. 30.). https://speech-api.kakao.com/#speechSynthesis.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Visually Impaired as an equal consumer of the SNS emoticon market

: Focusing on Soundcon and Alternative text

Lim Hyun Woo*·Kang Eun Gyo·Kim Do Hyun***·Yoo Woo Yeon******

Focusing on the fact that visually impaired people have been alienated from using emoticons from various social network services (S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emoticons with universal design as a solution on this problem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change from the existing point of view that the visually impaired need a special emoticon market for them into that visually impaired have the right to use emocions as an equal consumer to the non-disable without discrimination in the existing emoticon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dividing visually impaired and non-disabled in to group an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Firs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visually impaired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SNS and emoticons usage, and as a result, we've found the usefulness of alternative text and Soundcon provided by the representative messenger platform 'Kakao Talk'. Second, through interview with 'Sound Flex Studio', company which creates on-screen voice commentary and subtitles, and developer who created software that can translate Korean into braille, we've found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 universal design for barrier-free emoticon. Finally, as a result of a survey of 68 non-disabled people in their 20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high demand for emoticons with Soundcon and alternative text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that they had a positive perc

* Department of Media&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eption of establishing a barrier-free SNS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confirm ed that applying soundcon and alternative text to emoticons can help visually impaired a ctively participate in the existing emoticon market as equal consumers, further ensuring higher level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disabled. In addition, it proved that it can develop into a kind of universal design that can be helpful not only for the visually impai red but also for those who have been restricted in using emoticons such as the elderly. B ased on thes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trigger for further research on the usage of emoticons by the visually impaired.

Keywords : Visually Impaired, Emoticon, Business Analysis, Universal design, Soundcon, Alternative Text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423 - 45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뷰티종사자의 인식도조사

최혜진*·차혜옥·이두호*****

본 연구는 K-뷰티의 전 세계적인 파급력에 힘입어 대한민국 뷰티인들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이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뷰티종사자들의 요구도를 알아보고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미용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샵 원장, 매니저, 디자이너, 스텝을 비롯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반영구 화장, 두피모발관리 분야 종사자와 뷰티전공 학생, 미용직업훈련학교 교육생 등으로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뷰티종사자들은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장애인을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접촉경험, 재능기부를 통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수용태도를 향상 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습득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 전공분야별 교육이 수준별로 체계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뷰티기술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비장애인에게는 미용봉사활동을 통한 재능기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K-뷰티와 함께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며 이는 국내 뷰티 교육산업의 발전과 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분

*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박사과정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헤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마케팅광고학과 학부과정

야에서 모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장애인, 통합미용기술교육, 뷰티종사자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 개인으로서는 행복한 삶의 목표 일 것이다. 미(美)를 추구하는 것 또한 원초적인 것으로 모든 인류의 공통된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7단계에서 심미욕구(6단계 : Aesthetic-아름다움, 균형, 질서)는 최상위 자아실현의 욕구 바로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신원식, 한은경, 2020).

오늘날 의료기술의 혁신과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평균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다양성 욕구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특히 MZ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다양성과 허용성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박상희; 한창호, 2021). 과거 공중보건위생 차원에서 현재의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뷰티 산업은 꾸준히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주요 소비자를 만들어낸 매력적인 산업이다. 세계 뷰티 산업은 연간 5,000억 달러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브랜드와 소매업계에 대한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하더라도 글로벌 뷰티 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산업으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산업분야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Mckinsey, 2020). 특히 뷰티분야는 사회복지와 의료, 나아가 실버산업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김샤샤, 2014).

장애인을 위한 모든 교육의 목표는 정상화(nom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상화는 비장애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들에게 미용은 외모의 변화로 인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전용수, 2007). 그러나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 등으로 인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프로그램이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고 교육적, 사회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정선영, 2002).

여성 장애인이 희망하는 사회교육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조건으로는 이동권과 경제지원 등이 보장되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장애인 통계집, 2020). 김윤자(2021)의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2020년 특별전형(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실시하는 대학에 입학한 전문대학 25개교 95명의 장애인이 향후 취업을 위한 사회교육 훈련에 대한 조사에서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은 '비장애인

과 같이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는 일반 공공 교육훈련이 26.6%, 비장애인과 같이 민간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받는 교육 훈련이 15.1%, '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41.7%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장애인고용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기술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민하, 최은주(2018)의 연구에서 방과 후 미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아존중감, 창의성, 인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미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전용수 외 (2007)는 장애여성을 위한 8주간의 미용재활교육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은 외모관심도와 뷰티체험활동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미용 복지가 활성화된 일본의 미용복지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 노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미용 복지 제도의 확산 또한 중요하다(공미진, 2014).

미용관련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남녀를 불문하고 취업을 위한 미용국가기술자격증 교육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설 뷰티기술교육사업은 물론 민간 뷰티자격증의 범람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또한 뷰티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나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오윤진, 2010). 다양한 직업기술 교육과정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자연스러운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편 장애아동 및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연구한 김기흥(2012)에 의하면 독일 예비교사들은 인지적 요소와 관련하여 장애아 혹은 장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정의적 태도 요소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더 강하게 보였다.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한 행동적인 태도요소에서 대부분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거부적이고 폐쇄적인 경향도 낮지 않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홍보와 계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에 있어서 일반교사의 인간적 자질이 더 강조됨을 확인하였다.

봉사활동 참여는 봉사자에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VOICEYE
voiceye.com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배워 인성을 함양시키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지은선 외, 2020).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 집단(미용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은 일반적으로 미용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는 낮은 편이다. 그리하여 미용복지가 복지 대상자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유용한 서비스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도달한다. 미용복지는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교육 및 관리, 감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박은진, 2021). 미용복지 현장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입장의 장애인들 중에는 본인이 받는 혜택을 동료 장애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러한 동질성에 기반으로 하여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 이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박영아, 김태준, 2010)'에서 장애인 교수자의 교육활동이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이 또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기술교육을 비장애인 교사와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 및 뷰티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취업을 희망 하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로탐색과 현장체험 기회의 장(場)이 될 것이며 더하여 개인의 희망에 따라 전문기술을 익힘으로써 당당하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꿈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뷰티분야의 맞춤 기술교육을 통하여 우울증의 극복, 자기효능감의 함양, 자기만족 및 사회참여의 발판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실효성을 증명하고자 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그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도,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둘째, 통합미용기술교육에서의 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파악한다.
셋째, 장애유형에 맞는 뷰티전공분야의 범위를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과 뷰티 관련 활동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상황인 현재에도 뷰티분야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패션계는 마른 체형을 가진 모델을 선호했지만, 최근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어댑티브 패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어댑티브 패션(Adaptive Fashion)이란 신체,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불편함 없이 옷과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제작한 디자인을 뜻한다. 이렇듯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패션계에 편견을 깨고 등장한 '모델'들이 있다.

영국의 다운증후군 18세 소녀 엘리 골드 스테인(Ellie Goldstein)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공연을 즐겼고 다섯 살 때부터 드라마와 댄스 수업을 들었으며 2020년 현재 에식스 소재 레드브리지 대학교에 합격해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보그 이탈리아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구찌 뷰티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 장애인 모델 전문 에이전시이자 엘린의 소속사인 지베디 메니지먼트사(Zebedee Management)는 패션 및 미용 광고 모델 중 장애인의 비율이 0.01~0.02%에 그친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그의 활동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장애인 모델도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국민일보, 2020). 캐나다 출신의 위니 할로우(Winnie Harlow)는 4세때 부터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 일부가 희게 보이는 희귀 난치성 피부 질환인 백반증 환자로 따돌림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모델이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 프로그램 '넥스트 톱모델'에 출연하여 일약 스타 모델로 떠올랐다. 현재 전 세계 런웨이를 누비며, 보그나 엘르, 코스모폴리탄 같은 유명 잡지에서 활약 중이며 본인을 괴롭힌 흰 반점을 자신만의 매력으로 바꿨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도 이 병을 앓았으며, 생전 이로 인해 "백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렸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영국 출신의 모델 모피는 양 눈이 똑바로 한곳을 향하지 못하는 시력 장애인 '사시'이다. 신체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학창 시절 동안 안경을 쓰고 다녔지만 본인은 'FUNNY EYE'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술도 생각했지만 위험성이 높아 포기해야 했다. 현재 그녀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수많은 사진작가와 촬영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근위 대퇴골의 부분적 결손 장애(PFFD)를 갖고 태어난 잭 아이어스는 16살에 결국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다부진 몸, 훤칠한 키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그는 모델에 도전했지만 옷보다 다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으나 멈추지 않고 도전한 끝에 절단 장애인 최초로 뉴욕 패션 위크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이후 유명

VOICEYE voiceye.com

남성잡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남자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영국에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동 모델 활동을 시작한 데이지 메이 드미트리(daisymay_demetre)는 두 다리가 아닌 의족을 한 모습으로 패션쇼에 올랐다. '비골 무형성증'이라는 종아리뼈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생후 18개월에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달고 걷는 법을 배웠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룬 데이지는 정형화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미를 뽐어내고 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나타샤 쿠라모바는 홍채와 피부, 머리칼 등 온몸이 새하얀 알비노 증후군을 앓고 있다. '백색증'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알비노 증후군은 멜라닌 색소의 분포와 합성 대사과정에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명에 가까운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있으나 이러한 애로사항을 딛고 모델이 되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담긴 화보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듯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 패션계에 장애인들은 편견을 깨고 미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데일리블로그, 2020).

K-뷰티의 종주국인 국내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의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열린 2021장애인 문화예술 온라인축제 '다이버시티 컬렉션 '아름다움이 스며들다' 패션쇼'는 주목할 만하다. 평소 장애인의 의상에 대한 욕구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여성 시각장애인은 왜 원피스를 선호하는지'(상하의 조화를 맞추기 어려움), '왜 색상이나 컬러가 과하거나 두드러지는 의상착의를 선호 하는지'(뭔가가 묻어도 알아차리기 어려움),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목이 넓은 셔츠나 품이 큰 의상을 선호하는지'(혼자 입을 수 있는 옷, 탈착의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의상 선호)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인, 그리고 직립 성인의 신장과 신체를 중심으로 의복들이 제작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이다(얼리어답터뉴스, 2021).

본 연구에서의 장애인의 뷰티관련 활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외모관리행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뷰티분야를 체험하고 나아가 전문기술을 익힘으로써 개인의 취미활동을 넘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인 자립의 발판으로서의 미용기술교육 활동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 통합 미용기술교육

미용교육이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예술적, 보건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의 이론에 기초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식과 인성, 숙련된 기술을 겸비하여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외모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며(한영숙, 1997), 이러한 미적인 창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김춘자, 1998). 국내의 근대적인 미용교육은 1928년 설립된 경성미용학교를 시작으로 이후 사설학원에서 미용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김춘일, 송선영 1999). 63년이 지난 1991년 부산 동주여자전문대와 강릉 영동전문대에서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되면서 정규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2006년에 115개교의 전문대학에서 미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김순옥, 2006). 광주여자대학교 등 17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에서도 미용관련 석사학위자가 배출되고 있다. 2000년 3월 부산미용고가 개교, 고등학교에서도 미용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미용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과학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생물학·보건학 등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내고 있다(김진수 2003). 하지만 대부분 미용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특기적성의 개발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용을 전문교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김미녀 외, 2003),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교육은 사설학원에서의 직업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미용교육도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직업과 연관된 분야이며(김정희, 김혜수, 2002), 흥미유발을 위한 체계적이지 못한 취미교실 수준의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미용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심동적 행동을 변화시켜 자아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미용행위는 자신을 아끼고 신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창조적 표현, 사회성, 협동심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배, 이외숙, 2015). 따라서 미용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서 전문기술의 습득, 적성의 향상, 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며 인성발달과 연관이 있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권선진, 1997) 성인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교육이야말로 대인관계 및 자기표현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전용수, 2007).

본 연구에서 통합미용기술교육이라 함은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반영구화장, 두피모발관리 등 해당 뷰티분야의 전문기술교육을 의미하며 강사와 장애인 학생, 장애인의 가족인 비장애인 학생으로 구성하는 맞춤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VOICEYE
voiceye.com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들의 장애인식도, 장애수용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고 실무교육 이전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미용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 뷰티전공 대학원생, 미용직업훈련학교 교육생 등으로 이들은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자원봉사자로서, 잠재적인 기술교육 강사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식은 남선화(2021)와 고대선, 윤민수(2021)의 연구를 참고 하였으며, 장애인 수용태도는 오순란(2014)의 연구를 참고, 통합미용기술 요구도는 김동규(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후 자기기입식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일반적인 특성은 김현정(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따라 수정, 보완 후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으며 공동연구자들이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 중 유효한 320부를 데이터로 채택,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각 변수의 개념을 도출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해당분야의 통계자료, 인터넷 포털검색, 블로그, 단행본, 학술정보지, 학위논문 등의 활용과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병행하여 실증연구를 시행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18.0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술통계방식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을 실시하였고 뷰티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 항목에 대한 집단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6.9%, 여성 83.1%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20.6%, 30대 16.6%, 60대 15.6%, 20대 11.3%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을 살펴보면 헤어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 12.8%, 네일아트 8.8%, 메이크업 8.4%, 두피모발관리 2.5%, 반영구화장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책은 원장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생 20%, 디자이너 16.6%, 매니저 8.8%, 스텝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경력은 20년 이상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3.8%, 10년 이상이 15.3%, 5년 미만이 14.7%, 10년 미만이 13.4%로 나타났다. 미용봉사활동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이 18.1%, 5년 미만이 15.0%, 3년 미만이 14.7%, 10년 미만이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헤어 전공자로 경력 20년 이상의 뷰티샵 원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우리나라 뷰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용봉사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교육생을 비롯한 미용봉사활동을 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현기(2018)의 '중년 이후의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은 40대 후반 피크를 보인 후 급격히 하락하여 5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완만한 하락 상승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2년 후 지속 확률은 약 31.2%이며 중단 확률은 약 68/9%로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자원봉사활동은 오히려 안녕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여옥(2019)의 연구에

서 확인된 미용봉사활동 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은 분야가 헤어미용 분야이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전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사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헤어종사자들을 위한 혜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인구통계학적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4	16.9
	여	266	83.1
연령	20대	36	11.3
	30대	53	16.6
	40대	66	20.6
	50대	115	35.9
	60대	50	15.6
전공	헤어	213	66.6
	피부	41	12.8
	메이크업	27	8.4
	네일아트	28	8.8
	반영구화장	3	0.9
	두피모발관리	8	2.5
직책	원장	162	50.6
	매니저	28	8.8
	디자이너	53	16.6
	스텝	13	4.1
	교육생	64	20.0
경력	1년 미만	76	23.8
	5년 미만	47	14.7
	10년 미만	43	13.4
	10년 이상	49	15.3
	20년 이상	105	32.8
미용봉사기간	1년 미만	136	42.5
	3년 미만	47	14.7
	5년 미만	48	15.0
	10년 미만	31	9.7
	10년 이상	58	18.1
계		320명	100%

2. 기술통계분석 결과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대부분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이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들의 장애인식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성룡, 홍은경(2018)의 '장애인관련 봉사활동 수업을 통한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장애인식 및 장애인수용태도에 대한 변화' 연구에서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은 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장애인식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표 2〉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

설문 문항	M	SD
나는 장애인을 한 사람의 고귀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4.50	.796
나는 장애인에게 동정보다 공감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4.41	.829
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2	.742
나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45	.786
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상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5	.897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4.58	.668
장애인이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4.53	.703
장애인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48	.743
장애인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	4.50	.717
장애인의 지체된 학업성취 수준은 교사의 노력으로 보상 할 수 있다.	4.12	.951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교수학습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4.42	.763
장애인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 중요하다.	4.48	.751
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52	1.041

뷰티종사자의 장애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 대부분 '보통이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송수지, 김정민(2008)의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연구에서 특수교과목 이수 여부, 대학에서의 통합교육 경험, 장애인 친.인척 여부, 장애관련 봉사활동 경험 등에 따른 장애인 수용태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뷰티종사자의 실질적인 장애관련 봉사활동 경험, 통합교육 경험, 등 경험적 요인에 따라 영향

VOICEYE
voiceye.com

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영미, 진혜경(2021)의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식습득에 앞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장애수용 태도 증진에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접촉경험이 장애수용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더 긍정적인 장애 관련 경험을 증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교류로서 통합미용기술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표 3〉 뷰티종사자의 장애수용태도

설문 항목	M	SD
나는 뷰티샵에서 장애미용인에게 서비스를 받아도 편안할 것이다.	4.44	.766
뷰티샵에 장애미용인이 있다면 많은 혼란을 발생 시킬 것이다.	2.68	1.03
장애미용인은 대부분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2.77	.993
장애인이 미용을 한다면 위생상태가 불결 할 것이다	1.99	.911
뷰티샾에서 장애미용인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것이다.	2.13	.943
장애미용인도 미용승급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3.90	.860
장애미용인도 뷰티샵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3.74	.867
장애미용인이 일하기 쉽게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뷰티샵에 설치되어야 한다	3.96	.914
장애미용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4.23	.778
장애미용인도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질을 잘 살려주면 뷰티샵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4.22	.727
장애미용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12	.789
장애미용인도 다양한 모습의 일부로 생각해야 하며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28	.771
장애를 가진 미용인과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다.	2.08	.971
장애미용인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어떤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2.41	1.076
장애미용인을 만날 때 그들에 대해 특별한 온정을 느낀다.	3.18	.871
만약 나의 친구가 나에게 장애미용인을 소개시켜 준다면 나는 불쾌 할 것이다	2.19	.917
장애미용인을 접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의자 차, 의수 등에 거부감을 느낀다.	2.28	1.027
장애미용인은 나와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힘들다.	2.24	.976
나는 장애미용인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76	.838
만일 내가 장애 미용인이라면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3.15	.974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더라도 미용 일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2.56	1.078
장애인들은 그들의 손상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손재주)에서 비장애인들 보다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3.45	.873
장애인들이 미용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3.56	1.049
나는 청각장애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서비스 제공시 의사소통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필담을 통한 의사소통 및 수화사용).	3.70	.950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네일아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3.92	.953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반영구 눈썹 시술을 받을 수 있다.	3.74	1.103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두피모발관리를 받을 수 있다.	3.87	.982
나는 시각장애(저시력) 미용인에게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43	1.072
나는 자폐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12	1.118
나는 언어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74	.962
나는 소아마비장애 미용인에게 헤어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47	1.102

KCI VOICEYE voiceye.com

뷰티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대부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습득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용식, 권순신(2013)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에서 장애이해교육이 시간을 무조건 많이 제공하기 보다는 4주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 전공분야별 교육이 수준별로 체계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뷰티종사자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

설문 문항	M	SD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83	1.060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3.83	1.024
미용기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93	.98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6	.88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14	.88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10	.94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3	.96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관한 평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93	.96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3	.969
지역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98	.976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다.	3.86	1.01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0	.96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4	.964

3.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표 5〉 장애인식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성분	공통성
장애인이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891	.795
나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76	.768
장애인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	.873	.763
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71	.759
장애인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865	.748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863	.744
장애인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 중요하다.	.845	.713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교수학습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788	.621
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상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66	.586
나는 장애인에게 동정보다 공감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757	.573
나는 장애인을 한 사람의 고귀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747	.558
장애인의 지체된 학업성취 수준은 교사의 노력으로 보상 할 수 있다.	.696	.485
고유치	8.352	
분산(%)	64.245	
누적(%)	64.245	
Cronbach's α	.952	
Total Cronbach's α	.946	
KMO = .947 X^2=3625.435, df=78 p<.001		

〈표 5〉는 장애인식 12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947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X^2=3625.435, p<.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편 고유치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1개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량은 64.245%의 설명력을 보였다. 장애인식 질문지는 13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13번 문항은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한 문항은 제거한 후 최종 12문항이 적용 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신뢰도 값은 .95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VOICEYE
voiceye.com

〈표 6〉 장애수용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성분		공통성
	요인1	요인2	
나는 자폐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4	-.071	.588
나는 청각장애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서비스 제공시 의사소통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필담을 통한 의사소통 및 수화사용).	.739	-.217	.594
나는 언어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35	-.271	.613
장애인들이 미용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733	-.169	.566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두피모발관리를 받을 수 있다.	.727	-.270	.602
나는 소아마비장애 미용인에게 헤어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3	-.127	.524
나는 시각장애(저시력) 미용인에게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99	-.148	.511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678	-.250	.523
장애인들은 그들의 손상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손재주)에서 비장애인들보다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674	-.009	.454
장애미용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664	-.250	.504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네일아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652	-.340	.540
장애미용인도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질을 잘 살려주면 뷰티샵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643	-.418	.588
장애미용인도 뷰티샵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621	-.321	.488
장애미용인이 일하기 쉽게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뷰티샵에 설치되어야 한다.	.612	-.209	.418
장애를 가진 미용인과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다.	-.142	.800	.661
장애미용인은 나와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힘들다.	-.066	.790	.628
장애인이 미용을 한다면 위생상태가 불결 할 것이다	-.054	.780	.612
뷰티샾에서 장애미용인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것이다.	-.069	.769	.596
만약 나의 친구가 나에게 장애미용인을 소개시켜 준다면 나는 불쾌 할 것이다	-.294	.758	.661
장애미용인을 접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의자 차, 의수 등에 거부감을 느낀다.	-.225	.719	.567
장애미용인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어떤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257	.664	.507
뷰티샵에 장애미용인이 있다면 많은 혼란을 발생 시킬 것이다.	-.258	.647	.486
장애미용인은 대부분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122	.646	.432
고유치	10.957	3.712	
분산(%)	39.133	13.258	
누적(%)	39.133	52.390	
Cronbach's α	.935	.908	
Total Cronbach's α	.813		
KMO = .931, X^2=5847.598, df=378, p<.001			

〈표 6〉은 장애수용태도 28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931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X^2=5847.598, p〈.001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편 고유치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2개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량은 52.390%의 설명력을 보였다. 장애수용태도 질문지는 31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오순란(2014)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장애미용인에 대한 수용태도 전체 31문항 중 1번, 6번, 9번, 12번, 15번, 19, 20번, 28번 문항은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한 후 최종 23문항이 적용 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신뢰도 값은 .90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표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성분	공통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36	.87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18	.84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02	.8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9	.80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7	.8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5	.80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4	.80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관한 평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0	.792
지역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85	.783
미용기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876	.767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847	.717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다.	.846	.716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842	.709
고유치	10.228	
분산(%)	78.675	
누적(%)	78.675	
Cronbach's α	.977	
Total Cronbach's α	.977	
KMO = .964, X2=5475.119, df=78, p〈.001		

VOICEYE
voiceye.com

〈표 7〉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 13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964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X^2=5475.119, p〈.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편 고유치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1개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량은 78.675%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에 대한 질문지는 김동규(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13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신뢰도 값은 .9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4. 뷰티종사자 특성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의 집단별 평균분석

〈표 8〉은 뷰티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평균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한 뷰티종사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8〉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에 따른 집단별 평균분석(n=320)

구 분	분류	N	M	SD	F(p)
성별	남자	54	4.74	1.025	3.619(.058)*
	여자	266	3.77	1.061	
연령	20대	36	3.86	1.125	1.139(.338)
	30대	53	3.66	1.055	
	40대	66	3.70	1.202	
	50대	115	3.87	1.039	
	60대	50	4.04	.832	
전공	헤어	213	3.78	1.055	2.280(.047)**
	피부	41	3.93	.932	
	메이크업	27	4.15	.907	
	네일아트	28	3.43	1.345	
	반영구화장	3	4.67	.577	
	두피모발관리	8	4.38	.744	
직책	원장	162	3.81	1.064	2.724(.030)**
	매니저	28	3.89	1.133	
	디자이너	53	4.17	.914	
	스텝	13	3.85	.899	
	교육생	64	3.53	1.098	
경력	1년 미만	76	3.61	1.096	4.322(.002)**
	5년 미만	47	4.30	.858	
	10년 미만	43	4.02	1.012	
	10년 이상	49	3.88	1.111	
	20년 이상	105	3.67	1.044	
봉사기간	1년 미만	136	3.74	1.090	1.813(.126)
	3년 미만	47	3.70	.998	
	5년 미만	48	4.06	1.060	
	10년 미만	31	3.65	1.018	
	10년 이상	58	4.03	1.025	

p*<0.1, p**<0.05, p***<0.001

VOICEYE voiceye.com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 F=3.619, 유의도 .058, 연령에 따른 요구도는 F=1.139, 유의도 .338, 봉사활동기간에 따른 요구도 F=1.813, 유의도 .126의 결과를 보여 성별과 연령, 봉사활동기간에 따른 집단별 평균분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F=2.280, p<0.05), 직책 (F=2.724, p<0.05), 경력 (F=4.322, p<0.05)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공과 직책, 경력에 따라 지각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공, 직책,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별 평균분석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비교적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현장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도 충분히 전문 미용기술을 익히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자원봉사자로서, 전문기술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미용학 관련 박사과정이 있으며 수많은 유학생들이 뷰티를 전공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미용기술교육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미용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 뷰티전공 학생, 미용직업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도는 '매우 그렇다'로 확인되었다. 이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들은 장애인식이 매우 높으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장애인식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뷰티종사자의 장애수용태도는 '보통이다'로 확인되었다. 이는 뷰티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장애관련 봉사활동 경험, 통합교육 경험, 등 경험적 요인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교류로서 통합미용기술교육의 필요

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뷰티종사자의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는 대부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습득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 전공분야별 교육이 수준별로 체계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인 차원인 통합미용기술교육과정에서 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범위를 조사하였다.

박선미(2013)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성과분석'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은 2010년까지는 여성장애인이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능습득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에 기반 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장애유형과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전문 실업교육이 가장 낮은 선호도 보였고 이는 주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는 결과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욕구는 있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개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동기부여가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단순한 취미, 여가를 위한 참여자의 욕구로 인해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통합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프로그램 내 자원봉사자나 가족의 비중이 10% 이상 차지하는 기관이 12개 중 5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자원봉사자나 가족의 동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미용기술교육의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인 학생, 장애인 가족인 비장애인, 미용기술교육 강사인 자원봉사자 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실기 수업이 가능한 뷰티전공분야별 수용한계의 범위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KCI VOICEYE voiceye.com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나 인터넷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기준이나 표준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문항을 작성하여 해당 뷰티전공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뷰티 산업현장에서 생계를 위한 미용기술에만 전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추후 설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해있는 각종 미용협회들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 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수업의 대상자인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문을 통하여 희망하는 뷰티 분야별에 대한 자료를 마련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언점은 박원경, 최성규(2012)의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지역사회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관심이 필요하며, 학교나 지역사회 등의 특정 주체의 노력만이 아닌 지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지원 주체들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들 지역사회 및 관련 주체들의 연계를 통한 통합미용기술교육의 활성화와 전문미용기술 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전공분야별 요구 범위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에 필요한 사전 자료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K-뷰티와 함께하는 글로벌화를 향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미용기술교육으로 출발하기를 바라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영옥. (2019). 미용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미용복지사 인식에 관한 연구 ."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울

고대선, 윤민수. (2021). 태권도지도자의 장애인 지도행동 예측: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적용.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47-53.

공미진. (2014).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일본 미용복지사의 활동에 대한 고찰 연구. 국제보건미용학회 학술컨퍼런스, 7-7.

국민일보 네이버뉴스. (2020. 7. 4.). “좋아요 80만개” 구찌 모델 된 18살 다운증후군 소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5&aid=000133836.

김기흥. (2012). 장애아동 및 통합교육에 대한 독일 예비교사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11.1 : 5-31.

김동규. (2011). 재활 및 장애 관련 종사자들의 장애인 운전재활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상북도.

김민하, 최은주. (2018). 방과후 미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의 창의성, 인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9.4 : 69-79.

김샤샤. (2014). http://wbaa.kr/%EC%A0%84%EB%AC%B8%EC%9C%84%EC%9B%90-l-%EA%B9%80%EC%83%A4%EC%83%A4/?cat=172/ 〈검색일, 2021.11,8〉

김영미, 진혜경. (2021).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 185-194.

김영배, 이외숙. (2015). 공무원들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태도 및 미용교육 필요성 인식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6.2 : 141-160.

김윤자. (202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2-23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서울

김춘자. (1998). 국내 피부미용관리사의 교육 및 업무실태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현정. (2021). 뷰티 서비스전문가의 자기관리 측정모델 개발.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서울

남선화. (2021). 음악치료사의 장애인식이 실천적 지식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구조 관계. 한국

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2.1 : 97-116.

데일리블로그. (2020. 8. 2.). “편견을 깨다! 역경 딛고 슈퍼 스타로 발돋움한 모델 1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8913173&memberNo=15460571&vType=VERTICAL.

마성룡, 홍은경. (2018). "장애인관련봉사활동 수업을 통한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장애인식 및 장애인수용태도에 대한 변화."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 241-248.

박상희, 한창호. (2021). MZ세대를 위한 제너러티브 디자인의 다양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7. : 188-200.

박선미. (2013).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성과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 대학원, 경상남도.

박영아, 김태준. (2010).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7, 61-77.

박원경, 최성규. (2012). 청각장애학생의 전환관련 요인 및 특성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 611-644.

박은진. (2021). 미용복지 법제화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상남도.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1 : 83-99.

신원식, 한은경. (2020). 한국 시니어 소비자의 욕구 특성 분석: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3), 389-411.

오순란. (2014). 장애미용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오윤진, (2010). 시각장애인 역학인 양성 직업재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시각장애연구, 26.4: 93-117.

유용식, 권순신 (2013).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 508-517.

이현기. (2018). 중년 이후의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20.4 : 131-151.

임예직. (2021).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경기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통계집. (2020). 173-174.

전용수. (2007).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구

전용수, 김장순, 박천만. (2007).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여성장애인에 미치는 효과 -청각장애 여성과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3.3 989-1000.

정선영. (200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127-163. 1차 사후조사와 6개월 이후 2차 사후조사의 비교분석, A 6 months Follow-up Study.

지은선, 손미선, 심가가. (2020).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26.1, 100-107.

얼리어답터뉴스. (2021. 9. 2.). “2021장애인문화예술온라인축제 '다이버시티 컬렉션 ‘아름다움이 스며들다’ 패션쇼'”, https://www.eanews.kr/news/605252.

양백산. (2020. 5. 12.). “Mckinsey: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뷰티 산업의 변화”, https://blog.naver.com/yong940153/221958308543.

원고접수 : 2021. 11. 14.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4.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Beauty Workers on the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of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Choi Hyejin*·Cha Hyeok**·Lee Dooho***

Before proving the potential of Korean beauty people thanks to the global impact of K-beauty,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needs of beauty workers for integrated beauty techno logy education for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nd to prove its effectivenes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selected as beauty shop managers, managers, designers, staff, h air, skin, makeup, nail art, semi-permanent makeup, scalp and hair care, beauty major stude nts, and beauty vocational training school trainees with experience in hairdressing volunteer activities. In addition, the awareness of the disabled, the attitude toward accepting the disabi lity, and the demand for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were investigated. As a resu lt of the survey, beauty workers had a high awareness of the disabled through their experien ces of volunteering, but showed a moderate level of attitude toward accepting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ttitude of accep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 gh active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empathy, contact experiences, and talent donations wit h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In addition, most of the responses to the demand for integrated be auty technology education were 'yes'. see. It is believed tha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y

* Hansung University Media Design Department, Beauty Design Management, Doctoral Program, New Media Advertising and Promotion, Master's Doctoral TA Assistant, Barber
** Master's course in Hair Design,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Marketing and Advertising, Undergraduate Course, Former Hairdresser, Disabled, Total Beauty Consultant

stemized standard for education for each beauty major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 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oaden so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the disab led, improve positive self-efficacy through various beauty technology education, and incr ease social participation.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K-Beauty will establish itself as an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ogether with K-Beauty.

Keywords : Disabled People,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Beauty Workers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451- 489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실태

한규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장애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또 다른 새로운 예배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현재 현장 장애인 예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만 코로나 이후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관찰 조사해보는 시도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 형성되었던 2019~2021년까지의 온라인 장애인 예배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는 참여관찰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방송되고 있는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직접 조사하였고 총 10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조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점과 대안 예배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관점으로 현재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분석한 결과 예배 형식, 구조, 특징, 진행 등의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환경적 지원 방안, 하이브리드 예배, 참여적 예배 모델, 퍼포먼스적 예배 모델 등 다양한 예배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장애인 예배를 공유한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가 지녀야 할 중요한 특징은 주체성, 수평적, 비전형적, 참여성 등이었다. 다시 말해, 예배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말씀을 봉독하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구조가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세밀한 요소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도 예비 장애인이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권리가 있음을 재해석해야 한다. 기독교 관점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모두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며 그런 우리에게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혐오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배란 장애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종교적 생활양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전제되어있는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 예배인 만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리허설로 나이, 성별, 인종, 가치관 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서 편견과 차별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주제어 : 장애인 온라인 예배, 위드 코로나, 주체성, 수평적, 비차별적, 참여적, 퍼포먼스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1. 연구문제 : 코로나 19로 인해 소외당하는 예배자 “장애인”

지난 2020년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제한되고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교회는 코로나 19 제한 장소가 되었으며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각종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통하기 시작했으나 그 과정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예배자가 있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부모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상처 입은 마음을 호소하였다. “우리 아이는 혼자 마스크를 못 씁니다. 제가 도와줘야 간신히 씁니다. 집에만 데리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근처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려고 하면 마스크를 계속 벗어 던집니다. 그런 아이를 향한 주변 시선은 여전히 따가울 때가 많고 저희는 자진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1)]

물론 백신 접종 이후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과거에 비해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처 입은 자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사회가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중 교회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예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필자는 소외당하는 예배자로 꼽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생겼고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우연히 드리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날이 갈수록 발전된 형태로 방송되고 있지만, 장애인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장애인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배자 수가 소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시설적인 측면이나 예배 시스템적인 부분,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두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 부서가 있더라도 통합예배와 비통합예배에 있어서 원활하게 예배가 운영되지 않는 점 등 다양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19 이후 상황은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장애물을 추가로 얹어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예배

---

1) 뉴스엔조이. “코로나19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3 : 발달장애인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9.

를 드리는 권리를 착취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고 대안적 예배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길 바란다.

또한 장애인뿐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세상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의 저자는 이러한 억압의 상태를 "메릴린 프라이의 새장 비유"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새장을 가까이서 보면 철망이 한 줄씩 보인다. 이렇게 철망을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얇은 선 하나가 새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새장에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만 그 철망들이 모여 새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 새장이 새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새장도 뒤로 물러나야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 연결된 강압과 장벽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날갯짓을 방해하고 있음을 말이다(김지혜, 2019, p.79).

이런 새장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존재하는 새장을 바로 보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한다. 성경에도 차별에 대해 기독교의 가치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3]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4]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와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소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본받아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수평적인 예배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 성경에 기록된바 종교 위선자들은 어떠한 사랑이나 정의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분별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특정인을 미워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육체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5]고 말씀하신다. 그 누구보다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이셨고 그를 수없이 비판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두려움'을 딛고 '사랑에 기반을 둔 평등한 삶'을 실천하셨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를 따라 두려움을 딛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

2) 야고보서 2:8-9.
3) 로마서 3:22.
4) 갈라디아서 3:28.
5) 요한복음 8:15.

VOICEYE
voiceye.com

2. 연구 필요성 : 온라인 장애인 예배 이해 “예배 및 디지털 예배”

예배란 하나의 의례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의례란 평범한 행위들과는 대조적으로 행해진 것을 구별하고 특권화하기 위해 기획된 특정의 행동 양식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 인간관, 신에 대한 이해, 의례를 행하는 사람,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예배 유형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예배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 등에 따라서 예배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배라는 목적은 신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을 표하는 자리로서 공통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의 형태는 종교 공동체의 실천적인 차원의 신앙 표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화가 예배 안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얼마든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6)]

예배는 사회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기준을 반영하고 반대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배는 사회의 종속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사회에 영향을 받는 예배는 사회라는 독립변수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인식의 정도에 따라 예배 안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마치 코로나 이후에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부 교회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영향을 받아 장애인 예배(통합, 비통합예배)를 구성하고 있었고 IT기술, 디지털 세상이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7)]

온라인 예배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은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워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중대한 문화적 변환을 겪고 있는데 러다이트적 비판의 근거로서 전통을 사용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면에서 이곳(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신학적으로 일어내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우울증, 곧 향수병의 희생자들이다.”라고 디지털 세상의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실패자라고 지칭하고 있다(Graham Ward 2002, p.56).

---

6) Albrecht, C.. 김한옥 역. 예배학입문. 도서출판 바울, 1999.
7) 위의 참고 서적과 동일

디지털이라는 매개는 코로나 시대에 대두된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장애인 예배자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을 마련해주었고 성경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라마 바이블[8]과 같은 귀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다양한 종교 의례가 등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장애를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프라인 종교 의례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 문제와 의례 공간에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종교 의례에만 참석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이동과 접근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교에의 참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이미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의 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앞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 때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에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사회가 만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세계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신앙생활이 점차 오프라인의 종교 문화를 변화시킬 태세이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더 이상 비인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된 예배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9] 디지털 이민자가 쇠퇴하고 디지털 원주민이 현재, 미래가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색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디지털을 잘 사용하고 다루어서 모두가 평등하고 수용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이 시대에 적용하여 더욱 발전되고 편리한 형태의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디지털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직면한 과제이다.

예배를 의식하는 점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 예배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다. 한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며 무조건 대면 예배를 강요하기도 했다.[10] 코로나 이전부터 생활종교로서 전환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접근은 특권을 누리는 공식 텍스트들과 교리들보다는 오히려 대중적인 신앙 실행들에 초점을 맞춰왔다. 즉, 예배에 대한 연구의 초점 역시 넓어지면서 대중적인 신앙 행위들과 기도 생활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소에 한계를 두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교회의 예배, 경건한 개인주의라는 두

8) 오디오 성경. 위키백과
9) 안선희 (2020: p.28)
10) 일요서울. 교회 목사, 설교 중 “대면 예배 안 하면 지옥 간다.” 발언 논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050

KCI VOICEYE voiceye.com

개의 별도 영역이 있다는 이전의 개념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고가 필요하기도 하다.[11] 하지만 이 경고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치 못하고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불가피하게 혼재되어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강제적으로 장소에 한계를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예배는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받기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예배의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는 필요하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공간의 중요성보다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예배의 형식,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형식의 유동성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마 12:9, 막 3:1) 즉 예수님께서는 의식보다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심을 보여주신 것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살펴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이상적인 예배의 모델에 대해 고민하며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이제는 교회 또한 독립변수로 앞장서며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본론

1.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1) 연구자료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장애인 예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경적 이해(구약, 신약)를 여러 문헌을 통해 연구한다. 연구 자료는 의례지 자료, 기사, 정기간행물, 기존 논문 등을 활용할 것이다. 그 후에는 책을 참고하여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

11) 안선희 (2020: p.53)

12) 조기웅.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광주 p22

(2)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국내 연구에서는 특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예배에 관한 연구, 장애인을 위한 목회 방안 등만이 연구되었다. 이런 연구 주제를 미루어 보았을 때,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시기의 예배 형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도 제한이 있어 조금 더 포괄적인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예배 연구가 요구되는 바다.

필자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불평등을 겪고 있을 장애인들의 새장을 뒤로 물러나 바로 보기로 했으며 현재 비대면으로 방송되고 있는 장애인 예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전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온라인 예배 관찰 조사를 통해 알고 싶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이후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현황 둘째,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구성과 순서 및 특징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장애인 온라인 예배 모델을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색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방송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행 연구(한국장애인사역연구서 2012)로 코로나19 이전 장애인 대면 예배의 현황을 제시한 논문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온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중점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예배를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정의함으로써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하거나 녹화본을 올려주고 있는 교회를 포함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M교회와 S교회 등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비통합, 통합)를 드리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 예배의 특징, 운영 방식, 장애인 예배를 드릴 때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이지만 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온라인 예배 접근권 문제와 장애인 참여율 문제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환경적 지원방안 및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으로 장애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방법

첫째, 앞서 제시한 연구 자료를 통해 우선 장애인의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장애인 온라인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정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크게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로 나누어 분석한다.

둘째,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현황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유튜브로 송출하고

VOICEYE voiceye.com

있는 장애인 예배를 직접 검색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를 기준으로 예배의 진행 상황을 참여 관찰을 통해 기록할 것이다. 또한 예배 관찰 보고서 작성을 통해 예배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직접 예배를 참여하여 관찰함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현장의 사실을 감각기관에 의해 인지하고 기술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단, 관찰 조사법은 자연적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사실 파악이 가능하지만, 관찰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 혹은 편파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화된 관찰을 선택한다. 구조화된 관찰을 통해 구체적인 관찰 항목을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 관찰을 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구조적 분석을 위한 기준은 총 10개로 다음과 같다. 예배의 참여자 및 장애인 부서 구성, 예배 인도자,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 방법, 예배 시기, 예배 장소,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 반복성의 정도, 집합성의 정도, 감정성의 정도, 개방성의 정도이다. 기준 중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란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정도, 반복성의 정도는 예배를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도, 집합성의 정도는 예배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정도, 감정성의 정도는 참여자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 마지막으로 개방성의 정도는 예배 참여자 범위의 정도를 뜻한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에 모든 교회의 예배를 분석하는 것보다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로 대표되는 예배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를 집중적으로 비교 관찰 및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결론

1. 장애인의 정의

1) 일반적 장애인 이해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시대의 변화와 문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개념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학적, 법적, 사회적 관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시대별, 국가별, 학자별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 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거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2006) 제1조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장애인의 직업 복귀에 관한 선고 제 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3]

미국 재활법(Rehablilitation Act of 1973) 제 7조 제6항에 의하며 장애인을 “주요생활 활동 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14] 하지만 영여표현의 변화를 보았을 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handicapped’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좀 더 차별적인 표현을 제한한 ‘the person with disability’라고 사용해야 할 것을 권하며, 그 주된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모습이 제각기 다르고 고유하듯 장애도 이런 특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15]

그 밖에 일본은 심신장애인 대책기본법에서 “심신 장애인 이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균기능장애, 또는 언어기능 장애, 심장 기능 장애, 호흡 기능 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 혹은 다른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16]

따라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듣기를 잘 못 하는 사람,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보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17] 즉,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을 정의하는 관점이 개별적 모델 중심에서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모델도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8] 즉, 장애의 원인, 문제

---

13) 오혜경,「장애인 복지학 입문」, (1998: p.17)
14)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한국 사회복지 총람」(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사, 1979),95.
15) 임종호 (2013: p.18)
16) 이태영,「사회복지와 특수교육」(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 1985), 95.
17) 오혜경 (1988: p.15)
18) 김용구 (2014: p.10)

점, 해결책을 장애인 개인적 속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과 사회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발견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의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의 예배의 물리적 공간, 예배의 진행 순서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을 사회적 환경으로 정의했을 때 온라인 예배 또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근원지가 될 수 있음으로 예배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예배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장애는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별하게 정의하며 사람이 아닌 다른 객체로 바라보는 것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모두가 한계를 지닌 존재이며 결함이 없을 수 없다. 그 한계는 인간이 서로의 부족함을 다르다고 규정짓고 혐오로 이어질 때, 즉 공동체성이 결여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 개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치유 불가한 병과 증상이 아니라 그런 한계를 장애로 인식하게끔 타자화하는 사회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이란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19]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애를 정의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장애의 의미는 변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라는 구분을 사회의 노력에 따라 무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 규정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의나 개념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또는 장애인 차별로 이어지거나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20]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소외였다. 유교사회의 전통적 체면 문화로 인해 신체적 결함은 타인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비장애인들도 그들을 보기를 꺼려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아무런 죄 없이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해야 했고 가족들마저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기까지 했다. 과거 장애인을 칭하는 용어를 보면 불구자, 병신, 바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비하하였고 50여 년 간 사용되다가 최근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비로소 수정되었지만, 우리말 번역 개역 성경 속에서도 장애인을 소경, 귀머거리, 절뚝발이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서구 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였는지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기독교를 바라보는 장애인 분야 학자들이 얼마나 기독교에서의 장애 이해를 비판하였을지 짐작할 수 있다.[21]

현대에 이르러서는 장애 인식 교육 프로그램과 활발한 연구 등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19) 김용구 (2014: p.10)
20) 박대규 (2007: p.12)
21) 박대규 (2007: p.20)

바뀌어 장애인을 주체적 인간으로서 바라봐주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의식이 커지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연대성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동등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이웃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2) 성경적 장애인 이해

(1) 구약의 장애인관

구약 성서는 장애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나는 부정적인 장애인 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장애인관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차별의 대상 혹은 죄의 대가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애인이며 긍정적인 면으로는 보호의 대상, 하나님 섭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애인 등이다.

먼저 구약시대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무능력한 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이는 사무엘하 6~8절에서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은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며 큰소리를 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윗 왕 또한 여부스 사람들의 말이 모욕적으로 느껴져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자는 하수구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장님을 치라고 한다. 따라서 장님과 절뚝발이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까지 생긴다. 이 속담은 여부스 사람들이 성에 들어오지 못함을 의미하지만, 그 전제에는 장님과 절름발이를 무능력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

둘째, 죄의 대가로 장애인이 된 대표적인 경우는 유다 왕 시드기야, 삼손, 소돔성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패하게 되어 두 눈이 뽑히는 상황에 직면하였고(왕하 25:7)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삼손은 죄를 범한 결과 블레셋 사람에 의해 눈이 뽑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삿 16:21) 마지막으로 소돔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모욕한 죄로 인해 두 눈이 어둡게 된다. (창 19:11) 그 이외에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때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다. 이는 죄의 대가인 벌이 장애 요인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23)] 하지만 또 죄의 대가가 장애라는 것을 인과관계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할 것은 죄로 인해 벌을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장애를 사용하신다는 점이다.[24)]

---

22) 조기웅 (1998: p.19)
23) 조기웅 (1998: p.19)

셋째, 장애를 소망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사야 예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이날에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며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사 29:18, 32:4, 35:5-6, 42:7) 또한 예언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겔 34:16, 시 146:8-9) 이 구절을 미루어 보아 장애인은 사회적 관점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을 향한 시선 또한 새로워지고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수용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25] 하지만 그 외에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 복지의 객체로만 보거나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된 사항이라고 보는 관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의견이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기독교적 해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 관점으로 죄의 대가나 무능력한 존재로 비추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사용하시고 희망을 품어 하나님 나라에 수용될 것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신약의 장애인관

신약시대에 와서도 장애를 죄의 대가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잔존했다. 하지만 신약성서에서는 공동체와 구성원 각각을 고유한 개체로 바라보는 평등적 관점,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사건과 복음전파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24에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등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장애뿐만 아닌 성, 인종, 민족, 계급 등 어떤 기준으로든 인간을 판단치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수용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례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나눔과 봉사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26]

둘째, 예수와 제자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여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장애인을 향한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도 신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 병을 고쳐달라고 예

24) 김병현 (2019: p.113)
25) 조기웅 (1998: p.20-21)
26) 김용구 (2014: p.19)

수님을 찾아온 사건(마 5-13)에서 주인이 하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부모가 자녀를 고쳐달라고 온 경우, 아버지가 간질병(뇌전증)이 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치유해주신 내용 등도 있다. (마 17:14-18, 막 9:17-29 눅 9:37-43) 또 예수님은 장애를 입은 자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손님으로 비유한 사건(눅 14)을 통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청객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귀빈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는 장애를 직접적으로 치유해주신 사건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을 초대하시는 행위를 통해 비장애인의 영적 결핍을 지적하시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시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27]

이처럼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눅 4:16-19)을 선포하시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28] 하나님 나라는 사후세계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죄악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길 소망하고 이미 만들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해방의 과정에 동참하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개개인이 아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갈 때 백향목과 같은 향기 나는 곳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를 품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장애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장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을 향해 그들의 죄에 원인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9:1~3) 따라서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단순히 죄와 벌의 인과관계로 단정 짓고 단편적으로 장애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장애인은 쉽게 소외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린도전서 1:27-28)고 하셨던 것처럼 소외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처럼 신약성서에서는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기독교적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예수는 소외당한 자들에게 차가운 눈초리가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주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27) 안교성 (2003: p.43)
28) 조기웅 (1998: p.36)

VOICEYE voiceye.com

한 인간으로 존중하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인격적 권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영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통합적 삶을 보여 준 것이다.[29]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 위해 장애인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장애인 이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과 변화해야 할 점 또한 생각하면서 장애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온라인 장애인 예배 현황과 특징 및 개선점

1)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개념

김병석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기존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 개념이 더욱 확장된다. 온라인과 인공지능(AI)과 만나면서, 가상현실·증강현실이 응용된 다채로운 예배 디자인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며 “예배의 다양성은 초대교회부터 있어왔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수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예배의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은, 형태가 변해도 본질과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확신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30] 즉,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은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던 개념이며 디지털 세상을 매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의 동시 진행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두 개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온라인 예배란 온라인 예배의 참여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신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한계도 물론 존재하지만 대면 예배에 비해 각 장애의 유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제약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도 몸이 마비된 젊은이를 아이패드를 통해 교회의 회중석에 앉게 할 수 있는 일에 이르기도 했다.[31]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술을 통하여 서로에게 쌓아왔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즈의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

29) 김한호 (2010: p.49)
30) 크리스천투데이. “코로나 이전부터 예배 못 오는 장애인 등 고려했더라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3444.
31) 안선희(2020: p.60)

게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경도 이 사랑의 나눔을 막을 수 없습니다."[32] 하나님의 사랑은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더욱 편리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한 것이다.

물론 가상의 교회 공동체가 실재하는지 혹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학자들이 있다. 2004년 실행된 12주 동안의 '바보들의 교회'(Church of fools)실험에 따르면 가상 예배 가운데 예배 참여자들은 그들이 정말로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경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배에 참석한 BBC 방송국의 한 기자는 다소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이는 마치 그들이 같은 방에 서 있는 것처럼 실제였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마을들에 있다는 사실이 하찮은 문제로 보였다." 이처럼 가상인 동시에 실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현실 공간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33]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아니기도 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음성 기술로 인해 함께 할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수어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방송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가정에서 들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장애로 인해 한 공간에 직접 가서 함께 있지는 못하더라도 실재하는 가상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네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의 문제점으로서 기독교 예배는 주요 동력으로서 인간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관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이런 현상을 추기경 라칭거는 자축(autocelebration) 즉, 교회가 스스로 거행한다는 용어로 표현했다.[34] 즉, 공간적 근접성이 없지만, 시간적 동시성이 있는 예배라면 우리는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예배를 규정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더 고립시킴으로써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장애인 온라인 예배'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할 수 없는 시대에 필연적인 예

32) 안선희 (2020: p100)
33) 안선희 (2020: p106) Jenkins, "Rituals and Pixels," 105
34) 안선희 (2020: p114)

VOICEYE voiceye.com

배의 한 공간으로서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근접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시간적 동시성으로 서로에게 공감하고 주목하며 하나의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들을 통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분리시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대안적 예배 모델〉에서 더 중점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2)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현황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 예배 유튜브[35] 송출 통계다. 2020~2021년 반영하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온라인예배는 직접 교회에 가서 대면으로 관찰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의 예배를 관찰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예배의 형태가 나뉘었는데 비통합예배와 통합예배다. 장애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장애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비통합예배, 장애 유형별로 환경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통합예배, 추가적으로 통합예배 안에는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여 교회의 온 성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위해 매년 행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일시적인 장애인 예배 형태가 있다. 본 현황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비율과 참석하는 장애 유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예배의 진행, 구성, 특성을 위주로 예배를 관찰 조사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현재 유튜브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교회는 지구촌교회 복지 선교부, 명성교회, 염광교회, 사랑의 교회 장애인 선교부, 선한목자온라인교회(장애인 주일), 밀알 선교단(사랑의 교실 장애인 예배), 남서울은혜교회(장애인 주일), 호산나교회(장애인 주일), 열린교회 사랑부(장애인 주일), 나성영락교회 Y.N.C.(장애인 주일), 일산은혜교회(장애인 주일), 여의도순복음교회(장애인대교구 온라인 수요예배), 은평성결교회 고등부(장애인 주일), 김포사랑스러운 교회(장애인 주일), 주님의 영광교회(사랑부, 장애부, 영어예배), 은혜한인교회(발달장애인 주일예배)로 총 16개의 교회였으며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비통합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총 7개, 통합예배 장애인 주일로 일시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총 9개였다. 그 이외에는 예배는 아니지만, 장애인 예배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 교역자들을 위한 채널이 1개 있었다. 온라인 예배라는 특성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도 존재했다.

---

35) Youtube(영어) :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위키백과

선행연구(한국장애인사역연구서 2012)에서 살펴본 현장 예배와 현 연구의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비교해봤을 때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현저히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현장 예배 12곳도 추천받아 조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교회가 장애인 예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인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7개이므로 상대적으로 교회의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필수적인 예배 형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에 있어서 예배 접근권과 관련하여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고 편리함을 느끼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어 나아갈 전망으로 보았을 때 현장 예배만큼이나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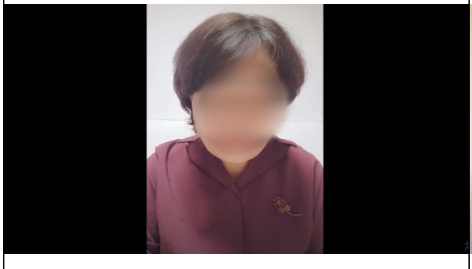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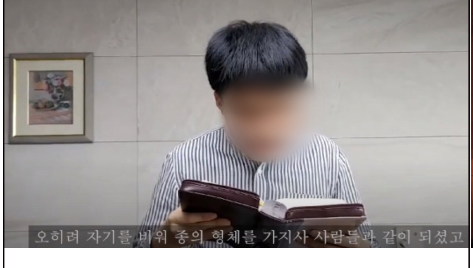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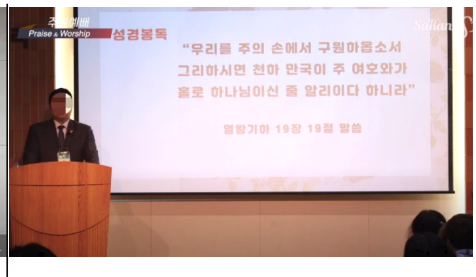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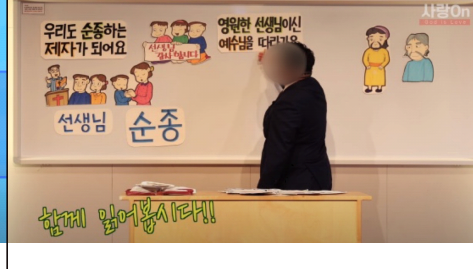
3) 장애인 예배의 형태와 특징 : 예배관찰보고서

앞서 제시한 통계조사에 따라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보다 체계적인 구조화된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적 분석을 위한 기준은 총 10개로 다음과 같다. 예배의 참여자 및 장애인 부서 구성, 예배 인도자,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 방법, 예배 시기, 예배 장소,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 반복성의 정도, 집합성의 정도, 감정성의 정도, 개방성의 정도이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에 모든 교회의 예배를 분석하는 것보다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로 대표되는 예배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를 집중적으로 비교관찰 및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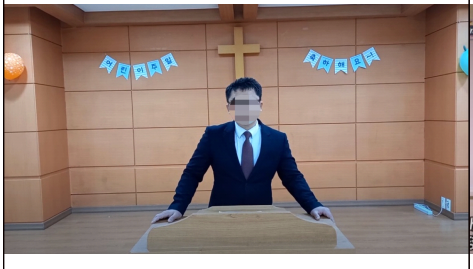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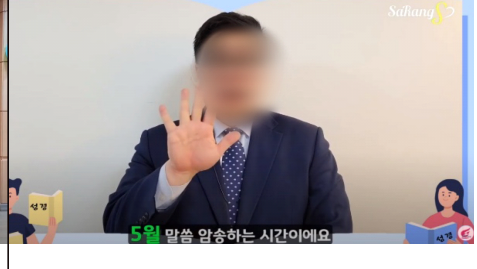
VOICEYE
voice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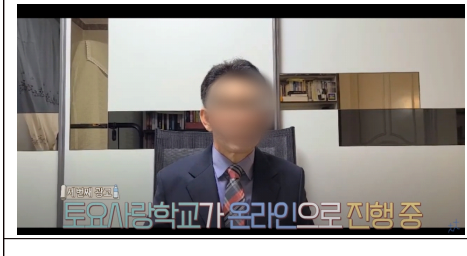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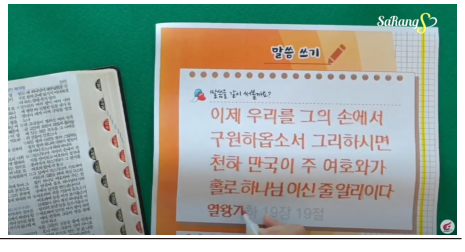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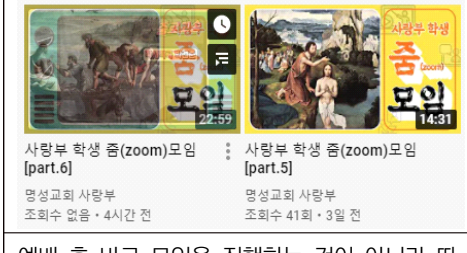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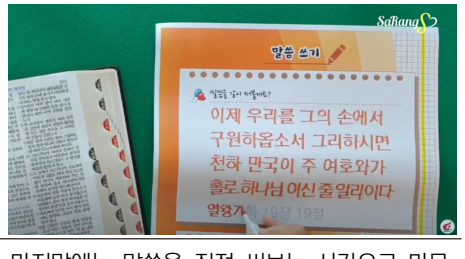
〈표 2〉 관찰연구교회 장애인온라인 예배의 일반적 특성

교회	M교회	S교회
예배의 참여자 및 장애인 부서 구성	- 통합예배로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매주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며 한달에 한번 통합 예배(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실시한다. - 장애인 부서는 (발달장애인), 농아부, 사랑지체부(지체장애인)로 이루어져 있다. - 그 밖에는 일 년에 1~2회씩 통합 캠프를 진행한다. - 평일에는 사랑 학교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지원한다.	- 비통합예배로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장애인 주일을 지정하여 특별 장애인 주간에 통합 예배를 실시하기도 한다. - 장애인 부서는 사랑부와 소망부로 이루어져 있다. 1) 사랑부: 사랑1부(18세 이상의 발달장애 성인들), 2부(14~17세의 발달장애 학생들), 3부(미취학 아동~초등학생까지의 발달장애 아동들) 2) 소망부: 청각 및 지체장애인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화통역을 통해 청각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한다. 수화 교실에서 배출된 봉사자들이 통역 봉사를 하며 주일3부예배와 수요찬양예배때 본당 1층 남측 청각 장애인석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배 인도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구성해 나간다.	비장애인들이 주를 이루어 예배를 구성해 나간다.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방법	(1) 찬양  찬양 인도자 한 명과 두 명의 비장애인, 한 명의 장애인이 함께 율동을 하며 찬양한다.	(1) 찬양  비장애인 찬양 인도자 한 명이 율동과 함께 찬양을 인도한다.

<table>
<tr><th>교회</th><th>M교회</th><th>S교회</th></tr>
<tr><td rowspan="3">예배의 참여자 및 장애인 부서 구성</td><td colspan="2">(2) 기도</td></tr>
<tr><td>  </td><td> 
</td></tr>
<tr><td>교사가 기도를 준비하고 대표기도를 한다.</td><td>찬양이 끝난 후 찬양 인도자가 기도까지 이어서 대표기도를 한다.</td></tr>
<tr><td rowspan="5">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방법</td><td colspan="2">(3) 성격봉독</td></tr>
<tr><td> 
</td><td> 
</td></tr>
<tr><td>준비된 특송을 장애학생이 주체적으로 부른다. (찬양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td><td>"다 같이" 라고 말한 후 강단 앞에서는 사역자 혼자 봉독하며 강단 밑에서는 장애인들 또한 성경을 봉독한다.</td></tr>
<tr><td>(4) 특송</td><td>(4) 말씀</td></tr>
<tr><td> 
</td><td> 
</td></tr>
<tr><td>준비된 특송을 장애학생이 주체적으로 부른다. (찬양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td><td>말씀 내용을 전달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그림과 영상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들을 이용한다. 매주 예배 마다 자막을 규칙적으로 달아주지는 않는다.
성경: 열왕기하 19장 19절 (히스기야의 기도) (5/16일자 예배)</td></tr>
</table>

KCI VOICEYE voiceye.com

교회	M교회	S교회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방법	(5) 말씀	(5) 찬양
		
	시각적 자료는 이용하지 않고 스토리테링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며 자막 제공을 하지 않는다. 말씀 내용을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 중간에 전도사의 경험적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준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8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5/16일자 예배)	앞의 찬양 진행과 동일하며 비장애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한다.
	(6) 찬양	(6) 축도
		
	전도사가 말씀 선포 후 직접 찬양을 이어 부르신다.	목사가 강단에서 축도를 하신다. 축도를 할 때는 자막을 삽입해준다.
	(7) 기도	(7) 예배 후
		
	기도 또한 전도사가 찬양에 이어서 바로 한다.	광고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며 말씀 암송 시간을 목사와 함께 갖는다.

교회	M교회	S교회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방법	(8) 축도	
		
	목사가 강단에서 축도를 한다.	그 후 암송한 말씀의 뜻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9) 광고	
		
	부장집사가 광고를 진행하며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은혜 받을 것을 축복한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직접 써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적인 활동을 한다. 말씀 노트는 예배 사전에 미리 배부해주며 매주 말씀 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헌금 주일과 같은 행사가 있는 주일에는 헌금 봉투를 직접 만들어보는 만들기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10) 온라인 사랑 학교	
		
	예배 후 바로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토요 사랑 학교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토요 사랑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활동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활동 외에도 zoom을 이용하여 말씀을 나누고 알려주는 모임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직접 써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적인 활동을 한다. 말씀 노트는 예배 사전에 미리 배부해주며 매주 말씀 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헌금 주일과 같은 행사가 있는 주일에는 헌금 봉투를 직접 만들어보는 만들기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VOICEYE
KOR
voiceye.com

교회	M교회	S교회
예배 시기	코로나 이후~2021. 11	코로나 이후~2021. 11
예배 장소	M교회 교육관, 온라인 예배 (실시간 송출)	S교회 베드로 홀1 온라인 예배 (녹화)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	예배의 순서와 절차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매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가 높다.	약간의 변경 사항은 있더라도 예배의 순서와 절차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매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정형화와 표준화 정도가 높다.
반복 정도	매주 규칙적으로 예배를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	매주 현장 예배의 녹화 분을 규칙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다.
집합성의 정도	말씀 내용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일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역자가 말씀을 전달할 때 학습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고려하여 사용하며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참여 형식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집중도와 예배에 대한 개인적 인지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배제한 예배보다는 상대적으로 집합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들의 학습 능력에 맞춰 예배를 진행해 나가지만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예배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명성 교회에 비해 말씀을 전달할 시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예배 후에 성경을 함께 암송하고 말씀 쓰기 시간을 따로 가짐으로 주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예배에 직접적 참여율은 낮지만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기에 집합성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감정성의 정도	예배자들이 감정을 깊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배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말씀 이해에 대한 학습적인 부분은 비중이 크지만 예배 이외의 줌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신앙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깊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개방성의 정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예배 참여자를 발달장애인으로 국한시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 유형의 아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 발달장애인 아이가 주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에는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통합 예배가 아니기에 예배 참여자가 발달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학습능력의 정도와 장애 유형이 차이가 있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예배일 경우에 주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아동이 예배에 참여하기에는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개선점

첫째,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조사 분석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들의 주체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두 교회의 예배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M 교회에서는 장애인의 예배 참여 정도가 S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배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진행 과정 가운데 장애인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의 부분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 외에 교역자와 교육자가 해야 하는 것은 장애인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을 향한 마음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찬양, 기도 등의 예배 순서에 참여시키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 유형에 따른 예배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육자들의 장애의 이해정도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장애 유형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위한 기술(자막, 수어방송)을 장애인 예배에 통합시키지 않은 것은 충분히 통합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예배로서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장애 유형의 통합 정도가 확장되어야 한다. 비장애인 예배에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고려하듯이 온라인 장애인 예배 또한 다른 유형의 장애를 고려하고 확장하여 예배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역자들 또한 장애인들이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각적 도구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의 유형은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따라 같은 유형의 장애라고 하더라도 세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 예배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장애인 예배 이외에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개별적 노력, 장애인 예배 부서만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적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 온라인 예배는 부모 교육,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가장 고충을 호소하는 그룹은 가정이었다. 장애인들에게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

KCI VOICEYE voiceye.com

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배 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요구된다. M 교회에서는 예배 이후에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격주로 주제를 변경하며 장애인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소통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활동 또한 가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옆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상황 가운데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줌을 통해 부모 교육과 부모 모임 또한 병행하며 이들의 아픔이나 힘든 상황들을 공유하고 말씀 공부, 장애에 대한 이해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또한 교회 내에 다른 공동체들,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 성경에 나타난 장애,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장애 이해 등을 교육함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비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뜻보다도 모든 사람이 예비 장애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도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교회 내의 교육과 장애인 예배의 존재를 알고 장애인식 교육을 받는다면 장애인을 만나는 실제상황에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언급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인 장애인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이다.

넷째, 코로나 이후 예배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예배로서 더욱 비선형적인 예배의 특성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와 다양성이 공존하며 그 속에 고유성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교회는 주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예배학에서는 리조메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리조메틱의 리좀(Rhyzome)은 본래 식물학에서 땅속줄기 식물을 말하며 수평적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개체를 상징한다. 따라서 자유롭고 유연한 복수성의 체계를 뜻하며 시작과 끝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유동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철학자 들뢰즈(Deleuze 1925-1995)와 가타리(Guattari1930-1992)는 리좀의 6가지 성질을 주장하는데, 그중에서는 연관성(connection), 이질성(heterogeneity), 다양성(multiplicity) 등이 있으며 이는 내재적이고 배척적이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가진 다양체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 온라인 예배는 다양함 속에서도 고유성을 유지하며 수평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찰 조사한 결과 예배의 특징을 보면 아직 리좀적 특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을 봉사의 대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예배를 통해 다양성과 수평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인지적인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장애의 벽을 허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비선형적인 예배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는 소통적인 측면보다 교육적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들을 오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앞서 제시한 구약의 장애 이해에서 본 무능력한 장애 이해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기도 하다. 발달 장애가 지능 수준이 본 연령에 비에 낮아 학습적인 부분에서 발달이 어려운 특징이 있지만, 학습발달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측면과 관련된 기준이 감정성의 정도인데 S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학습적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지만 줌 모임과 그 외의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다소 부족하여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어려웠다. 따라서 예배는 이성적인 학습적 측면과 아울러 정서와 감정을 나누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4. 온라인 장애인 예배 발전방안 : 환경적 지원방안 및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

1) 환경적 지원방안

(1) 각 장애 유형별 온라인 예배 지원 방안

앞서 개선점을 바탕으로 장애라는 고유성을 고려한 환경적 자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독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장애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음향 효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설교 말씀이나 찬양에 있어서 속도, 점자성경책 혹은 36)한소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마련해줘야 한다. 실시간 예배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른 예배자들에게는 녹화된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며 예배 후 피드백과 자신들의 반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도 제공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나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예배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될 경우 그릴 재료를 준비해 놓고 예배 중에 크

36)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VOICEYE
voiceye.com

리에이티브[37] 저널링을 하게하고 예배 후 원하는 경우 나누도록 하면 좋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배 순서에 있어서 동작해야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앉았다가 일어나는 부분 혹은 율동을 역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입을 크게 하여 기도나 찬양을 하는 부분에서 배려를 해줘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추 장애의 경우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 키보드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속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눈 깜빡임을 통해 온라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모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기기 및 가구, 공간 등에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38]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 건물 곳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표지판, 편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져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수월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안내하는 방법, 온라인 예배 시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 버튼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령층들에게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의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부모교육, 사역자와 교육자를 위한 교육, 비장애인 성도들을 위한 장애 인식 교육이 요구된다. 사역자를 위한 교육으로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조사해본 결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채널도 존재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공간이 모든 연령에게 익숙해진 만큼 온라인 매체를 통해 더 수월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통합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X)을 통한 하이브리드 예배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X)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문명사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DX는 정부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적 영역에서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비즈니스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

37) 글, 그림, 색상 형상을 조합하여 배우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
38)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위키백과)

따라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 목사는 “한국 교회는 ‘시대’와 ‘세대’에 맞는 목회전략과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후 제시한 새로운 예배 지원 방안은 ‘하이브리드 교회’다. 하이브리드 교회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place)를 말한다. 이는 현 연구 대상인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예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들 등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DX를 통해 하이브리드 교회를 추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교회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시키며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서 기능하게 한다.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서로 만나는 곳에 하이브리드 교회가 존재한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이미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변화된 환경에 노출된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교회 건물 안을 오히려 낯설게 느끼는 성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디지털화된 사회를 위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교회를 위해 그가 내세운 목회전략 중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첫째,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재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예배를 오프라인에서도 실재감 있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예배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온라인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M 예배에서도 예배 이후에 줌(zoom)을 이용한 그룹모임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 결합력을 증진시키고 소통의 장을 제공했었다. 이처럼 소그룹 활동, 예배 이외의 공동체 활동은 실질적으로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자발적인 예배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에서 ‘스토리리빙(story-living)’으로 이끌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이미 구축된 세계관 속에서 일방적으로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하이브리는 교회는 교인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스토리리빙‘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장애인들의 주체성과 참여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목회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적이고 수평적 소통을 통하여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삶으로 적용시켜 주체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유통하는 것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사회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39]

VOICEYE
voiceye.com

2)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

(1) 참여적 예배의 중요성

참여적 예배란 예배의 회중인 평신도들이 예배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즉, 예배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함을 강조하며 참여자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예배는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며 억제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소외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 예배가 나아갈 방향성 중 하나로 참여적 예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온라인 예배를 분석해보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낮은 온라인 예배를 종종 볼 수 있다. 장애인 예배라는 지칭을 사용하면서도 예배에서 주된 역할은 특히 예배 인도자와 비장애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과 예배의 순서만 보았을 때도 예배 진행의 순서들이 비장애인들 위주로 진행되어 예배에 참여한 장애인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주보에는 “다 같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찬양인도자 한 사람만이 강단의 마이크를 독점한다.

따라서 장애인 예배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참여적 예배를 추구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의식을 예배 자체에 반영해야 한다. 성경에서 중시하는 공동 의식을 실천하며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속에서 또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2) 비차별적 언어 사용과 말씀 주제의 다양성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도 유의할 점은 비차별적인 단어를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차별적 언어(inclusive language)란 교회 안의 여성과 젊은이뿐 아니라 소수자, 주변인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바른 언어, 서구 언어권에서 처음 제기된 예배 언어의 문제다.

장애인 통합예배에서는 이런 소통 방식도 비차별적 언어의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라 할 때는 청각적인 소통도 제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이라 할 때는 시각적인 자료도 제공한다. 손을 들거나 무릎 꿇을 것을 제안할 때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이란 말을 덧붙인다.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중 병신이나 절름발이와 같은 언어를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40]

---

39) 조정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의 하이브리드(Hybrid)목회전략,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16

또한 어떤 교회들은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여 일회성으로 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여 이 주간에 장애인을 생각하는 기간으로 장애인 인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한다.[41] 이렇게 교회 내부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조기기나 생필품들을 제공하기도 하며 직접 찾아가 교회로 초대하기도 한다.

물론 장애인 주일이라는 날을 설정하여 그 기간만큼이라도 집중적으로 약자를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면 그 또한 차별적인 대우,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주일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말씀들을 위주로 전달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들이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비장애인들과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다.

(3) 축제와 놀이, 퍼포먼스적 예배

의례의 기본 전제는 공현전(co-presence)인데, 즉 '한 공간에 함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한 공간이 시간적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들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학작용이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예기치 못한 감정이 고양된다. 슐라이어마허는 그의 저서 「실천신학」에서 축제와 예배를 비교하여 언급한다. 감정이 표출된 순간 표출된 감정은 각각의 다른 감정들과 서로 공명한다. 따라서 앞서 관찰 조사의 기준에서 살펴본 감정성의 정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공명하는 감정을 통해 집합적 열광을 경험하여 공통된 전통과 신념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현전이 형성된 집합의식을 통해 일시적인 의례가 아닌 일성을 살아갈 때의 원동력이 되게끔 한다. 즉, 한곳에 모인 집합체가 공통된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초월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42] 즉, 우리는 이러한 집합의식을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감정의 고양을 통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유대감과 동시에 각각의 정체성 또한 강화시켜줘야 한다. 이러

40) 김재우. 온라인 예배를 위한 제안. http://online.anointing.co.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
41) 김정회 (2003 p.35-36)
42) 안선희 (2018 p.41)

VOICEYE voiceye.com

한 것을 뒤르켐 주의에 따르면 “정체성 확인과 개인을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을 위한 예배를 마련해줌으로 의례를 통해 서로의 뜻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가지며 나아가 집합의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통합예배로 해석하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며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인지를 통해 집합의식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온라인 예배의 역할이란 그들의 이러한 의식들을 강화하고 창출하는 증폭기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혹은 개인이 집합체에 통합됨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사건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집단적 ‘치유’가 일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43]

또한 이렇게 장애인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배를 하나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일지 고민해보았을 때 슐라이어마허가 말했던 축제로서의 예배와 과르디니의 놀이로서의 예배가 떠올랐다. 예배로부터 무엇을 학습하기보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며 일상으로부터 잠시 단절하여 그 속에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인 듯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에 가깝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발적이고 자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좋은 예배의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놀이이자 축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술 언어가 아니어도 퍼포먼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의례와 퍼포먼스, 가정법 문화라고 하는데 예배 안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 같은 놀이라는 것이다. 터너는 의례를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은 곧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44] 이와 같은 퍼포먼스 이론은 문화를 텍스트가 아닌 ‘행위’로 보는데 즉, 참여하는 이들의 행위를 이해하며 그들의 행위를 강조한다. 즉, 퍼포먼스는 텍스트가 아니라 실행(practice)과 사건(events), 행위(action)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를 공동참여자나 행위의 작가로도 보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참여적이며 상호적이다.

앞서 대안적 예배로 언급하였던 참여적 예배와도 일맥상통한 퍼포먼스적 예배 형태는 이처럼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관객의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의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예배라는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동안 모두가 능동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퍼포먼스적 예배는 이전의 무대예술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권력 구조를 허물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에 집중하는 형태이다.

---

43) 안선희 (2018: p43)
44) 박희봉, 이기중, 김명준, Ibid., 96.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르트만(Hartmann)의 예배학 이론에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예배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교인들의 마음과 기원을 하나님께 중재한다.”고 말했다.[45] 이런 면에서 퍼포먼스적 예배가 가지는 의의는 협동적인 상호행위로서 수평적인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세상 속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눈초리를 받아야 하며 소외를 당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루어진 듯 선취하는 놀이와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모두가 같은 위치에 있으며 함께 어울려져서 역할을 나누지 않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런 예배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

퍼포먼스 모델을 제시했던 빅터 터너는 총체적 체험과 리허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의 강점은 생활 종교로 변화되고 있는 기독교의 특성에 맞추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성을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또한 생활 예배, 즉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빅터 터너의 총체적 체험과 리허설 개념은 퍼포먼스와 함께 생활 예배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터너에게 퍼포먼스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이다. 즉, 퍼포먼스를 통하여 타인의 입장을 체험해 보면서 서로의 상황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장애인 예배가 퍼포먼스적 예배가 된다면 그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세크너는 예배를 리허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리허설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고 이것을 삶속에서도 지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온라인 예배는 더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46]

이런 이론적 설명들을 실제 교회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앞서 관찰연구에서 제시했던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이외에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각 장애에 요구되는 적합한 기독교 교육 서비스 혹은 문화 활동을 기획하여 예배의 한 활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예배는 의식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놀이로서의 예배로서 공동체와의 소통, 놀이 과정 가운데에도

---

45) 조기웅 (1998 p.43)
46) 터너, 빅터/ 이기우, 김익두 역.『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VOICEYE voiceye.com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리좀적 특성과 주체성 기반의 예배

앞서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개선점으로 고정적인 예배의 특성을 언급하며 리좀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대안적 예배 모델로 리조메틱 예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리조메틱 예배란 예배의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비장애인과 같은 다수를 초점화하여 실행되었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뿐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지만,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신앙적 문제를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다룸으로 각자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리좀의 특성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관성(connection)이다. 가능성들을 제약하고 위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는 수목 모델과 달리 리좀은 어떤 다른 점과도 연관될 수 있고 연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관의 결과는 항상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 낸다. 둘째, 이질성(heterogeneity)이다. 이질성이란 다양한 종류의 다른 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성(multiplicity)이다. 리좀적 다양성은 차이가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동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의 집합을 말하므로 하나가 추가되어도 전체의 의미를 크게 다르게 만드는 그런 다양성을 의미한다. 넷째, 비의미적 단절(asignifying rupture or aparallel evolution)이다. 리좀들이 의미작용의 구조를 내포하더라도 그 구조들을 파열시키며 탈영토화하는 비행의 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 그리기(cartography)다. 리좀은 하나의 지도로 미리 수립된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구조적인 모델의 흔적을 찾기보다 실재와의 접촉을 통한 실험을 위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데칼코마니(decalcomania)다. 이는 재현과 대비되는 말로 모상을 정확히 옮기는 과정에서 대상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47] 이런 특성을 예배에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우리는 리좀적인 예배를 구성할 수 있고 수직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특징이 배제되어야 하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에는 적합한 대안적 예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이 상대주의를 극대화하여 예배의 본래 의미를 흔들 수 있지만, 예배의 근본(말씀과 기도)을 두고 뻗어 나가며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편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억압된 구조 안에서 맹목적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장애인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배의 구조에서는 꼭 필요한 문화 표상이다. 비선형적이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리좀적 형식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방대한 이야기식 설교, 설교자 중심의 수

47) 터너, 빅터/ 이기우, 김익두 역.『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목(樹木)형 형태가 아닌 각자가 예배의 설교자가 되어 다양한 기독교적 주제에 대해 소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답을 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주체성을 길러줄 수 있다.

5. 결론 : 장애인 온라인 예배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학을 공부하기 이전[48] 재활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많이 두고 있었다. 장애인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그들을 통해 평소에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접하게 되며 다양한 배움을 얻었다. 어느 날은 시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한소네를 들고 오지 않아 찬양 가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찬양 시간에 자신에게 가사를 한 줄씩 미리 읊어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했다. 필자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 번도 찬양 가사를 그렇게 음 없이 읽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음과 박자를 신경 쓰지 않고 가사를 읊는 순간 가사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며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그저 그 친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해준 것이었으며 결론적으로 그 친구는 가사를 볼 수 없었지만, 필자의 도움으로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양식은 달랐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공동체 의식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다.

이처럼 예배란 먼저 사랑,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부터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진심이 담기게 되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예배 또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대두되지 않았던 예배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더욱 드러난 것일 뿐이다. 즉, 이미 예배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관심을 얻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관심인 경우가 많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 시대, 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49]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일상을 뜻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단절되었지만 수많은

48) 장애인 재활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효율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 나무위키
49) 네이버 사전

매체를 통해 인간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만큼 인간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며 집합의 치유 효과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 특성이 예배에 적용되어 온라인 장애인 예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전히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적 예배 모델을 참고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더 확장되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녀야 할 자세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예배관찰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개선점은 장애인 온라인 예배에서 주체성과 수평적 관계, 참여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예배 발전 방안은 환경적 지원 방안과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로서 참여적, 비차별적 언어의 사용, 퍼포먼스적 예배, 리좀적 특성의 예배 등 이었다. 이 모든 대안적 예배의 공통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비장애인과의 구별 없이 동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기를 반복해야 한다. 비장애인의 관점이 아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개선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나이, 성별, 계급, 인종 등의 수많은 요소들을 뛰어넘어 차별받지 않는 공간을 이루는 것, 사랑과 공동체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 그 첫 발걸음을 앞으로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내딛길 바란다.[50]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있다. 그 권리가 다수에 의하여 소수로부터 착취당하게 하지 않게끔 교회는 경계하고 대안적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공감과 연대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51]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

50) 안선희 (2018: p.60)
51) 김병현 (2019: P. 139)

참고문헌

김병현. (2019). 기독교의 시혜(施惠)적 장애 패러다임 재고(再考)를 위한 신학적(神學的) 성찰(省察). 장애의 재해석, 101-148.

김용구. (2014). 장애인의 교회교육 접근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21. 10. 31.). “코로나 이전부터 예배 못 오는 장애인 등 고려했더라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3444.

김정회. (2003). 장애인을 위한 통합목회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서울 : 창비.

김재우. (2021). 온라인 예배를 위한 제안 http://online.anointing.co.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

김한호. (2010). 장애인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서울:도서출판 한 장연.

안교성. (1990). 장애인은 선교의 문제이다.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연구원편, 교육교회.

안교성. (1991). 장애인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며(교육교회 제 185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연구원.

안교성. (2003).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홍성사.

안선희. (2018). 예배와 촛불집회의 의례·퍼포먼스적 성격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8, 37-64.

오혜경. (1998). 장애인 복지학 입문.

터너, 빅터, 이기우, 김익두 역. (1996).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이은애. (2020.04.22.) “코로나19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3 : 발달장애인들” 뉴스엔조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9.

이태영. (1985).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2013).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박대규. (2007). 장애인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선교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희봉, 이기중, 김명준. (2009). 퍼포먼스 이론에서 바라본 ‘2008년 촛불집회’의 과정 과 파급효과. 한국정책연구, 9, 93-114.

정상엽. (2006). 자폐성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예배에 관한 연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과정 목회학 석사학위논문.

조기웅. (1999).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델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실. (2021).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의 하이브리드(Hybrid) 목회 전략. 제 8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제 2 발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9). 한국 사회복지 총람. 서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0). 코로나19와 한국교회 관련 통계조사 기사 연구.

Albrecht, C. (1999). 김한옥 역. 예배학입문. 도서출판 바울.

Berger, T. (2020).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CLC, 2020.

Ward, G. (2002). Between virtue and virtuality. *Theology Today,* 59(1), 55-70.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The reality of online worshi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fter COVID-19

Han, Gyu Bi*

In the With Covid situation, online worshi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another new place of worship that continues to coexist with on-site worship. It will also guarantee the ri ght to worship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religious fre edom. Although there are currently findings on on-site worshi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search on online worship with disabilities after the Corona is lacking, and attempts to obse rve and investigate online disability worship in order to create a society free of discriminatio n are essential tasks. In this sense, online disability worship from 2019 to 2021, which was formed after corona, may be the subject of resear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part icipatory observation survey methods to directly investigate currently broadcast online disabi lity worship and conducted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a total of 10 criteria. The report wa s then prepared to provide improvements and alternative worship models. An analysis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which currently operates online disability worship, from the perspecti ve of Christian values seeking to practice love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found improvemen ts in the format,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the church. In this respect, we s hare the disabled worship that the Church should pursue in the With Covid situation by pres enting various worship models, such as participatory worship models and performance worshi p models. An important feature of online disability worship was subjectivity, horizontal, non -visionary, and engagement. In other words, horizontal structures were required as disabled people attending worship became subjects, participating in worship, and offering prayers, prai se, and words to God in a virtual space through worship. To make this happen, the finer

*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Ewha Women's University

KOR VOICEYE voiceye.com

elements of worship had to be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parties, and there were parts that needed to be added. Non-disabled people are not different from pe ople with disabilities. They, too, are prospectively disabled and we all have the right to w orship with one heart and meet God freely. Worship is one of the essential religious lifest y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such, worship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bre aks away fro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s a community that goes beyond age, gende r, race, and values etc. in the rehearsal of the nation of God.

Keywords : Disabled Online Worship, With Covid, Subjectivity, Non-Discriminatory, Engaged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491 - 536

대안적 특수교육실천을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MATP)을 중심으로

황상현*·정정환·배건환*****

이 연구는 의료담론에 의해 축소·은폐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대안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의 문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직시하고, 이를 실천적 행위를 통해 해체·재구성하기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였다.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구진은 MATP라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8명과 동료교사 4명, 보조인력 6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담,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성찰일지, 교사학습공동체 정기협의회, MATP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서류도 수합하였다. 연구자료는 모두 전사한 뒤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중 개별기술적(Idiographic) 6단계 주제분석의 과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학교별 MATP 운영에 대한 특성과 중도·중복장애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인식 변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인식 변화 과정의 범주어는 '풀지 못한 숙제 : 미로 같은 중도·중복장애 교수학습활동', '무조건적인 긍정적 박수: 의도된 타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해체의 시작 : 인본주의 교육실천'으로 제시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타자 중심의 교육활동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는 MATP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급 내 권력의 이양을 통해 학생의 변화에 가시성을 부여했고, 전체 학습 목표가 아닌 개별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면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체육전공, 박사수료
** 춘천동원학교, 특수교사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체육전공, 박사과정

서 교수학습활동의 중심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ATP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을 '할 수 있음'으로 인식하였고, 사회 내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대안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매 순간 연구참여자는 끊임없이 실행과 반성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타자 중심의 교육 실천은 단순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를 변화시켜 이전과 다른 진실한 주체와의 만남으로 이끌었다. 중도·중복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실행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유익을 준다. 사회의 불평등을 성찰하고 해소하려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현대 사회의 시민은 진실한 나, 고양된 영혼을 가진 주체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주제어 : 비판적 실행연구, MATP(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중도·중복장애, 교사학습공동체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한국 사회 내 존재하는 장애 담론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느끼는 개인의 경험부터 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의료모델(medical model)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진숙, 2015; 여형남 외 2018; 조한진 외 2013). Foucault의 사유에 천착하여 이해하면 근대 의료체계에 근거한 의료적 접근은 인간의 몸을 관찰 가능한 투명한 대상이 되도록 강요하고 객관적 지식으로 가득 채운 하나의 공간으로 해석한다(Foucault, 1963/2006). 의료적 담론 내에 위치하는 장애인의 몸 역시 마찬가지이다. 담론의 지식·권력은 투명해진 장애인의 몸 위로 각종 학문영역에서 개발된 다양한 객관적 평가도구를 교차시키며 장애인의 몸을 '아픈 몸'이자 '교정이 필요한 몸', '타인 의존적인 몸'과 같은 개인적 비극의 결과로 재현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도·중복장애는 정상이라는 규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즉 가장 주변화(marginalized)된 곳에 위치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의 부모들은 저마다 그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자녀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의 신화 형태로 내면화한다(황상현, 노형규, 2021). 결과적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생활 스케쥴은 각종 치료, 재활 서비스로 짜여진다. 물론 치료적 관점에서 개인의 손상을 개선하는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능적 회복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적 치료활동은 담론 안에서 권력으로 작동하며 그들을 '아픈 몸', '의존적인 몸'이라는 객체화된 자아로 호명하는 동시 또 다른 타자화의 기제로 작동한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라는 Nietzsche의 주체성 이론과 같이 인간의 주체성은 절대적 중심성을 가지지 않는다(정낙림, 2006). 능동적인 힘들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주체성은 상대적이며 다원성을 가지며 외부와의 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둘러싼 아픈 몸, 의존적인 몸, 치료받아야 하는 몸과 같은 의료담론은 담론의 행위자로 하여금 제한적인 방식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기존 담론의 자장 안에 존재하는 특수학교에서도 이러한 타자화의 메커니즘은 발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담론의 권력은 비장애인중심주의(ableism) 아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이 가진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주변화를 극복하고자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구성주의적, 인본주의적 교육관에 근거하여 중도·중복장애 교육에 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 교육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박선미 외(2020)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의 부재, 학급당 학생 수 과다, 부적절한 교과서와 지도서, 부족한 교수-학습자료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어려움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한 명에게 1시간

수업 중 약 5-10분 정도의 시간 할애로 이어졌다. 이는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김은주 외, 2013)으로 중도·중복장애 교육현장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체육교과 담당 교사들은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전반적인 교수학습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체육수업 장소, 중도·중복장애를 위한 용기구, 외부 시선 등의 추가적인 부담감을 토로했다(고진복 외, 2013).

이를 종합하면 교사들이 경험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은 주로 수업의 내용, 즉 단위 수업부터 교육과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콘텐츠, 적절한 교구의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한국사회와 연계한 담론과 담론의 실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개인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형성체가 중도·중복장애와 관련된 학교와 교사 문화의 형성에 권력을 발휘함으로써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반하는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의 실행을 통해 새로운 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즉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단위 수업, 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이 아닌 학교 문화로 맥락화시켜 스포츠 활동(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이하 MATP)을 중심으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MATP(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이하 MATP)는 스페셜올림픽 공식 종목에 참여하기 어려운 참가자들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활동이다. 주로 중도·중복 장애인이 참여하며, 신체활동 기술의 향상을 포함해 스포츠 선수로서의 역할과 경험을 제공,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가진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1). 황상현 외(2020)는 12주간 MATP에 참여를 통해 중도·중복 장애인이 '주인공 됨'을 경험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는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몸의 이야기를 '무능력한 몸'에서 '할 수 있는 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MATP가 특수학교 안에서 실행될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몸의 의미 변화와 함께 의료모델에 대한 대안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Feiman-Nemses & Floden(1986)은 교직문화에 대해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생각을 나누는 동료 교사는 없다고 표현하며 개인주의와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내에서 MATP라는 낯선 활동의 시행은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아닌 자발적 공동체의 조직, 또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담론이 학교 문화, 교사의 의식과 교섭한다는 전제 아래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과 연구자가 협동하여 MATP의 실행에 대한 비판적 실행연구(critical action research)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특수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실행연구는 주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주제로 단일학교(급)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강성구 외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MATP 운영이라는 상

VOICEYE
KOR
voiceye.com

황 속에서 3개 학교 교사들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가 실행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그러한 경험이 가지는 기존 담론과의 차이, 그리고 교직·학교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맥락적 조정만으로 다른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을 발굴해야 한다는 실행연구의 근본적 목적과 일치한다. 낯선 프로그램의 기획, 시간표 조정, 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장소 탐색, 다른 교사들에 대한 시선 등 MATP 실천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마주할 것이다. 3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교사공동체의 상호작용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MATP 실행을 위한 맥락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 다른 학교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지를 발굴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생성된 지식이 다른 현장의 맥락적 특성과 이어져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실천적 행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둘째, MATP를 실행하는 자발적 교사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교직, 학교문화의 관점에서 대안문화의 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 중도·중복 장애학생 교육활동의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교사 전문성 혹은 콘텐츠의 부재가 아닌 관계적, 구조적 관점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 즉 문제가 고정된 것이 아닌 관계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전제는 중도·중복장애 교육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해결 방향을 탄력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동시에 제한적인 주제와 범위로 실시되는 특수교육 분야의 실행연구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어떻게 MATP를 실행하였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실행하는 체육프로그램인 MATP가 3개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었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
2. MATP를 실행하는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은 무엇이고 대안문화의 형성 가능성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점차 중도·중복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한 현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주선, 한경근, 2018). 기존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나타내는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제한점으로 교육보다는 보육에 가까운 교육이 제공되었고, 개인 내, 개인 간 격차로 인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수준에서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냈다(박경옥, 2011; 이희연 외, 2018).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일상생활, 의사소통 중점으로 실시되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경우는 전무했고, 학급당 중도·중복장애 학생 수의 과다, 교수-학습자료의 부족 등으로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이 제공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2013; 표윤희 외, 2016).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선미 외(2020)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충실한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 개별 수준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의 기능적 특징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적용과 학습자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연 외(2021)는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나인정, 이미숙(2021)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기존에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의 홍보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의 개선과 같이 결과적인 측면에 집중하였다. 물론 교육과정의 개선과 자료 개발은 교수·학습활동에서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은 단편적이고 분절된 활동이 아닌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실천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과 함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2. 비판적 실행연구

실행연구는 마주한 상황을 개선하고 실행가와 현장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뤄 수행하는 연구 방식을 의미한다(Greenwood & Levin, 2007). 실행연구는 교사의 내재적이고 자발적 성찰에 기초하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며,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성열관, 2006). 하지만 기존에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는 여러 부분에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의 실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강성구 외(2019)는 실행연구 대부분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실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교실 차원, 즉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실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행연구가 교사 자신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성찰적 탐구로 이어져야 하고, 학급 차원을 넘어 단위학교, 단위학교 밖의 사회 구조 문제 및 개선에 관한 연구로의 도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실천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socially-constructed)되고 역사적으로 체현(historically-embedded)되었음(Carr & Kemmis, 1986)을 전제로 삼는 비판적 실행연구는 사회 구조 안에서 교육적 실행의 의미를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비판적 실행연구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하였고 해방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김미옥, 2009). 즉 현장의 문제를 단순히 기능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직시하고 이를 해체·재구성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론적 해방을 강조한다(조용환, 2015). 그러므로 비판적 실행연구에서는 현장의 문제 안에 내재된 권력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을 연구자들의 성찰로써 드러낸다(이용숙 외, 2005).

중도·중복장애와 관련한 교육활동 역시 무중력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는 학교를 넘어 사회의 담론과 이미 교섭하고 있다. 따라서 3개 학교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자발적 교사학습공동체가 운영하는 MATP에 관한 비판적 실행연구는 학급차원, 다시 말하면 교사 개인의 경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담론 행위를 실천하는 학교 문화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권력 관계가 해체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MATP)

MATP는 스페셜올림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도(severe), 중복(multiple), 그리고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참여자들에게 스포츠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9). MATP의 대상은 스페셜올림픽 정식 스포츠 종목에 참여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포함)를 포함한 기타 신체적 장애 등을 가진 사람으로 MATP를 통해 수정·변형된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MATP의 기본 방향성은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MATP Coaching Guide에 "MATP는 어떠한 선수도 배제하지 않는다(Special Olympics, 2005, p. 4)."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장애로 인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선수들이 가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집중하기보다 주변 환경의 조정(adjustment)을 꾀한다는 점에서 장애담론 중 사회모델(social model)과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MATP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참여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능력(ability)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Special Olympics, 2005).

MATP는 참가자들을 선수로, 교사 및 지도자는 코치로 호명한다. 이러한 호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참가자들에게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MATP의 프로그램은 참가 선수들의 수준과 특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수 욕구(needs)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선수에게 최적화된 기자재를 활용한다. 이러한 선수 중심의 MATP 구조는 프로그램 한 가운데 선수를 위치시킨다. 그 결과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부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로부터 받는 환호와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 받는 박수는 동정이 아닌 성취에 대한 격려이자, 비주도적이고 통제하지 못했던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을 제공한다(황상현 외, 2020).

또한 MATP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inclusion)이라는 스페셜올림픽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한다. MATP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퍼포먼스가 과거 자신의 스포츠 참여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며 연대 의식을 향상시켰다(황상현 외 2020). 즉, MATP에는 사회와 연대를 이루는 연결고리가 내재되어 있다.

MATP는 'Come and Try(이하 컴 앤 트라이)', 'Training(이하 트레이닝)', 'Challenge Day(이하 챌린지데이)'의 순서로 진행한다. MATP는 약 8주에서 12주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MATP에서 스포츠활동 기간을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선수라고 호명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스포츠 참여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1).

먼저 컴 앤 트라이는 MATP의 쇼케이스의 성격을 지닌다. 선수와 부모들이 MATP에 대해 익숙해지는 시간이며 컴 앤 트라이에서 향후 MATP 활동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선수들은 컴 앤 트라이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트레이닝은 컴 앤 트라이 이후 약

VOICEYE
voiceye.com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에 기관 상황에 적합하도록 운영한다.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챌린지데이에서 각 선수마다 수행할 종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코치들은 트레이닝을 운영하면서 선수마다 개별화된 스포츠 종목을 탐색해야 한다. 이때 종목은 기존의 스포츠 종목이 아닌 개별 선수들이 연습하였던 활동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챌린지데이는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통해 연습한 스포츠 기술을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형성 평가의 목적을 지닌다. 즉, 챌린지데이는 트레이닝 과정의 연속선 상에서 실시되며 현재 수행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특히 챌린지데이에서 선수들은 관중의 박수와 격려, 메달 수여 등을 통해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MATP는 중도·중복장애를 가지며 복합적인 요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위해 고안된 스포츠 활동이다. 물론 MATP만의 고유한 활동, MATP만의 독특한 장비, MATP만의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체육현장에서 소외되었던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중도·중복장애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과 진행한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따라서 MATP의 실행은 단순히 체육활동뿐만 아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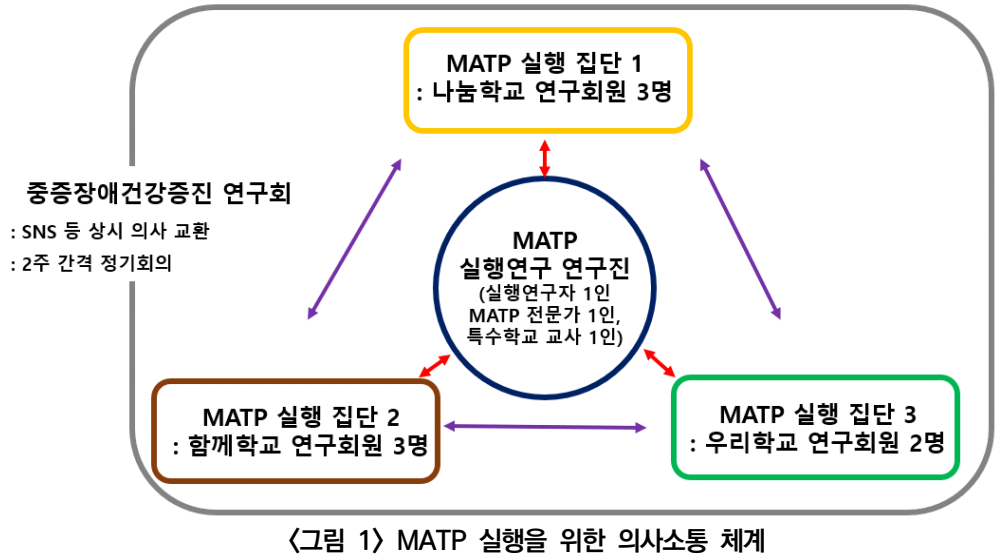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 내 존재하는 장애 관련 담론과 학교, 교사가 상호 교섭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교육 활동에서 주변화시키는 담론에 대한 대안담론의 형성 과정을 MATP 실행과 성찰에 근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의 비판과 개선, 즉 문제를 기능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하며 권력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비판적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A도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건강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와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연구참여자인 동시에 각 학교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MATP를 실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MATP의 실행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직·학교문화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대안담론의 형성 가능성이 탐색되었다.

1. MATP 실행의 맥락과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 학생 스포츠활동의 실행을 위해 MATP를 선정하였다. MATP는 스페셜올림픽에서 운영하는 하위 프로그램으로 중증, 중복, 그리고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참여자들을 고안된 스포츠활동이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9). 보통 컴 앤 트라이, 트레이닝, 챌린지데이 단계로 진행되지만, 참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MATP를 실행하기 위해 A도의 교사학습공동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는 3개의 특수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는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스포츠활동인 MATP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실행연구자, MATP 전문가, 현장의 특수교사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3개 학교의 성공적인 MATP 실행을 위해 실행연구 연구진은 교사학습공동체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실행연구자와 MATP 전문가는 각 학교 MATP 대표 담당자와는 수시로 전화와 SNS를 통해 의사 교환을 하면서 MATP의 기획,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림 1〉 MATP 실행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

VOICEYE voiceye.com

연구진은 교사학습공동체가 MAT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행 과정에서 공통된 목표를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MATP 연수를 실시하였다. MATP 연수는 교사학습공동체 이외에 성공적인 MATP 운영을 위한 학교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기존 계획은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Covid-19)로 인해 외부자 출입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나눔학교와 우리학교는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zoom)을 이용하였고, 함께학교는 직접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MATP 연수 이후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비대면 정기협의회를 기획(9월 14일, 10월 1일, 10월 15일)하여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정기협의회는 11월 10일에 면대면으로 진행하였고, 그간 MATP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행연구자는 각 학교마다 MATP를 기획, 준비하면서 운영진이 공동 목표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협의회에서 각 학교의 MATP 담당자는 MATP 준비 과정과 운영 내용,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하였고, 교사학습공동체 회원들은 MATP 계획과 실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각 학교마다 다양한 학교 규모, 그에 따른 교직 문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MATP 실행을 위한 인력 풀 등 그 특성이 다양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의 통일된 방식의 MATP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방식으로 MATP를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근거해 각 학교 운영진은 MATP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동시 학교 상황에 적절하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MATP를 계획·운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MATP를 운영하는 A도의 교사학습공동체 특수교사 8명을 주 연구참여자, 교사학습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4명의 특수교사, 6명의 보조인력을 보조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는 주 연구참여자이면서 실제로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MATP를 기획하고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MATP를 실행하는 과정을 자기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수정된 계획 수립, 재실행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은 8명으로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다. 주 연구참여자 이외에 학교 내 대안문화로서의 교육실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비회원 특수교사 6명과 특수교육보조인력 6명을 보조 연구참여자로 추가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참여자	성별	나이(세)	경력(년)	직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	a	남	35	3	교사
	b	여	34	9	교사
	c	여	34	10	교사
	d	남	37	9	교사
	e	남	31	5	교사
	f	남	36	11	교사
	g	여	35	10	교사
	h	여	40	16	교사
교사학습공동체 비참여 교사	i	남	34	7	교사
	j	여	38	14	교사
	k	남	48	22	교사
	l	여	43	18	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m	여	46	4	특수교육지원사
	n	여	53	3	특수교육지원사
	o	남	25	1	사회복무요원
	p	남	24	1	사회복무요원
	q	남	27	1	사회복무요원
	r	여	49	-	방역지원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들과 개별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과정을 참여관찰하였다. 개별인터뷰는 모든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주 연구참여자들은 평균 2회 약 60-70분 동안 비구조화인터뷰를, 보조 연구참여자는 평균 1회 약 20-30분 동안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는 면대면 인터뷰를 기본으로 실시하였고 면대면 인터뷰가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이후 추가 인터뷰는 전화를 통해 시행하였다. 각 학교마다 1회씩 평균 1시간 30분가량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개별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의 공동경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연구진은 현장의 생생함을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최대한 시도하였으나 연구진 중 한 명이 재직 중인 나눔학교 이외에는 코로나로 외부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주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학교와 우리학교의 컴 앤 트라이에는 연구진 방문이 허용되어 현장관찰과 필드노트를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온라인 비대면 정

VOICEYE
voiceye.com

기협의회를 녹화한 영상, SNS 의사소통, 연구참여자와 비정기적인 통화한 내용과 함께 연구참여자가 MATP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성찰일지도 연구자료로 포함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서 수립한 MATP 운영계획서, 운영결과보고서 등의 행정 자료도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여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mith, Flowers & Larkin(2009)이 해석적 현상학 연구(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방법론에서 제시한 개별기술적(Idiographic) 6단계 주제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개별기술적 주제분석은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순차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1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 A의 면담 자료를 반복 숙독하고 2단계에서는 필사본 여백에 의미 있다고 여기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 3단계에는 떠오르는 주제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며 주제를 발전시켜나간다. 4단계에서는 추상화와 맥락화를 통해 주제들의 상위 범주어를 만들어나가며, 5단계에서는 다른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당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6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관통하는 형식을 찾는다(Boyd & Goodwin, 2019). 6단계의 과정은 명확한 단계의 구분보다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점검(member checks),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peer debriefing),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자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내용을 일차적 자료 제공자인 주 연구참여자와 보조 연구참여자에게 점검받음으로써 연구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연구에 포함시키며 연구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과도한 주관적 편향성과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개인 경험 이외에도 포커스집단인터뷰, 비대면 온라인 정기회의, 학교별 운영계획서, 현장관찰 등을 시행함으로써 단편적인 자료 수집 및 해석을 예방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교별 MATP 실행의 특징

1) 나눔학교

나눔학교는 4명의 교사가 MATP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다. 4명은 모두 표시과목이 체육인 교사들로 체육을 전공하였고, 평상시 체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사였다. 초기 나눔학교의 MATP 운영안은 교사 개개인이 학생 선정 후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컴 앤 트라이를 1주일 앞두고 실시한 협의회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MATP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소함, 표시과목이 체육이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운영에서 공동 운영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MATP 운영진은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에 부딪혔다. 나눔학교의 MATP는 초등, 중등 과정의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사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도 부족한 시간(코로나로 인해 점심시간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고 과정별 순차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개선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그대로 문제점을 안고 운영을 하였다.

나눔학교는 1주차(주 3회)를 컴 앤 트라이 기간으로 잡고, 2주차부터는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주차에서 5주차까지는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학생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학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이 직접 학생 선수를 선발하였지만, 그동안 교과 교실 수업에서 보던 모습과 체육활동에서의 학생 선수의 수행 능력은 매우 달랐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는 크게 유용하지 못하였고, 더불어 처음으로 지도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어려움은 협력 교수 능력의 부재였다. 그동안은 교사 개인이 주도하는 수업만 진행해왔기에 자신만의 독특하고, 안정적인 교수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5명의 교사가 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개인 중심 교수방법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공감하였고,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을 갖고자 하였다. 이 무렵 함께학교 운영진은 매주 목요일 주 1회 협의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협의회는 MATP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후 6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학생과의 라포 형성이 어느 정도 된 시점이라 즐겁게 운영을 할 수 있었다. 학생 간, 코치 간 더 잘해야겠다는 경쟁 심리도 발생하며 활동이 진행되었다. 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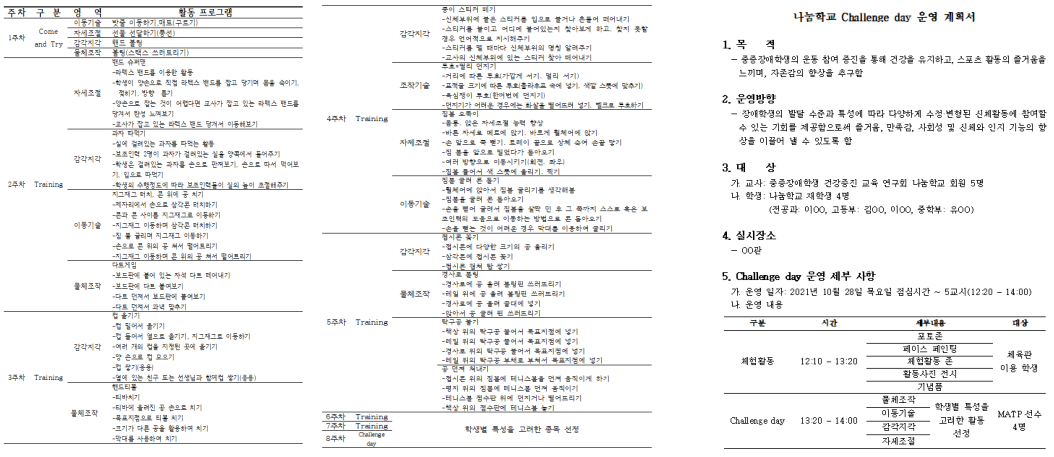
KCI VOICEYE voiceye.com

닝 후반부에는 챌린지데이에서 선보일 종목을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트레이닝을 거듭하면서 학생의 향상 정도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를 높여가며, 챌린지데이에서 수행할 종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상하며 준비를 하였다.

챌린지데이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먼저 학교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한 후 교장, 교감 선생님의 승인을 받았다. 두 번째 각 반 담임교사에게 안내하고 시간표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교과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이때 지체장애 과정은 인원수가 적어 모두 챌린지데이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시간표 교체하거나 담임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주제통합 수업으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인원수가 많은 지적장애 과정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부탁하였고, 별도의 학습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부(체육관 담당 부서)와 운영진이 챌린지데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에 체육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급에 양해의 안내를 했다. 이렇게 챌린지데이를 위한 학교 내부 문제는 해결하였고, 본격적으로 챌린지데이를 준비할 수 있었다.

챌린지데이는 크게 2파트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1파트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챌린지데이의 홍보 차원에서 점심시간에 실시하였고, 2파트가 본격적인 챌린지데이였다. 이때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학생이 몰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았고, 평상시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컴 앤 트라이와 마찬가지로 교감선생님께서 개회사와 개회 선언을 해줌으로써 나눔학교의 인정을 받는 챌린지데이가 시작되었다. 챌린지데이를 운영하는 동안 각 반 친구들이 와서 열띤 응원을 해주었고, 금지되었지만 학부모님 한 분이 참여하여 활동을 관람하였다. 또한 보조인력(4명), 각 반 담임교사(3명), 해당 수업 교과 교사(2명)이 선수를 응원하고, 진행하는 회원들을 도와주었다. 미리 공지되지 않았음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 도와주는 등 챌린지데이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나눔학교의 챌린지데이는 막을 내리고, MATP 역시 막을 내렸다. 8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운영이었지만 연구회원 5명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4명의 선수에게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하였다. 5명의 회원 모두 MATP의 지속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시간이다.



주차	구분	영역	활동 프로그램
1주차	Come and Try	이동기술	밧줄 이동하기 레크(구조기)
		자세조절	선물 선달하기(풍선)
		감각지각	원드 볼링
		물체조작	줄넘기(스핏고 스러트리기)
2주차	Training	자세조절	원드 슈팅존 -하체스 원드를 이용한 활동 -학생이 던순으로 직접 하체스 원드를 잡고 당기며 몸을 숙이기, 절비기, 앉힘 줄기 -양손으로 잡는 것이 어렵다면 교사가 잡고 있는 하체스 원드를 당겨서 함께 노력하기 -교사가 잡고 있는 하체스 원드 당겨서 이동해보기
		감각지각	과녁 맞히기 -실에 걸려있는 과자를 타격는 활동 -보조인력 2명이 과녁가 걸려있는 실을 양쪽에서 돌려주기 -학생은 걸려있는 과자를 손으로 던져보기, 손으로 머서 먹어보기, 입으로 먹먹기
		이동기술	지그재그 허치, 콘 위에 공 치기 -체자리에서 손으로 살살은 허치하기 -콘과 콘 사이를 지그재그로 이동하기 -지그재그 이동하며 상자콘 허치하기 -실 볼 굴리며 지그재그 이동하기 -손으로 콘 위의 공 써서 떨어트리기 -지그재그 이동하며 콘 위의 공 써서 떨어트리기
		물체조작	다트게임 -보드판에 붙어 있는 자석 다트 떼어내기 -보드판에 다트 붙여보기 -다트 던져서 보드판에 붙여보기 -다트 던져서 과녁 맞추기
3주차	Training	감각지각	컵 올리기 -컵 밑에서 솔기기 -컵 올려서 별드로 옮기기, 지그재그로 이동하기 -여러 개의 컵을 지정된 곳에 옮기기 -양 손으로 컵 포오기 -컵 쌓기(술원)
		물체조작	-볼에 있는 천구 또는 선정님과 함께 잡기(술원) 탑드타볼 -티바치기 -티바에 올려진 공 손으로 치기 -목표지점으로 타볼 치기 -조기가 다른 공을 활용하여 치기 -막대를 사용하여 치기
4주차	Training	감각지각	중이 스티커 피기 -신체부위에 붙은 스티커를 입으로 불거나 손들어 떼어내기 -스티커를 붙이고 어디에 붙어있는지 찾아보기 하고, 찾이 못할 경우 언어적으로 지시하주기 -스티커를 떼 때마다 신체부위의 명칭 알려주기 -교사의 신체부위에 있는 스티커 찾아 떼어내기
		조작기술	토크넷볼 던지기 -거리에 따른 토회가깝게 서기, 멀의 서기) -표적을 크기에 따른 토회폴라송과 하에 넣기, 생깁 스폿에 맞추기) -속일정이 토회(천이벽에 던지기) -던지기가 어려운 경도에는 화살을 떨어트려 넣기, 벨크로 토회하기
		자세조절	집볼 조하기 -몸통, 앞은 자세조절 능력 향상 -바른 자세로 버트에 앉기, 바트에 힘체어에 앉기 -손 앞으로 쭉 뻗기, 트레이 끝으로 상체 숙여 손잡 잡기 -힘 볼을 앞으로 힘었다가 돌아오기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키기(회전, 좌우) -집볼 올려서 셋 스폿에 올리기, 찍기
		이동기술	집볼 굴려 존 올기 -힘체어에 앉아서 집볼 굴리기를 생각해봄 -집볼을 굴려 존 들아오기 -손을 힘어 굴려서 집볼을 살짝 민 소그 돌아서 스스로 속은 보조인력의 도움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존 들아오기 -손을 뻗는 것이 어려운 경우 막대를 이용하여 굴리기
5주차	Training	감각지각	정지존 돌기 -멀리존에 다양한 크기의 공 올리기 -상자존에 접시존 놓기 -멀리존 정확 탑 넣기
		물체조작	정지존 볼링 -경사로에 공 올려 볼링핀 쓰러트리기 -허들 위에 공 올려 볼링핀 쓰러트리기 -경사로에 공 올려 굴려서 넣기 -앉아서 공 굴려 핀 쓰러트리기
		감각지각	탁구공 불기 -책상 위의 탁구공 불어서 목표지점에 넣기 -허들 위의 탁구공 불어서 목표지점에 넣기 -경사로 위의 탁구공 불어서 목표지점에 넣기 -허들 위의 탁구공 보에초 보에서 목표지점에 넣기 공 던져 넣기
		조작기술	-접시존 위의 집볼에 테니스볼을 던져 송적이게 하기 -벽의 위의 집볼에 테니스볼 던져 송적이기 -테니스볼 정아판 위에 던지거나 떨어트리기 -책상 위의 접시판에 테니스볼 놓기
6주차	Training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7주차	Training		
8주차	Challenge day		

나눔학교 Challenge day 운영 계획서

1. 목 적
– 중증장애학생의 운동 참여 증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존감의 향상을 추구함

2. 운영방향
– 장애학생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정·변형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움, 만족감, 사회성 및 신체와 인지 기능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

3. 대 상
가. 교사: 중증장애학생 건강증진 교육 연구회 나눔학교 회원 5명
나. 학생: 나눔학교 재학생 4명
(전공과: 이00, 고등부: 김00, 이00, 중학부: 유00)

4. 실시장소
– 00관

5. Challenge day 운영 세부 사항
가. 운영 일자: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점심시간 ~ 5교시(12:20 – 14:00)
나. 운영 내용

구분	시간	세부내용		대상
체험활동	12:10 – 13:20	포토존		체육관 이용 학생
		페이스 페인팅		
		체험활동 존		
		활동사진 전시		
		기념품		
Challenge day	13:20 – 14:00	물체조작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선정	MATP 선수 4명
		이동기술		
		감각지각		
		자세조절		

〈그림 2〉 나눔학교 MAPT 실행 프로그램 및 챌린지데이 운영 계획서

2) 우리학교

우리학교는 인구 약 5만명이 거주하는 소도시 규모의 도시에 위치한 특수학교이다. 우리학교의 학급수는 11개로 약 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 수는 약 60명이다. 우리학교의 MATP 운영진은 이러한 작은 학교 규모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은 2명이었지만 우리학교는 중등부 전체 교사가 MATP 운영에 참여하였다. 운영진은 MATP와 같이 낯선 프로그램을 접하고 도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증과정의 교사가 약 10명이라는 점과 그 10명의 교사들이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학교 MATP 운영진은 이러한 상호 신뢰 위에 과거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을 다수 기획 및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성취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학교의 중등 과정 교직문화는 MATP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동기로 이어짐과 동시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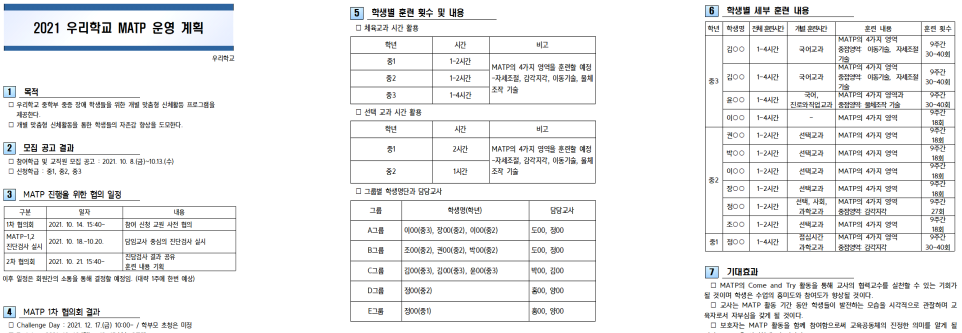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중 우리학교에 재직 중인 2명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MATP의 교사 연수,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관리 등을 관리하였다. 우리학교의 MATP는 9월 8일 전체 교원연수를 시작으로 9월 9일 컴 앤 트라이를 실행하였다. 이후 교사학습공동체 회원인 연구참여자-n은 MATP 전문 연수를 각색하여 자체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우리학교 MATP 운영진은 MATP 참여 모집을 전체 학교에 공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청한 중 1, 중 2, 중 3 학급을 대상으로 MATP를 계획하였다. 우리학교에서는 트레이닝 준비를 위해 10월 14일에 1차 교사

KCI VOICEYE voiceye.com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트레이닝, 12월 17일에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챌린지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MATP 운영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MATP를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계가 가능했던 점은 MATP를 자유학년제 교원학습공동체에 접목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을 지도하는 중학부 모든 교사가 자유학년제 교원학습공동체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과 융합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는 중학부 전체 학생에 대한 MATP 연계 교육과정의 기획으로 이어졌다. 비록 교육과정과 연계 계획 수립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트레이닝, 챌린지데이 날짜가 지연되었으나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MATP를 운영할 수 있고, 하나의 과정 내의 모든 교원이 협력 교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학교 MATP의 트레이닝은 크게 전체 훈련과 개별 훈련이라는 두 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훈련시간은 주로 체육 교과수업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체육담당 교사가 중심이 돼서 중 1, 중 2, 중 3, 각 학년별 체육수업에서 MATP를 실행하였다. MATP 연수 이후 체육 선생님은 기존 하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학년별, 학생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목표 역시 다층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생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스테이션 방식의 순환식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개별 훈련은 주로 중 1학년, 중 2학년 학생들에게 집중되었으며 각 학생들의 선택교과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우리학교의 MATP는 중학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동과 교사 간 협조,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적 교수활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MATP 운영을 업무가 아닌 교사의 교육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2021 우리학교 MATP 운영 계획

우리학교

1 목적

□ 우리학교 중학부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개별 맞춤형 신체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한다.

2 모집 공고 결과

□ 참여학급 및 교직원 모집 공고 : 2021. 10. 8.(금)~10.13.(수)
□ 선정학급 : 중1, 중2, 중3

3 MATP 진행을 위한 협의 일정

구분	일자	내용
1차 협의회	2021. 10. 14. 15:40~	참여 선정 교원 사전 협의
MATP-1,2 진단검사 실시	2021. 10. 18.~10.20.	담임교사 중심의 진단검사 실시
2차 협의회	2021. 10. 21. 15:40~	진단검사 결과 공유 훈련 내용 기획

이후 일정은 회원간의 소통을 통해 결정할 예정임. (대략 1주에 한번 예상)

4 MATP 1차 협의회 결과

□ Challenge Day : 2021. 12. 17.(금) 10:00~ / 학부모 초청은 미정
□ Training: 2021. 10. 18.(월) ~ 12. 15.(수), 9주간

5 학생별 훈련 횟수 및 내용

□ 체육교과 시간 활용

학년	시간	비고
중1	1-2시간	MATP의 4가지 영역을 훈련할 예정 -자세조절, 감각자각, 이동기술, 물체조작 기술
중2	1-2시간	
중3	1-4시간	

□ 선택 교과 시간 활용

학년	시간	비고
중1	2시간	MATP의 4가지 영역을 훈련할 예정 -자세조절, 감각자각, 이동기술, 물체조작 기술
중2	1시간	

□ 그룹별 학생명단과 담당교사

그룹	학생명(학년)	담당교사
A그룹	이00(중3), 장00(중2), 이00(중2)	도00, 정00
B그룹	조00(중2), 권00(중2), 박00(중2)	도00, 정00
C그룹	김00(중3), 김00(중3), 윤00(중3)	박00, 김00
D그룹	장00(중2)	홍00, 양00
E그룹	장00(중1)	홍00, 양00

6 학생별 세부 훈련 내용

학년	학생명	1회 훈련시간	개별 훈련과목	훈련 내용	훈련 횟수
중3	김○○	1-4시간	국어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이동기술, 자세조절 기술	9주간 30-40회
	김○○	1-4시간	국어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이동기술, 자세조절 기술	9주간 30-40회
	윤○○	1-4시간	국어, 진로와직업교과	MATP의 4가지 영역과 중점분야: 물체조작 기술	9주간 30-40회
	이○○	1-4시간	-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중2	권○○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박○○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이○○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장○○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장○○	1-2시간	선택, 사회, 과학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감각자각	9주간 27회
	조○○	1-2시간	선택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9주간 18회
중1	장○○	1-4시간	겹십시간 과학교과	MATP의 4가지 영역 중점분야: 감각자각	9주간 30-40회

7 기대효과

□ MATP의 Come and Try 활동을 통해 교사의 협력교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학생은 수업의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될 것이다.
□ 교사는 MATP 활동 기간 동안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또한는 MATP 활동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림 3〉 교육과정 병행 운영을 위한 우리학교 MATP 운영진 내부 계획서

비록 우리학교의 MATP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MATP를 운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비공식 활동이라도 개별 교사들의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지만,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이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중학과정 교사들 간의 친밀한 관계, 과거 낯선 프로그램 도전을 통해 경험한 성취감은 MATP 운영의 동기로 발동하였다. 또한 중학과정만을 대상으로 MATP를 진행했다는 구조적인 측면이 MATP와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게 하였다.

> 우리학교의 MATP 운영진의 특징은 굉장히 민주적이다. 권위가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MATP 이전에 이미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은 교사들에게 '우리가 고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신념을 주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의 새로운 시도에 밑거름이다. MATP는 그 연장선 위에 있을 뿐이다(9월 9일 참여관찰 필드노트)
>
> **연구자 성찰일지**

3) 함께학교

함께학교에는 교사학습공동체 회원 3명이 재직 중이다. 이 3명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학교 내에 MATP 동아리를 조직하여 MATP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의 가장 큰 고민은 매우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MATP가 일회적 활동으로 끝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운영진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MATP 운영 모델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의 경험에 따르면 특수학교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매해 새롭게 실행되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의 동아리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그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결국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장되지 못하고 동아리원들의 만족으로 끝나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특히 자발적인 구성원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순응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함께학교 운영진은 다른 교사들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ATP를 홍보함과 동시 전체 교원들이 MATP에 대해 긍정적인 체험적 의미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했다.

지속 가능한 MATP를 위해 함께학교 운영진이 선택한 방법은 학교 운동회와 연계하여 전 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단일 회기의 컴 앤 트라이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학교 운동회로 개최될

VOICEYE
voice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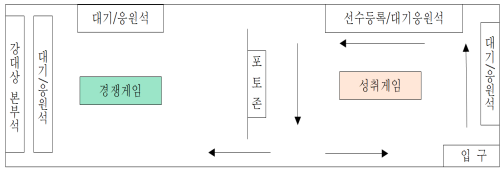
경우 MATP 동아리가 체육부의 주 업무인 운동회를 보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육부와 MATP 동아리 회원들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운동회 특성상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학생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MATP 운영진은 중증장애가 참여하는 경기 형태를 성취게임, 경증장애를 위한 종목은 경쟁게임이라고 명명하였다. MATP 운영진은 주로 성취게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성취게임에 참여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격려를 위해 학교 내 방역 직원을 특별 관중으로 초대하였다.

성취게임과 경쟁게임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MATP 지도서(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7)를 토대로 수정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물론 과거에도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운동회에 참여하였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생소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은 MATP 운영진에게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

> 중도·중복학생을 위한 그것을 기본으로 만들었고. 경도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보니 교사로서 엄청난 쾌감이 들거든(10월 15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d**

코로나로 인해 동시에 다수의 학생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과정을 구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운영 시간표는 MATP 운영진의 공강 시간을 고려하여 기획하였고, 연구참여자-d는 MATP의 컴 앤 트라이, 즉 성취게임의 진행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매 차시 참석하였지만, MATP 운영진은 각자의 공강 시간에 맞춰 교대로 운영을 지원하였다. MATP 운영진은 성취게임과 경쟁게임의 세부 종목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였고, 각 학생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3가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MATP 운영진은 행사의 성공을 위해 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협조를 위한 사전회의에서 MATP를 설명하였다. 이는 MATP를 학교 전체에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조인력 포함 전체 학교 구성원이 공통된 연수를 듣고 실행하는 최초의 행사이었다. MATP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공감을 이루려는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의 노력으로 인해, 행사 당일 퍼포먼스를 펼친 학생들은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월 (10/25)	화 (10/26)	수 (10/27)	목 (10/28)	금 (10/29)
1교시 9:00~9:40					
2교시 9:50~10:30	유·초1,2,3 경기 진행				
3교시 10:40~11:20	유·초1,2,3 경기 진행			중등부 경기 진행	
4교시 11:20~12:00	초등부 점심시간			중등부 경기 진행	
12:10~13:00 초등부 4교시	중,고,전공과 점심시간				
5교시 13:00~13:40	고등부/전공과 경기 진행	초 4,5,6 경기 진행			
6교시 13:50~14:30	고등부/전공과 경기 진행	초 4,5,6 경기 진행			
7교시 14:40~15:20	고등부/전공과 경기 진행				



※ MATP 프로그램은 성취게임 스테이지에서 진행

〈그림 4〉 컴 앤 트라이 운영 시간표 및 행사 환경 구성

운동회 당일에 학생들은 레드카펫 위로 퍼레이드를 통해 입장하였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선수 등록을 하였다. MATP 컴 앤 트라이에 해당하는 성취게임은 전체 7개 종목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경기 종목에 참여하였다. 물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종목을 경험하도록 했다. 모든 경기의 퍼포먼스를 마친 후에는 시상과 함께 모든 선수에게 종합과자박스와 초콜렛 메달을 선물로 주었다.

다른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학교 구조 안에서 MATP를 진행하고자 했던 함께학교의 MATP는 비록 일주일간 일회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모든 선생님이 MATP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근간에는 함께학교 MATP 운영진이 행사 진행을 위해 공강 시간을 활용하는 희생이 깔려있다. 따라서 내년 MATP 운영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나눔학교와 우리학교와 달리 학교 전체 교사가 MATP를 즐거움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함께학교의 MATP 컴 앤 트라이는 매우 의의가 있다.

2. 중도·중복장애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1) 풀지 못한 숙제 : 미로 같은 중도·중복장애 교수학습활동

(1) 현실이라는 구조적 장벽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특수학교 현장에서 언제나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일매일 어려움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중도·중복장애 교육은 현실적 장벽에 의해 겹겹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지 않으면 중도·중복장애 교육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벽은 교사 1인당 배치되는 학생 수이다. 물론 연구참여자 중 2명은 중도·중

VOICEYE
voiceye.com

복장애 학생과 1:1로 한 학급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위의 문제가 일부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급에서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6, 7명의 다양한 장애 정도를 가진 학생들을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활동의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여기서 교사들은 주로 학습동기를 보이며,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증장애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주로 학습보조인력이 담당하곤 한다. 또한 적은 인력의 문제는 교수학습 자료 제작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져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추가적인 열정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연구참여자-h).

> 지적장애 3급, 즉 지금 나누기 곱하기 분수하는 애 앉아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중증장애 앉아 있죠. 돌아다니는 발달성 자폐 아이들 앉아 있죠. 끊임없이 몸 만지는 애 있죠. 자기만족 놀이. 엄청. 그렇게 6, 7명 앉혀놓은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급당 정원수 정말 줄여달라라고 하는 거죠(9월 17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h**

> 한 학급에 6명 중에 한 명이 중증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급에서 그 학생이. 아무래도 소외가 많이 되고. 소외가 되고(10월 2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b**

좀 더 구체적인 교수학습활동 상황으로 들어가면 교사의 한 단위 수업과 교수학습지도안 역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구조적인 제한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은 학급 전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학습 목표 아래 학습집단을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하여 세부 목표를 수립한 뒤 활동을 계획한다. 즉, 하나의 교수학습활동 아래 지도안 전체의 목표와 수행집단별 세부 목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립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 나, 다군 학생의 수행 수준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가, 나, 다군의 집단별 수업을 계획하지만 주로 가, 나군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곤 했다. 학습목표 달성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달성해야 할 목표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목표에 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 나군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 중심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의 형태는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업참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구조적 장벽이었다.

> 모든 활동에 얘가 중심이 되는 뭔가를 찾아줘야 하는데 사실은 집단 수업에서는 중증장애 학생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학생들의 목표를 잡으면 얘한테. 얘한테는. 따로 목적을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얘만을 위한 활동을 새로 짜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a**

(2)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진솔한 성찰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체 교수학습활동의 단계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일부 단계만이라도 참여하는 부분참여의 원리는 중도·중복장애 교육의 핵심 원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g는 송편 입반죽부터 쪄내기까지의 단계로 이루어진 송편빚기 활동을 진행할 때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반죽 주무르기 단계에 참여시킴으로써 부분참여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 그중에 OO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송편을 이렇게 주무르는 거 정도면 나머지 다른 친구들이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OO이가 이것만 해서 부분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참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9월 16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g**

물론 부분참여 원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수업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부분참여 원리를 적용했던 과거 교육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부분참여의 원리를 형식적이라고 느끼고 있던 일부 교사들은 과거에 경험한 교육활동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들은 부분참여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하나의 교육목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상황에 대해 떠올렸다. 이러다 보니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에서 작은 수행이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취를 발견하기보다 참여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형식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음을 반성하였다. 특히 학급에서 일대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연구참여자-a는 과거 수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주고 억지로 입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였다.

VOICEYE
voiceye.com

제가 중학부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난감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보통 수업에서는 그 학생이 100% 참여하기가 당연히 힘드니까 수업 내용에 진짜 일부에 대해서 과제를 주고. 이제 그거라도 잠깐이라도 진짜 5분 미만이어도 얘가 그거라도 수행하면 자 그래요. 이 정도면 이제 얘 선에서 최대한 참여한 거다. 그래서 그냥 위안을 얻고. 그냥 그랬죠(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부분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준에 맞춰 우겨넣는데. 아이들은 즐겁지 않고 수업참여 자체가 목적이지만. 물론 가끔은 즐거워해요. 그런데. 힘든 것은 내가 이 아이의 성취에 대한 고려 없이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얘는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게 '이 아이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에. 인지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좀 약간. 미안함도 생기고,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부분참여를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한 교사들의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실제로 자신의 차별적인 시각 때문에 교수적 수정과 교수학습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차별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라기보다 미세먼지와 같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미묘한 잠재적 의식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과거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부 죄책감이기도 했고, 무거운 마음이었다. 이러한 성찰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로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솔한 자신과의 대화였다.

애들 만나면서 항상 그 고민. 좀 중증 애들에 대한 고민. 어쨌건 한 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 아이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 항상 교사로서 마음의 찜찜함 그런 게 있잖아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 좀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 맞는 수업을 학생한테. 좀 안 맞는 수업에 중증장애 학생이. 특히 지체장애 학생이 신체적 활동이 있는 곳에 애가 끼어 있으면. 사실. 내가 얘한테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지금. 얘한테 진짜 목적. 그냥 특수교육이 그런 건데. 얘한테 맞는 거 줘야 하는 건데. 안 맞는 옷을 지금 억지로 입히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a**

2) 무조건적인 긍정적 박수: 의도된 타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1) 양가적 감정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은 교사들에게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다. 물론 교사들의 일부는 이 숙제를 능숙하게 해결해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미로 속을 거니는 힘겨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개 학교의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활동인 MATP를 도구로 삼아 직면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했다. 물론 MATP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에 있어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체육 교과에 한정된 콘텐츠이다. 또한 MATP의 활동내용을 분절해서 분석하면 이미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교사들은 MATP의 기본적인 방향성, 즉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눈에서 수업을 구성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 깊이 동감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을 넘어 학습환경을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는 무대로 구성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전제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지금까지 부분참여의 원리를 통해 전체 수업의 일부만 참여했을 뿐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MATP의 연수를 경험하고 MATP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과정에서 MATP는 교사들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즉, MATP의 기본 방향성과 기존의 중도·중복장애 교육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던졌다. MATP는 부분적이나마 그 의문을 해소하기에 도움이 되었고, 교사들은 대안적 관점에서 특수교육의 의미를 정립해 나갔다.

> 4년을 배우고 나와서. 시험을 봐서 이제 교직에 있는 건데. 거기다가 다 교직 경력 다 5년 이상에 많게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그. 아까 00이 말한 MATP 정신. 근데 되게 공감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9월 13일 연구진회의)
>
> **공동연구자**

VOICEYE
voiceye.com

내가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고 바뀌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거지. 그러니깐 특수교사로서 굉장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지. 전문성이 생기는 느낌이 나는 거지(10월 15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각 학교의 MATP 운영진은 MATP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다. 먼저는 개인주의와 보신주의 경향이 강한 학교 문화(연구참여자-b, 11월 2일, 연구참여자-d, 10월 15일)와 연구회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연구참여자-c, 10월 21일)는 코로나(Covid-19)라는 외적 변수와 결합하면서 MATP, 즉 '학생과 교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실시하는 낯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큰 장벽이 되었다. 이러한 학교 맥락에서 MATP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주변 교사들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교육과정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MATP를 운영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특히 한, 두 명만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다른 선생님의 참여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불평까지는 아닌데 '왜 이걸 할까?'라는 의문을 저한테 쪽지로 주신 분도 있고(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일단 저희 학교에 지금 운영하는 형태는 사실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중간에 시간을 빼서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하지만 MATP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활동과 그것을 운영할 것에 대한 기대로 차 있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난 것 자체에 대해 기쁨을 느끼거나(연구참여자-b, 10월 21일, 연구참여자-h, 9월 10일, 연구참여-d, 10월 1일), 자신의 전문성 향상(연구참여자-a 11월 1일, 연구참여자-c, 10월 21일, 연구참여자-d, 10월 25일), 학내 MATP의 운영을 통해 운영진과 다른 교사들에게 인식 변화의 계기(연구참여자-d, 9월 13일, 연구참여자-h, 10월 15일),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특성화(연구참여자-d, 9월 13일) 등 저마다 다른 이유지만 분명히 MATP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제가 좀. 그러니까 처음 MATP 설명을 들었을 때. 아! 학생이 자꾸 배제되는. 뭐 억지로 지체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교육목표에 얘가 끼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얘를 위한 교육목표로 체육활동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중략) MATP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a

우리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모든 지원인력이. 모든 경도 학생들이. 중도·중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미 목표 달성이야. 왜?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운영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거든(9월 13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MATP를 하는 동안에 교사는 확실히. 중도·중복 장애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10월 15일 3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h

(2) '보임'의 메커니즘

연구참여자들에게 MATP 연수, 혹은 프로그램 운영 이전과 달라진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여기서 움직임이란 학생의 동작 변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표현하려는 노력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전에는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미세한 질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나도 연수를 받고 학생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반응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문화로 잘 자리 잡게 되면 교육적 문화가 되는 거지. 선생님들이 수업 때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리액션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9월 13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그 친구가 하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는데. 그 MATP 이후에 이제 그 친구를. 또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볼 기회가 요 근래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00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친군데. 얘는 공을 던

VOICEYE
voiceye.com

져서, 방향이랑 거리를 다 이렇게 맞춰서 공도 넣을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줄 밀고 가는 것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밀어서. 밀어서 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그 바톤을 이어가는 행동, 활동도 걔는 별다른 신체적 촉진 없이 그게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g

차이를 보게 된 교사들의 변화는 MATP의 특징인 '박수', '주인공'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MATP는 스페셜올림픽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스포츠활동이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을 선수라고 부르는 동시 그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펼치는 주인공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은 모두 선수인 동시 퍼포먼스의 주체이다. 선수에게 성취를 위한 응원과 박수를 쳐주듯, MATP는 선수인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도 격려와 환호, 그리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초기 교사들은 교육 영상에서 봤던 기억을 더듬으며 의무감에 이끌려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다. 하지만 점차 교사들은 반응의 타이밍을 고민하였다. 모든 상황에서 박수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박수의 의무감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움직임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였다. 이전에는 지나쳤을 학생의 행동이라도 더 밀도 높게 관찰하였다. 그러자 교사들의 눈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미묘한 움직임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도 분명 시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았다. 학생을 위에서 내려보지 않고,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휠체어와 눈높이를 맞추자 미세한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만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선수를 향해 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교사 주도의 수업이 자연스럽게 중도·중복장애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리액션을 언제 해야 될지. 우와 막 잘 했어.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도중에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얘를 칭찬하기 위해서 더 세세하게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동작 하나도 그거를 이제 캐치해서 뭔가 해줘야 되니까. 내가 반응을 해 주려면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게 있어. 지나쳤던 행동도 의미 없는 손짓 같아 보여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10월 21일 나눔학교 FGI)

연구참여자-b

이러한 학생들을 향한 공감과 격려의 박수는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몸의 가능성을 고양시키는 도구였다. 조건의 수행에 대한 반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환호는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켰다. 동시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향한 교사의 기대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쳤던 박수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작은 박수가 궁극적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행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학생의 성취를 향상시켰다. 이 지점에서 미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가 살아났다. 교사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법한 활동들이 사실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 중심의 활동들은 다시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화하였다. 교사는 비로소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더 이상 학생의 수행 실패가 교사에게 무력감을 주지 않았다. 의도한 타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주인공처럼'이 아닌 '진짜 주인공'이 되었다.

> MATP가 저를 많이 이렇게 깼어요. 저도 그때 입장하는 것부터. 그거 짤 때 나의 환호만으로 애들이 참여할까. 우리 00이가 그렇게 등 돌려가지고. 발로 축구공을 찾을 거란 기대를. 기대를 안 했거든요. 학습자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게 나의 호응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많이 깰 수 있었던. 교사를 깰 수 있었던 측면에서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9월 17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h**

> 확장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동안은 그냥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텐데. 도대체 뭘 해?'였다면 이제는 '아 이것도 할 수 할 수 있겠네. 이것도 할 수 있겠네!'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확장된 것 같아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b**

보임의 메커니즘의 순서는 의무적 박수 → 교사의 시야 확장 및 의미 부여 → 학생의 수행 향상 → 학생 중심 활동 구성 → 학생의 수행 재향상 → 학생 중심 활동 재구성 → 응원의 박수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기계적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 순서마다 교사와 학생 사이 새로운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임의 메커니즘은 교사의 의무적 박수가 시발점이다. 박수는 하나의 행위지만 그 안에는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태도(uncondition

VOICEYE
voiceye.com

ed positive regards)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명제적 지식으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긍정적 반응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여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 대해 책이 아닌 실제 지도 상황에서 체험한 것은 학생과의 상호작용 증진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확신의 밑거름이 되었다.

> 어떤 사람이 보면 MATP가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과정. 사범대 공부하면서 교육과정에 배웠던 '교수자가 어떻게 학습자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대해 주고.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론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르다. 명백하게 무엇이 다르냐. 같이 했던 컴 앤 트라이에서 그 교수자가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액션이, 다음 수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자가 영향을 받더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h**

(3) 연대의 힘

교육활동은 혼자서 이뤄낼 수 없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활동은 더욱 그러하다. 교사들은 연대를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집단지성은 아이디어 산출과 정보 공유, 문제의 공동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지지는 지칠 때 서로를 끌어주는 힘이다. 특히 해당 집단의 성공 경험은 추후 집단의 재도전 동기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교사학습공동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연대를 구축하였다.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와 다르게 3개의 학교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통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MATP의 실행이 진행될수록 학교 운영진들은 각자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MATP를 진행하였고, 이는 모든 교수학습공동체 구성원에게 유익이 되었다. 즉, 이질적인 학교의 특성, 그 특성에 따른 현실 가능한 MATP 운영방식, MATP 성과 나눔 등은 정보 공유만으로 3개 학교의 MATP 운영진이 각자의 실행의 과정을 돌아보며 학교가 마주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각 학교의 MATP 실행과정은 생생한 실천적 지식을 생성함과 동시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보여줌으로써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되었다. 특히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MATP 현장지도자는 MATP 운영진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지금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진짜로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서 녹이거나 체육대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10월 1일 2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c

복지관에서 하신다는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챌린지데이 때. 이제 학생이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더니. 너무 오래 지체되고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더니 그분께서. 그것도 조차도 과정이고. 스포츠도 당연히 누구나 성공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MATP 할 때는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000선생님이 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빡시게 회의를 하지 그랬는데 오늘 들으니까 들었어야 했네요(10월 15일 3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h

교육적 연대는 학교 간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MATP 실행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했다. 각 학교는 MATP 실행을 위한 자체 동아리를 만든 뒤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이외에도 교사,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방역요원 등 다양한 교직원을 추가 인력으로 모집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의 구성은 MATP 운영진이 학교·교직 문화, 구조적 장벽과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극복해낼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되었다.

MATP 운영진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을 매개로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 MATP 운영을 위한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특히 나눔학교의 경우 MATP 동아리가 아님에도 자발적인 지원을 해주는 교사들의 도움을 우연히 받았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나눔학교의 든든한 MATP의 실행 기반이 되었다. 개별 교사만으로 실현시킬 수 없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그 안에 자발적 참여가 발생하면서 더욱 풍성한 공동체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공동체는 비공식 조직으로 언제든 쉽게 와해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뚫고 공동으로 성취한 경험은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씨앗'으로 심어졌다.

VOICEYE
voiceye.com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게 맞는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000부장님이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특지사(특수교육지도사)한테도 연수에서 보여줬던 영상? 너가 했던 영상? 유튜브 영상? 사복(사회복무요원)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방역팀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연수가 이렇게 다 된. 연수가 풀타임으로 다 된 연수는 저희 역사상 없어요. 모든 직종에게 연수를 하고 이걸 진행한 건 처음이야. 그래서 아까 박수를 쳐주신 거죠(10월 25일 함께학교 FGI)

연구참여자-d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것을 했고 그걸 느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9월 10일 1차 정기회의)

연구참여자-h

3) 해체의 시작 : 인본주의 교육실천

(1) 벗겨지는 정상성 신화

교사들의 앞선 경험과 같이 교육적 차이의 발견은 학생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경우 그 차이가 손톱이 자라나는 것처럼 미세하므로, 차이의 의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는 3개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한 이유와도 맥이 닿는다. 그렇다고 해서 MATP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콘텐츠 측면은 더욱 그러하다. 다만 MATP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환호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 방식은 교사들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특수교육의 기본을 일깨워주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도 충분히 환경 수정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지를 자각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해요. 제가 그만큼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걸 안 줬고. 이거를 준비해도 걔네들은 어쩌면은 못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MATP를 통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환경을 좀 바꿔보면은 얘네가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은 것 같기도 해요(10월 2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진짜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간과했던 중증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느낌인 거지(9월 13일 전화통화 내용)

연구참여자-d

내가 변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하겠어?'라는 나의 한계점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거 보고나니깐. '어!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9월 9일 우리학교 FGI)

연구참여자-h

MATP라는 공간의 주인공은 선수이다. 선수를 위한 활동과 절차, 상황이 기획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MATP를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선수에게 내어준다. 선수들은 성취의 박수를 받을 때 지도자는 주변부에 서서 환호를 한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MATP를 통해 '교육적 주체'로서 학습기회를 부여받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 선수 중심의 구조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 구성된 교육적 환경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이 '할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일부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왜냐하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위치시킨 교수학습계획은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하는 기존 수업 구성의 틀과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물론 학급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목표 아래 집단을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MATP처럼 개별 목표 수행 방식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MATP를 통해 교사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 즉 수업의 중심을 분산시켜 실제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을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수업 계획의 무게중심이 하나의 목표에서 도처로 분산되었다.

대신에 MATP 같은 경우에는 좀 포커스가 완전 중증장애 학생들에 대한. 진짜 얘네들이 체육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그 반 아이들도. 정말 가, 나, 다에, 3 곱하기 3 틀 안에 걔네를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 근데 그 3 곱하기 3 틀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반이 이제 000선생님 반이거든요. 00이, 00이, 00이. 그 친구들은 명확해요. 가, 나, 다가 명확하고. 학습 수준도 명확해요. 구

VOICEYE
voiceye.com

분이 됩니다. 근데 000선생님 반만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g

보통 한 스테이션을 3개 정도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이동 기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동휠체어 탄 친구들. 상지기능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혼자서 수동 휠체어로 한번 밀어보는 거 하고. 저희 꼬깔콘 위에 세워놓고 공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는 공 들고 저희 골대 같은 거. 낮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보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휠체어 탄 친구들은. 그리고 아예 못 움직이는 친구들은 공 들고 이렇게 안고 있는 거를 진행해요(11월 5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i

물론 현실적인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모든 학생이 동시에 교육적 주체가 되는 교실환경은 이상적인 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업의 중심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흩트리는 것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일 수 있다. 또한 간헐적이지만 연구 수업처럼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수업의 구성도 시도해볼 수 있다. 우리학교의 사례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더라도 충분히 경증장애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전과 다른 방식을 시도할 때 의도하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의미의 발견은 차이가 발생할 때 시작된다.

중증장애 학생들도 수업에 한 역할을 가진 주체로서. 물론 수업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수업을 도와주고 하면서 자기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런다면 연구 수업의 목적으로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들도 반에서 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2) 나와 교육활동의 일체화

MATP는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성취 경험의 계기이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려는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교사들은 전문성을 획득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두고 기획한 내용과 그들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안한 수정과 변형된 프로그램, 학생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박

수와 응원의 힘을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들은 MATP 지도 행위가 본질적으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특수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했다는 측면에서 '특수교육다운 교육활동을 제공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 나는 특수교사로서 처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분? 오랜만에?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니. 아이들을 따로 배제해서 무언가를 막 계속 하고 이런 것보다. 전체 속에서 하나 또는 따로. 또 같이 하는 느낌이었으니까(10월 29일 전화통화 내용)
>
> **연구참여자-d**

> 마음에 좀 보람이 있죠. 만약에 그냥 수업.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수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수업을 좀 더 학생에게 맞게. 정말 특수교육답게 해줬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수교육이 사실은 원래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합동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는 너무 심한 중증·장애 학생은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뭔가 활동이. 모든 활동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잖아요(11월 1일 개별인터뷰)
>
> **연구참여자-a**

스포츠 상황을 기반으로 구성한 MATP에서 학생의 퍼포먼스를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코치가 선수를 바라보는 것과 유사했다. 외부자의 눈에는 너무 단순한 활동으로 보이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노력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수행에 깊이 몰입했다. 학생의 성취는 곧 교사의 성취와도 같았다. 교사는 퍼포먼스에 성공한 학생을 보며 기뻐서 뛰고, 환호하며 울컥하기도 했다. 이 순간만큼은 학생과 교사가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었다. 학생의 성취에 대한 몰입은 교수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교수활동이라는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교수활동의 대상인 학생과 일체화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일체화는 매우 은밀한 순간 발생했다. 둘만 알 수 있는 깊은 공감의 순간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의 실존적 만남으로 이끌었다. 즉 MATP의 실행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영혼을 배려하는 실천행위였던 것이다.

>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말 못 하는 초등 저학년 한 명이 농구공을 탁 넣고 절 보면서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그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VOICEYE
voiceye.com

농구공 탁 놓고 제가 막 '와와와!' 막 이렇게 좋아해 줬는데. 그다음 농구공을 넣은 다음에 저를 딱 보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와와와!' 해줬을 때, 씩 웃으면서 다시 농구공을 막 잡으러 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11월 9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인간 대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막 선생님이라서. 내가 너무 너를 가르쳐서 잘했어. 막 너는 나의 코치로 이거를 성취한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11월 1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c

그 아이를 지지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은 그 친구가 온 힘을 다해서 한 행동임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그렇게 공감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대견하고. 대견한 애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치유받고 그렇더라고요(9월 17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h

(3) 벽을 넘어 퍼지는 소문

본 연구에서는 3개 학교가 각기 다른 형태의 MATP를 운영했다. 프로그램 진행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충분한 인력이 없다면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시행하기 어렵다. 다행히도 3개 학교 MATP 운영진은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8명과 함께 각 학교 MATP 운영진과 동아리 회원, 혹은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와 자원봉사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방역요원)까지 포함하여 약 30명이 넘는 교직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대부분 참여자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성에 기초하였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의 필요성에 동의한 자발적 참가자이었다. 참가자들은 MATP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즉 중도·중복장애인의 몸을 무기력하고, 할 수 없는 몸이 아닌 적절한 환경과 조건,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몸'으로 이해하였다. 30명은 3개 학교 교직원의 수에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에 대한 대안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서 얘가 이거를 진짜 재미있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 확실히 그냥 몸이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되는구나?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끼니까. 그래도 점심시간을 시간 쪼개고 막 이래서 같이 했는데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11월 4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q(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안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그럼 하지 말지 뭐.' 이러고 또 이제 다른 거 해버리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000선생님이랑 공 던지는 거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 얘가 계속하면 뜨문뜨문이지만.' 화목 이틀이었잖아요. 뜨문뜨문이지만 계속하면 던지는 자세도 바뀌고 던지는 힘도 생기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했었어야 하는구나.' 내가 너무 일찍 내려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11월 2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j(동료교사)

오늘 음악 시간에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운동기구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북을 한 번 치더라도 정말 옆에서 반응해 줄 수 있고, 호응해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것들을 조금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MATP) 경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맞춤 교육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11월 4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n(특수교육지도사)

MATP에 대한 만족도는 MATP 운영진을 넘어 학교 전체로 조금씩 확산되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MATP와 결합한 운동회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결과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MATP와의 접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내년에도 MATP와 결합한 형태의 운동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만나는 방역직원들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피드백은 MATP의 소문이 퍼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VOICEYE
voiceye.com

사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교직원들이 한 22명 정도 응답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한 80% 이상은 내년에도 이런 미니올림픽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MATP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왜냐하면, 중증장애 학생들이 실제로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중증장애인 포함해서 너무 즐거운 체육대회였던 것 같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11월 8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e

이 학생은 하교 후 매일 물리치료, 작업치료 후 귀가하는데, 중증장애가 있다 보니 학교와 치료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어 울면서 집을 들어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들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께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MATP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미니올림픽을 했음을 말해주자, 금목걸이와 꽃다발, 상품도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니올림픽 참여 사진을 보시고 '우리 00이 너무 예쁘네요.'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하교할 때 울면서 집에 들어가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도움이 많이 필요해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인데 활짝 웃으며 귀가를 하였다니 두 시간을 위하여 준비한 한 달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11월 5일 연구참여자 성찰일지).

연구참여자-f

물론 지금까지는 MATP의 빛나는 면을 살펴본 것이다. 모든 것에 명암이 있듯 MATP 운영에 대한 어려움 역시 산적해 있다. MATP의 실행을 사람이 하듯 MATP의 어려움 역시 사람과 관계되어 있다. 교육과정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함께학교를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MATP 운영에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내비쳤다. MATP가 가진 가치와 장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위한 수고스러움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 너무 공감하고. 이번에 하면서 잘 느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려면 지체반,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 반이 따로 구성되거나. 특별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11월 2일 개별인터뷰)

연구참여자-b

> MATP를 올해 중학부에서 적용을 했는데 내년에 이 선생님들이 다른 곳에 가면 음. '어떻게. 이 MATP라는 게. 그대로 이 공간. 이 학교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죠. 우리도(10월 15일, 3차 정기회의)
>
> **연구참여자-h**

MATP의 재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모든 연구참여자는 MATP가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선수와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3개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 자발적인 교사학습공동체를 이루고, 약 30명이 넘는 교직원이 단합하여 능동적으로 MATP 운영한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온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다. 이뿐 아니라 MATP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동료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인력에게 공감대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비록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겹겹으로 높이 서 있으나 MATP에 대한 웃음소리만큼은 그 너머로 퍼지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료담론 아래 '할 수 없는 몸'으로 재현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의 의미를 해체하고, '할 수 있는 몸'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은 A도의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와 협력하여 MATP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학교 특성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실행된 MATP는 모든 연구참여자를 반성적 사고로 이끌었다. MATP를 실행하면서 연구참여자는 계획의 수정과 실행을 반복하였고, 이런 순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교육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다. 이 성찰은 교사에게만 그친 것이 아닌 MATP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확산되었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의 의미가 '할 수 있는 몸'으로 재형성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록 학교 안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존 담론이 대안문화와 교섭하는 과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에 대한 인식이 재건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실천적 행위의 실행을 통해 자기변혁을 이루면서 새로운 주체성과 조우하게 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VOICEYE
voiceye.com

1. 권력의 이양 : 보이는 차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인다는 것, 즉 가시성(visibility)은 권력과 결부되어 이해되어 왔다. 권력을 가진 자의 눈에는 이미 감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시선이 그렇지 못한 자에게 닿으면 그들은 통제받는다. 대표적으로 Foucault는 파놉티콘을 통해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원리에 따라 피권력자가 규율권력을 내면화하고 순응하는 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감옥뿐만 아니라 군대, 병원, 학교 등과 같은 공간, 나아가 우리 사회 전역에 파놉티시즘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가시성을 조금 비틀어서 이해하면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현준(2021)은 '공간과 권력의 제1원칙'으로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곳에서 권력이 발현된다고 제안하였다. 즉 다수의 시선이 모이는 곳을 향해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 내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 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 사회에서 장애인이 가지는 권력이 작음을 함축한다.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가진 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서도 가장 권력이 적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보이지 않는다.

MATP를 기획,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보임'이다. 분명 학생들은 어제와 동일하지만, 오늘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교사들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이 가진 의미가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통찰에서 보임과 권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임의 권력에 따르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가진 움직임의 의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보여야 한다. 다른 말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가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권력은 낮아지고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권력을 얻어야 한다. 큰 권력 앞에 작은 권력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표현하는 움직임의 의미는 뜨거운 격려가 동반된 '의도된 타자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교사가 가진 권력 중 일부가 중증장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양(移讓)되어 드러난 것이다. 학급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 참여가 아닌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계획한 교육환경과 활동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무대 위에 올라선 주인공이며, 그러한 시선 속에서 교사들은 차이 곧 학생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2. 역발상의 접근 : 도처로 흩어진 교육실천의 중심성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 계획은 교육적 목표, 즉 달성하기 위한 한 단위의 수업 목표에서 시작한다. 학습목표가 수립되면 목표와 관련 있는 학습경험을 계획한다. 그리고 학습경험을 조직할 때 관례적으로 가, 나, 다군으로 학습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에 필요한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이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절차이다. 주로 다군에 포함되고 전체 단계를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서 부분참여의 원리를 적용한다. 전체 활동 절차에서 일부 단계라도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계획 절차는 표면적으로 매우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Tyler 목표중심 교육과정 모형을 하나의 수업단위에서 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목표의 달성을 수업의 궁극적 미덕으로 간주하는 경향(박채형, 2008, p 28)'을 지향한 수업 디자인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실, 교육과정과 단위 수업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 운영방식의 이면의 논리를 살펴보면 방향과 속도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계획 초기에 설정한 전체 학습목표는 어느덧 하나의 도달해야 할 규준이 되고, 교사와 학생들은 합리성이라는 틀 아래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속도로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현실적이지만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절차가 어떠한 기준 안으로 활동이 포섭되도록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어딘가 도달해야 할 규준과 같은 정상성을 향해 교정, 치료, 개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장애담론 중 의료모델과 그 맥이 닿아있다(Degener, 2016). 문제는 여기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규준에서 가장 멀리 있고,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하나로 정해진 방향을 향해 걸어갈 경우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다.

MATP를 통해 교사들이 경험한 것은 수업 목표에 대한 중심이 흩어지는 것이다. 즉, 수업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가운데로 들어선다. 그리고 권력의 이양으로 인해 드러나는 차이를 기초로 하여 그들에게 최적화된 활동을 기획한다. 단순히 기능적 향상을 위한 과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적 피드백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즉, 이러한 과정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스포츠활동을 주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하위문화로 인정하는 것이다. MATP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부분참여가 아닌 완전 참여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MATP의 관점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찾지 않는 대신, 사회적 장벽의 해체를 요구하는

KCI VOICEYE voiceye.com

사회모델(social model)과 그 결을 같이 한다(Shakespeare, 2006/2013). 분산된 중심은 위, 아래가 아닌 수평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의 고정된 중심성을 향해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린 것이 아닌 도처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교육실천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체계적으로 기획될 경우 실행가들은 '과학적'으로 보이는 교수행위로 인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과학이라는 천으로 몸을 두루면 학교의 경영이 비능률적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한다(Eisner, 1979/1983, p 147) ."와 같이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싶은 학교장처럼 말이다. 하지만 단일한 중심성을 지향하는 것은 Tyler 식 교육과정 모형이 교육활동을 수단으로 삼아 목표 달성에 집중한 것과 같이 특정 규준을 정해 놓고 동일성 안으로 포섭하는 의료담론의 작동 기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MATP의 실행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수업의 중심성을 개별 학생을 기준으로 흩어버릴 경우 수업의 체계성을 일부 상실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이 가진 차이가 드러나도록 한다. 학생마다 드러나는 차이자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Deleuze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의 발견은 곧 기존의 지배적인 도식을 무너트리는 힘이자 새로운 앎을 제공한다(박영욱, 2009). 도처로 흩어진 중심성으로부터 차이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은 결국 특수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자 새로운 앎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단연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내 존재하는 다름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적 행위는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총체성에서 벗어나 중심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실천을 호소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3. 인식과 실천 - 실행을 통한 자기 배려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기존의 황상현 외(2020)의 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할 수 없는 몸'에서 '할 수 있는 몸'으로 재구조화되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MATP의 특징들은 스포츠 상황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미 교사들에게 익숙한 내용이다. 당사자 중심의 교육활동,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은 특수교육 전공 4년의 학부과정과 임용 시험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접했던 지식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과 격려가 학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의 격률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왜 교사들은 MATP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의 확장과 교사로서의 위로를 경험하였을까? 이는 Foucault가 제안한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Foucault, 2001/2007).

자기 인식(Gnothi seautin-너 자신을 알라)은 '데카르트의 순간' 이후 자기 의심 없는 자명성을 지향하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자기 인식은 철저히 자기 배려 안에서 허용되는 하나의 결과이었다. 자기 배려가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 인식 역

시 올바른 행동과 연계될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진실한 주체성은 인식하는 것을 행위로 옮길 때 형성된다. Foucault는 이러한 관점을 확대하며 행위를 통해 생산해내는 주체성을 강조하며 행동철학을 제안한다. 고대인들이 주체에 대해 질문할 때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나는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와 같이 실천해야 할 행동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발견하여 자기 배려에 입각해 끊임없는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Foucault가 주목한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주체화 방식은 자기배려의 정언적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가 아닌 '자신이 잘 행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Foucault, 2001/2007).

MATP를 운영한 교사들은 이미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현실적,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이상으로 인식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된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특히 효율·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교수학습지도안과 부분참여 원리는 특수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식형태이고, 그 외에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다. 즉,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지식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유리된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MATP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였다. 자기배려의 관점에서 보면 MATP 기획, 관리, 운영 등의 모든 절차는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자발적으로 형성한 각 학교의 운영진이 가지는 근원적인 조직의 불안정성은 MATP를 운영하는 교사를 끊임없이 그들의 행위를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교사에게 이러한 성찰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나는 어떻게 MATP를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까웠고, 실행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나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변화된 주체성을 형성해나갔다면, MATP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수행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진심어린 박수와 응원을 통해 지식과 행위가 일체화됨을 경험함으로써 특수교사로서의 고유한 주체성을 구축하였다. 이는 주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에 몰두한 것이며, 이는 곧 자신에 대한 배려의 행위이었다. 자기 배려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과 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들은 타자인 학생과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하나의 통일화된 주체성이 아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문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VOICEYE
voiceye.com

이 연구는 의료담론에 의해 은폐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가진 몸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비판적 실행연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3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구진은 MATP라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행하였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계획된 타자 중심의 교육활동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별로 운영진을 구성하여 MATP를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학급 내 권력의 이양을 통해 학생의 변화에 가시성을 부여했고, 전체 학습 목표가 아닌 개별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면서 교수학습활동의 중심을 분산시켰다. 그 결과 MATP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몸을 '할 수 있음'으로 인식하면서 사회 내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대안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끊임없는 실행과 반성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타자 중심의 교육 실천은 단순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를 변화시켜 이전과 다른 진실한 주체와의 만남으로 이끌었다.

이 연구에서 MATP의 실행은 3개 학교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실천지를 발굴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MATP 실행에 대해 일회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종단적 접근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담론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특수학교와 사회의 연결지점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사회 내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는 특수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태를 묘사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도·중복장애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는 교사들의 실행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중도·중복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실행을 통해 '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 사회의 불평등을 성찰하고 해소하려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현대 사회의 시민은 진실한 나, 고양된 영혼을 가진 주체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구, 이하영, 복헌수, 권휘정, 임경원. (2019). 특수교육 분야의 실행연구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2(2), 135-155.

고진복, 이경일, 전병운. (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경험: 현상학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405-429.

국립특수교육원. (2012).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2013).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기초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김미옥. (2009).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적용과 유용성. 한국사회복지학, 61(3), 179-204.

김은주, 강영택, 권택환, 이인. (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1), 163-185.

김정연, 박은혜, 표윤희. (202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 실태 및 개선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5(4), 83-113.

김진숙. (2015).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63-490.

나인정, 이미숙. (2021).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중도·중복장애 학생 통합교육 경험 및 지원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4(1), 135-154.

박경옥. (201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운영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18(2), 259-282.

박선미, 김은라, 박재국. (2020). 중도·중복장애학생 수업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지원요구. 교육혁신연구, 30(3), 1-21.

박영욱. (2009). 데리다 & 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경기: 김영사.

김주선, 한경근. (2018). 중도·중복장애 관련 장애 명칭과 교육 특성 분석: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중재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3(2), 207-229.

박채형. (2008).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 : 매력과 함정. 도덕교육연구, 20(1), 27-48.

성열관. (2006). 교육과정 실행연구의 성장과 주요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24(2), 87-109.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7). 중증발달장애인운동프로그램 MATP 지도서. 서울: 한림기획.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9). 2019스페셜중증발달장애인운동프로그램 지도자 세미나. 서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1). SOK 종목별 영상 매뉴얼. 서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여형남, 박혜인, 신정순 (2018).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283-294.

유현준. (2021). 공간의 미래. 서울: 을유문화사.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하는 실행연구 방법. 서울: 학지사.

이희연, 김경양, 표윤희. (2018).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25(2), 152-175.

정낙림. (2006). 주체의 계보학. 철학연구, 98, 269-294.

조용환. (2015). 현장연구과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 곽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서울: 학지사.

표윤희, 이희연, 김경양. (2017). 일반학교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 경험 및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2), 33-61.

황상현, 한범석, 노형규. (2020). 중증장애인운동프로그램(MATP) 참가자들의 경험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8(2), 85-103.

황상현, 노형규. (2021). 발달재활서비스에서 건져 낸 특수체육의 가치와 가능성: 성인기 자폐성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경험 이야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2), 99-116.

Boyd, K. A., & Goodwin, D. L. (2019). “It’s hard when people try and get their kids a way from cole”: A family’s experiences of (in)dignity in leisure setting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36,* 223-241.

Carr, W., & Kemmis, S. (1986). Becoming critical education,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Lewes, Sussex: Falmer Press.*

Degener, T. (2016). Disability in a human rights context. *Laws. 5(3)*, 1-24.

Eisner, E. W. (1979).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이해명 역.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Feiman-Nemses, S., & Floden, R. E. (1986). The culture of teaching. *NY: Macmillan P*

ublishing Co.

Foucault, M. (2006).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역. 서울: 이매진. (1963).

Foucault, M. (2007).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서울: 동문사. (2001).

Greenwood, D. J., & Levin, M. (2007). 사회개혁과 교육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입문. 변기용 역. 서울: 학지사.

Shakespeare. T. (2013). 장애학의 쟁점. 이지수 역. 서울: 학지사.

Smith, J. A., Flowers, P., & Larkin, M. (2009).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London: Sage.*

Special Olympics. (2005). Special Olympics Motor Activities Training Program Coaching Guide. Retrieved from https:/digitalguides.specialolympics.org/matp/index.php?_ga=2.3224816.1519834408.1585273818-873047244.1584774303#/2.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Critical Action Research for Alternative Special Education Practice

: Focusing on sports activities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ang-Hyun Hwang*·Jeong-Hwan Jeong·Gun-Hwan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vealing the potential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SMD) hidden by medical discourse and forming a alternative discourse called 'A body that can do it'. To this end, a critical action research as a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o directly fac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s surrounding on-the-ground problems, and to deconstruct and reorganize it through practical actions. Research team and a teaching-learning community(TLC) implemented a sports activity called 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MATP) for students with SMD. 8 members of the TLC, 4 fellow teachers and 6 assistant staffs, a total of 18 participants were selected. In-depth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participants' reflection diaries, regular meetings of the TLC, and MATP operating plans and result report documents were also collected. After all the research data was transcribed, it was analyzed using the 6-step thematic analysis process of idiographics among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ivid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s MATP oper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research pa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h.D. Candidate
** Chuncheon-dongwon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Doctoral student

rticipants' perceptions of educational activities with SMD. The categorical words of the c ognitive change process were 'Unsolved problem: teaching-learning activity(TLA) with SM D like maze', 'Unconditional positive applause: Intentional others-centered TLA', and 'Th e beginning of deconstruction: Humanistic educational practice'. The implementation of others-centered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with SMD had a number of limitations in reality. Nevertheles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ATP, the research participa nts gave visibility to changes in students through the transition of power within the class, and dispersed the center of TLA while establishing goals that individual students could pe rform rather than the overall learning goals. The participants in MATP recognized the bo dy of the student with SMD as 'can do it',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 alter native discourse about persons with SMD. At every moment, the research participants co nstantly repeated execution and reflection. Others-centered educational practice was not only an educational act for students with SMD, but also changed the teachers themselves, leading encounters with genuine subjects. A person who experiences SMD can be reborn as a 'can-do subject' through practice to remove social barriers. This benefits not only p eople experiencing disability but also the doer. Thorough practical actions to reflect on a nd resolve social inequality, citizens of modern society will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 he true subjectivity and the subject with an enhanced soul.

Keywords : Critical Action Research, MATP(Motor Activity Training Program),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y(SMD), Teaching-Learning Community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2호)

발행처 한국장애인재단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성규
전화 02)6399-6235
팩스 02)6399-6238
홈페이지 https://www.herbnanum.org/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순화동 바비엥3)
인쇄처 타라티피에스 그래픽스사업부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백은령(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 원 공마리아(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권선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자(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